

여성학연구

2025년 제35권 1호

논문

한국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 2000년대 일본 거주 미등록 제주여성의 구술 분석을 중심으로 | 이혜진

리얼리티 TV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젠더 재현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중심으로 | 엄빙빙

연극계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 미투 운동 이후의 젊은 연극인들에 대한 사례연구 | 김선기

언론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정당화 담론장 | 정현희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 권수현

포토보이스 연구를 활용한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의 경험에 대한 탐색 | 신유리

정동적 조율을 통해 본 돌봄노동자의 인지증(치매) 연명의료 돌봄 | 정종민

일본 근세 배경 작품 속 여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오오쿠(大奥) 작품 속 여성인물의 SDGs 공헌과 발전방향 과제 | 김정호

『東野彙輯』 「婦女部」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의미 | 이강석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35권 제1호 | 2025. 4.

Vol.35. No.1. | 2025. 4.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목차 |

논문

- 이혜진 | 한국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 2000년대 일본 거주 미등록 제주여성의
구술 분석을 중심으로 7
- 엄빙빙 | 리얼리티 TV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젠더 재현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중심으로 41
- 김선기 | 연극계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 미투 운동 이후의 젊은 연극인들에 대한 사례연구 69
- 정현희 | 언론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정당화 담론장 111
- 권수현 |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143
- 신유리 | 포토보이스 연구를 활용한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의 경험에 대한 탐색 179
- 정종민 | 정동적 조율을 통해 본 돌봄노동자의 인지증(치매)
연명의료 돌봄 223
- 김정호 | 일본 근세 배경 작품 속 여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오오쿠(大奥) 작품 속 여성인물의
SDGs 공헌과 발전방향 과제 263
- 이강석 | 『東野彙輯』 「婦女部」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의미 303
-

이혜진 | 한국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 2000년대 일본 거주 미등록 제주여성의
구술 분석을 중심으로

엄빙빙 | 리얼리티 TV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젠더 재현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중심으로

김선기 | 연극계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 미투 운동 이후의 젊은 연극인들에 대한 사례연구

정현희 | 언론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정당화 담론장

권수현 |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신유리 | 포토보이스 연구를 활용한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의 경험에 대한 탐색

정종민 | 정동적 조율을 통해 본 돌봄노동자의 인지증(치매)

연명의료 돌봄

김정호 | 일본 근세 배경 작품 속 여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오오쿠(大奥) 작품 속 여성인물의 SDGs 공헌과
발전방향 과제

이강석 | 『東野彙輯』 「婦女部」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의미

한국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 2000년대 일본 거주 미등록 제주여성의
구술 분석을 중심으로

이혜진*

| 목차 |

- | | |
|--------------------|------------------|
| 1. 서론 | 2) 이주의 반복성 |
| 2. 분석시각과 연구방법 | 3) 이주의 파트너 |
| 1) 연구대상과 분석시각 | 4. 제주여성의 일본에서의 삶 |
| 2) 연구방법 | 1) 노동 경험 |
| 3. 제주여성의 이주 계기와 과정 | 2) 삶터로서의 일본 |
| 1) 이주 결정의 계기 | 5. 결론 |

| 초록 |

이 연구는 '이주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2000년대 일본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생활하던 제주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한다. '이주 아비투스'란 특정 지역에서 이주와 이동을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제주 여성들의 일본 이주는 남편의 사업 실패, 빚 보증 등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20세기 초부터 이어진 제주도민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제일제 주인 네트워크와 관광 비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합법적인 경로가 어려운 경우, 밀항이나 관광 비자를 이용한 노동이주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노동시장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여성들은 식당, 호텔 청소, 파킨코 환전소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했다. 제주여성들은 일본 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동향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과 정착이 용이할 수 있었다. 귀국은 자발적 귀국(자수) 또는 강제송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귀국 후 한국 사회에서의 재적응이

* 경남연구원 portsait@gmail.com

쉽지 않기도 했고, 다시 일본으로 이주하려는 열망을 보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제주 여성들의 노동이주가 젠더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경제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강조한다.

주제어 : 제주여성, 이주 아비투스, 동향 네트워크, 경제적 위기, 젠더화된 노동이주, 라이프 스토리

1. 서론

현재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나라였다.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한 한국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족계획을 시행했고, 당시 한국에는 해외로 이민(emigrant)을 떠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정기선, 2016: 257). 더욱이 한국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발급이 쉽지 않았던 여권을 용이하게 만들고 일본정부로부터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 대부분은 ‘관광 비자’의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미등록 체류 상태로 생활하며 노동하고 있었다(이혜진, 2014: 2). 특히 일본으로의 이주의 흐름은 제주도에서 더욱 독특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해외 노동이주,¹⁾ 구체적으로는 일본으로 이

1) 노동이주(labor migration)란 한 나라의 국민이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뜻한다(이규용, 2016: 2016).

주노동을 떠났던 미등록 체류 상태의 제주여성들의 이주경험에 대해 구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 여성의 해외 이주노동의 역사의 한 대목을 분석함으로써 젠더화된 이주의 방식과, 그들의 이주를 구동하는 역학 및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을 확장하여, 제주도민에게 축적된 반복적 이동 경향을 ‘이주 아비투스’로 읽어보고자 한다. 이는 일본으로의 이주를 자연스럽고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제주여성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분석틀로 기능할 수 있다.

일본으로의 노동이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민들은 경술국치(1910년 8월 29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이주노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1922년에 ‘군대환(君が代丸)’이 오사카와 제주도를 연결하게 되면서부터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가 더욱 쉬워졌다. 1934년에는 일본으로의 이주자와 제주도로의 귀환자를 합한 수가 약 5만 명을 기록하여 제주도 인구의 25%에 달하게 된다. 제주도민들의 빈번한 일본 이주에 따라 제주도의 농업경제는 파괴되고 점차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재편되었다. 일본을 오가던 제주도민의 대부분이 생산가능인구였기 때문에 일본 이주로 인한 제주도내의 노동력 부족 상황은 심각해졌지만 일본에서 제주도로 보내오는 송금 덕분에 제주도 전체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栞田, 1976: 111-115). 당시 제주도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일본으로의 노동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상황과 제주도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玄武岩, 2007: 165).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던 ‘바다를 걸친 생활권’(梶村, 1985)은 일본 패전 이후 설정된 국경선으로 인해 왕래가 제한되었지만 이미 구축된 ‘수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되어 ‘국경을 걸친 생활권’으로 전환되었다. 해방 후에 제주도로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귀환했으나 한반도의 식량난, 콜레라 창궐 등 사회적 혼란을 비롯하여 정치적 불안이 격렬해지자 그 이듬

해부터 다시 일본으로의 이주가 활발해졌는데(玄武岩, 2007: 165) 이주 방식은 주로 밀항이었다.²⁾ 이런 와중에 1948년에는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으로의 이주에 박차가 가해졌다. 예를 들면, 1948년 6월과 8월 사이에 에히메현(愛媛縣)으로 밀항한 조선인 290명 중 281명이 제주도 출신자였다고 한다.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일본으로 정식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입국 수속이 번잡하였기에 밀항이 지속되었다. 1970년에서 1974년까지의 한국인 ‘불법입국자’는 74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에 제주도 출신자가 608명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으며, 1980년대에도 여전히 밀항자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출신자로 밝혀졌다. 『아사히신문』 기사에 따르면, 1984년의 일본으로의 밀입국자는 412명, 대부분이 한국 출신이고, 나가사키에 있는 오무라(大村)수용소에는 여성 19명을 포함한 75명이 송환대기 상태에 있는데, 이 중 95%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보도했다(양인실, 2013: 84-85).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했으며, “재일제주인 덕분에 제주도가 발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일제주인은 제주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이혜진, 2014: 224). 재일제주인들은 자신들의 이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진 고향에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일 후 자신의 성공한 삶을 전하기 위해서 현금과 현물 등 ‘고향 기부’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김치완, 2024: 205).³⁾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농촌개혁사업, 촌락발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부와 지원을 했다(이혜진, 2014: 224). 제주도에 사는 사람 중에 재일제주인의 기부나 기증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2) 일본 패전 이후,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지령에 따라 조선인 귀환자의 일본으로의 재이주가 엄격히 규제되었지만,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다(양인실, 2013; 이혜진, 2014: 12).

3) 재일제주인의 ‘고향 기부’와 투자는 제주도정의 요청이기도 했다(이혜진, 2014: 12).

나 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재일제주인의 기부나 기증으로 수혜를 받은 제주도민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생활개선과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제주도 전체로는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초기자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김희철·진관훈, 2007: 108).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사회가 재일제주인의 지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도하였다. 당시 제주도민에게 재일제주인은 ‘유복한 나라에서 온 손님’같은 인식이 있었고 재일제주인뿐만 아니라 ‘밀항’으로 일본으로 간 사람들과지도 마을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조성운, 2005: 93). “개는 정말 촌에서 클 땐 아무것도 아니었지. 지금은 동창생들 앞에서도 쩡쩡하지. 그러니까 돈이 큰 거야”라는 실감, 그리고 “밀항으로 일본에 가서 번 돈으로 5년 후에 고향에서 두 번째로 큰 밭을 샀다”는 자신의 가까이에서 목격되는 성공사례는 제주도민들의 일본 이주에 대한 열망을 높여갔다(이혜진, 2014: 224). 게다가 제주도민 대부분은 일본에 동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일제주인들은 물품이 부족한 제주도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식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약품 등 “보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보내왔다. 재일제주인의 행위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제주사회의 가시적 변화 속에 성장한 제주도민들은 일본을 생활세계의 일부로 여기게 된다. 제주도민들의 사고방식 속에 일본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민 송출 커뮤니티에서 커온 아이들은 친척과 이웃들의 생활양식을 통해 해외 노동이 주로 채택된 행동양식을 몸에 익히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佐久間, 1998: 161-162). 이렇게 제주도민들에게는 일본이 ‘동경의 장소’이자 ‘가능성의 장소’로 체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제주도가 경제적 발전을 이뤄가고 있었고, 재일제주인에 대한 물질적 원조 요구도 감소하였기에 재일제주인의 ‘특별한’ 이미지도 점차 약해졌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재일제주인들의 기부와 기증은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⁴⁾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1982년 7월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1985년 이후에는 ‘친척방문비자’의 발급으로 합법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1989년에는 ‘해외여행 완전자유화’에 의해 해외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제도의 변화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한층 손쉽게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어졌다. 재일 제주인과의 돈독한 관계는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제주도민들의 ‘역사성을 담지한 멘탈리티’는 일본을 자신과 ‘상당히’ 친밀한 장소로 상상하게 했고 (이혜진, 2014: 225-226), 그 상상력, 제주도민의 집합기억에 따른 상상력이 노동이주라는 행위의 발판이 되어 소득 증가와 현실 도피 등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대를 열망하는 관념들을 생성해내고 있었다(Appadurai, 1996). 이렇듯 일제강점기부터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제주도민들은 이주와 송금을 통해 고향 경제를 지탱해왔다. 이 과정은 제주사회 전반에 일본을 ‘생활세계’의 일부로 상상하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연구자가 인터뷰한 제주여성들의 일본 이주에도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2. 분석시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분석시각

이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제주여성들의 일본 이주경험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제주여성들은 지리적으로도 젠더적으로도 주변(인)으로 간주되어 왔었지만, 이주노동을 감행하게 되면서 제주도에서의 삶을 벗어나 집

4) 제주도와의 강렬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재일제주인 1세의 수적 감소와 맞물려 제주사회에서는 재일제주인을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 여기며 재일 제주인의 기부와 기증에 대해 무성의한 대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재일제주인들은 제주사회에 대한 기부나 기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김희철·진관훈, 2007: 102).

안의 생계부양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가족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된다. 더욱이 이주한 곳에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 및 미래 기획 까지 꿈꾸고 있었다. 초국가적인 가족관계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성의 이주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어 연쇄이주를 유발하는 통로가 되고 (Mattingly, 2001),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이주여성의 네트워크와 가족관계는 이주여성의 선택을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이주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정현주, 2008: 900). ‘이주의 여성화’는 국제 이주자의 여성 강제 현상으로도 지적되는데, 일본으로의 미등록 체류 한국인 여성들에게서도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국제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며 가사노동을 비롯한 감정노동 영역이 급속히 상품화되는 현실과 연결되어 진행되었다(김현미, 2006: 15). 여성들의 국제 이주는 여성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이주 체제, 이주 제도, 개별 이주자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Kofman, et. al, 2000; 김현미, 2006: 16 재인용). 오이시는 출신국가의 이주노동 정책이 여성 이주노동의 양상에 큰 차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으나(Oishi, 2005),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의 일본 이주는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일본의 ‘관광 비자’ 발급 확대가 맞물려 일본 입국의 기회가 창출된 것이다. 이는 송출국-유입국/출신국-목적국 쌍방의 출입국 정책 및 비자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한일 간의 관광제도로 인해 한층 용이하게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된 여성들은 일본에서 정착하여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이주 공간에서 숙소와 취업을 구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만난 2000년대 일본에서 미등록 노동이주를 경험한 제주여성들은 일본을 생활권의 일부로 상정하고 살아온 여성들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연스레 일본이라는 공간, 혹은 기회, 선택이 자리잡고 (positioned) 있었다. 그들에게 발견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이주 아비투스’

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아비투스*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 체화된 성향으로, 이는 개인의 무의식적 행동과 판단을 이끈다. 이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영속적이면서 동시에 변화 가능한(*dispositions durables et transposables*) 성향들의 체계로서, 객관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동시에 그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979/2005: 12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지역사회에서 이주가 반복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현상 또한 하나의 *아비투스*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이주 *아비투스*’로 개념화하여, 제주도민들이 일본 이주를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성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이동 실천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민들이 일본을 ‘가능성의 장소’로 상정하며 이주를 반복하는 경향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집합기억과 경험을 통해 체득된 이동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적극적 수용적 태도를 나타낸다. 제주여성들의 이주 결정은 구조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강력히 작용했기에, 이들의 이주 실천을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이주 *아비투스*’는 이주 행위의 경향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장’에서 여러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본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을 한다. 부르디외는 이 투쟁을 일종의 게임으로 보았고,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 각 행위자들은 장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rules of the game*)을 습득해야 하며 여러 가지 전략(*strategy*)을 구사하게 된다(1979/2005: 174). 이때, 행위자들이 구사하는 전략의 성격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그들의 삶의 궤적, 그리고 *아비투스*에 따라 달라진다(이상길, 2001: 17; 이성희, 2013: 155 재인용). 따라서 이 연구는 *아비투스*를 행동 양식의 경향성으로 이해하고,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라는 노동시장에서 제주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이주를

선택하고, 미등록 체류라는 제약 속에서도 노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실천은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제약과 장의 규칙 속에서 작동한, 그들 고유의 이주 아비투스¹가 가능하게 한 결과였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아비투스를 통해, 제주여성들의 이주 실천이 어떻게 구조적 조건과 내면화된 성향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Massey et al.(1987)은 멕시코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 이주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강화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부에서 이주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규범과 미래 경로로 자연화되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주가 개인의 경제적 선택이라기보다, 공동체 차원의 문화적 기대로 전환된다는 것을 밝혀냈다(Massey et al., 1993: 453).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제주여성들의 일본 이주를 개인적 차원을 초월한 사회적·문화적 실천으로 분석하며, 이를 ‘이주 아비투스’의 관점으로 살펴본다.

2) 연구방법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삶·경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결혼이주가 아닌 방식의 여성 이주에 대한 연구나 한국 여성의 해외 이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해외의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가 대부분 노동이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특수성을 보이지만(정현주, 2008: 897), 이 논문은 한국 여성들의 노동이주, 더욱이 미등록 체류 상태로 해외에서 노동했던 한국 여성들의 이주과정과 경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 여성의 이주의 역사를 내러티브/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해석하여, 한국인의 해외 노동이주에 대한 귀적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주의 결정이나 실행에는 각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이 여성의 해외 노동이주를 허용하는지와 밀접히 관련 되지만(김민정, 2011),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는 제주도의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 낸 ‘국경을 넘는 관계성’이 비가시적인 통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는 관계성’이 만들어낸 제주여성들의 노동이주에 대해 연구자는 라이프 스토리(Life Story)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라이프 스토리는 생애사(Life History) 방법론의 하위개념에 해당한다. 라이프 스토리는 개인의 삶에 대해 구술된 이야기를 말하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그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구술로부터 자신의 생활세계와 사회문화의 양상과 변동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질적조사방법의 일종이다(櫻井, 2012: 6). 인터뷰는 청자와 화자와의 언어적 상호행위에 의해 라이프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현실이 구성된다. 바로 이것이 생애사와 구분되는 지점으로 생애사는 대상자의 현실에 중점을 두고 묘사하여 연구자를 불가시적인 ‘전지적’ 위치에 두지만, 라이프 스토리는 연구자의 존재를 화자와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 스토리는 화자와 청자 양쪽의 관심에 따라 구성되는 ‘대화적 혼합체’이므로, 인터뷰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여기’의 화자와 청자 양쪽 모두가 함께 생성해내는 문화적 영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櫻井, 2002). 사회변동은 여성의 라이프 스토리가 지배문화나 공동체/가족에 유통되고 있는 전형적 이야기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킬지 가늠해내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사회에 유통되는 스토리에 대해 동조, 타협, 갈등, 반항, 거부 등의 대응관계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요구받는다. 왜냐 하면, 남성의 젠더 카테고리의 다수는 지금껏 기본적으로 무징화(無徵化)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납득되었으나 여성은 유징화(有徵化)된 존재로서 여성의 사회적 표상, 즉 젠더 카테고리와의 관계로 자신을 위치 짓도록 되어 왔기 때문이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주류 서사나 전형적 이야기를 의식하면서, 이와

타협하면서 갈등하고, 때로는 맞설 수 밖에 없었다. 여성들의 스토리에는 항상 사회의 젠더 카테고리와의 역동성이 반영되어 있다(櫻井, 2003: 14).

연구자는 2005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가나가와 시티유니온(神奈川県シティユニオン)이라는 커뮤니티유니온⁵⁾에서 필드워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소개받은 미등록 체류 상태의 한국인노동자와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미등록 이주노동 경험자를 찾아다니며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의 소개로 인터뷰가 이어지는 ‘눈덩이 표집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에 실시되었던 제주여성 9명에 대한 인터뷰 녹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녹취자료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구술한 내용과 어투(사투리)를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발화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구술 속에 그들의 지역성과 체화된 ‘이동’의 흔적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혜진, 2023: 47). 인터뷰에 참여한 9명의 제주여성의 간단한 내역은 <표 1>과 같다. 참여자들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로 찾아가서 2~3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인터뷰는 1차례 진행했으나, 경우에 따라 2차례(D씨, E씨, H씨) 진행하기도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일본에서 필드워크를 할 때 알게 된 여성들(B씨, D씨, H씨)도 있었고, 소개받아 한국에서 처음 만나게 된 여성들(A씨, C씨, E씨, F씨, G씨, I씨)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을 녹취한 후 익명처리하였고, 연구 참여 전에 충분히 본 연구의 취지와 용도를 설명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또한 생산된 구술자료는 연구자의 암호화된 장비에 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였음을 밝혀둔다.

5) 커뮤니티유니온은 지역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의 임의가입을 통해 구성되며, 노동자들의 개별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전반에 일본에 등장한 노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일본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뤄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전제로 두고 있지만, 커뮤니티유니온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관리직 노동자 등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이혜진, 2013: 293).

〈표 1〉 인터뷰 참여자

표기	출생연도	학력	고향	거주지	가족상황	인터뷰 일시
A	1937년생	초졸	구좌읍	전북	남편 사별, 자녀 1남3녀	2009.08.20.
B	1939년생	고졸	구좌읍	제주	남편 별거, 자녀 2남1녀	2009.08.07.
C	1953년생	미상	한림읍	제주	남편 이혼, 자녀 1남	2009.12.28.
D	1959년생	중졸	애월읍	제주	남편, 자녀 1남1녀	2009.07.27., 08.11.
E	1960년생	고졸	한림읍	서울	남편, 자녀 1남	2009.08.18., 12.21.
F	1961년생	고졸	한경면	제주	남편, 자녀 1남2녀	2009.08.09.
G	1965년생	고졸	한림읍	제주	남편, 자녀 1남1녀	2009.08.10.
H	1965년생	고졸	한림읍	제주	재혼 남편, 자녀 2남2녀	2009.08.10., 12.29.
I	1966년생	전문대	한림읍	제주	남편 이혼, 자녀 2남	2009.12.29

3. 제주여성의 이주 계기와 과정

1) 이주 결정의 계기

여성들의 이주에서 가족의 결정은 남성들의 이주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던 가사노동, 자녀양육, 친척관계 관리 등의 역할을 다른 가족이나 친족과 재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며, 이주를 감행한 여성들의 ‘초국적 원거리 어머니’ 역할은 아버지 역할보다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Piper & Roces, 2003; 김민정, 2012: 38). 더욱이 기혼여성의 경우, 이주에 대한 결정은 배우자의 근로 상황, 채무관계 등의 경제적 여건이 남성들의 이주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이주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편이 만든 빚을 갚기 위해 도일한 사례는 A씨, C씨, D씨, F씨, G씨, I씨로 인터뷰 참여자의 2/3에게서 발견된다.

우리 아저씨는 12월 초에 부도나면서, 11월 말일까지 우리 사위 돈도 다 끌어갔어. 우리 서울 사위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12월 초에 부도나면서, 11월 말에 나 돈을 가져가지 말라주세요.” 그 오죽한 소리야. 그 맞는 말이야. 우리 고모 당근 캔 돈 오백도 나가 가져갔어. … 아저씨 돌아가시고 일본으로 갔어. 빚 때문에. 왜냐하면 빚도 빚인데, …차압이 들어가게 되었어. 이것 때문이야. 애, 아들도 통장도 못 만들어. 우선은 요걸 벗겨 줘야지. (일본) 가서 그거 벗겼어. 나는 이제도 켄끄러. 내 빚이 아니고, 우리 아저씨 보증. (A씨)

여기서(제주시) 우리가 사업을 좀 크게 했었어. … 아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 아이구 돈은 뭐, (일본에서) 돈은 많이 벌었지. 많이 벌었다고 해야지. 한 달에 몇 십만 엔씩은 꼬박꼬박 저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빚 물고, 내가 여기(제주도)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해지지. 아니면 장사 못해. 빚쟁이들 가만 나뉘? (C씨)

남편이 요리기술이 있었기에 … 중화요리, 정식으로 그 동네에 유명하게 되었어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장사가 잘되었는데,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게 되어, 이로 인해 집이 차압당하고, 망했어요. 남편은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고, 곱창병이 걸려, 겨우 그것을 낫게 한 후에 나는 1996년 2월에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D씨)

우린 좀 빚이 있어서, 갚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지. 모으는 대로 다 갚아버려서, 올 땐 돈이 없었어요. 일 좀 하다가 빌려가지고, 목돈이 생기면 보내서 갚았으니까, 올 때는 차비만 하고 왔어요. 빚은 다 갚았어요. (F씨)

일본에서 벌여 온 돈으로 장사를 했는데, 쫓딱 망해버린 … 보증을 잘못 썼지 … 솔직히 보증이지. 다 보증이라. 요즘은 … 제주도는 보증 … 여기서 망해서 일본 간 사람들은 다 보증 아니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일본 간 거… (G씨)

직장생활 해서 신랑 만나서 93년도에 결혼하고 그러다가 애기 둘 낳고, 결혼생활 중에, 조금 전남편이 돈관계로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별거하면서, 제가 99년도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I씨)

남편의 사업실패나 타인에 대한 ‘빚 보증’으로 발생한 빚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렵게 되자 제주여성들은 일본으로의 노동이주를 통해 빚 변제

를 피한다. 한국의 타 지역보다 지역적 공동체성이 강한 제주사회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빛’을 얻거나 ‘빛 보증’을 서게 되지만, 변제가 안 될 경우에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낙인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Adkins et al., 2020). “나는 이제도 꺾끄러”, “거기서 빛 물고, 내가 여기(제주도)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해지지. 아니면 장사 못해”라는 구술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여성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빛 변제를 위한 일본 이주를 감행하였다.

한편, 나머지 3명의 경우, 바람나서 판살림 차린 남편 때문에 혼자 자녀 양육을 하며 생긴 빛 변제를 위해(B씨), 남편의 사망 후 본인 사업의 실패로(H씨), 그리고 일본에서 미등록 취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요청으로(E씨)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97년에 일본으로 건너갔지. 가정경제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 공부시키면서, 딸만 두고, 아들 둘은 결혼 시킨 후에, 자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월급 생활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빛도 있고, 그래서, 월급 받는 것 가지고는 생활이... 경조사 보는 거랑, 집 빌려야지, 일년 집세가... 일년 사글세를 제주도는 품습이 한 삼백만원 빌리면 금방 일년이 돌아오고... (B씨)

신랑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니까. 내가 29살인가.. 애기들이 6, 7살 때. 그래서 이제 나도 장사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돈을 많이 뜯기기도 하고 돈을 잊어먹기도 하고, 일하던 아가씨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빛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또 가게 하나 남편한테 준 게, 돈도 못 받고 그냥 현찰을 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97년도에 일본을 가게 된 거라. (H씨)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이시돌 목장에서 근무했어요. 일은 젓소목장에서 소젖 짜고 그 외 잡무하는 건데. 남편의 고향 선배가 “거기서 노동하는 것에 비하면 여기가 돈이 더 많다”고 권유해서,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6개월 뒤에 남편이 들어오라고 해서 91년 11월에 (요코하마) 고토부키쵸로 들어갔어요. (E씨)

제주 고향에서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혹은,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획득하고자 제주여성들은 한국의 육지부를 선택하기 보다는 일본을 선택하였다. 그들에게 노동이주의 최적지로 일본이 상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동이주를 가능케 하는 합법적 거주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 상태로 일본에 머물렀다.

2) 이주의 반복성

제주여성들은 반복적 이주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합법적 이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밀항’을 선택하기도 했다. 인터뷰 참여자 중 3명(B씨, E씨, I씨)은 한 차례의 이주로 노동을 하다가 약 10년 정도의 체류 이후 자수 또는 강제송환을 계기로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나머지 6명은 2~3회 정도 이주를 ‘감행’하였다. 이전에 이주경험이 있었던 제주여성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을 선택했다. A씨는 67세, B씨는 59세, C씨는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노동이주를 ‘감행’하였다. 당시 고연령층의 경우 지금처럼 노인일자리 등과 같은 경제활동 기회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고연령층 제주여성의 경우, 예전에 이주노동을 경험하였고 일본에 동향 네트워크를 가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을 선택했다. C씨의 경우, 57세의 나이에 이주노동 중에 단속되어 강제송환되었으나, 3개월 후에 밀항으로 일본 입국을 다시 시도하였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자발적 귀국(자수)과, 비자발적 귀국(강제송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귀국을 한 G씨는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라고 말했다.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항상 단속에 걸릴까봐 조심하며 다녀야 되고, 일만 하면서 문화여가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여겨서인지 G씨는 먼저 귀국한 가족들을 따라 자수하여 귀국하였다. D씨의 경우는 막상 어렵게 일본으로

들어왔으나 “일자리도 없고, 결혼(일본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돈도 못 벌고, 예전 유치장 경험도 생각나서” 힘겹게 밀항으로 입국하였으나 7개월만에 자수하여 귀국했다. 그리고 B씨는 빚을 다 갚게 되어 자수해서 제주도로 돌아왔으며, E씨는 일본의 출입국관리국의 단속이 2000년도부터 심해지면서 자수기간에 자수하면 입국금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준다는 말을 믿고, 2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요량으로 자수하러 갔다.

한편, 비자발적 귀국을 한 제주여성들은 일본경찰에게 단속된 경험이 있다. C씨는 “작년에. 잡혀서. 슈퍼 가다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잡혀가지고, 4개월만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5개월 만에 또 잡혀가지고 나왔어요. 누가 고발했어요.”라고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했다. H씨의 경우는 미등록 체류자로서 단속되었다기 보다는 파친코장 옆에서 흡연하다가 경범죄 위반으로 잡혔으나 미등록 체류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강제송환되었다. H씨의 경우, 딸이 자전거를 훔쳐서 타다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게서 “잡아넣진 않겠지만 자수해서 가라”는 말을 듣고 자수하고 온 가족이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A씨의 경우는 제일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아사쿠사에서 길가다가 단속되었고, I씨는 한국인 미등록 체류자가 많이 살고 있는 요코하마 코토부키초 근방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에 단속되어 강제송환되었다.

〈표 2〉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주 시기 및 이유

구분	이주 시기 및 이유
A씨	① 60년(24세), 밀항하여 6년간 거주: 일본 고베로 건너간 후 연락이 없던 남편을 찾으러 친정에 장녀를 맡겨둔 채 일본으로 이주 ② 2002년 5월 15일(67세) ~ 2007년 4월 귀국(강제송환), 5년간 체류: 남편 사업 도산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관광비자로 이주
B씨	관광비자로 97년(59세) 입국하여 2006년 귀국(자수)

구분	이주 시기 및 이유
C씨	① 94년(42세) 또는 95년~2008년 11월 귀국(강제송환): 자신이 보증인으로 있던 남편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도산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어 변제를 위해서 이주 ② 2009년(57세) 2월 밀항~2009년 7월 귀국(강제송환): 일본에서 지속적인 노동 이주를 위해 이주
D씨	① 96년(38세) 2월~96년 7월 귀국(자수) ② 2001년(43세)~2006년 6월 29일 귀국(강제송환): 자녀들도 다 커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노동하기 위해 이주 ③ 2008년 12월 밀항~2009년 7월 30일 귀국(자수), 5년간 일본 입국 금지
E씨	관광비자로 91년(32세) 입국하여 2000년 귀국(자수)
F씨	① 91년(31세)~92년 9월 귀국(자수): 관광비자로 고소득 확보를 위해 이주 ② 2000년 10월(납편), 2001년 2월(자신(41세)과 차녀), 2001년 8월(장녀, 장남)~2007년 4월 25일 귀국(경찰의 권유로 자수): 제주시에 정착했으나, 사업에 실패로 도망치듯이 다시 일본으로 이주
G씨	① 85년(21살)에 초청비자로 이주: “일본에서 초청이 처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본인이 만 20살이 됨)”, 일을 그만두고 일본 이주 ② 90년(26세)~1년 체류: 택시를 운전하던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곤란했기 때문에, 가족 전원이 관광비자(3개월짜리)로 일본 이주 ③ 97년(33세)~2009년 3월 귀국(자수):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5년간 사업했지만, 남편이 보증을 서 준 곳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주
H씨	① 89년(25세): 부친과 함께 일본에 이주노동을 간 남편을 만나러, 자녀(아기)와 함께 이주하여 8개월 반 체류 ② 90년(26세): 10개월간 체류 ③ 99년(35세)~2007년 8월 9일 귀국(단속→자수):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한 후, 본인 사업 실패로 다시 일본으로 이주
I씨	관광비자로 99년(34세) 입국하여 2006년 귀국(강제송환)

3) 이주의 파트너

육지출신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혼자서 일본으로 이주 노동을 오고 있었으나, 제주도 출신자의 경우 단신으로 오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였으나, 일본에 들어와서 가족을 형성(결혼이나 자녀 출산)하거나, 자녀가 어릴 경우 일본으로 같이 데려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미등록 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보육이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녀 동반 이주를 선택할 수 있었다.

제주시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잘 안 되서, 또 도망가듯이 가버렸죠. 2000년인가 부다. 처음에는 애들 아빠만 갔고(2000년 10월), 가서 방 빌리고(요코하마 츄카가이) 어떻게 해가지고, 위로 들은 두고, 막내만 데려갔고(2001년 2월) 그러다가, 아무래도 애들 놔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둘 다 데려왔어요(2001년 8월). 우리 어머니가 들을 길러주고 있었는데 감당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 온가족이 다 모인 것은 2001년도 여름방학. 침 방을 빌린 곳은 요코하마 츄카가이 거기서 일년 반 정도 살고, 나카무라쵸로 이사를 갔지. 거기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래층에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린 애가 셋이라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단독을 빌려서 나갔어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가서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살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애들 다 데리고 갔죠. 가갔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 다 알아보고, 되니까 다 같이 데려간 거죠. (F씨)

난 여기서 1989년에 결혼해 갖고, 우리 딸내미 낳고 한 일년 살다가, 불법체류로, 애기 데리고 다 남편도, 관광비자로 가서 불법체류로 하고 90년도 겨울에 간 것 같애. 일년 반 정도 살다가, 그 담 여기 와서 5년 살다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장사를 했는데, 쫓딱 망해버린 …. 보증을 잘못 섰지.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나하고만 일본 가고, 그 담에는 한 몇 년 살다가, 딸, 아들 불러서 학교 다니고, 큰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2000년도 되기 전인가.. 횡수로는 3년 살다가, 거기서 큰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온 거 같다. 남편하고 애들은 들어오고, 나는 거기서 별면서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벌고, 또 삼년을 벌고 들어오고. 그래서 난 2008년 11월에 들어왔어. 12년 살다가 …. 남편은 9년. 오래도 살았지. 근데 12년 살았는 걸 몰라, 거기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G씨)

제주여성들의 돌봄의 특이성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이주를 감

행한다는 사실이였다. 초국가적 돌봄의 연결망이 가능하게 되는 기제들은 이주지에서의 공동돌봄이 가능한 가족, 친족 및 친구, 지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이주지의 교육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주지에서의 미등록 체류 경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상정될 수 있다.

한편,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이주의 배경에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일본 이주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G씨와 B씨는 어머니가 밀항으로, F씨는 어머니가 초청비자를 얻어 일본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었다.

원래 여기서 일본가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아는 사람 연락처를 전부 갖고 가잖아. 그래야 일본가면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연락처를 알고 갈걸. … 그 때는 우리 딸내미 낳고 한 일년 살다가, 불법체류로, 애기 데리고 다 남편도, 관광비자로 가서 불법체류하고 … (G씨)

처음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츠카가이에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쪽으로 일을 소개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 그 당시 일본에 가는 게 붐이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많이 있었고. 해서 한 3년만 가서 벌고 와가지고 다시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애네들 아빠를 만났어요. (F씨)

어머니가 일본에 50년에 가서 7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25년 정도 일본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 (B씨)

그리고 H씨는 아버지가 초청비자로 자신들보다 먼저 일본으로 들어갔었고, I씨의 경우는 아버지가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보험회사 소장하다가 말아먹고 초청비자로 일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남편과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 오버스테이하고 … 우리 아빠가 한 3, 4년만 고생하고 오라고 하는데 … (H씨)

저의 친정아버지도 일본에 갔다가 오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해에 왔어. 12, 13년 정도 되지. (I씨)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본 이주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고 있었다. 제주여성들은 무사히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등 일본 이주 성공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얻어 이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등록 상태로 ‘단속’되어 강제송환을 대기하던 출입국관리국의 수용소 안에서도 밀항의 정보는 얻을 수가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말 들으니까, “한번 간 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십일만에 들어가 버려라”, “관광으로 왔다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말이 많으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갔어. 어디 섬인가로 갔는데, 근데, 그 섬으로 간 건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또 빠꾸 당했지, 오사카에서도 빠꾸 당했지, 한 여섯 번을 빠꾸 당한거야. 한 98년도겠지. 이제 한 번씩 다녀오면, 돈이 백만원 넘게 깨지시, 공항에서 하루 자면 2만엔, 2만 5천엔씩 받더라. 침대도 있더라. 공항 아니었어, 그 사람이 지키니까 그 사람값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돈 있는 걸 아나봐. 갈 땐 한 30만엔 정도 가져가잖아. 그래서 한번 갔다오면, 150만원, 200만원까지 들더라고. (H씨)

그냥 …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수용소에 살다보면 (밀항 관련 정보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뉴간(출입국관리국) 안에서 다 이야기가 되거든 … (C씨)

미등록 체류 경력이 있는 한국인에게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비자 발급은 거의 불가능했고, 일본에서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역시 점차 강화되었지만, 제주여성들은 동향 네트워크, 즉 가족과 친구 등의 연줄을 통해 취업처와 거주지를 확보하며 공식적인 제도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 이는 공식적 이주체제의 제약과 사적 연결망의 활성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주여성들이 발휘한 행위성의 단면을 나타낸다.

4. 제주여성의 일본에서의 삶

1) 노동 경험

일본으로 먼저 건너가 있던 남편을 만나러 1960년에 밀항으로 이주했던 A씨는 남편과 재결합하여 오사카에서 자녀들을 낳고 가내공업을 하다가, 동경 시부야로 옮겨가서 부부가 함께 중화요리점을 운영했으나 경찰에 ‘단속’되어 1966년에 귀국하게 된다. A씨의 60년대 이주노동 사례에서 유일하게 자영업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중화요리점에서 번 돈은 남편이 경마로 전부 탕진하게 되고, 제주도로 돌아온 이후 일식집, 양계장 등 사업을 꾸리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양계장 운영으로 만든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첫 이주에서 40년 후인 67살에 두 번째 노동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친구의 소개로 한국고깃집을 전전하면서 평균 20만 엔의 월급을 받아서 고향에서 진 빚을 갚아갔다.

B씨는 1997년 59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베이비시터, 우에노에 있는 스나쿠(술집) 주방, 찻집 등을 짧은 기간 근무하다가 전철역 매점에서 3년반(월급 17만 엔)을 일하고, 그 후 4년간은 파친코 환전소에서 월급 35만 엔을 받고 일했다. 역전 매점이나 파친코 환전소는 매일 일하러 나가야 했으나, 볼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재량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도 했다. 이 직업들은 B씨에게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였으며,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서 진 빚을 다 갚고 자수하여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C씨의 경우 처음부터 요코하마 고토부키쵸의 찻집에 소개를 받고 일하게 된 이래로 12년간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 “자기 집처럼 (일)하다가 왔지”라며 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안정된 생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자신이 거주하던 간이숙박소의 청소를 대신 해주고 월세를 면제받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향에서 진 빚을 다 갚았다.

D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초총련계 교포가 경영하는 고깃집에 취직을

하게 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어 강제송환을 당한 이후로도 몇 번씩 재이주를 위해 2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밀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고깃집에서도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재고용이 거절당한 후 쓰루미(鶴見)에 있는 스나쿠에서 일하다가 급여도 못 받고 자수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E씨는 먼저 고토부키초에 들어와서 항만노동을 하고 있던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하여, 고토부키초의 식당에 취직한 이후, 다시 러브호텔에서 10년 동안 청소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밤 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근무하고(6시간 근무) 일주일에 하루 휴무를 하였다. 시급은 890 엔으로 월급은 20만 엔을 받았다.

F씨는 91년에 관광비자를 받고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일본에서 고소득을 올리기에 위해 이주하였으나,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위해 1년 반만에 자수하여 귀국하였다.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2000년에 다시 일본 요코하마에 정착하여 고토부키초 러브호텔 청소를 하다가 파친코 환전소에서 350만 엔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다가 2007년에 경찰의 권유로 자수하여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G씨의 경우, 일본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던 어머니(일본남성과 결혼)에게서 초청비자를 받고 85년(21세)에 첫 이주를 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초청이 처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하던 면사무소 일(준공무원급)을 그만두고 건너가서 가방공장에서 일하다가 귀국하였다. 그후 결혼하였는데, 택시운전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온 가족이 관광비자로 90년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다. 이때 파친코 환전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1년간 체류하다가 다시 귀국했다.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5년간 사업을 했지만 남편이 보증을 서 준 곳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다시 97년에 일본으로 입국한다. 일본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G씨는 안정적으로 바로 파친코 환전소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H씨는 G씨와 절친한 친구 사이로, H씨의 일본 거주와 취업에는 G씨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몇 번의 일본 이주 이후 99년에 일본으로 들어갔을 때 G씨의 소개로 파친코 환전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때 알게 된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게 되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자신이 일하던 파친코 환전소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건설현장 청소, 호박 하선작업, 김치공장, 통조림공장 등을 전전하다가 다시 파친코 환전소를 소개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I씨는 G씨와 H씨의 고향 후배로, 99년도에 일본에 들어와서 2006년에 강제송환되었는데, 그는 저녁에는 고토부키초의 스나쿠에서 일하고, 낮에는 상품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실 새 없이 일을 했다고 한다. “야는 일본에서 쉬어 보지를 않안. 진짜 부지런한 애여. 다른 말은 안하고, 너무 부지런한 아이여”라며 G씨와 H씨는 입을 모았다.

이렇듯 일본에서 제주여성들은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브로커, 생활정보지 등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다. 주로 식당, 호텔 청소, 식품공장, 파친코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했다. 식당, 호텔 청소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평균 월급이 20만 엔 정도였으나, 파친코 환전소의 경우는 미등록 체류 상태의 한국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고임금(월급 35만 엔 정도)의 안정적이며 ‘정규직’과 같은 일자리로 여겨졌다. 대부분 ‘노가다’와 같은 일용직 단순노무자로 일하던 미등록 체류 상태의 제주남성들에 비해 제주여성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남자들은 지속적으로 못 벌죠. 일이 있고 없다가 심하니까, 남자들 버는 걸로는, 식구가 다가서 생활도 안 되죠. 난 정기적인 수입이니까. 파친코는 노는 날 없어요. 365일. 처음에는 알바니까, 한 3년은 밤에만 갔으니까, 오후 4시 반 부터 밤 11시까지 했으니까, 낮엔 시간이 있었는데, 오기 전 1년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서 했으니까, 월급이 밤에만 일했을 땐 한 20만 엔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땐 35만 엔, 남편은 한 달에 10만 엔 벌 때도 있고 잘 벌 땐 40만 엔 벌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단속이 심해지면은 못 가고. (F씨)

일본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의 제주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노동 기회가 많았다는 것은 G씨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G씨는 남편(당시, 남작친구)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이동하고 있었다.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기회에 우위에 있던 제주여성들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자신이 먼저 확보한 직장을 양보함으로써 가계 경제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불법’이라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도 그들의 위치를 재전유하고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미애, 2021).

2) 삶터로서의 일본

일본에서의 삶이 편했던 이유로, 제주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이 별로 없어서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환율 차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으로 제주도에서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나갈 경조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시댁식구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된 일본에서의 단속 이외에는 ‘변수 없는 삶’이 그냥 편했다고도 했다.

생활하기 편하지. 이것저것 생각 안하고 일만 하나까 …. 친척들도 봐야지 주위의 사람 잘사는 거 보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눈 텅겨 나오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여기서서는 정신이 시끄러워. 일본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살았지만, 일본에서는 일만 하고 살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편해서. 일하고, 올라가고, 거기서는 전부다 똑같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이 없잖아. 무조건 내가 있다고 해도 전부다 거기서 시작이잖아. 그런 게 마음이 편하고 아, 여기(제주) 오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가 안 돼 …. 여긴 갈 데가 없잖아. (C씨)

왜냐하면 환을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갈 땐, 7대1이었으니까. 일본돈 만 엔이면, 여기서서는 7만원이잖아. 월급이 20만 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돈으로는 140만원이 되잖아. 여기 돈 80만원보다는 60만원이 더 되는 거야. 그리고 경조사도 안 나가고 남이 안보니까, 아무 거라도 남이 주는 거 빌어 입고. (B씨)

고토부키초에서의 생활은 괜찮은 편이었어. 친구들 넷이서 사이 좋게 재밌게 지냈지. 단지 한국에 내 맘대로 못 온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나는 일본에서가 오히려 더 좋았어. 일하는 것도 정해진 시간타임으로 끝나고, 단지 검문 당할까봐 걱정이었지. 일만 있다면 일본이 좋아. 그리고 비자만 있다면 …. (E씨)

제가 여기에 빚만 없었다면 오히려 일본생활이 나았을 거 같아요. 거기는 일한 만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말도 한시간에 3500원 받고 횃집에서 일했거든요, 힘은 힘대로 들고 … 의식도 다르고 … 나 같은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여기 온지 3년이 되었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밖에도 안나가고, 애들 아빠도 어디가서 술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술은 집에서만 해요. 파친코를 두석달에 한번. 너무 심심하면 … 거기 생활이 거기는 전철이 잘 되어있으니까 어디를 쉽게 쉽게 가잖아요. 여긴 차없으면 못가. (중략) 우리 아들한테는, “야, 너 대학은 일본으로 가라. 엄마 따라갈게”(라고 했어요.) 큰딸은 지진난다고 절대 안 간다고 하는데, 아들은 “글쎄”라고 하네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한국 사람들 아무래도 기본적인 매너가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애들도 그것 때문에, 애(작은딸)도 그것 때문에 학교 가서 울고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엔 툭 치고 가더라도,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사과하는 법이 없고 …. 나야 일본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작은딸)난 완전 가고 싶지” 오빠 대학갈 때 그때 같이 가서 고등학교 다니려면 일어를 까먹지 말아야지 …. 작년엔 작은딸이 친구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올해는 전혀 안 써요. (F씨)

특히, F씨의 경우는 가족 전체가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학령기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 사례로, 자녀들의 진학이 계기가 되어 자신도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기대와 희망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H씨는 귀국 후의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일본에서보다 더 힘들어졌고 삶의 질도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간관계 또한 협소한 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그치게도 말했지만.. 난 지금도 일본에 가서 살고 싶어. 자식들이랑 떨어져서 살면 외롭지만, 자식들이랑 다 가서 살아도 된다면, 난 일본에 가서 살고 싶어. 일본이 더 편했던 거 같애.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G씨)일본에서는 둘이만 살았었고, 걸릴 게 없었잖아. 신경 쓸 게 없었으니까, 서로가 사이도 더 좋았고 … 근데 여기 오니까 ….”, “(연구자)뭐가 걸리는데요?” 부모도 그렇고, 전(前) 신랑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걸리고, 같이 살 땐 좋았지만, 남편도 우리 애기들한테 하는 게, 자기 땐에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내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맘 못 하잖아. 또 나도, 나이 먹어서 애기 낳고, 뭐 팔자 좋으려고, 결혼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사실 우울증 걸리더라고.. 여기 와서 애기들은 백일도 안되고, 시어머니 밥 해줘야 되고, 돈도 없는 집에 시집 와갖고, 그러니까 더 힘이 들더라고 스트레스 받더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나 속에서 (돈이) 다 나가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친구들은 애기들이 다 컸으니까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난 애기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장사도 못하고, 남의 집에 뭐 놀러도 못가고, 그런 게 스트레스로 걸렸지.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좋겠지. 거기 가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는 솔직히, 웬만하면 남의 나라에 가서 숨어살고 싶지 않잖아. 그것만 아니라면 살고 싶지만, 또 불법체류로 살아라하면 못 살지, 어디 가든 찢끔찢끔하고. 이제는 좀 편해져서 괜찮지만 … 힘들 때는, 나혼자 라도 몇 년 가서 고생하면, 돈을 좀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H씨)

H씨 또한 귀국 후의 “걸리는 게 많은” 삶에 대한 해방처로 일본으로의 재이주의 의지를 비쳤다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

가끔 가다가, 지금도 어디 지나가다가 일본 생각이 나. 어쨌든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은 계속 많이 생겼어. 갈 수만 있다면. 근데 일부러 밀항해서 갈 생각은 없고. 거기 8년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 생활이 적응이 되어 버리니까. 근데 살면은 또 살아지더라.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또 뭐 생각은 나지만, 거기서 생활이 반복적인 생활이니까, 나를 위해서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공연 같은 거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복적인 삶이니까, 나한테 추억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없고, 단지 한국에 오니까 내가 돈벌어서 빚 갚은 거 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없죠. (I씨)

1씨도 “불법체류”라는 제약된 생활 여건 속에서 빚을 갚기 위한 경제활동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행위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가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단지 … 빚 갚은 거 밖에 없구나”라고 인식하였다. 인생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단지 … 빚 갚은 거” 외에는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시기 제주여성의 노동이주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이 본국의 “걸리는 게 많은” 삶에 대한 해방이 될 수도 있으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별 의미로 남지 않는 제약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일본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로 노동했던 제주여성 9명의 라이프 스토리를 분석하여, ‘이주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 제주여성들의 이주경험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주 아비투스’란 제주도민들이 일본이라는 장소를 경제적 필요를 넘어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일본으로의 이주를 반복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집합기억과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성향이며,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한다.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제주여성들은 더욱 용이하게 일본으로 이주할 수 있었으며, 미등록 체류라는 제약 속에서도 식당, 호텔 청소, 파친코 환전소 등 여성 중심의 서비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생계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 노동시장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구조적 조건과도 맞물려 있다. 그들은 일본 내 친척과 친구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하고,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의 이주는 단순한 개인의 이동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합법적 입국이 어려울 경우 밀항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반복적 이주를 통해 노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했다. 제주여성들은 자신의 직장을 남편이나 가족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비교적 높은 노동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과 동시에, 그들이 가족 내에서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의 육지 출신 미등록 이주자에 비해 가족/자녀 동반 이주가 많았던 제주여성들의 이주는 미등록 상태에서도 자녀양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치를 근거로 주변으로부터 정보 및 지지를 받아 자녀와 함께 미등록 체류를 경험했다. 제주여성들은 동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 및 가족부양을 지속했다. 일본에서도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본 내 교육 및 보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돌봄 네트워크는 제주여성들의 이주 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지속적으로 이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으로 이주 노동을 택한 제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주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으나,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돌아오는 빛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삶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들은 일본에서의 삶이 제주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이 적어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했으나, '불법 체류'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서 노동 외의 개인적 삶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남성보다 노동 기회가 많아서 제주여성들은 일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는 곧 가족 내에서 더 큰 경제적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생존을 책임지는 적극적 실천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합법적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밀항과 반복 이주를 감행하였으며, 이는 공식적(formal) 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비공식적(informal) 네트워크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행위성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 미등록 이주자들과 비교할 때, 여성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 행위를 통해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부르디외의 “사회적 실천 = (자본 × 아비투스) + 장” (1979/ 2005: 144)이라는 공식에 비춰보면, 본 연구는 제주여성들의 이주를 동향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과 일본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이주 아비투스’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의 서비스업 중심 노동시장이라는 장,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빛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장이 더해지면서, 미등록 체류라는 위협하고도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감행하는 실천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더욱이 본 연구는 1930~60년대생 제주여성들이 가지는 특수성, 즉 일본과의 오랜 지역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가족·친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경로를 개척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제도적 제약을 넘어서는 적극적 이주 주체로서, 젠더화된 국제 이주 구조 속에서도 자신만의 전략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일본에서의 미등록 이주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되었기에 남성보다 비교적 다양하고 안정/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했던 제주여성들의 이주노동은 (남성보다) 빈번하고 장기화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주여성들의 이주 경험을 통해, 국제이주 과정에서 이주체제, 제도, 그리고 개인 행위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이주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입체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은 1930~60년대생 제주여성의 미등록 이주경험이므로, 그보다 더 젊은 층의 제주여성들도 이러한 ‘이주 아비투스’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 시기의 특징적인 이주경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젠더화된 이주는 입국뿐만 아니라 귀국에도 영향을 준다. 해외 이주, 그리고 귀환에 대한 젠더화된 특징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민정. 2012. “필리핀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한국의 사례.” 『한국여성학』 28(2): 33-74.
- 김치완. 2024. “제주 이주 노동의 역사와 정체성 문제.” 『도서문화』 63: 193-229.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70: 10-37.
- 김희철·진관훈. 2007.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3(1): 101-123.
- 부르디외, 피에르. 2005.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새물결. [원서출판 1979]
- 양인실. 2013. “일본 TV 영상물의 재일제주인 표상.” 『일본비평』 8: 80-117.
- 이규용. 2016. “노동이민과 경제.” 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291-319.
- 이미애. 2021. “이주의 장에서 소수 이민 여성의 ‘불법적 위치’ 재전유하기: 프랑스의 중국 조선족 연구.” 『한국사회학』 55(1): 131-178.
- 이상길. 2001. “문화생산과 지배: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사회』 9(1): 7-46.
- 이성희. 2013.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장·자본의 상호형성 메커니즘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23(2): 151-171.
- 이혜진. 2023. 『오버스테이』. 서울: (주)북랩.
- _____. 2014. “이주과정을 통해 본 에스닉 네트워크와 노동경험: 일본 요코하마 고토 부키초의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7: 213-252.
- _____. 2013.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과 한국인 노동자: 1990년대 전반의 가나가와 시티유니온과 고토부키초의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접속.” 『경제와사회』 100: 292-334.
- 정기선. 2016. “인구와 이민.” 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257-290.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조성운. 2005. “제주도에 유입된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탐라문화』 27: 83-96.

(2) 국외문헌

- 玄武岩. 2007. “密航・大村收容所・濟州島—大阪と濟州島を結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 『現代思想』 35(7): 158-173.
- 梶村秀樹. 1985. “定住外國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思想』 734: 23-37.
- 栢田一二. 1976. 『栢田一二地理學論文集』. 東京: 弘詢社.
- 櫻井厚. 2012. 『現代社會學ライブラリー7. ライフストーリー論』. 東京: 弘文堂.
- _____. 2003. 『ライフストーリーとジェンダー』. 東京: 세리카書房.
- _____. 2002. 『インタビューの社會學——ライフストーリーの聞き方』. 東京: 세리카書房.
- Adkins, L., Cooper, M., & Konings, M. 2020. *The asset economy*; Cambridge, UK: John Wiley & Sons.
- Kofman, Eleonore; Phizacklea, Annie; Raghuram, Parvati; Sales, Rosemary.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and Politics*, Routledge.
- Massey, D. S. 1987. *Understanding mex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6), 1372-1403.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31-466.
- Mattingly, D. J. 2001. *The home and the world: domestic service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caring lab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2), 370-386.
- Oishi, Nana. 2005. *Women in Mo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Abstract

Gendered Migration of Korean Women
– An Analysis of Oral Narratives of Jeju Women’s
Experiences a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Japan in the 2000s

Lee, Heyjin
(Gyeongnam Institute)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Jeju women who lived a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Japan in the 2000s by utilizing the concept of ‘migration habitus’. ‘Migration habitus’ refers to the tendency to accept migration and movement as a natural and routine part of life in a certain region. Jeju women’s migration to Japan was a choice to resolve economic crises such as husbands’ business failures and guarantees of debts. The migration of Jeju people to Japan, which continued from the early 20th century, became more active due to factors such as the network of Jeju residents in Japan and the expansion of tourist visas. In cases where legal routes were difficult, smuggling or staying on tourist visas took place. In the Japanese labor market, women were able to find more stable jobs than men, and they mainly worked in the service industry, such as restaurants, hotel cleaning, and pachinko exchange shops. Jeju women were able to find employment and settle down through their relatives, friends, and hometown networks in Japan. Their return to Korea was either voluntary (self-imposed) or forced repatriation, and they often found it difficult to readjust to Korean society after their return, and they sometimes showed a desire to move to Japan again. This study emphasizes that Jeju women’s labor migration was gendered and determined by the needs of the family economy.

Key words: Jeju women, Migration habitus, Jeju network, Economic crisis, Gendered labor migration, Life story

- ▮ 투 고 일 : 2025년 3월 16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9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리얼리티 TV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젠더 재현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중심으로

엄빙빙*

| 목차 |

1. 들어가며
 - 1) 문제 제기
 - 2) 선행연구 검토
2. 공적 요리 영역의 젠더차별과 대중문화의 재현
 - ① 여성 셰프에 대한 호칭
 - ② 감동적 여성 서사의 이면
3. <흑백요리사>의 젠더 재현
 - 1) 주방 역할 배분 및 가치
 - 2) 여성 리더십의 도전
 - 3) 상징적 재현
 - (1) 남성 셰프의 이미지 구축
 - (2) 여성 셰프의 재현
4. 결론을 대신하여

| 초록 |

본 논문은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대중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성차별적 서사를 재생산하는지를 탐구한다. 2024년 하반기에 방송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방송 이후 일부 출연자들이 스타 셰프로 성장하여 대중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계급을 넘어 공정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출연자의 성비가 82:18로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점에서 성별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비 불균형에서 출발하여 프로그램이 요리 업계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방송에서는 여성 셰프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거나 팀전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 셰프 리더십은 폄하되고, 남성 셰프의 전문성과 권위는

* 한양대학교 umsinhee@hanyang.ac.kr

강조되었으며, 여성 셰프들은 고정관념에 따라 호명되는 방식으로 성차별적 서사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대중매체는 요리 업계 내 성별에 따른 위계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공성을 지닌 대중매체는 여성이 사회적 역할로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성별 고정관념 해체와 더욱 평등한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셰프를 비롯한 여성 직업인을 가시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젠더, 요리 프로그램, 성역할 고정관념, 양성평등, 대중매체, 여성 셰프

1. 들어가며

1) 문제 제기

한국에서의 예능 프로그램은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여러 변화를 거쳤으며, 2006년 리얼 버라이어티 쇼 <무한도전>의 등장부터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불러일으킨다. 이후에는 <1박 2일>, <런닝맨>이 나타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포맷을 수출하여 상업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최근 들어 글로벌 OTT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화적 장벽을 돌파하고 <피지컬: 100> 등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K-예능도 등장한다. 특히 2024년 글로벌 OTT 넷플릭스 최고의 화제작은 요리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스타 요리사인 ‘백수저’ 20명과 숨어있는 고수로서 참가한 ‘흑수저’ 80명이 프로그램에서 경쟁을 펼친다. <흑백요리사>는 방영 이후 한국에서 6주 연속 드라마/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차지했으며,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에 올랐다. 프로그램 자체뿐만 아니라, SNS에서 출연자를 패러디하는 것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캐치테이블에 의하면 출연자들이 운영 하는 식당들은 평균적으로 148% 정도의 예약률이 증가했다. 우승자인 ‘나

폴리 맛피아(권성준)의 식당 예약 대기자가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결국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탁 트인 천 평 규모의 주방 세트장, 스타 셰프와 재야의 고수 간의 대결, 시청자의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잘 짜인 미션과 대결, 빈틈없는 편집 기법, 그리고 출연자들의 색다른 인생 이야기 등 모든 요소가 〈흑백요리사〉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흑백요리사〉는 한국 사회의 구조화된 계급 질서를 오직 맛(개인의 실력)으로써 도전하여 생존과 탈락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진정한 ‘공정’이라는 가치를 통해 인기를 얻은 〈흑백요리사〉로부터 한 가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두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더불어, 100명의 셰프 중 82명이 남성이고 여성 셰프는 오직 18명만이 등장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셰프가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현실을 대중문화에서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이다. 셰프스 펜슬 사이트가 16개의 국가 중 2,000개 이상의 레스토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 셰프가 이끄는 미슐랭 레스토랑은 전체의 6.04%에 불과하다. 젠더 고정관념에 따르면 건축기사나 정비사와 같이 체력적 요구가 큰 직업은 흔히 ‘남자의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가정에서 주로 여성이 요리를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는 성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이 깊이 뿌리박힌 까닭이다.

일상적이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는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승희, 2019). 방송에서 성 차별적 재현이 나올 때면 단순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무의식 속에서 성역할 규범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정사강, 이소현, 김은영, 2023). 이러한 배경 속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젠더 재현을 고찰하여, 등장하는 여성 셰프의 수에만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

려지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공정성’ 담론을 표방하지만, 성차별적 서사 구조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예능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당대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텔레비전이라는 광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오락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결합하여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도 한다(신상기, 2015). 양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문화에서 여성들이 가정적인 것에만 머물던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회적인 참여를 그리기 바랬지만(강은수, 2005:2), 한국의 예능 판은 남성 중심적인 세계며, ‘여성의 상징적 소멸’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돌봄 노동에 묶어두고, 게다가 그 노동을 폄하하는 문화가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을 초래하며, 여성의 이야기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를 형성한다(손희정 외, 2019).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298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연진 중 여성들이 총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위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정사강, 이소현, 김은영, 2024).

또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여러 연출 요소를 통해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가미된 연출을 할 수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생산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재현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연예인들이 일반인처럼 겪는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가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며, 제작진들의 연출은 남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이승희, 2019). 이제 여성의 역할은 가족 내에 한

정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대중매체가 이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시점이다.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요리 프로그램의 시대적 발전, 음식문화, 포맷 특성 등을 다뤘었다. 그러나 젠더 관점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차소정(2015)은 80년대부터 등장한 요리 프로그램이 주부에게 조리법을 전달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90년대 이후 남성 진행자의 등장으로 인해 ‘음식 만들기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전문직 진출로 이어지기보다는, 여성의 가족 내 성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오늘날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남성 셰프들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다. 즉, 요리가 직업으로써 분류될 때는 남성 셰프들이 장악하고 있다. 요리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남성 셰프는 여성 셰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여, 프로그램 연출을 통해 전문성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는 현실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구조와도 유사하다. 데버러 A. 해리스와 패티 주프리의 저서 『여성 셰프 분투기』는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개념과 조앤 애커의 성별화된 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요리가 전문화되는 초기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배제했으며, 현재 미디어 담론을 통해 성차별이 강화되어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과정을 설명한다. 각 나라의 음식 문화와 주방 구조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구에서 발원한 파인 다이닝은 현재 전 세계적인 외식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흑백요리사〉에서는 역시 파인 다이닝 주방 체계를 기반으로 대결과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제시한 성차별 메커니즘은 한국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 공적 요리 영역의 젠더차별과 대중문화의 재현

〈흑백요리사〉는 총 1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했으며, 패자 부활전 ‘재료의 방 〈편의점〉’을 포함해 ‘흑수저 결정전’, ‘1:1 흑백 대전’, ‘재료의 방’, ‘레스토랑 미션’, ‘인생을 요리하라’, ‘무한 요리 지옥’, ‘이름을 건 요리’까지 총 8개의 대결을 보여준다. 〈흑백요리사〉 1회에서 총 100명의 요리사가 등장했으며, 20명의 백수저 요리사 중 여성 요리사는 4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80명의 흑수저 요리사 중에는 여성 요리사가 14명으로 17.5%를 차지한다. 또한 첫 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모든 대결을 거쳐, 앞서 언급한 예능 평균 여성 출연자 비율인 33%에도 근접하지 못한다.

여성 셰프의 과소재현은 단순히 인원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 내 전반적인 분량에서도 드러난다. 첫 화 시작할 때 80명의 흑수저 셰프가 등장했지만, 자막으로 이름이 소개된 참가자는 총 36명이 있다. 그중 남성 셰프는 32명이었으며, 여성 셰프는 ‘쿠킹텔러’, ‘장사천재 조사장’, ‘이모카세 1호’와 ‘급식 대가’ 총 4명에 불과했다. 또한 1화 중반부터 시작하여 3화 초반까지 진행된 ‘흑수저 결정전’에서 총 25명의 셰프가 요리하고 심사를 받은 과정이 방송되었지만, 이 중 남성 셰프는 20명, 여성 셰프는 ‘천만 백반’, ‘중식 여신’을 포함한 5명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속 여성 요리사의 비율과 실제 주방 내 여성 셰프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미쉐린 가이드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여성 셰프 비율은 5~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요리’라는 행위 자체는 여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23년에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식사 준비를 포함한 가사 노동에 하루 평균 2.8시간을 더 많이 소요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23년에 공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식사 준비를 포함한 가사 노동은 아내가 담당하는 비율이 73.3%에 달한다. 즉, 남성은 공적 요리 영역에서 유급 노동을 담당하는 반면, 여성은 사적 공간에서 무급 노동을 수행하며,

요리는 젠더화된 방식으로 분배된다. 이러한 구조는 대중매체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된다. Chen(2020)은 뉴질랜드 언론에 게시된 총 315개의 온라인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등장하며 주로 가정적인 환경에서 묘사되는 반면, 남성은 전문 요리사로서 재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성별 분업, 셰프의 성문화 형성 과정, 그리고 남성 중심적 직장 문화를 통해 요리가 젠더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부터 궁중에서 요리하는 남성이 요리사로 기록되었다. 현대 파인 다이닝, 즉 <흑백요리사>에서 채택된 요리 체계의 발원지인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 남성 요리사들이 귀족 저택을 떠나 공공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지만, 여성은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은 초기 요리학교에서 배제되었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었다. 일부 요리학교가 여성에게 개방되었지만, 이는 전문직 양성보다 가정 운영을 위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었다. 1895년 저널리스트 마르트 디스텔(Marthe Distel)은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 운영에 필요한 요리 기술을 교육하고자 하는 취지로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를 창립했다. 한국에서도 여성 대상의 요리 교육은 초기에는 '가정과'의 일부로서(한복진, 2001:202) 가정 운영을 위한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성별 분업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성은 임금노동을, 여성은 가사 중심의 무급 노동을 맡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어렵게 일자리를 얻더라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승진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왔다(아이린 파드빅, 바버라 레스킨, 2021). 요리 업계 역시 남성은 셰프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현대에 이르러 주방은 남성성이 과시되고, 농담과 괴롭힘이 난무하며 분노의 폭발이 빈번한 장소로 인식된다. 데버러 A. 해리스와 패티 주프리가 33명의 여성 셰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성별 분업이 전보다 완화되었지만, 여성들은 모든 직업군에서 일과 가정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특히 요리사는 긴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업으로, 남성들은 종종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 배우자의 지원을 받는 반면, 여성 셰프는 일과 가사 노동, 육아 등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흑백요리사>에서도 여성 셰프가 주방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다. '인생을 요리하라' 라운드에서 정지선 셰프는 자신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던 메뉴 중 하나인 '송서계어'를 선보이며, 주방에 여성 셰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에서 20대 때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여성들은 높은 장벽을 깨고 주방에 들어서며, 남성 중심의 환경에서 혼자 버텨와야 한다. 하지만 결혼하면 가정의 책임으로 인해 주방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는 여성 셰프가 요리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약해 왔다. 대중문화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며, 다양한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3년 교육부가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알게 된 주요 경로 중 대중매체·TV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안진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은 진로와 관련된 유명인사를 가장 많이 역할모델로 지목하였으며, 이들은 해당 인물로부터 진로 목표 설정과 방향 모색에 있어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진희(2018)의 연구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고양할 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스타셰프의 이미지는 학생들의 직업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요리 전문학교에서 셰프를 지망하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많아지는 추세다. 이런 변화는 대중문화에서 여성 출연자를 가시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여성 셰프가 요리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여성들에게 셰프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심어주며 적극적인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이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데 중요한 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흑백요리사>의 젠더 재현

1) 주방 역할 배분 및 가치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이 배정된다. 서양 레스토랑의 경우, 샐러드와 차가운 전채 요리를 담당하는 가르드망제는 비교적 매력이 없는 자리로 여겨졌으며, 설거지 담당보다 한 단계 위의 직급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신입 요리사는 샐러드 제작, 창고 관리를 하는 팬트리부터 시작하지만, 남성 요리사들이 승진해 나가도 여성 요리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흔하다. 이 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여성 요리사들은 요리 기술을 배울 기회가 제한되고,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데버러 A. 해리스, 패티 주프리, 2017).

같은 직업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역할이 분리되며, 이는 여성의 경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여성 셰프들은 <흑백요리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요리사들은 개인전에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만, 팀전은 협력을 통해 미션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화된 역할 분배가 발생한다. <흑백요리사>에서의 7번의 대결 중 두 번은 팀전이며, 하나는 백수저 팀과 흑수저 팀이 대결하는 '재료의 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흑백 수저 혼합 팀전인 '레스토랑 미션'이다. 이 두 미션에서 총 8개의 팀이 구성된다. 8개 팀 중 조은주

셰프의 팀은 여성 셰프 3명과 남성 셰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형 있게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또한 레스토랑 미션에서 방출된 3명의 셰프로 구성된 안유성 셰프의 팀인 ‘방송국도 줄 서는 식당’은 여성 셰프가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나머지 6개 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재료의 방 미션에서 흑수저 팀 ‘트리플 스타’는 ‘중화육쌈과 고추잡채, 무생채’를 선보였다. 해당 메뉴는 육전 위에 중화풍 야채볶음과 무생채를 올리고, 사천 냉채 소스로 마무리한 요리다. 각 셰프에게 역할을 배정할 때, 헤드 셰프 ‘트리플 스타’는 “큰 용량을 많이 해 보셔서 전체적인 칼질 들 엄청 빨리하시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두 명의 여성 셰프인 ‘이모카세 1호’와 ‘급식 대가’에게 야채를 썰는 역할을 맡겼다. 또한 ‘반찬 셰프’는 육전을, ‘철가방 요리사’는 야채볶음을 담당했다. 이 메뉴에서 가장 임팩트를 주는 것은 중화풍 야채볶음이며, 프로그램은 2차 테이스팅을 거쳐 야채볶음의 조리법을 확정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모카세 1호’와 ‘급식 대가’는 맛을 내는 과정을 참여하지 못한 채, 100인분의 야채를 손질하고 육전을 부친 후, 마지막으로 플레이팅까지 진행하여 미션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역할 배정 방식은 ‘생선의 방’ 대결에서도 반복된다. 이번 미션에서 양 팀에는 각각 한 명의 여성 셰프가 등장한다. 흑수저 팀에는 ‘중식 여신’이, 백수저 팀에는 이영숙 셰프가 참여한다. 팀 내에 이탈리아인 셰프가 세 명이 있는 흑수저 팀 ‘불꽃 남자’는 ‘리소토 with 중화풍의 문어구이



〈그림 1〉 재료의 방 - 이모카세 1호, 급식 대가

와 도미라는 메뉴를 선보였으며, 한식으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백수저 팀은 메뉴를 ‘가자미 미역국’으로 정한다. 미션이 시작하면서 최현석 셰프가 이끄는 백수저 팀은 제공되는 식재료들 대량으로 확보하고 흑수저팀은 재료 부족으로 위기에 마주쳤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양 팀의 생선 손질 실력 비교와 최현석 셰프가 흑수저팀에서 대파를 빌려 가는 장면 등이 갈등 요소로 등장한다. 미션 중반, 백수저 팀은 준비된 가리비 부족으로 작은 위기를 겪으며, 흑수저 팀은 20분 안에 100인분의 리소토를 완성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중식 여신’은 리소토 위에 올릴 사시미에 매콤한 포인트를 더하는 중화풍 마라 오일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소스는 요리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지만, ‘중식 여신’이 소스를 만드는 과정은 역할 배분을 소개할 때만 잠깐 등장했다. 이영숙 셰프가 요리하는 장면으로 방송에서 부각된 유일한 순간은 미역을 볶는 모습이었다. 생선이 주재료인 만큼, 대결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생선 요리에 집중되었다. 최현석 셰프는 이영숙 셰프가 만든 미역국을 믹서에서 갈고 생크림을 추가하여 양식 소스처럼 활용하여 새로운 맛을 부여했지만, 이영숙 셰프가 만든 미역국 본연의 맛은 약해졌다. 이와 같이, 여성 셰프는 생선과 관련된 역할을 배정받지 못하고, 또한 프로그램 연출을 통해 부차적인 역할로 비쳐졌다.

이후에 진행되는 ‘레스토랑’ 미션에서 여성 셰프도 여전히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이번 미션에서 여성 셰프가 포함된 팀은 ‘Jang 아저씨 식당’, ‘역수르 기사식당’과 ‘트리플 반점’까지 총 세 팀이었다. 해당 미션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먹방BJ 등 인플루언서도 등장하며, 방송의 초점은 요리 과정보다 레스토랑 운영과 인플루언서의 반응에 맞춰졌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 셰프들의 역할은 더욱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그중 정지선 셰프의 메뉴 ‘마라크림새우딤섬’은 상대적으로 자주 노출되었지만, ‘급식 대가’와 이영숙 셰프는 이번 라운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미션 시작 전에, 각 팀은 한 명의 셰프를 방출해야 했는데, ‘역수르 기사식당’ 팀 팀원 ‘요리하는 돌아이’는 “김 한 장으로 너무 힘이 실려 있지 않나. 제가 구웠어도 된다”라는 이유로 ‘이모카세 1호’에 투표했다. 그러나 미션이 시작되며 모든 음식에 고급 재료를 사용한 ‘역수르 기사식당’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음식은 ‘이모카세 1호’가 구운 김이었다. 비싼 캐비아로 만들었던 ‘캐비아 알밥 천국’은 인플루언서들에게 “5만 원 중에 김이 3만 5천 원 값을 한다”, “김 없으면 안 먹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뉴의 핵심은 캐비아였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이모카세 1호’가 구운 김이 ‘역수르 기사식당’ 팀의 매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셰프가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도 결국 팀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흑백요리사〉에서 여성 셰프들은 주로 부수적인 역할에 배치되었으며, 주방 내에서 중요한 작업을 맡기보다는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현은 현실의 요식업계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AA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음식점업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63.2%에 달하지만, 높은 직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낮아 I 직급(관리직)은 8.6%에 불과하다. 이 조사는 여성이 업계 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직급에 머무르며 의사 결정권이 있는 역할을 맡지 못하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에서 여성 셰프들이 맡는 역할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 분배가 드러난다. 세실리아 리지웨이는 남성과 여성이 일을 통해 물적 자원을 얻고 권위 있는 지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현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흑백요리사〉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는 단순한 연출상의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이 대중문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재생산되며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2) 여성 리더십의 도전

역사적으로 리더십이 오랫동안 초월적인 요소와 결부되어 왔고,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천적인 자질로 간주되어 왔다(윤혜린, 2009). 이와 더불어, 젠더 규범은 리더십을 성별화해 왔다. 남성은 어릴 때부터 강인함과 결단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권력을 가진 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리더십은 남성성과 결합하여 권위적, 위계적, 경쟁적인 특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리더십을 남성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식하며,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여성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백연정, 2024).

특히 주방과 같이 효율성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환경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요리 업계에서 리더십은 남성성을 기반으로 규정되어 왔다.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서 여성은 감정적이고 예민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성 셰프는 어렵게 리더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여전히 의심과 편견을 받는다. 데버러 A. 해리스와 패티 주프리는 주방에서의 여성 리더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남성적인 리더십을 선택하는 리더,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여성스러운 리더, 세 번째는 엄마처럼 행동하는 용인되는 리더.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하는 여성 리더는 남성적인 기질을 드러내면 ‘여성적이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아 ‘예의 없는 나쁜 녀’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된다. 여성스럽게 행동하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유혹자 유형이 되어 실제로 이런 유형을 선택하는 셰프가 거의 없다. 세 번째 유형을 선택하는 여성 리더는 엄마처럼 직원을 보살피고 조심스럽게 피드백과 조언을 준다. 하지만 모성형 리더에게는 남성 리더가 할 필요가 없는 감정노동을 요구한다. 또한 이에 따라 주방의 위계질서도 자연스레 무너진다. 인터뷰에서 헤드 셰프가 되어도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맡는다는 여성 리더가 존재한다. 결국, 여성 셰프는 어떤



〈그림 2〉 재료의 방 - 팀 구성

유형의 리더십을 선택하든 고정관념과 구조적 제약에 부딪히며, 주방에서 권위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흑백요리사〉는 여성 리더십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와 도전을 드러낸다. 프로그램에서 총 8개의 팀이 구성되었지만, 여성 셰프가 헤드 셰프를 맡은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으며, 해당 팀은 방송에서 ‘팀워크 실패 사례’로 전시되었다.

여성 셰프가 헤드 셰프를 맡은 유일한 미션이 바로 ‘재료의 방’ 대결이다. 고기의 방을 선택하는 백수저팀에서 “음식 방향 플레이팅을 하시니까 스타일을 잡는” 조은주 셰프가 헤드 셰프 역할을 맡았다. 대결이 시작하기 전에 정지선 셰프는 성격이 센 팀원들이 모여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대결이 진행되면서 백수저팀의 팀워크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갈등은 감자메시에 들어갈 소스에 대한 것이었다. 신경 룡기스트 셰프와 최강록 셰프는 감자메시의 조리법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신경 룡기스트 셰프는 “정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정하질 않았고, 정하질 않다 보니까 모든 셰프들이 서로의 셰프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약간…”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두 번째 갈등은 고기 조리법에 관한 것이었다. 동파육의 조리법은 껍질을 태우거나 기름에 튀긴 후, 부드럽게 삶아 소스에 졸이는 방식이다. 황진선 셰프는 껍질을 태운 뒤 냄비에서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고기가 충분히 부드러워질지 걱정한 정지선 셰프는 고기를 먼저 튀긴 후 끓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지선 셰프는 “우리 시작부터가 조리법부터 서로 공유를 안 했다”라며, “시작부터가 어떤 요리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다. 그거를 시작 안 하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백수저 조은주 팀의 실패는 메뉴 및 조리법에 대한 명확한 사전 조율이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 대결 시작 전, 조은주 셰프가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메뉴를 수정하며 요리 구성을 종이에 정리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토론 중 한 셰프가 “일단 빨리 쓰고 나 고기 갖고 오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후 인터뷰에서 “주메뉴 가지고도 한참을 싸우더니, 가니시 갖고 또 한참 싸우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정하면 되지 않냐고”라고 처음에 메뉴를 신속하게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결국 사전에 조리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조은주 셰프가 여성 헤드 셰프로서 초반부터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팀 내 갈등을 일으킨 요인이었다. 주방에서 명확한 위계질서가 형성되지 않았고, 팀원들이 각자 의견을 내세우는 상황은 여성 리더가 남성 중심적 영역에서 권위를 확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백수저 조은주 팀의 팀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며 혼란에 빠진 장면과 대조적으로 프로그램은 흑수저 팀의 조직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흑수저 팀 헤드 셰프 ‘트리플 스타’는 메뉴 구성을 직접 계획하고, 명확한 지시를 통해 팀원에게 역할을 분배해서 팀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흑수저 팀원들이 ‘트리플 스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강조되었고, 팀의 성공 또한 ‘트리플 스타’의 리더십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그려졌다. 대비되는 두 팀의 모습은 프로그램 내 갈등과 긴장감을 높이며, 방송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현 속에서도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윤희린(2009)은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권위주의적인 것과 탈위계적으로 구분한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핵심은 권력과 통제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방안 지시, 권한 발휘 등의 특징을 가진다. 반면, 탈위계적 리더십의 핵

심은 구성원을 지원하고 복돋우며, 권한 분산,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 찾도록 돕기, 내부 토론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 찾기 등 특징이 있다. 조은주 셰프의 리더십 패러다임은 후자에 가깝다.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팀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역할을 나눌 때도 단호하게 지시하기보다 팀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줬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방송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려졌으며, 결국 팀의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권위적 리더십이 남성 중심적 분야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현대에 이르러 리더십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제 리더십의 개념도 리더의 개인적 천부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집단적 성취를 위해 구성원 각자의 능력 양성으로 초점이 전환된다. 리더십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테버러 A. 해리스와 패티 주프리의 연구에 따라 실제로 주방에서 일부 여성 셰프들은 탈위계적 리더십을 강점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여성 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은 남성 셰프보다 더 민주적이고 인간적으로 주방을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적 리더십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며, 고압적인 주방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여성 리더십은 위계를 강조하는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윤혜린, 2009). 대중문화 속에서 더욱 많은 여성 리더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여성 리더십이 조명될 때,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을 허물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3) 상징적 재현

스타셰프란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셰프를 의미한다(강진희, 2018). 세계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대표적인 스타셰프는 고든 램지 (Gordon Ramsay), 제이미 올리버 (Jamie Oliver)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연복 셰프, 최현석 셰프, 최강록 셰프 등의 남성 셰프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남성 셰프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남성 셰프들을 일 중독자로 그리며 요리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곧 그들의 전문성과 커리어 구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절에서는 대중매체가 남성 셰프와 여성 셰프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르게 상징적으로 재현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며, 방송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셰프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남성 셰프의 이미지 구축

대중매체에서 남성 셰프는 요리에 대한 극단적인 몰입, 헌신적 정신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인 안성제 셰프는 등장부터 강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심사할 때도 미식에 대한 특유의 감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프로그램 속에서 참가자들이 그를 “모든 요리사가 존경하는 분”, “완벽하신 분”이라고 칭하며 존경을 표한다. 안성제 셰프 역시 “손님에게 나갈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릭트(strict)하다”라며, 최선을 다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봐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심사 과정에서 안성제 셰프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소의 익힘 정도”, “고기가 이븐(even)하게 익지 않았어요”라는 날카로운 심사평을 남기며, 인터넷에서 유행어까지 될 만큼 인기를 얻는다. 이러한 완벽주의 정신은 곧 요리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가르치는 남성’과 ‘배우는 여성’의 구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많고 전문 지식을 가진 남성과 가르침을 받은 젊은 여성의 대조를 통해,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고 성별 위계를 강화한다(정사강, 이소

현, 김은영, 2024). 1회 ‘흑수저 결정전’에서 ‘중식 여신’이 요리했을 때, 50년 차 중식대가 백수저 여경래 셰프가 위층에서 ‘중식 여신’의 요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여준다. 여경래 셰프는 ‘중식 여신’을 “나를 따라다닌 게 한 10년 정도 됐으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친구가 다 갖고 있으니까, 중식 여신은 올라올 거 같다. 제가 절대 인정한다”라는 소개를 통해 ‘중식 여신’과의 사제관계를 드러낸다. 방송에서 ‘중식 여신’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장면과 이를 지켜보며 정색하는 여경래 셰프의 모습이 교차 편집했으며, 최종적으로 ‘중식 여신’이 합격했을 때 활짝 웃는 여경래 셰프의 반응을 강조했다. 또 ‘1:1 흑백 대전’ 미션이 진행하기 전에, 한 여성 셰프는 여경래 셰프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대학생 1학년 때 중식 수업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르치는 남성’과 ‘배우는 여성’이라는 관계가 방송에서 구축된다. 이러한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이 반드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성공이 남성의 가르침과 인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여성의 전문적 성장을 남성의 지도와 승인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는 요리에 대한 몰입을 남성 셰프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프로그램 속 일부 남성 셰프들은 ‘요리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다. 용포를 입고 등장한 ‘비빔대왕’은 처음부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흑수저 결정전’에서 심사위원인 백종원이 전주비빔밥 맛을 봤을 때, ‘비빔대왕’은 “음악과 함께 비빔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며 북을 치고 ‘비빔 노래’를 불렀으며 “비빔 비빔~” 노래를 따라 불렀던 백종원은 “탈락이다. 너무 짜다!”고 평가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비빔대왕’도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요리하는 돌아이’라는 별명을 가진 참가자는 등장과 동시에 “요리할 때만 진지한 토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으며, ‘인생을 요리해라’ 라운드에서 ‘요리하는 돌아이’는 자신이 외모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요리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실제로 방송에서 ‘요리하는 돌아이’가 마치 광인처럼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한 예능적 캐릭터를 넘어, 대중매체가 요리에 대한 극단적 몰입과 광기를 어떻게 ‘재능’으로 변환하여 서사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남성 셰프의 이미지는 개인영웅주의 서사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대중매체는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는 인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천재 셰프’ 혹은 ‘자수성가형 셰프’의 서사를 강조한다. 만화방을 운영하면서 떡볶이를 팔았던 ‘만짚남’은 선생님의 지도 없이, 교과서보다 더 많이 본 만화책 〈맛의 달인〉과 〈철냄비 짱!〉에서 영감을 얻어 책에서 나온 요리를 연구하여 독학으로 셰프가 되었다. 또한 유명한 학교에 다닌 적 없고 유명한 셰프 밑에서 일을 배운 적도 없는 ‘철가방 요리사’는 중식당 배달원으로 시작해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워 큰 노력을 통해 셰프로 성장했다. 이러한 극적인 서사들은 한 편의 성장 드라마처럼 구성되었으며 남성 셰프를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둔 ‘영웅적 존재’로 그리며, 시청자들은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중매체에서 남성 셰프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완벽주의적 전문가, 여성의 지도자, 요리에 미친 광기 어린 천재, 그리고 개인적 노력과 천재성으로 성공을 거둔 영웅의 이미지로 재현된다. 이러한 서사는 남성 셰프들을 스타셰프로 만들어 요리 업계에서 권위를 갖는 존재로 자리 잡게 한다.

(2) 여성 셰프의 재현

① 여성 셰프에 대한 호칭

과거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호명은 가부장제라는 권력관계를 매개로 하여 ‘여성’이라는 규범적 범주를 만들었다. 시대별 이데올로기와 결

합한 호명은 여성을 가정 내의 어머니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황슬아, 강진숙, 2014). 현대에 들어서며 직업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가정주부로서 요리하고 청소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최현경, 2019). 〈흑백요리사〉에 등장하는 여성 셰프들 또한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호명되고 평가받는다.

‘흡수저 결정전’ 심사 중, 안성제 셰프가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 온 ‘천만 백반’의 요리를 심사했을 때, 구경하는 백수저 셰프는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며, 안성제 셰프도 ‘천만 백반’에게 “어머니, 굼은 어디서 온 거예요?”라고 물어보며, “어머니만의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기의 방’ 미션에서 한 셰프가 대결을 구경하며 “역시 이모님들 깔끔하시다”라고 ‘이모카세 1호’와 ‘급식대가’의 칼질을 칭찬했다. 뿐만 아니라, ‘생선의 방’ 대결에서 이영숙 셰프가 미역국을 만든 모습을 보고 한 셰프가 “역시 어머니가 딱 계시니까”라는 식의 평가가 이어졌다.

대중매체에서 남성 셰프가 가족 호칭으로 불리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방송에서 여성 셰프들을 ‘어머니’ 혹은 ‘이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그들의 요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적인 손맛과 연결된다. ‘생선의 방’ 대결에서, 생선을 처리하는 안유성 셰프의 칼질을 보고, 다른 참가자가 “진짜 명장님이어서, 기술적으로 워낙 뛰어나신 분이여 가지고”라는 표현과 함께 남성 셰프에게 전문성과 권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여성이 만든 음식은 배고픈 식구들을 먹이는 돌봄 형식의 양식이라면, 남성의 요리는 기술적이면서 창의적이고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이미지를 만든다(이라영, 2019).” 〈흑백요리사〉는 이러한 성 고정관념을 다시 강화했다.

② 감동적 여성 서사의 이면

여성 셰프의 요리는 종종 ‘어머니의 손맛’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여성

셰프의 이야기도 한국 사회에서 이상화되는 ‘희생적인 어머니상’과 겹친다.

‘인생을 요리하라’ 라운드에 참가자가 자신의 인생을 단 하나의 요리에 담아내야 하는 미션으로, 8명의 참가자 중 2명의 여성 요리사만이 이번 라운드에 진출했다. 앞서 언급한 정지선 셰프 외에 또 한 명의 여성 요리사는 ‘이모카세 1호’다. ‘이모카세 1호’는 자신의 인생 요리로 안동국시를 선보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와 뇌출혈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하자, ‘이모카세 1호’는 국수 삶는 일을 배우며 가게 운영을 도왔다. 결국 국수 장사로 점포를 확장해 생계를 안정시켰다. ‘이모카세 1호’의 요리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 가장 평범한 요리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통과 눈물로 만든 ‘이모카세 1호’의 요리는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여성의 요리를 전문성이나 기술보다는 ‘희생’, ‘돌봄’, ‘가족에 대한 헌신’이라는 감정 코드 안에서 재구성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여성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중매체의 재현은 요리 업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 셰프의 성공 서사는 그들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여성 셰프는 가정적인 영역으로 제한한다. 대중매체가 지속적으로 남성 셰프를 스타셰프로 부상시키고, 여성 셰프의 부재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당화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본 논문은 요리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프로그램 내 젠더 재현 방식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여

성이 가정 내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주체로 등장할 때, 프로그램이 성차별적 서사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참가자 중 남성이 압도적으로 등장하여, 이야기 전개 역시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 서사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연출이 아니라, 실제 요리 업계에서 여성 요리사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다. 요리 업계는 오랫동안 성별에 따른 차별적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여성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 남성 중심적 업무 환경, 그리고 여성이 가정 내의 돌봄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가해져 셰프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남성 중심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대중매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여성 셰프들은 이미 업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팀전에서는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한, 프로그램은 여성 참가자들이 팀에 기여하는 모습을 충분히 조명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에서도 여성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남성보다 교육과 승진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를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하며, 시청자에게도 남성 중심의 역할 구도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 되도록 만든다.

셋째,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실패 사례로 제시되며,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리더십을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해 온 요리 업계의 현실과 맞닿아 있으며, 남성 중심의 주방에서 여성 셰프는 쉽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여성 셰프의 리더십은 민주적이고 팀원 각자의 역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리더십은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주방 문화

를 개선할 가능성을 지니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보여준다. 다만 방송에서 여성 셰프가 리더로 등장한 사례가 제한적이므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젠더 본질화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대중매체에서 더 다양한 여성 리더의 등장을 기대하여, 향후 연구에서 여성 리더십이 어떻게 수용되고 평가되는지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은 일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영웅 서사를 통해 남성 셰프들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스타 셰프로 부각되며, 업계 내에서 권위를 확립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반면 여성 셰프는 여전히 ‘엄마’, ‘이모’와 같은 가족 중심의 호칭으로 불리며, 여성의 이야기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성 셰프는 전문 직업인이라기보다 가정적 역할의 연장선에서 평가되며,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은 대중적 성공을 거둔 예능 프로그램이 오히려 직장 내 구조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중매체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여성이 양적으로 적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보조적 위치에 배치되고 가정적이며 희생적인 서사를 통해 재현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부재는 정당화되고, 성별 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재현은 요리 업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진로 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청자에게 성별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나아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갖춘 여성 셰프를 보여주는 것은 단지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요리 업계의 노동 환경과 조직 문화를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오락적 기능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활약과 전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은 오늘날 필수적인 과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2) 단행본

테버러 A. 해리스, 패티 주프리. 2017. 『여성 셰프 분투기』. 김하현(역). 현실문화연구 (현문서가).

손희정, 최지은, 심혜경, 오수경, 오혜진. (2019). 『어들의 당나귀 귀』. 후마니타스.

아이린 파드빅, 바버라 레스킨. (2021). 『우리천장 아래 여자들』. 황성원(역). 아날로그(글담).

윤혜린. 2009. 『여성 리더십의 공간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이라영. 2019. 『정치적인 식탁』. 동녘.

한복진. 2001. 『우리 생활 100년 · 음식』. 현암사.

(3) 논문

강은수. 2005. “대중문화에서 나타난 여성성의 재현: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과 ‘Anycall’광고 이효리 편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진희. 2018. “TV 요리프로그램이 스타셰프 이미지와 직업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외식 관련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식경영연구』 21(2): 7-31.

박민서. 2024. “OTT 요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가진 스토리텔링 방식 연구 - <흑백 요리사>와 <헬스 키친>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9): 103-112.

박신자. 2013. “TV음식프로그램의 포맷과 서사성의 의미구조 : KBS <한국인의 밥상>에 대한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연정. 2024. “여성 리더십과 성 고정관념 연구 동향.” 『리더십연구』 15(1): 19-54.

신상기. 2015. “텔레비전 예능의 대중문화적 함의: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 리얼 버라이어티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진아. 2008. “역할모델 및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와 진로포부의 관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현, 장은미. 2018. “예능 프로그램의 언니들: 여성성의 일탈과 확장.” 『한국여성학』 34(4): 173-206.

- 이승희. 2019.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역할 고정관념 연출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63(1): 325-368.
- 이재훈. 2014. “국내 청년층의 창업인식 실태와 증대방안.” 『벤처창업연구』 9(6): 1-8.
- 정사강, 이소현, 김은영. 2023.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속 부부서사와 성역할 담론.” 『한국방송학보』 37(5): 297-339.
- _____. 2024. “여성 연예인들의 재현 양상과 위치성: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9(3): 51-103.
- 차소정. 2016. “리얼리티 TV 요리 프로그램의 포맷 특성 연구: 〈한식대첩〉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경. 2019. “미디어의 여성 이미지 재현과 “여성-되기”에 대한 질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슬하, 강진숙. 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4): 356-388.
- Beverly (Shih-Yun) Chen, Alison McIntosh, Candice Harris & Warren Goodsir. 2020. “Media images and the gendered representation of chefs.” *Research in Hospitality Management* 10(1): 1-6.

(4) 통계자료

- 교육부. 2023.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 안내>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2022. <2022년 AA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데이터 감소 및 개선방안>
- UN Women, 2023. <Forecasting time spent in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5)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김혜진. 2024. ““11만명 몰렸다”…흑백요리사 인기에 예약 앱 먹통된 셰프 식당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136099>
[검색일: 2025.03.10.]
- 한정민. 2024. “82대 18, 후수저 백수저의 벽보다 큰 흑백요리사의 성비.”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00>
[검색일: 2025.03.10.]
- 황소영. 2024. “흑백요리사 향한 식지 않는 열기 6주 연속 화제성 1위.”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1027?influxDiv=NATE>

[검색일: 2025.03.10.]

황수현. 2009. “육설이 꽃피는 주방.”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5849>

[검색일:2025.03.10.]

Julia Lee. 2020. “세계 여성의 날, 주목할 5명의 여성 셰프.” <미쉐린 가이드>.

https://guide.michelin.com/kr/ko/article/people/세계_여성의_날_주목할_5명의_여성_셰프 [검색일: 2025.03.10.]

Abstract

**Gender and Media Representation
in cooking competition show**
– A Case Study of the Netflix Variety Show
‘Culinary Class Wars’

YAN BINGBING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Netflix's Korean culinary competition show ‘Culinary Class Wars’ to explore how popular culture contributes to reproducing sexist narratives. Released in late 2024, the program achieved considerable popula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ternationally, with several participants subsequently becoming star chefs and gaining prominence in mass media. Although the program drew attention for emphasizing fairness beyond class distinctions, the stark gender imbalance among participants—with a ratio of 82% male to 18% female—highlights underlying gender issues. Starting from this gender imbalanc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rogram reinforces longstanding gender inequalities within the culinary industry. The analysis reveals a pattern in which female chefs are marginalized or assigned secondary roles, female leadership is undervalued, male chefs’ expertise and authority are emphasized, and female chefs are depicted according to gender stereotypes. Through these portrayals, mass media continuously reproduce and reinforce structural gender inequalities in the culinary industry. Mass media, as a public institution, should play a role in encouraging women to actively engage in social roles. It is essential to highlight the presence of female professionals, including female chefs, to dismantle gender

stereotypes and foster a more equitable occupational environment.

Key words: gender, cooking show, gender stereotyping, gender equality, mass media, female chefs

- ▮ 투 고 일 : 2025년 3월 13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5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연극계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 미투 운동 이후의 젊은 연극인들에 대한 사례연구*

김선기**

| 목차 |

- 1. 들어가며
- 2. 선행연구 검토
 - 1) 세대단위와 촉발 사건
 - 2) 페미니즘 연극이라는 기획
- 3. 연구방법
- 4.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 1) 청년예술지원사업과 새로운 진입 경로
- 5. 페미니즘 연극과 연극계의 구조 변동
 - 1) 극단 체제의 붕괴와 위계의 변동
 - 2) ‘새로운’ 연극 담론과 연극 미학
 - 3)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갈등 상대
- 6. 나가며

| 초록 |

이 연구는 국내 연극계 내에서의 세대 현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탐구한 결과, 페미니즘 연극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세대단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젊은 연극인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연극계 내에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가 형성되게 된 맥락과, 이 세대단위의 실천이 추동한 연극계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을 새로운 세대단위로 묶어주는 계기가 된 촉발 사건은 2018년 있었던 연극계 미투 운동이었다. 청년예술지원사업, 그리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신참자 연극인들의 연결망이 세대단위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참자들은 연극 내적으로는 드라마 연극 중심이며,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위계적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전면 재구성하여 만든 원고입니다.

** 연세대학교 fermata@culturalpolitics.kr

인 연극 문화의 산물인 기성 연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대안적인 네트워크 내에 명확한 소속감과 세대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들은 '다양성', '사회참여적 연극', '새로운 연극 미학', '안전한 창작 환경' 등의 담론과 창작 실천으로, 연극 장의 내기물이라 할 수 있는 '연극적인 것'을 재정의하려는 전복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는 주류-기성 연극인들,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기표로 총칭되는 연극계의 변화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연극인들과 현재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주제어: 세대단위, 연극 장, 미투 운동, 촉발 사건, 페미니즘 연극

1. 들어가며

연구자는 2019년 여름, 지인이 배우로 소속된 극단으로부터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의 자문을 요청받아 응한 일이 있다. 해당 연극의 소재는 '젊은 연극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 및 관련 제도의 모순 등에 관련한 것이었는데, 연출 및 배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연극계 내부에 일종의 세대 현상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연극계 내의 세대 갈등, 기존의 도제식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연극계에 진입한 행위자들이 나타나면서 생겨나는 문화적인 부딪힘, '청년'으로 호명되는 예술가들의 정체성 혼란 등에 대해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연극계의 젊은 세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 일로 이끌리게 되었다.

질적연구의 타당도를 평가하거나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반성적 주관성(reflexive subjectivity)이 있다(김영천, 2016). 이는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선형적인 이론이나, 가설, 시각 등이 실제 현장 작업을 통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래 잘 모르던 세계를 연구할수록 그 세계에 대한 앎이 깊어지고 관점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

견을 연구대상과의 만남 속에서 확증하게 됐다면, 연구 과정이 덜 성실하지는 않았는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연극계의 청년들을 만나보자는 생각과 세대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연구가 진행될수록, 연극계의 세대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페미니즘이 연극계 내에서 일종의 세대 간 갈등 내지는 분리 현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젊은 연극인들 사이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며, 여기에서 출발하는 갈등이 잠재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국내 연극계의 세대 현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하여, 그 세대 현상이 페미니즘 연극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투 운동이라는 촉발 사건을 기폭제로 형성된 젊은 연극인 세대단위가, 좋은 연극과 그 제작방식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기 위한 상징투쟁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 이는 연극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연극계 내부의 갈등 구도를 어떤 전선으로 형성시켰는지를 살펴보겠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세대단위와 촉발 사건

만하임(2013)은 세대를 세대위치(Generationslagerung), 세대연관(Generationszusammenhang), 세대단위(Generationseinheiten)라는 세 가지 세부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이러한 설명법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대위치가 세대연관으로 전환되려면 ‘공

동 운명에 대한 참여, 즉 동시대에 출생한 출생 코호트 사이를 잇는 실질적인 연관이 발생하여야 한다. 세대단위는 동일한 세대연관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갖는 구체적인 집단을 뜻한다. 세대단위는 세대 의식을 발명하여 같은 세대위치에 있는 동년배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특정 세대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와 단체를 사례로 삼은 선행연구는 많으나, 세대단위라는 세대 사회학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청소년(youth) 내부의 세대단위로 급진주의(radicalism), 괴짜주의(freakism), 공동체주의(communalism), 복고주의(revivalism) 등의 하위 범주를 제시한 Laufer와 Bengtson(1974)은 사회 변화의 침단을 달리면서 당대의 사회정치적 딜레마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세대단위는 주로 기존의 전통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중산층의 젊은 구성원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세대 의식을 발명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계급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화자본을 갖춘 중산층 계급이 사회 내에서 상징 생산을 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세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의 경향을 폭넓게 살펴본 Braungart(1984)는 170년간 서구 역사 내에서 4개의 역사적 세대와, 41개의 세대 운동, 82개의 세대단위를 변별해내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단위가 자생적으로(spontaneous) 형성될 수도 있지만 성인 단체의 후원을 통해 활동하게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세대단위의 형성과 그 활동이 사회 전체적인 세대 관계의 틀과 무관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Lippmann과 Aldrich(2016)는 세대단위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했는데, 경영학자들의 연구이지만 사회학적으로 세대 현상을 검토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들은 세대단위의 지속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과 집단행동에 달려 있으며, 세대단위의 가능성은 촉발 사건

(triggering events)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촉발 사건은 개인을 세대단위로 통합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사회가 혼란과 변화의 시기에 있다면 개인은 이러한 촉발 사건에 의해 강력한 사회적, 정서적 힘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경유해, 경영학자들은 젊은 기업가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세대단위의 결속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촉발 사건을 일으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로 나아간다. 사회과학자들 역시 세대 현상의 구축에 있어서 촉발 사건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다. 사실 세대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한 사건의 존재는 만하임(2013)의 고전적인 저작에서부터 트라우마적 사건(traumatic events)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된 바 있는데, 이를테면 당대 한국에서 세월호, 강남역, 이태원과 같은 상징들이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이러한 개념 안에서 사고할 수 있다. 특정 출생코호트에게 공통의 상흔을 남기는 트라우마적 사건은 세대단위를 발생시키는 촉발 사건의 중요한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트라우마적 사건이 아니라 공통의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일으키는 촉발 사건도 충분히 세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집단적 트라우마는 질적으로 특별히 강력한 세대단위 형성의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촉발 사건을 통해 역으로 세대를 분류할 수 있다는 발상 아래에서, 개인에게 생애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질문하여 코호트별 차이와 그 배경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표본 조사에서는, 가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다른 세대(출생코호트)는 다른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했으며, 대체로 모든 세대가 자신의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발생한 사건을 꼽는 경향이 나타났다(Schuman & Scott, 1989). 이는 생애 초기에 겪은 사건이 개인의 이후 생애에서의 태도나 성향, 행동에 결정력을 갖는다는 세대적 각인(generational imprinting) 이론으로 나아갔고, 여러 시간적, 국가적 배경에서 이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됐다. Schuman과 Coming(2012)은 6

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서 세대적 각인 이론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했으며, 개인의 성향을 결정짓는 변화가 발생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의 상한선을 20대 후반으로 추정하였다. (만하임(2013)은 이를 17세에서 25세까지의 기간으로 설명했던 바 있다.) 한국 사례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Song과 Muschert(2013)는 한국 거주 한국인, 그리고 한국 배경의 미국 이민자를 조사하여 두 집단이 비슷한 사건을 중요하게 집단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미국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이민 이후의 사건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회상된 사건의 다양성이 적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연극계에서 세대 구분이 구성되고, 젊은 연극인들의 세대 단위가 결집하게 된 배경에 연극계 미투라는 강력한 촉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룬다. 세대단위의 형성에 촉발 사건이 갖는 결정성에 관한 이론적 이해는, 왜 하필이면 미투와 페미니즘, 젠더 의제에 관한 태도를 중심으로 연극계에서 세대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한다.

2) 페미니즘 연극이라는 기획

1960년대 68운동과 관련한 사회적 변혁의 에너지는 연극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서구에서도 이 시기에 페미니즘 연극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제2물결 페미니즘이 등장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페미니즘은 연극 관행을 자유화시키고 도전과 실험을 촉진시킨 것으로 여겨졌는데, 극의 주제 선택, 연극의 형식, 관객의 발굴 등 연극의 모든 측면을 민주화시키려는 노력이 벌어졌다(Wandor, 1984). 페미니스트 회의를 하는 것이 연극의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연극인 당사자(Austin, 1991)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페미니즘 연극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페미니즘 연극의 역사가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계에 몸담은 각 세대의 여성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고 페미니즘 연극을 새롭게 해 나가야 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Canning, 1993).

최근의 몇몇 문헌을 살펴보면 페미니즘들 사이의 차이까지를 살펴면서 페미니즘 연극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오타와에 사는 사회주의자이자 극작가인 Teitel(2019)는 페미니스트는 의견이나 철학이 아니라 활동이고 사건, 즉 그것이 일어나는 연극 그 자체이며,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는 정적이고 반혁명적인 연극이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ston(2016)은 연극이 상연되는 극장을 정치적으로 이질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반대 및 옹호 활동의 장소로 이해하면서, 다중적이고 반체계모니적인 페미니즘 연극이 저항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저항의 네트워크는 샹탈 무페(Mouffe, 2013)가 제안한 개념으로, ① 저항을 특정 형태에 귀속시키는 어려움을 피하면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다양한 저항을 연결하여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특정한 지배구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동등성의 사슬(chain of equivalence)’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도에서의 페미니즘 연극에 관해 논의한 Fatima(2024)는 극장이 여성들의 공간과 몸을 되찾고 재소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현재의 모든 연극적 설정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이 페미니즘 연극에서 중요한 행동주의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페미니즘 연극이 단순히 다양한 연극 장르 중 하나로 정착하는 데 만족하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 연극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기획이자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연극은 1980년대에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산울림소극장에서 공연된 〈위기의 여자〉는 보부아르의 작품을 각색한 것으로 국내 페미니즘 연극의 첫 번째 작품이다. 이후 서구 페미니즘 계열의 희곡들이 번역되면서, 또 당시 정치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 페미니즘 연극이 사회비판적인 작업에서의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졌다는 맥락

에서 짧은 기간 부흥기를 맞았으나 1990년대에 주춤하여 2010년대 초반까지 거의 명맥이 끊겨 있었다(이지영, 2019). 1990년대 초 여성 연극에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페미니즘 연극이라기보다는 상업화된 여성 연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성 연출가들마저 “여성 관점에 편들기보다 ‘보편적 인간’에 대한 관심을 화두에 삼겠다”고 발언하는 등 내부로부터의 침체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최영주, 2004, 372쪽).

2018년 미투 운동 이후로 페미니즘 연극이 새롭게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는 진단이 이미 제출된 바 있는데, 이지영(2019, 267쪽)은 페미니즘 연극이 연극계에 “지난 2년 동안 그동안의 20년보다 더 가파른 변화”를 가져왔다는 관찰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방옥(2020)은 페미니즘 연극과 운동의 재활성화가 미투 운동은 물론 그 이전의 세월호 사건이나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비롯해 연극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격변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개별 작품의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체의 의식, 제도, 현장의 판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기에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다.

생산자인 연극인들뿐만 아니라 관객 차원에서의 변화도 감지되는데, 특히 젊은 여성 관객들은 “예술적 감성뿐 아니라 정치의식 면에서도 고양된 상태”(김방옥, 2020, 169쪽)에 있다. 스스로를 중년의 여자 배우라고 소개한 정윤경(2023, 171쪽)은 페미니즘 연극이 재활성화된 이후 “젊은 여성 관객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젊은 남자 배우가 나오는 작품만 좋아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이 깨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 운동 등을 거치며 젊은 여성들의 의식이 페미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된 상황이다. 한편, 안티페미니즘이 주요한 정치적 전략으로 등장할 만큼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주요한 논쟁거리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다. 박동수(2020, 31쪽)는 “청년세대가 페미니즘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계 설정 없이는 자신의 정치적 주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걸맞는

세대 명칭이 ‘페미니즘 세대’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젊은 여성들이 주요한 소비자이기도 한, 또 생산자 집단에서도 여성들의 숫자가 상당한 편이었던 연극계가 페미니즘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단일대오의 사상체계가 아니다. 물론 벨 후스(Hooks, 2000)가 정의한 대로 성차별, 성적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 페미니즘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질 수 있겠지만, 무엇이 성차별이고 착취이고 억압인지에 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이 존재하며 페미니즘 내부에도 다양한 입장과 분기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연극을 페미니즘 연극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페미니즘 연극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연극’이라는 기표를 중심으로 연극계에 젊은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페미니즘 연극 내부의 차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다. 다만 페미니즘 연극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 논의는 물론, 이후 서술할 연구 결과에서도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페미니즘 연극’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① 대체로 ‘단순히 여성이 출연하는 연극’, ‘보편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특수성을 삭제하는 연극’과는 다르다는 점, ② 하나의 장르라기보다는 연극이라는 것 자체를 재정의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그 기준이다.

3. 연구방법

연극계 내부에서 어떠한 세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젊은 연극인을 심층면접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므로 연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자료 수집 이전에 사

전 승인을 획득하였으며(승인번호: 7001988-202301-HR-1585-04), 특히 연구참여자의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극계에 진입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참자가 표집 대상이었는데, 연극에 입문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연령이 39세 이하인 연극인을 연구참여자 섭외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되어 연극계의 세대 이슈에서 주요 인물로 여겨지는 경우 처음의 기준과 상관없이 표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젊은 연극인 연구참여자를 찾기 위하여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온라인 검색이다. 청년 연극인이나 신진 연극인 등으로 호명되기도 하는 젊은 연극인들의 명단을 연극 관련 웹진이나 잡지 기사를 통해 추려낼 수 있었다. 이들이 운영하는 극단이나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냈다. 온라인상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작품, 인터뷰, 개인 게시물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인터뷰를 참여자에 따라 맞춰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 중 몇몇은 주요 연극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받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었으며, 그러한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 이미 이들의 작품이나 경력, 연극관 등을 다룬 인터뷰 및 리뷰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는 스노우볼 기법이다. 눈덩이 표집으로 번역해 표기하기도 하는 스노우볼 기법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표본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표집 방법이 고갈되었을 때, 혹은 접촉하기 어려운 집단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때 유용한 보조적이거나 대안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Noy(2008)는 스노우볼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 간의 연결망과 권력 관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세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재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상호 추천 연결망은 연

구자에게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미 인터뷰를 진행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연극인을 추천해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고, 연구자는 이를 통해 ‘젊은 연극인’ 현상의 주요 인물들을 잘 만나고 있다는 약간의 확신을 얻었다. 총 10명의 연극인에 대한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목록은 아래의 <표 1>에 정리하였다. 1명(T9)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작품이나 기타 활동에서의 접점이 있었는데, 연결망에서의 이같은 단절은 실제 연극관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일련번호	연령대	성별	연극계 진입 시기 ¹⁾	포지션
T1	30대 중반	남성	2017년	연출
T2	40대 초반	남성	2009년	연출, 극작, 평론
T3	30대 초반	여성	2017년	연출
T4	30대 중반	여성	2013년	평론
T5	30대 초반	여성	2017년	연출
T6	30대 중반	여성	2013년	연출
T7	20대 후반	여성	2021년	연출, 배우
T8	30대 후반	남성	2016년	연출
T9	30대 초반	남성	2017년	연출
T10	30대 중반	남성	2018년	평론, 드라마티크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만남이 연출 포지션인 T1과의 만남이었다. (연출의 권력이 배우를 압도한다는 사실조차 연구 과정에서야 알게 된) 연구자의 연극계에 대한 부분적 지식으로 인해, 그리고 어느 정도

1) 연구참여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출의 경우, 스태프로 연극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아닌 첫 연출작 데뷔를 기준으로 연극계 진입 시기를 특정하였다.

유사한 위치성을 공유하는 연극인을 표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연출가와 평론가들로 연구참여자의 명단이 채워지게 됐다. 연기자(배우)의 위치에서 보는, 또 연기자들이 감각하는 연극계의 모습은 연출가와 평론가들의 그것과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또 연기자를 적극적으로 표집하지 않음으로써 (20대가 아닌) 30대에 연구참여자가 물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극계에서 일정한 발화 권력과 상징자본을 획득한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지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도 있다.

인터뷰는 주로 연구참여자가 주로 생활하는 지역 인근의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인터뷰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시기는 2023년 1월에서 2023년 10월 사이에 걸쳐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경로, 활동 이력, 연극계에 대한 문제의식, 현재의 직업적 실천과 미래의 연극계에 대한 전망과 의견 등을 폭넓게 질문했다. 이를 통해 연령이나 출생연도 구분에 따른 선형적인 세대성(청년성)이 아니라 연극계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구성되는 세대성(청년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또한, 주로 신참자들, 즉 연구참여자들인 젊은 연극인들에 의해 추동되는 세대 현상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연극계의 변화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연구자가 상기한 채로 어느 정도 비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²⁾ 각각 60분에서 120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

2) 간소하게 준비한 질문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극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본인은 '청년'으로 이해됩니까? 청년이어서 보는 이익이나 손해가 있습니까?
- 연극인으로 처음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 어떤 연극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 연극계 내의 세대구분과 차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연극계에 대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개선되어 왔다고 보시는지요?
- 자신이 가진 연극계에 관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할 생각입니까?

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를 전사한 후, 이를 꼼꼼히 읽는 과정을 반복하며 분석 내용을 다듬었다. 페미니즘-청년 연극 세대단위가 형성되게 된 배경과 이 장의 구성원들이 ‘좋은 연극’과 ‘좋은 연극 제작’의 정의를 어떻게 재설정하려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화 자료를 분류하였다.

4.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1) 청년예술지원사업과 새로운 진입 경로

연구참여자들은 2017년 시작되어 2019년에 종료된 청년예술지원사업이 당시 연극계에 입문하려는 신참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 새로운 기회구조였다고 술회했다. ‘서울청년예술단’ 사업과 ‘최초예술지원사업’은 2017년 130억, 2018년 70억, 2019년 90억의 예산을 청년예술인에게 쏟아부었다. 이는 2016년 서울문화재단의 한 해 총 지원사업 예산인 86억 원에 맞먹거나 상회하는 것이었다(성연주, 2021). 2016년 서울특별시장 방침(제310호)으로 수립된 ‘서울예술인플랜’이 급박하게 실행된 것이었다(정진세, 2021).

다양한 예술 장르 중 연극계의 경우, 청년예술지원이라는 외부적 충격은 크게 서로 연관된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는 연극계로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진입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연극계로 진입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경로를 비틀어버렸다는 점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그때 처음, 청년 예술 지원이라는 지원 사업이 생겼어요. 그제 이제 어떤 비전공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비전공자였는데 지원을 하게 됐고 (T3)

예컨대, 대학에서 연극 동아리를 했던 T3은 연극에 관심은 있었으나 이것을 직업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연극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주변에도 연극인 네트워크가 없어 어떻게 하면 연극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생겨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은 예술창작 비용 외에도 개개인에게 월 70만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규모 있는 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으로 인해 T3은 첫 연출작으로 데뷔하며 연극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T1 역시 연극을 그만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청년예술지원사업을 만났다. 그는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극단 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그곳에서 '착취'를 당했다는 감각을 느끼며 극단 생활을 중단한 상태였다.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무조건 극단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극단 생활, 배우면 모르겠는데 연출 같은 경우에는 입봉한다고 그러잖아요. 데뷔하려면 극단에서 조연출 생활을 그래도 몇 년은 길게 해야 극단에서 작은 프로덕션 하나만 들어주고, 이런 도제식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 저때부터 청년 지원사업이 재단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T1)

졸업하는 학생들이 극단에 소속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거죠. 본인의 작업들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봉 시기가 빨라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T5)

극단 생활을 접고 직접 연출가로서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T1의 사례가 보여주듯,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연극계로 입장하는 기존의 경로를 상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학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한 T5는 자신의 동기들 가운데, 전통적인 방식의 연극계 진입 경로인 극단 입단을 하는 경우는 30% 정도인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모든 연극계 신참자들이 독자적인 작업을 하는 루트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시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 기성 극단 밖의 새로운 연극인들을 연극 장안으로 입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연극인들은 '말단'의 처지를 벗어

나서 ‘주체적으로’ 연극을 하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연극평론가 김태희(2018a, 25쪽)는 서울시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인해 “유난히 젊은 창작자들의 공연이 많이 올라”가는, “놀라운 활기”가 돌았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극계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상징자본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대학에서 연극학을 전공한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연극계에 진입하는 ‘정석 루트’를 밟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다른 진로를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우연한 계기, 즉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진입한 경우가 많아, 기존의 경로를 기준으로 하면 매우 이질적인 경로로 진입한 신참자들이다. 스스로의 객관적인 입지가 굳건하지 않은 편이며, 대체로 자신들이 연극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면 운이 좋았던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었다.

연극계의 완전한 신참자였던 연구참여자들이, 연극계에 입장하던 당시부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이들이 ‘청년’으로 인지된다는 사실이 주는 상징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이라는 정체성은 과거 극단이나 협회 내에서 ‘착취’당하거나 ‘배제’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하는 부정적 자본(negative capital)에 가까웠다. 한 연구참여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협회 입회가 거부된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포함해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청년이라는 정체성은 하나의 기회로 변화했다.

2) 페미니즘의 물결과 미투 운동, 새로운 연극 주체들

세대 의식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집합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는 일은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만하임, 2013).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까지, 연극계는 한예종 사태, 최고은 작가 사망 사건, 용산 참사, 두리반 사태, 세월호, 블랙리스트,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물결 등의 사건을 차례로

겪는 폭풍의 나날 속에 있었다. 젊은 연극인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연극을 통해 풀어내는 집합적 경험을 한동안 지속해왔다고 술회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8년의 연극계 미투는 기성 연극계와의 거리감이 폭발한 사건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2018년 초 연극배우 이명행과 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미투 폭로로부터 시작된 연극계 미투 운동은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대한 폭로로 시작되었지만, 연극계 전반의 조직문화나 권력 구조 등을 성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의 힘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성반연)³⁾, 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페연연), KTS워킹그룹⁴⁾ 등의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활동에 연구참여자들 역시 가능한 한 활발히 참여하고 연대하였다.

위계 폭력이나 이런 거는 정말 산재해 있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꼭 이게 미투 운동이 성폭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 전반적인 어떤 폭력적인 문화와 환경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약간의 어떤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많이 활동 참여했던 것 같아요. (T3)

이러한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이 연극계 자체와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연극 경력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T2와 T5의 발화를 참고할만하다. T2는 연극계에서 과거 목소리를 직접 내거나, 연출이나 감독과 같이 상대적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역할을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T5는 미투 운동 이후 동료들, 그리고 미투를 도와준 페미니스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

3)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무진을 구성하고 언론대응, 세미나 운영, 피해 상담 등”의 활동을 기획하였던 성반연은 “성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대단위의 연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김태희, 2018b, 200쪽).

4) Korean Theatre Standards. 안전한 연극, 공연예술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모임. (<http://kts-wg.com/>)

닫고 서 있었던 극단에서 겪었던 일들과 조직문화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야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계 보면, 발언하는 사람이 나 정책을 이끌어가거나 예술 감독이나 연출이나 뭘 하는 사람들 다 남자였었고 불균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T2)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반 생활을 했어서, 기합을 받는다거나 이런 좀 군대식 문화, 도제식 문화 같은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편이라서, 사실 그런 위계질서를 깨닫는 건 미투 운동을 시작하고 좀 후였어요. 그런 위아래의 어떤 서열 같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는 인식조차 좀 하기 어려웠었고 (...) 되게 많은 이게 질서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그래서 2018년도에 다 느꼈고요. 연극계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은 결국에는 조직문화,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문화, 수직적인 조직문화, 연출 중심의 권한 그리고 성차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포함하자면 반드시 성차별뿐만 아니라 장애라든지 퀴어라든지, 되게 다양한 소수성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부족하다 (T5)

미투 운동이 연극계에 미친 영향은 특히 연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연극인들 사이에서 불러일으켰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연출가 구자혜(2018, 192쪽)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연극계의 문화뿐 아니라 연극 만들기에 대한 관습이 전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모든 파트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출력에 대해 평가받지 않는”(194쪽) 연출 권력을 문제화하고 연출가가 곧 극단의 리더이면서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제작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최근 연극계에서 페미니즘의 유의미한 성과 지점으로 여겨진다(김옥란, 2018a, 100쪽).

그 제작구조 변화의 핵심은 극단 중심의 연속적인 연극 작업이 개별 프로젝트마다 모이고 흩어지는 방식으로 해체되게 된 데 있다.⁵⁾ T10이 언급

하듯, 젊은 연극인들은 극단 막내로 들어가는 것 대신 극단 바깥에서 동료들과 느슨한 연대를 맺으며 자기 작업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 그리고 그와 연관된 위계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이기도 했다. “연극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젊은 창작자들이 다 극단을 뛰쳐나와 프로젝트” 단위의 팀을 만들어 “수평적으로 의기투합하기 시작”(T10)했다. T8과 같은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이 극단에서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극단 생활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극단을 나가는 일은 연극을 그만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극단 테두리 바깥에서도 연극을 할 수 있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게 되었다. 극단 체제와 프로젝트 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각자의 가치 판단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변화는 젊은 연극인들 모두가 객관적 현실로서 마주한 변화였기 때문에 하나의 집합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성 연극계 같은 경우는 특히 2018년 이전까지는 극단 중심의 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공연의 프로덕션이 되는 기초적인 단위인데 (...) 미투 운동이 왜 그런 왜 지각 변동이라고까지 불리냐고 하면은 미투 운동 이후로는 이제 아무도 극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T10)

제가 극단 생활을 관두고 연극을 관둘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거기서 만났던 친구가 친구 몇 명이 형, 오빠, 나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와, 같이 하자. (T8)

-
- 5) 한 심사자는 프로젝트 단위 작업 체제가 굳어질 때,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문제 해결의 단위까지도 소멸되기 때문에 위계 폭력 등을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젊은 연극인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연대하기 위한 성반연, 폐연연, KTS워킹그룹 등의 연단체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신참자들의 연극계 진입을 청년지원사업이 활성화했다면, 비슷한 시기 발생한 세계적 차원의 ‘상징혁명’으로서의 미투는 이 ‘청년’들이 세대 의식을 공유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재정 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극 장의 ‘청년들이 기성 세대와 다른 성장 환경 및 교육배경을 거쳤다는 점, 그리고 ‘남성 지배’ 위에 구축된 극단 중심의 연극계 구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희생자적 위치에 놓여있었다는 점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3)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연극계 미투와 청년예술지원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연극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비슷한 방향으로의 구조 변동을 유인했다. 연극계 미투에 반응하는 젊은 연극인들이 연출 권력 중심의 위계적인 극단 체제를 폐습으로 지목하는 내부적인 투쟁을 시작했다면,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이러한 투쟁에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외부적인 도움이 되었다. T10이 말하듯 미투와 청년예술지원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연극 장에 전복적 경향의 신참자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마주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서울청년예술단이 사실 연극계에 미친 영향은 공교롭게도 이제 미투 운동과 뭔가 이렇게 잘 교차되면서 상당한 시너지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 프로젝트 중심의 연극으로의 전환이 이제 서울 지역 내에 한해서는 이제 이제 서울청년예술단이라는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거든요 (...) 젊은 연극인들이 뭉칠수록 이득이 된다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기투합할수록 서로의 어떤 형편이나 예술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모델을 제공해 버린 거죠. 뜻하지 않게 (T10)

2018년 미투 운동은 정말 전 세대와 후세대가 명확하게 갈리는 어떤 세대 구분인 것 같기는 해요. 2018년 미투 운동할 때 이 역량이, 혁명의 역량이 일단 가능한

것과 지속된 이유는 저는 서울청년예술단과 최초예술지원 그다음에 청년 예술 지원이, 운동을 가능케 하는 역량을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했다고 생각해요. (T2)

성연주(2023, 24쪽)에 따르면, ‘청년예술’이라는 개념은 예술 장 내 더 높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새로운 상징자본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기성이 구축한 약자 프레임 안에서 청년예술인은 소외되고 대상화”되는 탓이다. 이같은 진단은 예술적인 수월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지 수혜자에게 붙는 꼬리표처럼 인식된 청년예술이라는 기호가 젊은 예술인들에게 외면받았던 사정에 관해서 말해준다. 그러나 청년예술지원의 일정한 부산물로서 젊은 창작자들 사이에서 동류의식 및 자신들에 대한 일정한 자부심, 즉 세대 의식이 피어올랐다. 이는 ‘청년예술’을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로서만 읽어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극 장 안에서의 ‘청년’에 관해 말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꼭 페미니즘 내지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함께 붙여 이야기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청년의 생물학적 진보성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청년이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T8은 단적으로 자신을 착취했던 극단의 대표들도 나이로는 청년이었다고 언급했다.

청년이라는 것이 그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인정투쟁의 사다리 속에서 하부에 위치해 있을 때 청년으로 무리 짓다가 자신이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고 해서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 걷어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 청년이라는 것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 청년이 이 판의 구조 자체, 작동 원리 자체, 인정 경쟁의 어떤 정글이라는 이 생태계의 부당한 논리 자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웃사이더로서 재정의를 하자 (T10)

이들이 생각하기에 기존 질서를 따라가는 젊은 사람들과 동세대 감각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의 차이는 “젠더 감수성이 먼저”(T5)다. T10이 언급하듯, 연극계에서 세대 구분과 분리는 연령과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으

나, 꼭 1:1 대응하는 것은 아닌 미투에 대한 입장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극 장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기성 연극계와 자신과 동료들이 활동하는 신진 연극계이다. 후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시각으로는, 비주류, 젊음, 페미니즘으로 특징지어진다.

지금은 거의 분리된 느낌?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리저리 않고 분리된 상태로 미투 운동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T1)

저는 그게 젠더 감수성의 기준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장애, 인권, 노동, 이런 쪽에 훨씬 관심이 많고, 그것을 창작의 결과에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운동에도 동참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류의 선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기도 하는 어떤 부류가 여기에 있고, 어떤 기존의 질서를 다 따라와서 뭐 협회를 타고 뭘 타고 뭘 타서 상을 타고 또 계속해서 그런 주류의 극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류가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T5)

T5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참여적인 연극관과 실천은 '이쪽'에 해당하며, 이쪽의 상대방에 협회 중심의 연극 권력을 재생산하는 주류 연극계가 있다. 특히 젠더 감수성이나 위계에 대한 예민함 등을 기준으로 이 두 집단은 서로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T1은 진단했다. 이러한 연극계 내의 집단 분리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세대라는 변인과 관련이 있으면서 없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류 그룹을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활용해 가며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참여자들은 실제로 연령상으로도 젊은 층에 속하는 신참자들이기 때문에 두 집단이 세대적으로 구분된다는 생각은 은연중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이 구분이 연령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연령으로는 기성세대이지만 젊은 연극인들의 의제에 관심이 많고, 작품의 결

도 ‘이쪽’과 더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비주류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이 젊은 연극인들이 속해 있는 하위 장을 ‘페미니즘-청년 연극 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지향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한 실천을 하려는 태도를 지닌 동시에 대체로 젊은, 연극인들이 이러한 하위 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가 연극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5. 페미니즘 연극과 연극계의 구조 변동

1) 극단 체제의 붕괴와 위계의 변동

연구참여자들이 구축한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큼의 일정한 변화를 성취하기도 했다. 연극계 미투 이후 연극평론가 김옥란(2018b, 185쪽)은 연극계는 “젊은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페미니즘 연극은 “새로운 사고와 감각을 지닌 젊은 연극인들의 등장이라는 대세를 타고 2010년대 후반 연극계에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온 동인”으로 평가받는다(김방옥, 2020, 162쪽).

기존 연극계의 극단 체제에 일정 부분 균열을 낸 점이, 객관적으로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구성원들이 이루어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T10은 연극영화과가 아닌 대학 내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시작했는데, ‘수평하고 동등한 상태’에서 제작이 가능했던 동아리 연극과 달리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 대체로 제작되었던 기성 연극은 T10이 연극계로 진입하는 일을 심리적으로 막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는 미투 이후 기성의 연극 제작 방식이 의문에 부쳐지고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연극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극단 체제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젊은 연극인들은 주로 1인 극단 혹은 프로젝트 그룹 체제로 연극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극단을 이끌었던 이전 세대 연극인, 혹은 기성-주류 연극의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

제가 특히 더 이제 극단처럼 여럿이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에는 그렇게 극단이 유입되는 게 가능했지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극단에 들어가서 너가 1년 동안 어떻게 고생하자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염치 없는 것 같고, 착취하는 것 같고, (...) 노동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저는 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T5)

이러한 극단 시스템의 쇠퇴는 이중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관객 동원보다는 국가의 제작 지원금을 통해 연극이 주로 만들어지고, 그 지원금의 총액이 일정하게 제한되어있는 연극 제작의 경제적이고 객관적인 토대에 맞추어가는 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T5가 말하듯이, 더 이상 기존 연극계에 만연해 있던 착취나 위계 구조를 반복하면서까지 연극을 만들지 않겠다는, 젊은 연극인들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면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연구자: 미투 이후 현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기성 연극인들이 하는 불만들이, 바뀐 지점들 같아요. 요즘 애들이 극단 생활 안 하려고 한다, 청소나 이런 잡일들 안 하려고 한다. 돈 안 주면 안 한다.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된 거죠. (T1)

연구참여자들은 객관적으로 연극계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도 하다. T1의 언급과 같이, 기성 연극인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극단을 중심으로 재생산이 벌어지던 기존의 권력 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T4는 협회를 거치지 않은 연극

평론 집단에 대해 기성 평론가들이 “자기가 평론가라고 하면 평론가가 되는 거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볼멘소리 역시 기성 위계 구조의 위기를 반영한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의 발화에서는 일정한 자신감이 묻어나기도 했다. 젊은 연극인들이 만드는 ‘기성 연극과는 다른’ 연극을 선호하는 이들은 청년예술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론 등에 개의치 않고, 이 시기 연극계에서 중요한 작품은 젊은 연극인들로부터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질적으로도 아무래도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때 되게 기발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사실 기후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기성의 어떤 연극인들이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젊은 연극인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고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T4)

저는 어떤 이런 소재가 잘 먹혀서 뽐혔다기보다는, 이미 시대가 그런 걸 원하고 있고 창작자들이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젊고, 나이 들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잘 썼기 때문에 뽐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T3)

T4가 언급하였듯, 그간 연극이 잘 다루지 않던 의제를 무대로 끌고 오는, 즉 화두를 던지는 역량이 젊은 연극인들에게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 페미니즘, 장애, 기후위기와 같은 ‘소재’가 잘 먹혀서가 아니라 젊은 연극인들이 더 좋은 연극 기획안을 지원사업에 올렸기 때문에 선정이 잘 되는 것이라고 T3과 같이 해석하였다. 또한 이들이 젊은 연극인들에 대해서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기성 연극계의 위계적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의제를 제기하고,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제가 연극계 전반에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간 축적되어 온 비주류 혹은 젊은 연극계의 역량이 미투 운동과 청년예술지원사업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발한 상황이 연극계의 권력과 위계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

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가시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페미니즘 청년 세대단위에 속하는 연극인들이 올리는 공연을 위주로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층이 형성되었음을 이들은 자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성 연극인들이 내놓는 젊은 연극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에 연구참여자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동료 창작자나 취향이 맞는 관객으로부터 다른 기준을 끌어올려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

2) '새로운' 연극 담론과 연극 미학

연극 장이 결국 연극성이라는 장의 내기물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재정의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때, 페미니즘 청년 세대단위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의 세대 수행과 연극 담론은 결국 연극성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예술'로서 연극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정당한 '연극 미학'은 무엇인가를 둘러싼 신참자들의 새로운 관점 표명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이들의 연극 담론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 '사회참여적 연극', '새로운 연극 미학', '안전한 창작 환경'으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각각 기성 연극의 '획일성', '연극을 위한 연극', '드라마 연극 중심 미학', '위계적인 창작 환경'과 대응하는 것이었다.

다양성이라는 구호는 매우 모호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구참여자들이 기성 연극의 획일성을 비판하기 위해 어렵지 않게 들어오는 어휘였다. 예컨대 T7은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커리큘럼을 비판하면서, 기성 연극인들이 드라마 연극 위주의 연극 미학에 매여 있음을 비판하였다.

뭔가 수업 교수법 뭔가 그러니까 이런 교육법 이런 것들을 개발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다양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 자체에 서도 그리고 뭔가 실험적인 거를 하고 싶으면 나름의 검열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가 전통적인 어떤 드라마 연극 되게 유명한 그냥 안톤체홉, 갈매기, 셰익스피어 약간 이런 거 하는 걸 학교는 좋아하지만 갑자기 제가 희한하고 실험적인 거 하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다양성 자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T7)

제 작업에 장애만 있고 예술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다시 여쭙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답은 못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연극계에서 전통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미학적인 거라고 정의되는 게 저는 되게 좁은 범위라고 느낌을 받았고 (T3)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연극 담론을 옹호하기 위해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묶어 설명하기도 했다. 모든 연극이 자신들의 연극처럼 사회참여적이고 정치적이거나, 기존의 연극의 관습에서 탈피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보다 다양한 연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문배우가 나오는 연극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 연극도 필요하다. 학술적인 연극평론만 필요한가? 대중적인 연극평론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극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잘 짜여진 번역극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뭔가 하려는 이야기가 좀 명확한 작품들이 좋고, 뭔가 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T4)

평론가인 T4의 언급은 사회참여적 연극에 관한 이들의 취향을 보여준다. 과거 ‘잘 짜여진’, 이야기와 ‘연극적’ 요소들이 충만한 대작들이 연극의 정수로 이해되었다면, 연구참여자들은 ‘하려는 이야기가 명확한’ 작품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들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연극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T10과 T2가 회상하듯이 사회참여적인 예술 자체가 예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연극계의 어떤 시기를 돌파하여 사회참여적 연극을 장 안에 투입시켰다.

예술은 정치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예술이 정치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는 어떤 굉장히 저는 그 2000년대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해요. (T10)

정치적인 예술들이 후지다 이런 생각이, 이분법이 있었는데 (...) 주변에 사회적인 예술한다, 주제가 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는 예술가들이 많이 없을 때였어요. (T2)

이처럼 페미니즘 청년 세대단위가 내세우는 연극 담론의 핵심은 정치성을 잘 드러내는 사회참여적인 메시지가 있는 공연인지의 여부, 그리고 기성의 미학을 의문시할 수 있는 다양성이 드러나는 공연인지의 여부에 있다. 여기서도 사회참여적인 연극이 미학적 연극보다 더 좋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보다 더 미학적일 수 있다고 표현한다.

기깽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배우들끼리, 그니까 기를 깎는다고, 돌려 깎는다고 하는데, 기를 이제 합을 잘 맞춰서. 기깽. 장면이 엄청 세련되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치면 막 이렇게 합이 잘 맞고 그런 연극들이 주류 연극인데 장애 연극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참 침묵이 이어질 수도 있고, 대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그런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되게 살아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게 미학인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못하는 거라고 바라볼까 (T3)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T3은, 주류 연극의 관습처럼 합이 딱딱 맞는 장면이 아니어도,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공연이 더 미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T6 또한,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큐가 정확하게 맞춰가는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것”과 자신의 공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공연을 하기 전에 공연을 많이 봤다면 공연 안 했을 것 같아요. 공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미 알았다면, 공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미를 못 느꼈을 것, 이견 취향의 문제 어떤. 희곡이 있고 배우가 있고 통제된 어떤 완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 제가, 그게 어떤 그게 공연이 저한테 주는 형식적 매력이랑 굉장히 상충하는 것 같아서 (T6) (연구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매력은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공연은 어떤 환경이고 판이고 즉흥성이 되게 큰, 함께 있는 경험인 것 같은데, 완전히 통제돼서 숨죽이고 봐야 되는 거는, 그게 이거의 생활함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연이구나라고 먼저 알았다면, 아마 공연 안 하지 않았을까, 공연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T6)

T6은 자신이 연극을 많이 보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보통 연극이라고 여겨지는 짜여지고 통제된 예술의 형식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합이 잘 맞는 전문 배우들이 아닌 투쟁 현장의 동료들을 배우로 올리는 등의 연극 실천을 하는 본인의 작품 세계와도 이어지는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평론가이기도 한 T10은 “드라마 연극 중심성에서 탈각”(T10)하여 젊은 연극인들이 내놓은 자기 서사 연극, 다큐멘터리 연극 등이 젊은 연극인들이 미투 이후 내놓은 중요한 새로운 연극 미학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예술가들이 말하고 싶은 틀에 맞춰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를 무대에 세우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구술과 증언을 채록하고 그것을 연극 내에 삽입하는 방식인 버batim(verbatim) 연극이 실험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극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연극의 제작 과정 전반에서의 ‘안전한 창작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들은 “공연의 결과 못지않게 연습 과정의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방옥, 2020, 169쪽).

저는 일단은 제가 재밌거나 제가 안전하지 못하면 너무 그게 작업이, 질이 결과적으로도 떨어지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통을 그만큼 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이런 과정 중심의 활동을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T3)

창작 과정에서 카리스마 있는 연출의 통찰이나 능력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연출론을 연구참여자들이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T3은 사실 창작 과정에서 안전 장치를 만들고 소통을 세부적으로 계속하는 일이, 연출의 노동 강도를 높이며 작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다가도, 결국 그렇게 과정에 공을 들였는지의 여부가 작품 결과물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제기하는 ‘안전한 창작 환경’에 관한 문제는 크게 연극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와 극 자체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제작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적으로 다루는 주제들이 그런 이슈들이 많죠. 좀 정치적이고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나 퀴어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 주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거기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같이 일할 거냐가 정해지는,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였다면 그것부터 보는, 보게 되는 거죠. (T1)

안전하고 평등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길 위해, T1이 언급하였듯 젊은 연극인들 대부분이 동료들 만나는 기준으로 젠더 감수성을 비롯해 평등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몇몇 연극인 단체를 통해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천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먼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하는 연극 제작 과정 그 자체다.

제가 어린 여성 연출로서 뭐랄까 명예 남성처럼 굴지 않으면, 배우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어떤 권위를 더 부려야만 신뢰를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계속 겪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독하게 굴고 못되게 굴수록 배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부리려고 했던 것들을 좀 없

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연습실 안에서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게, 연출로서 굉장히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배우들과 의논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걸 계속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계약서를 다시 만들었고, (T5)

처음에 전화해서 섭외할 때부터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려고 하는 게 있고, (...) 정보에 대해서 좀 최대한 각각의 포지션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 접근성 요소는 공연에 초반부터 아예 다 세팅을 하고 가는 게 있고, 그 고민은 이제 공연의 구성에서부터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자, 수어 등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라든가 (T6)

과거 카리스마 있는 연출가를 높게 평가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연출에게로 극단의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느끼는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연극 연출 과정을 다르게 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T5는 연출로서 “모르겠다는 말”을 솔직히 하는 연습을 해 왔다. T6는 연출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스탭과 배우들이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공유의 문제에 늘 신경쓴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연극 연출을 좀 더 평등한 문화 속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은 워크숍 등을 열어 답안을 확장하기도 했다.

젊은 여성 배우들이 계속해서 여고생 역할, 피해자 역할,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누구 엄마가 이런 역할들을 계속 맡으면서, 잘 울어야 되거나, 잘 불쌍해 보여야 되거나 이런 연기들을 많이 요구 받아 왔고, 그뿐 아니라 어쨌든 정말 맞는 신을 연습해야 된다가나, 정말 강간당하는 씬을 재연해야 된다가나, 근데 그것이 사실 배우들의 개인적인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폭력을 그대로 재현을 만들어 왔던 거죠 (T5)

젊은 연극인들의 새로운 연극 실천은 연극 안에서도 벌어진다. 연극에서 의 폭력 재현과 그것을 연기해야 하는 여성 배우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T5는 관객을 위해 트리거워닝⁶⁾을 쓴다던가, 배우가 직접 폭력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 대안적인 장면 연출을 시도한다던가, 심리상담 등 배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이들의 연극에는 지적했듯,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연구참여자는 물론 연극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연극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물론 모든 연극은 공동 창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동 창작은 어떤 저본이 되는 텍스트 자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극작가나 아니면 연출가가 쓴 대본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부터 논의해서 정하는 그런 종류의 작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 당시였던 것 같아요. (...) 기존의 연극은 주로 연출가가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출가가 어떤 우리 극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팀이다라는 것을 또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출가가 대본을 골라오면 다 같이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미투 이후로는 그렇게 아무도 발언권을 독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누가 이미 써놓은 그런 문제의식 말고 지금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찾아보자. (T10)

T10이 언급한 공동창작 연극 역시 연출 권력을 문제시하고 보다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수평적인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젊은 연극인들의 새로운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갈등 상대

연구참여자들의 연극 장 구조에 대한 이해는 이중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미니즘 청년 세대단위의 활약으로 연극계가 분명히 변화

6) 어떤 소재나 주제에 대해 심리적 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미리 경고를 삽입하는 것.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류 연극계 권력이 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연극계에서 연구참여자의 생각이 주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20년 후에도 지금과 그다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386과 포스트386”(T2)의 문화권력이 그때까지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다.

권력이 조금은 조금은 예전보다는 분산이 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리고 포지션 중에서도 연출가나 기성 연출가나, 평론가 중에서도 평론가 중에도 이제 학계에 같이 있는 계신 분이 있고, (...) 보통 연극계의 권력이라는 건 이제 지원 사업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불려가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입김을 작용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T1)

T1의 언급과 같이, 창작 지원사업의 심사와 관련하여 기성 연출가들의 권력이 아직까지는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연극은 “지원금 경제에 최적화된”(T2) 예술장르로 지원제도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관점으로 지원금의 분배에 참여하는가가 하나의 큰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연극 관련 대학 학과를 위시로 한 대부분의 제도적 힘은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와는 무관한 주류 기성 연극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T10은 연극영화과에서는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가 제기하는 연극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더 훨씬 젊은 10살은 더 젊은데, 저보다 더 10살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졸업생들”(T10)을 배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등등 무수히 많은 특히 이제 기관의 지원 사업을 따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어떤 협회들은 사실상이 페미니즘 연극 씬과 완전히 좀 단절돼 있거든요. (T10)

한편, 2019년 청년예술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일몰되고, 전 세대 예술인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은 금액에 따라 가장 적은 A트랙부터 B트랙, 가장 많은 C트랙까지 구분하여, 예술인들이 자신의 경력 수준을 고려하여 스스로 어떤 트랙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청년예술지원 범주 내에는 데뷔 경험이 전혀 없이 최초 예술지원을 받는 예술인에게 해당하는 사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청년예술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던 시기에 연극계로 진입한 이들은 현재 새롭게 변화한 트랙별 예술지원사업에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난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정한 경력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새롭게 연극계로 유입되는 젊은 연극인의 양이 다시 축소되고 있다는 감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같이 청년예술지원사업이 축소된 배경으로, 청년이 아닌 연극인들이 ‘중년이나 원로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은 데 비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담론을 계속해서 생산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년 예술인 지원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반작용은 젊은 연극인들이, 특히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만든 연극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혹은 무반응으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접근성 관련된 작업 시작했었던 초반에는 이게, 이거는 복지나 정치의 영역인데, 왜 이걸 공연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주장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 같은 거라든가 뭐 (T6)

어떤 수상 라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내 젊은 여성 동료들이 너무 고군분투하고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그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공연을 봤을 때, (...) 지금 너무 엄청나게 훌륭한 작업을 해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반응, 성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비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T5)

이제 기준에 연극 잡지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었던 게 왜 내가 보는 작품들은 리뷰가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어렵듯이 했었고 (T4)

T6의 연극 취향은 정치적 메시지가 확실한 연극인데, 이런 연극은 공연화 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종류의 피드백을 듣기도 했다. T4와 T5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론 내지는 연극 시상식에서의 후보 노미네이트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연령대인데 아예 접점이 없는 경우의 연극인들이 많다는 점도 알고 있다.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동료들과 달리 위계에 민감하지 않고, 기성 질서에 순응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연극인들의 존재도 왕왕 확인한다. 느낌상, 혹은 통계적 차이로 기성 질서에 순응하기 더 어려운 비전공자나 여성들이 '이쪽' 집단에 더 많이 속해 있다고 느껴진다. 신참자들은 반드시 전복 전략을 펴지 않고 계승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대 간 갈등이 늘어나면 세대 내 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관찰은 오늘날의 연극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Braungart, 1984).

그렇지만 저와 비슷한 또래 어떤 작업자들을 돌이켜 보면 분명히 같은 세대지만 나와 다른 라인을 꺾고 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감수성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연극 질서를 그대로 순응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로서 저는 그 분류선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T5)

극단 체제를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계승 전략'의 편에서 있다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에서 지각하기에는 주류-기성 연극을 계승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연구 과정에서 한 명 만났고, 그는 T9이다. 그는 물론 현재 과거 선배들과 같은 방식의 밀도 높은 극단을 현실적인 이유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

만, 아래 인용과 같이 극단 체제를 좋은 연극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식하였다.

(연구자: 젊은 창작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극단보다는 프로젝트성으로 만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인데, 선생님 소속은 어쨌든 극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성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이익만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충족이 되면 매일 만나고 싶거든요. 매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 각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기성 세대들은 그런 극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극을 하는 모습을 봐서 그때 되게 저는 좋은 영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T9)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젊은 세대를 분간 안 하고 저게 저 사람이 진짜 원해서 하는 걸까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연극을 보면서 저게 그냥 어떤 저런 얘기들을 쥐고서 자기도 모르는 걸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 특정의 어떤 연극 세대들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부류들이 만들어낸 세계 안에서 다른 여타 연극인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문제들. (T9)

또한 “예술은 이슈 파이팅을 위한 연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T9)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다루었듯, 메시지 중심의 사회참여적 연극은 연극성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페미니즘-청년 연극의 세대 수행의 핵심 중 하나이다. 여기서 “이슈 파이팅을 위한 연극”이란 블랙리스트, 세월호, 미투, 페미니즘, 장애, 기후위기 이슈 등과 관련한 연극을 일컫는다. 그러한 연극을 “자기도 모르는 걸 하고 있다”는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들이 “여타 연극인들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로도 이어간다는 점에서, T9가 이번 연구에 표집된 다른 연구참여자들과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6. 나가며

문화예술 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거나 자기 재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Weiss(1994)는 이러한 흐름을 가리켜 이목 끌기를 위한 '아방가르드 전략'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전략은 언제나 특정한 문화예술 영역 내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신참자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예술지원사업과 미투 운동의 영향력이 시너지를 일으켜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한 국내 연극계의 사례를 통해, 미투라는 트라우마적 사건과 관련하여 페미니즘-청년 연극 장이라는 새로운 세대단위가 형성되어 연극 장에 변화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극계에서 '청년'과 '기성'의 구분은 나이가 아닌 페미니즘 및 미투에 대한 태도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기성 연극인과 변별되는 전복적 행위자로서의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가 형성되고 있다. 신참자들은 연극 내적으로는 드라마 연극 중심이며,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위계적인 연극 문화의 산물인 기성 연극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라는 대안적인 네트워크 내에 명확한 소속감과 세대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연극계의 위계 구조를 전복시키고 있다는 데 대한 일정한 자의식과 자긍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다양성', '사회참여적 연극', '새로운 연극 미학', '안전한 창작 환경' 등의 담론과 창작 실천으로 연극 장의 내기물이라 할 수 있는 '연극적인 것'을 재정의하려는 전복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청년 예술지원사업, 그리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신참자 연극인들의 연결망이 이러한 전복 전략의 밑바탕이 되는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용된 노동력처럼 행동하는 대신 그룹이 스스로 작품을 고안하고, 쓰고, 공연하는 내부 민주주의 확립"(Wandor, 1984, p. 77)을 페미니즘 연극의 목표로 설정했던 서구에서의 페미니즘 연극 운동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약한 연극 장의 구조상 이러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장 내 상징자본을 재정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본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대규모의 청년예술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미투 운동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변혁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페미니즘 청년 세대단위가 가졌던 에너지와 활력이 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자문해보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세부적인 사회의 영역에서 페미니즘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극계에서는 페미니즘과 관련해 상당히 흥미로운 세대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연구가 없어 이러한 사례가 특히 사회과학계에 보고되지 못했다. 다만 연구자가 연극인 당사자이거나 연극학자가 아닌 탓에, 연극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페미니즘 청년 세대단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탓에 페미니즘 연극이라는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나 경쟁의 측면이나, 페미니즘 청년 세대단위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젊은 연극인들에 관한 관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관찰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연극계는 물론이고, 젊은이들이 페미니즘 구호와 함께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회의 여러 부문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향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구자혜. 2018. “미투 운동 이후 젊은 연극인들은 과연 변화했는가?” 『연극평론』 89: 192-198.
- 김방옥. 2020. “2010년대 한국연극과 페미니즘의 힘” 『연극평론』 96: 162-178.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옥란. 2018a. “다시 페미니즘! 한국연극과 젠더 이슈.” 『연극평론』 88: 95-101.
- _____. 2018b. “미투혁명 선언: 공연예술계 변화의 시작.” 『연극평론』 89: 182-185.
- 김태희. 2018a. “확대되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서울시와 예술가의 동상이몽.” 『연극평론』 88: 25-31.
- _____. 2018b. “‘미투’에 ‘응답’하는 연극계.” 『연극평론』 89: 199-205.
- 박동수. 2020. “페미니즘 세대 선언.” 『인문잡지 한편』 1: 15-33.
- 만하임, 카를. 2013. 『세대 문제』. 이남석(역). 서울: 책세상.
- 성연주. 2021. “청년예술(인)의 사회적 정의와 효과.” 최선영(편). 『숨은참조: 청년-예술인』. 서울: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청년예술청. 265-285.
- _____. 2023. “청년예술이 상징자본이 될 수 있는가?: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와 사회』 31(2): 7-44.
- 이지영. 2019. “페미니즘 연극에서 창작자들이 사유해야 할 지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어와 문화』 29: 251-272.
- 정윤경. 2023. “페미니즘 연극을 하는 이유.” 『공연과 이론』 90: 169-175.
-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3: 12-39.
- 정진세. 2021. “청년예술을 폐기하더라도.” 최선영(편). 『숨은참조: 청년-예술인』. 서울: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청년예술청. 287-301.
- 최영주. 2004. “한국의 페미니즘 연극, 그 현황과 과제.” 『인문언어』 6: 359-380.

(2) 국외문헌

- Austin, Gayle. 1991. “Creating a Feminist Theatre Environment: The Feminist Theory Play.”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24(2): 49-55.
- Aston, Elaine. 2016. “Agitating for Change: Theatre and a Feminist ‘Network of Resistance.’” *Theatre Research International* 41(1): 5-20.
- Braungart, Richard G. 1984. “Historical Generations and Generation Units: A Global

- Pattern of Youth Movement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2: 113-135.
- Canning, Charlotte. 1993. “Constructing Experience: Theorizing a Feminist Theatre History.” *Theatre Journal* 45(4): 529-540.
- Fatima, Anum. 2024. “Feminist Readings of Space, Body, and Performance: An Overview of Emerging Feminist Theatre in India.” *Cankaya University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1): 163-171.
- Hooks, Bell. 2000.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Pluto Press.
- Laufer, Robert S. and Vern L. Bengtson. 1974. “Generations, Ag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Generational Units.” *Journal of Social Issues* 30(3): 181-205.
- Lippmann, Stephen and Howard E. Aldrich. 2016. “A Rolling Stone Gathers Momentum: Generational Units, Collective Memory, and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1(4): 658-675.
- Mouffe, Chantal. 2013. *Agonistics: Thinking the world politically*, Verso Books.
- Noy, Chaim. 2008. “Sampling Knowledge: The Hermeneutics of Snowball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1(4): 327-344.
- Schuman, Howard and Amy Corning. 2012. “Generational memory and the critical period: Evidence for national and world ev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76: 1-31.
- Schuman, Howard and Jacqueline Scott.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59-381.
- Song, Kristen Younghee and Glenn W. Muschert. 2013. “The generational effects of collective memori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llective memories of Koreans in South Korea and the U.S.” *Sociological Spectrum* 33: 16-35.
- Teitel, Darrah. 2019. “The theatre feminist: A manifesto.” *Canadian Theatre Review* 180: 36-41.
- Wandor, Michelene. 1984. “The Impact of Feminism on the Theatre.” *Feminist Review* 18: 76-92.
- Weiss, Jeffrey S. 1994. *The popular culture of modern art : Picasso, Duchamp, and avant-gard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Generation Unit of Feminism Theater
– A Case Study of Young Theater Artists after
the #MeToo Movement

Kim, Sungi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how the generational phenomenon is structured within South Korean theater industry. As a result, a new generation unit was being formed around a new topic called feminist theater.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young theater artists, the context in which a feminism-friendly young generation unit was formed and the flow of change in the theater industry driven by the practice of this generation unit were examined. The triggering event was the #MeToo movement in the theater industry in 2018. The economic capital provided by the youth art support program and the social capital accumulated through the network of young theater artists with similar backgrounds became resources for the formation of the generational unit. Young theater artists were negative about established theater, which is centered on drama theater and is a product of hierarchical theater culture. In addition, they have a clear sense of belonging and generation consciousness in their generational unit. They emphasized discourse and creative practice such as ‘diversity’, ‘social participatory theater’, ‘new theater aesthetics’, and ‘safe environment for creators’, and through this, they were carrying out a strategy of subversion to redefine ‘the theatrical’.

Key words: generation unit, theatre field, #metoo movement, triggering events, feminism theatre

- ▮ 투 고 일 : 2025년 3월 16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정당화 담론*

정현희**

| 목차 |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논의
6. 결론

| 초록 |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이 성평등 실현의 수단으로 위치되기 위한 조건을 질문한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여성 임원' 또는 '여성 이사'에 관한 전국 일간지 및 경제 일간지 기사 3,275건을 수집·분석하고, 토픽모델링, 단어 연결망 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토픽의 변화에 따른 정당화 논리(능력주의론, 성평등론, 다양성론)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와 언론은 성평등론과 다양성론, 기업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당화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이사회 성별 할당제 도입 논의와 함께 성평등론보다는 다양성론이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다양성론은 기업 조직의 성차별이나 유리천장에 관한 토픽과는 유의미한 연결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정의론적 정당화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여성 임원, 성별 다양성, 적극적 조치, 유리천장, 담론 분석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NRF-2024S1A5B5A19043770).

** 서울대학교 oakism1@snu.ac.kr

1. 서론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제도적 압력이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2017년부터 고위공무원단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목표제를 시행해왔다. 급변한 것은 기업 부문에서의 제도화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기조로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여성 임원 비율 제고를 추진해 온 한편, 2020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에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조항(제165조의20)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에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실제로 기업들은 여성을 이사로 선임하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라는 성별이 특정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만든 적극적 조치이며, 바치(Bacchi, 1996)가 정의한 강성·급진 전략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기업에 대한 강행 규정으로 제정한 점 역시 이례적이다. 한국의 적극적 조치가 민간기업까지 확장되지 못한 채 공공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그마저도 강제력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기에(마경희, 2021), 이와 같은 변화가 기업 부문의 성평등 실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국내적 맥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시민성과 시장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과 ESG투자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형 ESG 모범규준에서도 ‘이사회에의 성별 다양성(Board Gender Diversity)’을 기업의 경영적 책임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가 선취한 ‘이사회 성별 할당제’가 ‘최악의 유리천장 국가’라는 오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내적 동기와 만

나 글로벌 이동성(mobility)을 가지고 안착한 것이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화가 일부 엘리트 여성의 성취만을 돕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여성 비율의 증가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회의론 또한 존재한다. 유리천장을 깬 여성 리더들이 일과 가정 사이의 적절한 균형, 자기 책임과 웰빙을 강조하는 담론을 통해 “진보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착각하에 페미니즘의 정신을 사실상 퇴각시킨다(Rottenberg, 2018:39)”는 날카로운 비판도겨워져 있다. 정부로부터 낮은 여성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기업이 고용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여성 이사 선임을 통해 기업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여성을 이사회로(Woman on Board)’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유리천장을 깨뜨린다’는 것이 성평등을 위해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은 바람직하다’는 관념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을까? 이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담론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론적 경합과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이 성평등 실현의 수단으로 위치되기 위한 조건을 질문한다.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고위직에 여성이 진출해야 한다는 관념과 이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념이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에 드러나는 이슈는 무엇인지 등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에 관한 정당화 담론장의 구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담론장에서 어떤 지

1) 유럽의 국가들이 특정 성별의 최소 비율을 규정하는 할당제(quota)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최소 1인의 여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타협되어 이것을 엄밀한 의미의 할당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통칭하여 ‘이사회 성별 할당제’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위를 점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적극적 고용조치가 아닌 의사결정직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성격을 갖는 한국의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제도화 담론과 기업 영역에서의 이사회 성별 할당제 제도화 담론을 중첩하여 다루는 시도가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적극적 조치의 제도화 담론에 관한 페미니스트 연구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수행되어온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연구는 그간 한국에서 실행되어온 국가기관 주도의 적극적 고용조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적극적 고용조치가 과거나 현재의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서 차별의 구조적 결과에 주목하는 만큼, 조직의 효율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도덕적 정당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이주희, 2004) 것이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는 고정된 이념이나 원칙을 가지고 실행되기보다는 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주어진 정치 문화적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류 논리와와의 경합을 통해 수립·실행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 되어왔다(허라금, 2010).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여성의 저발전’을 문제로 둠으로써 평등을 회피했으며, 과학기술, 국·공립대, 기업 분야 적극적 조치는 여성인력 활용을 목표로 둠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효율성 강화가 평등의 정치를 전유하였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는 남성의 반발 수용을 양성평등으로 정의함으로써 평등을 전도하는 양상이 있었다(유정미, 2011). 이에, 평등 개념이 축소, 굴절되어 형해화된 적극적 조치가 다시 평등의 정치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경희, 2000; 허라금, 2010; 유정미, 2011; 정인경, 2017).

공공부문의 고용조치를 중심으로한 논의에 보태어, 조직 내 의사결정

직에 관한 적극적 조치와 근래에 기업 영역에도 제도화된 여성 임원 확대 정책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논리적 경합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허라금(2010)은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조치의 문제를 분배적 정의로만 접근하면 적극적 조치가 목표하는 조직과 의사결정권의 이슈를 쟁점화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경희(2021)에 따르면, 의사결정직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구조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에서 기인하는 유리천장 효과를 제거하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관심과 이해가 공적 의사결정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가 성평등의 결과라기 보다는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적극적 고용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요청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의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연구에서는 '성평등'과 의 미론적으로 경합하는 담론으로서 '다양성(diversity)'의 제도화를 주의 깊게 다뤄왔다. 신자유주의가 생활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 조치의 역사적·철학적 기반이 사회통합 및 다양성의 관점으로 수정되고 변화되어 '도구적인 적극적 조치(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로 전환되거나 혹은 '다양성' 그 자체가 추구해야 할 것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Frymer and Skrentny, 2003; Bacchi, 2010; 최인이, 2017). 그러나 한국의 ESG 모범규준에 명시적으로 도입된 '성별 다양성'은 '지식, 경험, 능력'이라는 능력주의적 다양성의 조건과 함께 열거되어 있어, 인종·성별·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서구의 다양성 개념과도 맥락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에 관한 논의 속에 전개되고 있는 '다양성' 주장이 한국의 제도화 맥락에서 어떠한 담론적 지형과 경합 속에 위치되어 있는지 또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 임원 확대를 둘러싼 능력주의 담론의 복잡성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적극적 고용조치는 통상 ‘능력주의의 훼손이자 역차별’이라는 저항에 직면해왔다. 능력주의는 여성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절하(Bradley and Healy, 2008)이자 조직의 동종재생산(Kanter, 1977) 기제로서 조직 내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사이어스터드(Seierstad, 2016)는 능력주의가 적극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활용된다는 점 또한 발견하였다. 그는 이사회 성별 할당제를 선취한 노르웨이에서, 수혜자 여성들이 스스로 할당제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젊은 여성 이사들의 정당화 논리로 ‘능력주의’가 빈번히 구사되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와 관행들은 뛰어난 여성들의 도전과 등용을 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인식되었고 할당제를 통해 능력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었으므로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영학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성 임원 확대, 특히 이사회 성별 할당제가 조직 또는 공익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여성의 이사회 참가가 기업 성과나 경쟁력(김성운·김진환, 2021; 성효용·김혜선·노원, 2023; 이상철·이윤근, 2023), 이사회의 경영 감독 역할(김나연, 2022; 이상철·이윤근·문창진,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김영화, 2020; 고제경·김희철·박철형, 2023; 김영길, 2023)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성의 이사회 참가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성의 공감능력, 위험 회피 성향(Sapienza, Zingales and Maestripieri, 2009) 등 차이화된 직무 역량에 관한 담론을 강화할 뿐 이사회 성별 할당제가 성평등 실현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는 주된 관심사로 자리잡지 못했다. 페레이라(Ferreira, 2015)는 이와 같은 경영학적 연구 경향을 비판하며 여성 이사회 구성원이 일반 인구에서 관찰되는 것과 동일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성별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또한 이사회를 넘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외부 타당

성 문제를 지적했다.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성평등이 아닌 다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처럼 정당화되고 있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관념은 여성의 이해를 반영한 공정한 의사결정 및 평등 실현이라는 민주적 가치와 어떻게 접목되고 있을까. 특히,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본질적 특성과는 어떻게 조화 또는 불화하고 있을까.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담론장 속에서 성평등이라는 정의론이 다양성, 능력주의, 조직의 효용과 같은 여타 정당화 논리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2) 정책 정당화와 조직 정당화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연구는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담론 투쟁을 조명하고 평등의 문제를 비가시화하는 담론적 질서를 문제 삼았다. 정책의 정당성(justification)이란,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성이며(Atkins, 2010) 정책의 내용과 목표 및 수단 등이 정책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해영, 2015)와 연관된다. 정책 문제의 정의,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정책 행위자들은(actors) 정책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통해 대안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담론 투쟁에 참여한다. 정책의 반대자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지만, 제안된 정책 목적이나 정책 효과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문제와 대안을 정의함으로써 정책에 간접적으로 저항하기도 한다(Cavaghan, 2017).

한편, 정책 문제의 형성과 의제 설정과 같은 정책 설계의 시작 단계에서만 이러한 담론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카바간(Cavaghan, 2017)은 정책 실행 활동 속에서도 그 구체적인 실행 형태를 통제하고 정책 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해석적 경합이 수반되며(Colebatch, 2018) 이를 통해 정책

문제에 대한 지역적(local) 해석이 제도화된다고 보았다. 정책의 입안과 설계 과정에 직접적으로 담론 투쟁의 참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기관, 기업 조직 또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은 자신의 활동들을 범사회적 체계 내에서 수용되는 가치들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활동과 가치들이 서로 부합할 때 조직의 정당성(legitimacy)이 발생한다(Dowling and Pfeffer, 1975). 주크만(Suchman, 1995)은 조직 정당성 이론을 통해 조직 이론과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의 관계를 탐구하며, 조직이 환경 내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의 문제를 천착했다. 조직의 '정당성 활동'이란, 조직의 행동, 결정, 구조, 혹은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서 이는 이해관계자, 규제 기관,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외부 집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조직에 대한 외부적 규제 압력을 완화하며 조직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규범, 윤리적 가치, 정의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직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기업 정보나 언론 등 미디어를 활용한 조직 정당화 활동에 주의를 기울인다(윤태일, 2023). 미디어는 범사회적 정당화의 지표 역할과 정당화 주체로서(배병룡, 2015) 정부나 기업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비판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부나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과시하는 목소리를 무비판적으로 홍보(윤태일, 2023)하기도 한다.²⁾

2) 윤태일(2023)은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저성과 기업일수록 지속가능성 보고서 정보를 공시하는 양적·질적 수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언론이 기업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탁월하게 수행해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과시하는 목소리가 무비판적으로 뉴스 기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을 합리적인 것으로 설득하는 ‘정책 정당화’, 조직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직의 정당화 활동’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당화 차원을 연결한다. 특정한 정책에 연루된 조직(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의 정당화와 조직의 정당화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 문제, 도입, 시행 사실과 그 성과를 대중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한다. 정책을 수행하는 기업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동시에(조직 정당화) 그 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이로운 것임을 승인하고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정책 정당화)를 던지시 내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보도는 여성 임원 확대에 관한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와 언론의 수용적 또는 비판적 입장이 동시에 투영되고 있는 담론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여성 임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분석한다. 앞서 다루었듯, 언론 보도는 정책 정당화와 조직 정당화 활동의 산물로서 여성 임원의 등용에 관한 다양한 입장성과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관념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투영되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앞선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당화 논리들을 분석 자료원으로 삼고, ‘여성 임원 확대’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수사(ethoric) 그 자체에 주목하여 다양한 정당화 논리들의 지형을 살펴본다. 이 정당화 논리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특정 이슈나 행위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담론적 질서를 파악한다.

‘빅카인즈’ 뉴스 검색을 통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기사 제목에 ‘여성 임원’ 또는 ‘여성 이사’를 포함하는 전국 일간지와 경제 일간지³⁾의 기사 3,422건의 목록을 수집하였다. 동음이의어나 주제와 무관한 기사를 제외하고, 동일 언론사가 같은 제목으로 한날 여러 섹션에 중복 게재한 기사는 하나의 기사로 간주하였다. 147건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3,275건의 기사의 제목, 보도일자, 본문을 웹스크래핑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의 관심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고위직에 여성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슈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사의 주요 내용을 범주화할 수 있는 토픽모델링 분석, 정당화 논리의 배열을 파악하기 위한 단어 연결망 분석, 특정 토픽이 특정 정당화 논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 언론 보도의 내용 분석: LDA 토픽모델링

자료의 정제와 전처리, 토픽모델링, 단어 연결망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에 활용되는 주요 기법들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라는 질적 자료를 단어의 빈도, 위치, 거리, 배열을 양화(量化)하여 분석함으로써 대량의 문

3) 전국 일간지(12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 일간지(13개): 대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서들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장점이 있어 언론 보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전 과정에는 한글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KoNLP'를 사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대량의 문서별 단어 리스트를 구성하여 문서 내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확률적 방법으로 각 토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을 집합 형태로 추출하는 알고리즘(Blei, Ng and Jordan, 2003)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모델을 적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위해서는 기사의 내용을 단어로 쪼개는 작업, 즉 토큰화(tokenizing)를 해야하는데, 명사만을 추출하는 방법과 명사·동사·형용사별 형태소로 분리하여 토큰화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토큰화 방법으로 각각 토픽모델링을 테스트한 결과, 형태소 토큰화⁴⁾를 시행한 모델링이 이 연구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형태소 토큰화를 선택한 이유는 각 토픽에 추출된 명사만으로는 기사의 주제나 내용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만, 동사나 형용사를 함께 추출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의 태도까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 문장은 일정 부분 정형화된 문법 구조를 따르며, 예를 들어 '~라고 밝혔다', '~에 따르면', '~로 나타났다' 등의 관행적 표현을 통해 취재원(정부/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을 인용한다. 또한 '~에 그쳤다', '~에 미치지 못했다', '달성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현상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시선이 드러난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각 토픽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하여 그 내용과 관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토픽명을 정의하였다. 이때 각 토픽에 속한 문서들의 연도별 생산 추이를 참고하여 그 토픽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보조적 정보로 활용하였다.

4) 이 연구에서는 형태소 토큰화 함수로 simplepos09을 사용하였다.

(2) 기사의 정당화 논리 범주화: 단어 연결망 분석

토픽모델링은 그 자체로 정당화 논리를 표상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며, 설령 그런 단어가 존재하더라도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정당화 논리를 나타내는 핵심어들을 먼저 도출한 뒤, 그 분포와 관계성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목록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파이 계수(Phi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파이계수는 두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1~1까지의 숫자로 정량화하며, 관련성이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진다. 이 지표는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에 기반하여, 특정 단어쌍이 다른 단어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함께 등장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단어 간 네트워크 구조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파이 계수를 활용한 단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정당화 논리를 유형화하고 그 하위 단어들을 정당화 논리를 표상하는 지표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토픽과 정당화 논리 출현의 인과관계 분석: 회귀분석

토픽모델링은 자료의 전반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연구 동향이나 소비, 검색 트렌드 분석 등과 같은 탐색적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픽모델링은 인과성 분석에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병행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고 있다(조원광, 2017; 김은정 · 정석권 · 이상용, 2023; 원윤경 · 노미영, 2025). 이 연구 역시 토픽과 정당화 논리의 인과성을 추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특정 토픽의 출현 빈도(X)를 독립변수로, 정당화 논리의 출현 빈도(Y)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토픽이 특정 정당화 논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X는 특정 토픽으로 분류된 하위문서가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연도별)이며, Y는 특정 정당화 논리 범주로 분류된 하위문서가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연도별 비율로 설정하였다.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두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표 1〉 회귀모형 및 변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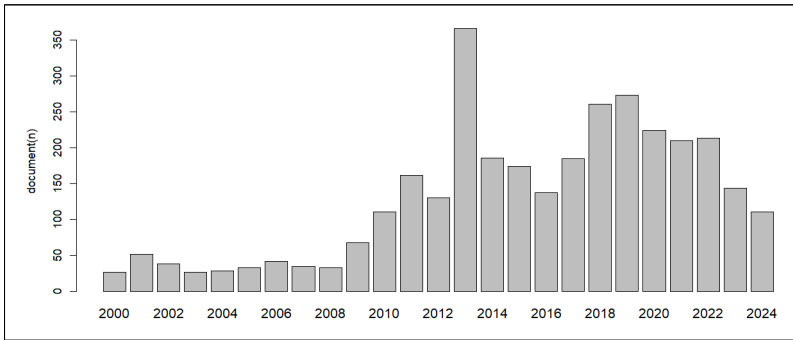
회귀모형:	$Y_t = \beta_0 + \beta_1 X_t + \epsilon_t$ (t : 문서 생산 연도)
독립변수:	$X_t = \frac{\text{연도별}(t) \text{ 토픽}(1,2,3 \dots k) \text{ 문서 수}}{\text{연도별 생산 문서 수}} \times 100$
종속변수:	$Y_t = \frac{\text{연도별}(t) \text{ 정당화 논리}(1,2,3 \dots n) \text{ 를 포함하는 문서 수}}{\text{연도별 생산 문서 수}} \times 100$

4. 연구 결과

1)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제도화와 기사의 분포

여성 임원 또는 여성 이사 관련 기사의 증감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관련 기사는 2009년부터 차츰 증가하여 2013년에 폭증하였다가 2018년과 2019년경 다시 증가세가 나타났다(〈그림 1〉). 2013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견되었다.⁵⁾ 이에 따라, 2013년 삼성,

SK, 롯데, KT,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된 여성 인사에 관한 언론 보도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하였다.



〈그림 1〉 관련 기사의 연도별 추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부터 추진된 세 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였다. 201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임원목표제가 명문화되었고,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 임원의 성별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이 명시되었다. 같은 해 최윤열 의원 등은 이사회에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는 2020년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사이 ESG 모범기준에 ‘이사회에 성별 다양성 확보’를 명시한 개정이 이뤄졌다. 이 시기 동안 관련 보도량이 증가하다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5) 여성임원목표제는 당선인의 공약이자 인수위원회에서도 제안된 정책이었다. 또한, 재계인사인 정몽준 당시 국회의원이 공공부문 여성 임원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기도 하였다. 2012년 대선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관한 문화적 태도가 전환되는 듯한 국면이 전개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주목에 그쳤고 실제로 정책이 도입되지는 않았다.

〈표 2〉 관련 정책 도입 및 법률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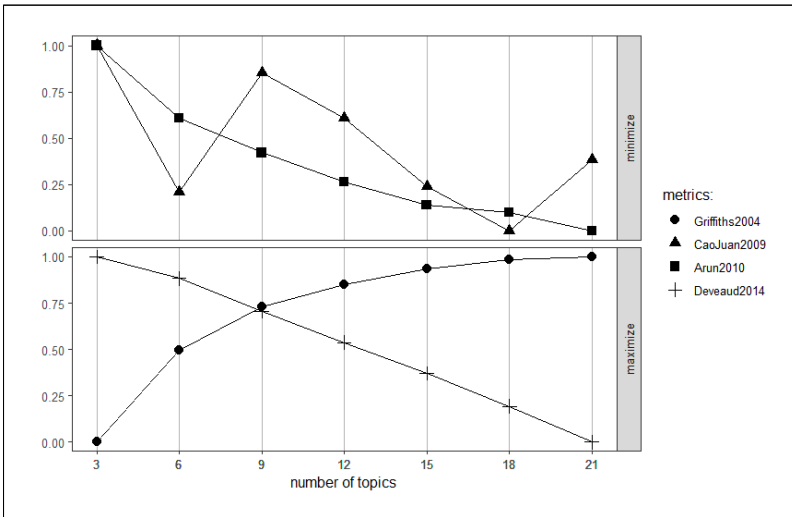
연도	정책 및 법률	내용
2017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 임원목표제
2018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자료 제공 요청 권한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조항 신설
20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발의 2018년, 2년 간 시행 유보)
2021	K-ESG 모범규준 (지배구조) 개정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성별’ 명시
20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 시행	

2) 토픽모델링 및 토픽의 내용 정의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 혼란도(Perplexity)를 측정하는 4가지 성능지표(Griffiths2004, CaoJuan2009, Arun2010, Deveaud2014)를 활용하였다. 혼란도는 동일 토픽으로 분류된 문서들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토픽의 수가 증가할수록 하위 문서 간의 일관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100개의 문서를 100개의 토픽으로 분류하면 혼란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과도한 분류는 실질적인 해석과 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체 문서 수와 분석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토픽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5년간(2000~2024) 생산된 총 3,275건의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평균 약 130건 정도의 기사가 여러 개의 토픽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130건의 내외의 문서를 10개 이상의 토픽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추상화 정도가 낮아 실질적인 분석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0개 이내의 토픽 수 범위에서, 성능지표의 조건⁶⁾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최적의 토픽 수를 6개로 확정하였다 (<그림2>).



<그림 2> 최적의 토픽 수 선정을 위한 성능지표

6개의 토픽과 토픽을 구성하는 30개의 핵심어, 각 토픽으로 분류된 하위 문서수와 비율, 문서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하여 각 토픽의 내용과 성격 을 파악하고 토픽명을 정의하였다(<표 3>).

<토픽1>은 ‘정부의 정책 홍보’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 ‘프로그램’, ‘제도’, ‘목표’ 등 정부 정책에 관련된 핵심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인력’, ‘인재’, ‘육성’, ‘다양성’, ‘높이다’와

6) Griffiths2004와 Deveaud2014는 최대화하고 CaoJuan2009, Arun2010를 최소화하는 값을 토픽의 개수(K)로 설정할 수 있다. 앞의 두 값의 합과 뒤의 두 값의 합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K값을 구하였다.

같은 정책의 내용과 취지가 중심적으로 나타난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문서는 2013년과 2017년~2019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당시 새 정부(2013년, 2017년)과 함께 발표된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추진 및 시행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밝히다’, ‘따르다’ 등의 동사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본 토픽은 정부의 보도자료나 공식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문서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토픽1>은 여성 임원 확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정책 홍보의 성격을 갖는 주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실질적인 여성 인재 기용을 위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여성 ‘인력’,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연성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2>는 ‘기업의 정기 인사 발령’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토픽에 포함된 문서들은 주로 2013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특정 기업에서 ‘~출신’, ‘전문가’ 등의 배경을 가진 여성을 ‘상무(보)’, ‘전무’, ‘부사장’,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임명한 ‘임원인사’, ‘승진’, ‘발탁’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토픽의 핵심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이는 여성 임원의 승진 및 발탁이라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해당 문서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해석보다는 인사 발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토픽3>은 ‘국내외 이사회 성별 할당제의 제도화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토픽은 ‘세계’, ‘유럽’,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여성 이사 할당제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며,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여성 이사 임명을 통한 이사회 구성의 변화라는 국내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기사 생산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이 시기에

는 국내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가 본격적인 정책 과제로 다뤄지기 이전이며, 주로 유럽 국가 및 EU 차원의 여성 이사 할당제 논의와 제도 도입 사례에 대한 보도가 중심을 이룬다. 두 번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내 여성 이사 의무화 논의 및 제도 시행 현황을 다룬 보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토픽 3>은 국제적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정 및 제도적 반응을 연계하여,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제로 해석할 수 있다.

<토픽 4>는 ‘한국의 낮은 여성 임원 비율과 유리천장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토픽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의 여성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 임원 및 여성 ‘등기임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친다’는 현실을 보도하며, 이를 견고한 ‘유리천장’ 문제로 인식하는 언론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해당 기사들은 주로 여성가족부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무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민간 컨설팅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토픽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정부 정책 및 언론의 비판적 담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슈에 대한 민간 컨설팅 기관 또한 공론장 내 주요 행위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 5>는 ‘기업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토픽은 <토픽 2>와 유사하게 기업 내 임원 및 고위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특히 ‘최초’, ‘처음’, ‘탄생’ 등의 표현을 통해 고위직 여성의 등장 자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등장하는 직책으로는 ‘임원’, ‘본부장’, ‘부행장’, ‘지점장’ 등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출신’, ‘졸업’ 등의 표현을 통해 승진 대상자 여성의 학력 및 경력 등 개인적 배경이 서술되고 있다. 또한 ‘설명’, ‘평가’, ‘관계자’, ‘밝히다’ 등의 핵심어가 나

타나는 점으로 보아, 해당 기사들은 여성 임원 임명과 관련된 내부 맥락을 기업 관계자의 인터뷰나 공식 입장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픽 5>는 여성 고위직 임명에 대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인사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기업의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토픽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토픽6>은 ‘조직 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정 직책이나 ‘여성들’, ‘여자’와 같은 단어와 함께 ‘육아’, ‘일하다’와 같은 경험 내용, ‘어렵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 단어가 함께 등장하였다. 이 토픽은 2010년 이전까지 전체 문서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정책 이슈의 영향력이 적은 주제로, 언론 지면에서도 콜드 토픽(cold topic)으로 나타났다.

<표 3> 토픽의 주요 단어 및 연도별 문서 분포

구분	토픽명	주요 단어 (B값 상위 30개)	빈도 (비율)	연도별 문서 분포		
				2000	2010	2020
토픽 1	정부의 정책 홍보	위하다, 확대, 대하다, 계획, 밝히다, 여성인력, 노력, 정부, 통하다, 공공기관, 목표, 다양한 다양성, 높다, 대표, 적극적, 관리, 인재, 장관, 여성가족부, 육성, 운영, 서울, 따르다, 지원 프로그램, 정책, 사회, 제도	482건 (14.7%)			
토픽 2	기업의 정기 인사 발령	상무, 승진, 임원, 인사, 전무, 부사장, lg, 삼성전자, 부장, 승진자, 사장, 상무보, 마케팅, 발탁, 사업, 삼성, 신규, 그룹, 임원인사, 전문가, 정기, 신입, 글로벌, 대표이사, 통하다, gs, 성과, 규모, 출신, 부문	667건 (20.4%)			

구분	토픽명	주요 단어 (B값 상위 30개)	빈도 (비율)	연도별 문서 분포		
				2000	2010	2020
토픽 3	국내외의 이사회 성별 할당제 제도화	이사, 기업, 이사회, 사외이사, 파르다, 미국, 한국, 교수, 다양성, 지나다, 일본, 기업들, 세계, 주요, 구성, 할당제, 대하다, 상장기업, 이사회회, 경영, 법안, 자본시장법, 영국, 지배구조, 노르웨이, 여성이사, 글로벌, 유럽, 후보, 채우다	468건 (14.3%)			
토픽 4	한국의 낮은 여성 임원 비율과 유리천장 문제	임원, 기업, 전체, 비중, 나타나다, 국내, 남성, 결과, 조사, 기준, 직원, 그룹, 불과, 평균, 수준, 등기임원, 파르다, 그치다, 유리천장, 증가, 공공기관, 으로, 대상, 달하다, 비하다, 현황, 대비, 공기업, 대기업, cj, 포인트	669 (20.4%)			
토픽 5	기업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	임원, 인사, 밝히다, 최초, 본부장, 신입, 조직, 거치다, 선임, 포스코, 승진, 임명, 사진, 부행장, 처음, 위하다, 출신, 은행, 관계자, 업무, 탄생, 지나다, 강화, 부사장, 단행, 지점장, 설명, 졸업, 담당, 평가	618 (18.9%)			
토픽 6	조직 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회사, 아니다, 대하다, 만들다, 상무, 사람, 여성들, 이사, 업무, 능력, 지나다, 시간, 보이다, 남성, 국내, 육아, 일하다, 직장, 못하다, 과정, 가지다, 고객, 오르다, 강조, 어렵다, 만나다, 그러다, 업계, 여성들이, 여자	371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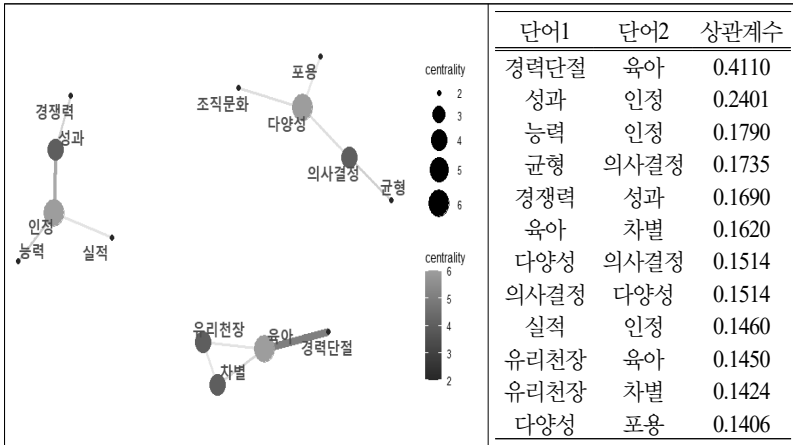
3) 정당화 논리의 범주화

이 절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정당화 논리의 지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로부터 구조적 성차별, 정의론적 접근, 다양성 접근, 성과 및 능력주의, 효용론 등에 관련한 단어 목록을 가능한 많이 작성한 후, 이 가운데 100개 이상의 문서에 포함된 단어 19개를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선별된 단어들은 정당화 논리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연결망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 연결망 분석에 활용할 단어 목록 및 출현(문서) 빈도

<p>성과(1120), 인력(674), 능력(628), 유리천장(524), 인정(497), 역량(495), 다양성(442), 평등(437), 경쟁력(365), 차별(340), 실적(331), 육아(301), 의사결정(206), 조직문화(164), 효율(124), 포용(120), 균형(112), 경력단절(112), 투명(104)</p>

이들 단어가 서로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며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Phi)와 중심성(centrality)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아주 약한 연결까지 모두 분석에 반영할 경우 모든 단어가 연결되어 군집 구조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만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관계수 0부터 단어 간 연결이 처음으로 끊어지는 지점까지 0.01씩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적절한 상관계수의 최소치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는 처음에는 복잡한 그물망(Mesh) 형태였던 네트워크가 점차 고리(Ring) 형태로 변형되었고 상관계수가 0.14를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14개 단어가 세 개의 군집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3>). 이 과정에서 ‘인력’, ‘평등’, ‘역량’, ‘효율’, ‘투명’과 같은 단어는 유의미한 군집을 형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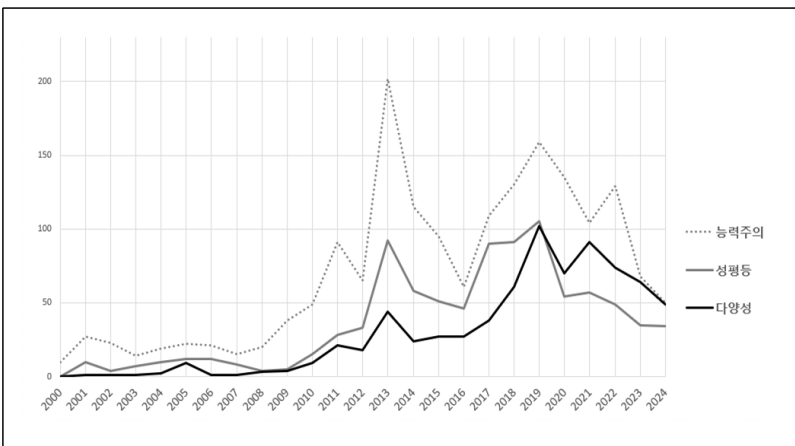
〈그림 3〉 단어 연결망 분석 결과

앞에서 나타난 세 개의 군집을 정당화 논리 범주로 정의하였다. 여성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성과가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능력주의론〉이 도출되었다(‘인정’, ‘능력’, ‘역량’, ‘경쟁력’, ‘성과’). 구조적인 여성 노동 차별을 문제화하는 〈성평등론〉과(‘유리천장’, ‘차별’, ‘육아’, ‘경력단절’) 다양성이 조직의 균형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조직 효율을 강조하는 의미들의 집합으로서 〈다양성론〉이 도출되었다(‘다양성’, ‘의사결정’, ‘조직문화’, ‘포용’, ‘균형’).

〈표 5〉 정당화 논리 범주와 하위 단어 출현 빈도

	포함 문서	하위 단어의 문서 출현
능력주의론	1,771건 (54.1%)	성과(1120건, 43.2%), 능력(628건, 19.2%), 인정(497건, 15.2%), 실적(365건, 11.1%), 경쟁력(331건, 10.1%)
성평등론	910건 (27.8%)	유리천장(524건, 16.0%), 차별(340건, 10.4%), 육아(301건, 9.2%), 경력단절(112건, 3.4%)
다양성론	742건 (22.7%)	다양성(442건, 13.5%), 의사결정(206건, 6.3%), 조직문화(164건, 5.0%), 포용(120건, 3.7%), 균형(112건, 3.4%)

〈능력주의론〉을 표상하는 단어들을 포함한 문서는 1,771건으로 전체 문서의 54%를 차지하였고, 〈성평등론〉은 910건(27.8%), 〈다양성론〉은 742건(22.6%)으로 나타났다(〈표5〉). 이들의 시계열적 출현 추이를 살펴보면(〈그림4〉),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기간 동안 〈능력주의론〉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변화로는, 2018년까지 〈다양성론〉에 비하여 우세했던 〈성평등론〉이 2019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다양성론〉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두 논리 간의 추세가 역전된 점이다. 또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능력주의론〉이 감소한 반면, 〈다양성론〉은 증가하는 반전이 나타났다. 2022년에는 〈다양성론〉과 〈성평등론〉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 〈능력주의론〉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이사회 성별 할당제 도입과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 임원 확대 정책 시행이 정당화 담론의 구성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어떤 토픽이 어떤 정당화 논리의 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정당화 논리의 연도별 문서 출현 추이

4) 토픽과 정당화 논리 출현의 인과관계

6개의 토픽과 3개의 정당화 논리 출현의 상관관계를 앞서 제시한 회귀 모형(〈표1〉)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픽1〉(정부의 여성 임원 확대 정책)과 〈토픽4〉(한국의 낮은 여성 임원 비율과 유리천장 문제)가 성평등론과 다양성론의 증가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토픽3〉(국내외의 이사회 성별 할당제 제도화)은 다양성론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토픽5〉(기업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는 능력주의론의 증가에만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6〉(조직 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능력주의론이나 성평등론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다양성론에만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토픽과 정당화 논리의 관계: 회귀계수와 유의도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정부의 정책 홍보	기업의 정기간사 발령	국내외의 이사회 성별 할당제 제도화	한국의 낮은 여성 임원 비율과 유리천장 문제	기업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	조직 내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1	능력주의론	0.2709	0.0650	0.2371	0.0118	0.2828**	0.0189
2	성평등론	0.5991**	-0.1357	-0.1013	0.4111*	-0.2757	-0.1387
3	다양성론	0.8909**	-0.2560	0.7762*	0.5112*	-0.2188	-0.6091**

* p<0.05 ** p<0.01 *** p<0.001

5. 논의

그간 한국에서 시행되어온 ‘공무원 채용목표제’나 ‘승진목표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들은 종종 ‘역차별’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서는 전체 기사 중 25건에 불과했으며 연도별로도 0~7건 정도에 머물렀다. 이는 고위직 여성에 관한 언론 보도가 찬반이나 지지·비판을 중심으로 한 쟁점화된 담론장이 아니라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담론장으로 구성되었음을 방증한다.

여성 임원 및 여성 이사 등 고위직 진출에 관한 담론장은 주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대선 공약, 여성 임원 확대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태도, 실질적인 법 개정 및 정책 도입 등에 따라 정책 행위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화 활동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담론장의 성쇠가 이루어졌다. 이 담론장에서는 기업의 임원 인사와 최초 고위직 여성 진출에 관한 기사가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책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성별 할당제 시행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은 바람직하다’는 관념은 정책 주도자로서의 정부와 정책 실행자로서의 기업 조직에 각각 다르게 정당화되어 왔다.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로서 언론의 사회 비판적 역할과 결합해 정의론적 담론장의 구성에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한다. 반면, 기업은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제도적 취지나 목적을 인용하지 않고 탁월한 여성 개인의 능력주의적 성취로 정당화해왔다. 이는 기업이 정책에 대한 반대를 드러내어 표명하기보다는 담론적 선택성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언론은 정부나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한국의 유리천장 문제를 비판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을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 내 여성들이 경력 유지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유럽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된 이사회 성별 할당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후, 국내에서도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 선임을 의무화하는 과정

에서 다양성론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 임원 확대를 기업의 경영적 책임으로 해석하고 확장하려는 정부와 언론의 정당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기업 조직의 성차별이나 유리천장에 관한 논의와의 연결성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평등론과 유리된 다양성론의 한계를 드러냈다.

6. 결론

본 연구는 조직 내 고위 의사결정직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정책 정당화 담론장에서 나타난 최근 변화를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포착하였다. 한국의 여성 임원 확대에 관한 성평등 논의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목적이나 가치와의 경합 속에 위치하였으며, 정의론적 논의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사회 성별 할당제 제도화의 영향으로 ‘다양성’ 논리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었다는 점은 새롭게 확인된 바이다. 이는 기업 의사결정직 이슈가 다양성을 중심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조직 내 여성 노동자들의 성차별 문제와는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이사 선임 의무를 가진 기업들이 주로 관료나 교수 출신 여성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내 여성 임원 확대가 조직 내부 각계 각층 여성들의 고용 차별 해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지도 낙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주도의 성평등(Corporate-Led Gender Equality)”에 관한 페미니스트 비판과도 연결된다(Roberts, 2015). 엘리야스(Elias, 201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포럼(前 다보스포럼)에서 가속화된 성평등 논의가, 글로벌 자본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합리적 여성 경제 주체

(‘다보스 우먼’)를 호명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논의가 초국적 기업이 성 불평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 온 사실을 비가시화한다고 비판하였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다양성을 통해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 기업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정부와 언론의 정당화가 한국형 비즈니스 페미니즘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주목과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의 정의론적 정당화를 발굴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 또한 뒷받침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여성 의사결정 참여 확대 정책은 역사적으로 ‘공적 의사결정’에 한하여 정당화되어 왔다. 공공조직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이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이 가지는 성격과 그 안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실현하는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페미니스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며 후속 연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이사회 성별 할당제는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경영학 연구에서는 주목받고 있지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조명하는 연구는 드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양적 방법을 통한 담론 분석을 시도하고, 담론의 누적에 따른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별된 단어를 중심으로 정당화 논리를 추론했기 때문에, 담론장에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정당화 논리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언론 보도에 국한하여 담론장의 질서를 분석했기 때문에, 행위자가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당화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포괄하지 못했다. 이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질적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제경, 김희철, 박철형. 2023. “여성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무역경영연구』 29: 1-18.
- 김경희. 2000.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치.”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 학위논문.
- 김나연. 2022.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완화시키는가?” 『경영컨설팅연구』 22(2): 23-30.
- 김성윤, 김진환. 2021. “여성이사가 기업 가치(Tobin Q)에 미치는 영향: 이사회내 성별 다양성을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21(1): 25-56.
- 김영길. 2023.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ESG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23(3): 201-210.
- 김영화. 2020. “여성임원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64: 195-210.
- 김은정, 정석권, 이상용. 2023. “토픽모델링과 시계열 회귀분석을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25(3): 163-177.
- 마경희 외. 2021. “적극적 차별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병룡. 2015. “조직 정당성, 정당화, 그리고 제도화.”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43-272.
- 성효용, 김혜선, 노원. 2023.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9(4): 59-85.
- 원윤경, 노미영. 2025.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운동선수 대상 심리 연구 트렌드 분석: 2000~2024.” 『한국융합과학회지』 14(2): 1-20.
- 유정미. 2011. “적극적 조치 제도화 담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태일. 2023. “기업에 대한 정당성 압력으로서의 감시견 역할: 지속가능 경영 뉴스기사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 『한국언론학보』 67(4): 198-237.
- 이상철, 이운근, 문창진. 2022. “여성의 이사회 참여 및 여성이사의 독립성과 회계보수 주의.”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4(1): 277-310.
- 이상철, 이운근. 2023. “여성의 이사회 참여가 연구개발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24(3): 367-394.

- 이주희. 2004. “적극적 조치와 여성노동.” 『한국여성학』 20(3): 139-170.
- 이해영. 2015. “정책개입의 사회적 정당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4(3): 347-376.
- 정인경. 2017. “적극적 조치, 시민권의 평등을 향한 도전.” 『한국여성학』 33(4): 179-207.
- 조원광. 2017. “의료 지식의 사회적 구성과 건강 행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인이. 2017. “한국사회에서 적극적 조치의 정책적 방향성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2: 157-188.
- 허라금. 2010. “젠더 전환적 전략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재개념화.” 『한국여성학』 26(2): 99-125.

(2) 국외문헌

- Atkins, Judi. 2010. “Moral Argument and the Justification of Policy: New Labour's Case for Welfare Reform.”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12(3):408-424.
- Bacchi, Carol L. 1996. *The Politics of Affirmative Action: 'Women', Equality and Category Politics*. CA:Sage Publications.
- 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radley, Harriet and Geraldine Healy. 2008. *Challenging Discrimination, Sexism and Racism: the Role of the State*. Bradley, H., Healy, G. (eds). *Ethnicity and Gender at Work - The Future of Work Ser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Bacchi, Carol. 2010. “Gender mainstream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3: 6-24.
- Cavaghan, Rosalind. 2017. “Bridging Rhetoric and Practice: New Perspectives on Barriers to Gendered Change.”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38(1): 42-63.
- Colebatch, HK. 2018. “The idea of policy design: Intention, process, outcome, meaning and validity.”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33(4): 365-383.
- Elias, J. 2013. “Davos Woman to the Rescue of Global Capitalism: Postfeminist Politics and Competitiveness Promotio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7(2): 152-169.

- Dowling, John, and Jeffrey Pfeffer. 1975. "Organizational legitimacy: Social value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8(1): 122-136.
- Ferreira, Daniel. 2015. "Board Diversity: Should We Trust Research to Inform Policy?"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23(2): 108-111.
- Frymer, Paul, and John D Skrentny. 2003. "The rise of 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 Law and the new significance of race in America." *Conn. L. Rev.* 36, 677.
- Kanter, Rosabeth Moss. 1977.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s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965-990.
- Roberts, A. 2015.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national Business Feminism': Problematizing the corporate-led gender equality agenda."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17(2): 209-231.
- Rottenberg, Catherine. 2018. *The Rise of Neoliberal Feminism*.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 Sapienza, P., L. Zingales and D. Maestripieri. 2009. "Gender differences in financial risk aversion and career choices are affected by testostero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6:15268-15273.
- Seierstad, C. 2016. "Beyond the Business Case: The Need for Both Utility and Justice Rationales for Increasing the Share of Women on Boards." *Corporate Governance-an International Review* 24(4): 390-405.
- Suchman, M. C. 1995. "Managing Legitimacy -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Abstract

A News Discourse Analysis of ‘More Women in Top Management’ in South Korea

Jeong, Hyun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hifts in policy justification discourse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female executives in South Korea, through a media content analysis. A total of 3,275 articles from national and economic daily newspaper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2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opic modeling, word network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discourse was not framed around conflict or controversy, but rather constructed through various forms of justification. The government and media predominantly emphasized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whereas corporations tended to justify female appointments through meritocratic reasoning. Particularly after 2018,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gender diversity quotas for corporate boards, the discourse of “diversity” was reinforced but remained loosely connected to the structural issue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These findings align with feminist critiques of “business feminism” and underscore the need to strengthen justice-based rationales for policies aimed at expanding women's representation in leadership roles.

Key words: corporate governance, glass-ceiling, Women on Board, gender diversity, affirmative action, topic-modeling

- ┃ 투 고 일 : 2025년 3월 15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권수현*

| 목차 |

1. 문제제기
2.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과 성과
 - 1) 에밀리즈 리스트의 설립과 성장
 - 2) 조직과 활동
 - 3) 정치자금 모금과 후원
 - 4) 성과: 수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3. 에밀리즈 리스트의 성공과 지속 요인
 - 1) 리더십
 - 2) 명확한 당파성과 강력한 정체성
 - 3)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선택
 - 4) 번들링(bundling): 티끌 모아 태산
4.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운동에 주는 함의

| 초록 |

이 논문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치단체인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 정치활동 위원회(PAC)의 활동을 살펴보고, 성공과 지속 요인을 분석한 후 한국의 여성정치 세력화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1984년에 설립된 에밀리즈 리스트는 민주당 소속으로 임신중지에 찬성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세력화를 확대해 온 조직이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조직의 대표를 맡아 이끌어 왔던 말콤의 리더십, 민주당 소속이라는 명확한 당파성과 임신중지 찬성이라는 강한 정체성 추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성후보 선택, 후원자들의 소액 기부와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번들링(bundling) 자금모금 방식 활용

* 경상국립대학교 slowpanda@gnu.ac.kr

부족한 부분과 놓친 부분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제도와 문화에 있어 한국과 미국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뿐 아니라 실질적 대표성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여성정치세력화 방식, 예를 들면, 특정 젠더의제를 지지·대표하는 여성/페미니스트를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전문적인 교육·훈련 조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에밀리스 리스트, 리더십, 당파성, 정체성, 후원,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치세력화

1. 문제제기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한국 여성운동은 여성의원 수의 절대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여성의원 수나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을 높이기 위해 한 축으로는 성별할당제 법제화를 추진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여성들에게 정치참여를 권유하거나 지원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전자와 관련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에 할당제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정당법에 명시되었고,¹⁾ 이후 몇 번의 관련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권고)과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여성 공천(의무)이라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 낮아지고,²⁾ 광역과 기초 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전체 의석의 10%로 대표의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낮은 수

1)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정당법 제31조 제4항)

2) 민주화 이후 국회의 비례대표 비율은 계속 축소됐다. 13대에서 25.0%였던 비례대표 비율은 15대에서 15.4%까지 떨어졌고, 16대(16.8%)와 17대(18.7%)에 소폭 상승했다 18대 18.1%, 19대 18.0%, 20대 15.7%로 계속 줄었다(이진옥·황아란·권수현, 2017: 214). 현재 15.6%이다.

준이다.³⁾ 그리고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은 정당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비례대표제와 결합한 할당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17대 총선에서만 제도적 효과가 존재했고(이진옥·황아란·권수현, 2017: 213), 이후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했던 건 할당제 효과라기보다는 여성정치인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의한 측면이 크다.⁴⁾

법적 할당제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적용되지 않고,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한 여성운동의 정치·사회적 압력이 약해지면서 여성의 정치 진입과 대표성 확대는 정당의 남성 기득권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남성 정치의 “내재적 요구에 곧장 적응할 수 있는 하비투스”(푸워, 2017: 219-220)를 가진 소수 기득권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는 젠더정책의 실종과 성평등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보다 여성의원 수가 증가했지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로 바꾸는 형법 개정,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비롯한 안전한 임신중지 조치의 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 축소 등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젠더의제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현실은 정당, 특히 거대정당의 여성공천이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대체를 구성해 할당제 개혁과 여성후보 공천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예외적인 활동이 한 번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도 미국의 에밀리스 리스트(EMILYs List)와 유사한 활동이 진행된 적이 있다. 2003년 11월 6일,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후보 리스트를 만들고, 정당

3)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공직선거법 제22조 4항과 제23조 3항에 의해 지역구 의석수의 10%로 고정되어 있다.

4) 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의 상승은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 당선자의 증가 때문이다(권수현·황아란, 2017).

들이 이들을 공천하도록 압박하는 활동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들이 모여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이하 '맑은넷'으로 표기)를 발족했다.⁵⁾ 맑은넷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여성후보를 추천받았고, "도덕성과 신망, 공익성, 전문성, 민주적 리더십, 양성평등의식 등을 기준으로 심사와 검증을 거쳐"(동아일보, 2004.01.08.) 2004년 1월 8일, 102명의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맑은넷은 각 정당에 여성후보 명단을 보내고 이들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04년 2월 10일에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발족해 여성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유권자 캠페인('맑은정치 희망지기 2004인 모여라!')을 진행했다.⁶⁾

맑은넷이 추천한 102명 중 46명(45.1%)이 공천을 받았고, 46명 중 15명은 지역구 공천을, 31명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김은경, 2010: 116). 17대 총선에 출마한 전체 여성후보(156명) 중 29.5%가 맑은넷 추천 후보였다.⁷⁾ 이는 맑은넷의 여성후보 리스트 작성 활동이 거대정당 여성 공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후보

- 5) 발족식에는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이미경 전 의원 등 40여 명의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안희·이윤영, 2003). 맑은넷은 발족 선언문에서 "우리 정치가 수십 년 동안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 때문"이라며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해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국회의원 273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2003).
- 6)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총선여성연대 산하 322개 단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위원 약 80여 명, 한국여성재단 등 범여성계가 연합한 조직이며, 17대 총선까지 한국여성재단의 특별기금으로 운영됐다(김혜림, 2004). 600여 명이 기부한 약 2,000만 원의 성금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박이은경, 2004: 304).
- 7) 지역구 15명 중 3명, 비례대표 31명 중 19명, 총 22명(47.8%)이 당선되었다(김은경, 2010: 117). 전체 여성후보자 156명 중 당선자 비율(25%, 총 39명,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보다 맑은넷 후보자 중 당선자 비율(47.8%)이 더 높았다(김은경, 2005; 김은경, 2010: 117에서 재인용).

공천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의회에 진입한 여성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김은경, 2010) 맑은넷 활동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여성운동 안팎으로 논란과 비판이 있었고, 정치적 환경도 변화하면서 한 번의 활동으로 종료되었다.

반면,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 정치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정치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성별할당제라는 법적 기반도 정당 내 규율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의 여성대표성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데는 에밀리즈 리스트와 같이 여성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와 이에 동참하는 수많은 여성시민의 힘이 모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한국과 다르나 현재의 정치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페미니즘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었고,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국회와 정당이 존재하고, 지역구 후보공천 성별할당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낮고, 여성단체들의 초당적 연대나 연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 정치대표성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은 점검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한국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러 번 회자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소개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 미국에서도 에밀리즈 리스트와 관련한 기사는 많으나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다(Cooperman, 2010; Day and Hadley, 2002; Gaunder, 2011; 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Hoagland, 2011). 따라서 이 연구는 에밀리즈 리스트와 관련한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성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에밀리즈 리스트가 미국 정치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것이 한국 정치의 여성 대표성과 세력화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과 성과

1) 에밀리즈 리스트의 설립과 성장

베테랑 활동가이자 기금 모금자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하고 있던 앨런 말콤(Ellen R. Malcolm, 1947~)은 1983년 겨울, 의회(상원)에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에 말콤은 여성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에 대한 신뢰와 자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몇몇 동료들과 논의해 “초기 자금은 이스트와 같고, 그것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Early Money is Like Yeast, it makes the dough rise)”는 의미를 담아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를 만들었고, 1984년 12월에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로 등록했다.⁸⁾

새로운 정치전략이란 에밀리즈 리스트가 추천하는 여성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후원자 네트워크(donor network)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money)이고, 여성은 후원받는 것도 후원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Malcolm, 2017: 23). 이를 위해 에밀리즈 리스트는 후원자들이 지지·지원하고자 하는 여성후보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말콤은 과거의 여성조직이 약화된 요인이 그들의 초당파적인(bipartisanship) 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당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여성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초당파적인 태도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나 정당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정당에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여성 후원자들

8) 정치활동위원회는 결성된 후 10일 이내에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며, 분기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OpenSecrets, 2024).

의 결집력을 끌어내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지원하는 여성후보는 반드시 민주당 소속 후보여야 한다는 조건을 세웠다. 또 다른 조건은 임신중지(pro-choice)에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이유가 여성의 이해(women's interest)를 대표하는 것인 만큼, 에밀리즈 리스트는 임신중지 찬성 입장을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여성후보이자 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조건으로 설정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 후보는 에밀리즈 리스트로부터 지지·지원을 받을 수 없다.

1986년 중간선거 때 에밀리즈 리스트는 처음으로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지원하는 후보로 해리엇 우드(Harriett Woods)와 바바라 미쿨스키(Barbara Mikulski)를 선정했다. 이 중 한 명인 미쿨스키가 메릴랜드(Maryland)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에밀리즈 리스트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한 미쿨스키는 1971년에 볼티모어 시의원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1976년에 하원의원이 되었고,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상원으로 활동한, 최장수 의원이자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활동한 두 번째 여성이다(United State Senate, 2023).⁹⁾

에밀리즈 리스트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인식된 계기는 1992년, 전국 방송인 CBS의 60분(60 Minutes)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부터이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60분>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게 된 데는 199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인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당시 오클라호마 법대 교수였던 아니타 힐(Anita Hill)이었고, 그녀는 토마스 후보자가 과거 직장에서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미국 여성,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충격과 분노

9) 바바라 미쿨스키는 미국 의회에 바지혁명(pantsuit rebellion)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여성의원은 상원 건물에서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처음으로 바지를 입고 등원했다.

를 느꼈고, 아니타 힐을 방어해 줄 여성의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때 상원에 여성의원은 두 명뿐이었다. 민주당 소속 유일한 여성의원이었던 미켈 스키 의원은 상원에서의 임명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하원에 있던 7명의 민주당 여성의원은 상원을 찾아가 청문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다(Malcolm, 2017: 139). 정치적 압력에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으나 증인으로 참석했던 힐은 남성의원들로부터 모욕적이고 부당한 질문과 비난을 받았고, 이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100명 중 52명)으로 토마스 후보는 연방대법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여성을 대표할 여성의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여성들이 에밀리스 리스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다. 전국 방송인 <60분>에 에밀리스 리스트가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후원자 규모가 이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고, 1,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회원수는 약 23,000명이 되었다(EMILYs List, 2024a). 현재 약 500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에밀리스 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하는 여성정치활동위원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Stolberg, 2018; Stuart, 2025).

2) 조직과 활동

에밀리스 리스트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중앙조직은 두 개인데 하나는 에밀리스 리스트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이며, 다른 하나는 에밀리스 리스트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시니어 리더십 팀(Senior Leadership Team)이다(EMILYs List, 2024b). (2025년 2월 기준) 사업가이자 독지가인 레베카 해일리(Rebecca Haile)가 이사회 의장을, 내과의사이자 자선사업가이자 정치활동가인 카를라 주르베슨(Karla Jurvetson)이 부의장을 맡고 있고, 말콤은 명예의장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시니어 리더십 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비서실장(Chief of Staff), 재무최고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수석행정관(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Women Vote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of Women Vote)가 있고, 5명의 임시 부대표가 연방과 주지사 선거 캠페인(Federal and Gubernatorial Campaigns), 주와 지방 선거 캠페인(State and Local Campaigns), 의사소통과 콘텐츠(Communication and Content), 개발(Development), 디지털(Digital) 영역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대표는 제시카 맥클러(Jessica Mackler)이다.¹⁰⁾ 맥클러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네 번째 대표이다. 말콤이 초기부터 25년 동안 대표직을 수행했고, 스테파니 슈리옥(Stephanie Schriock)이 두 번째 대표로 2010년부터 11년 동안 에밀리즈 리스트를 이끌었다.¹¹⁾ 2011년에 세 번째 대표로 라폰자 버틀러(Laphonza Butler)가 임명되었는데 그녀는 첫 번째 유색 여성이자 엄마인 대표였다. 2023년 10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었던 민주당 다이앤 페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버틀러를 지명함으로써 그녀는 첫 LGBT 흑인 상원의원이 되었다(Wikipedia, 2025). 이

10) 에밀리즈 리스트 홈페이지에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EMILYs List, 2024b). 그녀는 20년 동안 민주당 관련 정치활동을 해온 베테랑 정치전략가로 에밀리즈 리스트에서 정치분석 인턴으로 정치경력을 시작했고, 스태프로 활동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10년 정도 에밀리즈 리스트에서 일한 후에 아메리칸 브리지 21세기(American Bridge 21st Century)의 대표가 되어 민주당의회선거위원회(DCCC: 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와 민주당주지사연합(DGA: Democratic Governors Association)을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운영했다. 폴리티코 플레이북(Politico Playbook)은 2018년에 맥클러를 ‘주목해야 할 여성 목록(Women to Watch Power List)’에 선정하면서 “민주당 정치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면서 정치적 능력을 갈고 닦았다”고 밝혔다. 2021년에 다시 에밀리즈 리스트로 돌아왔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여성후보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버틀러의 후임이 되었다.

11) 그녀가 대표로 있는 동안 에밀리즈 리스트는 46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1,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당선되었고, 14,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조직을 확장했고, 정치인 영입과 선거운동 훈련을 위한 조직, Run to Win을 만들었다(EMILYs List, 2024b).

로 인해 에밀리즈 리스트의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맥클러가 임시 대표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에밀리즈 리스트는 반인종주의(Anti-racism),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조직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EMILYs List, 2024c). 에밀리즈 리스트가 자체 조사한 직원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86%, 남성이 12%, 비양성애/제3젠더가 3%이다. 성적 지향의 경우, 이성애자가 72%이며, LGBTQ+가 28%이다. 인종의 경우, 백인이 56%이고, 비백인이 44%이며, 비백인 중 라틴계가 25%, 아시안계가 25%, 흑인이 33%, 다인종이 17%이다. 이사회인 경우, 인종적으로 백인이 50%, 비백인이 50%이며, 비백인 중 흑인이 63%, 아시안계가 25%, 라틴계가 13%이다. 성적 지향의 경우, 87%가 이성애자이며, 13%가 LGBTQ+이다(EMILYs List, 2024c).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후보를 영입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과 제도적 지원은 여성들이 후보 출마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에밀리즈 리스트는 1994년부터 훈련센터(training center)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둘째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금모금가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훈련도 진행한다. 셋째는 여성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젠더의제 연구는 산하기관인 에밀리즈 리스트 액션(EMILYs List Action, 이전에는 American Women)에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Women Vote'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에밀리즈 리스트는 정치기회프로그램(POP: Political Opportunity Program)을 통해 주(state)와 지역(local) 수준에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북돋는 활동과 출마를 결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까지 3,200여 명의 여성을 훈련시켰고, 29개 주에서 217명의 선거운동을 도왔다(Conniff, 2005: 18).

모두가 대선에 집중했던 2004년에 에밀리즈 리스트는 2군팀(farm team)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5개 주를 공화당 우세에서 민주당 우세로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민주당 존 케리 대선팀이 가망이 없는 주로 판단하고 빠져나온 곳(콜로라도)에 에밀리즈 리스트는 13명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13명 모두 승리해 콜로라도주의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었다(Conniff, 2005: 18).

후원 조직으로 에밀리즈 리스트는 다수위원회(Majority Council)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에밀리즈 리스트에 1,200달러 이상(한화로 약 17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구성원이 되면, 에밀리즈 리스트와 관련된 소식뿐 아니라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정보나 후보 지원을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에밀리즈 리스트가 주최하는 행사들(We Are EMILY National Gala, Regional Conferences, Virtual Political Briefings, House Parties, Candidate Events, Annual Majority Council Virtual Gathering)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지역에서 후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 조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정치자금 모금과 후원

미국 선거는 합법적인 돈 선거라고 할 만큼 많은 돈을 사용한다(유혜영, 2016).¹²⁾ 199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치러진 5차례의 중간선거(midterm)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4차례 총선거(general election)에서 선거자금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최재동, 2022: 40), 2020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800명 후보자의 선거자금 평균 모금액은 2,121,075달러(한화로 약 30억)였다(최재동, 2022: 45).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으면 정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저임금을

12) 하지만 선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 쓰는 돈은 전체 미국 정치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유혜영, 2016).

받고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남성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자금을 모으는 데 남성보다 더 큰 장벽이 있다”(Levac, 2018). 에밀리스 리스트가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자금 모금 능력을 중요하게 본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 정치는 특정 후보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활동위원회(PAC)를 만들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 정치행동위원회는 개인, 정당위원회 또는 다른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매년 5,000달러를 기부받을 수 있고, 이렇게 모은 돈은 특정 후보나 캠페인 또는 정당 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기부 액수가 다른데 후보에게는 선거 때마다 5,000달러를, 정당에는 매년 15,000달러를, 다른 정치활동위원회에는 매년 5,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¹⁴⁾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정치행동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행동위원회는 기업이나 노동조합 또는 특별한 정치적 이해를 대표한다(OpenSecrets, 2024a). 에밀리스 리스트는 여성 이슈(women’s issue)를 다루는 정치활동위원회이며, 여성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며, 임신중지를 찬성하는 여성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여성정치활동위원회는 20~3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에밀리스 리스트는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모으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13) 정치행동위원회는 194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조직(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도화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71년에 ‘연방선거캠페인법(FECA: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과 ‘연방세입법(FRA: Federal Revenue Act)’이 만들어졌는데 연방선거캠페인법에 의해 기업과 노조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여가 금지되고, 정치행동위원회 결성을 통해서만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백창재, 2004: 21).

14) 정치활동위원회는 크게 독립분리기금(SSFs: Separate Segregated Funds)과 비연계위원회(Nonconnected Committees)로 나뉘며, 비연계위원회는 다시 슈퍼팩(Super PACs), 하이브리드팩(Hybrid PACs), 리더십팩(Leadership PACs), 파트너십팩(Partnership PACs)으로 구분된다(FEC, 2024).



※ 출처: OpenSecrets(2024b)

〈그림 1〉 에밀리즈 리스트의 모금과 지출: 1990~2024

에밀리즈 리스트가 모금하는 후원금은 등락이 존재한다. 2020년에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선거에서는 다소 하락했다(〈그림 1〉 참조). 2018년에 후원금이 직전 선거 때보다 1.5배 정도 증가했다. 이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중간선거로 트럼프 당선에 화났던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고,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지원한 여성후보도 가장 많았다(〈표 1〉 참조). 2020년에는 에밀리즈 리스트 역사상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는데 이때는 대선이 있던 시기로 트럼프 정권이 연장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고, 여성의 정치참여 흐름도 지속되었다.

‘OpenSecre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에밀리즈 리스트가 기부한 연방 상·하원 여성후보 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4년과 2010년, 2022년에 직전 선거 때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지원하는 하원 후보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원 후보 수는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가 증가할수록 후원 총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고 있지는 않다.

〈표 1〉 에밀리스 리스트가 후원한 연방 상·하원 후보자 수와 기부 총액
(금액 기준: 달러)

	하원		상원		합계	
	후보 수	후원 총액	후보 수	후원 총액	후보 수	후원 총액
2000	39	219,096	3	14,650	42	233,746
2002	29	163,386	7	39,010	36	202,396
2004	16	78,067	7	37,309	23	115,376
2006	33	206,972	2	11,065	35	218,037
2008	40	213,923	4	22,823	44	236,746
2010	31	151,532	9	15,252	40	166,784
2012	44	218,980	13	50,000	57	268,980
2014	42	271,007	9	45,594	51	316,601
2016	43	312,500	10	83,275	53	395,775
2018	85	642,700	11	95,000	96	737,700
2020	74	564,500	6	55,000	80	619,500
2022	55	405,000	9	70,025	64	475,025
2024	57	366,000	10	72,500	67	438,500

※ 출처: OpenSecrets(2024b)

※ 각주: OpenSecre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에밀리스 리스트가 모은 후원금이 어느 항목에 어느 규모로 지출되는지를 요약한 것이 〈표 2〉이다. 후원(contributions), 급여(salaries), 모금(fundraising), 행정(administrative), 전략과 연구(strategy & research), 캠페인(campaign), 미디어(media), (정당이나 위원회로) 이전(transfers), 기타(unclassifiable)로 구분해 살펴보면(OpenSecrets, 2024b), 연도별로 비중이 달라지기는 하나 후보에 대한 후원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후원보다 급여 비중이 더 높고, 2008년까지 ‘기타’ 항목 지출 규모가 3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는 후원

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14년부터는 급여 지출 액수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에밀리즈 리스트 조직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에밀리즈 리스트 후원금 지출 내역: 2002~2022

(단위: 천 달러)

구분	후원	급여	모금	행정	전략과 연구	캠페인	미디어	이전	기타	
2002	금액	1,046	1,734	1,181	1,157	629	367	1,130	480	3,942
	비율	9.0	14.9	10.1	9.9	5.4	3.1	9.7	4.1	33.8
2004	금액	5,968	3,372	2,009	2,456	1,171	602	19	475	5,992
	비율	27.0	15.3	9.1	11.1	5.3	2.7	0.1	2.2	27.2
2006	금액	1,657	1,690	1,389	2,011	1,544	1,300	205	30	4,699
	비율	11.4	11.6	9.6	13.8	10.6	8.9	0.2	1.4	32.3
2008	금액	7,031	105	1,214	1,189	942	1,635	63	184	5,130
	비율	40.2	0.6	6.9	6.8	5.4	9.3	0.4	1.1	29.3
2010	금액	6,544	5,124	831	2,402	669	2,138	66	113	3,884
	비율	30.1	23.5	3.8	11.0	3.1	9.8	0.3	0.5	17.8
2012	금액	10,679	9,033	5,795	5,302	1,077	1,370	718	3,024	441
	비율	28.5	24.1	15.5	14.2	2.9	3.7	1.9	8.1	1.2
2014	금액	10,024	12,682	3,914	5,637	856	2,311	1,703	2,941	4,564
	비율	22.5	28.4	8.8	12.6	1.9	5.2	3.8	6.6	10.2
2016	금액	11,388	15,440	3,347	6,188	589	2,418	626	1,691	8,269
	비율	22.8	30.9	6.7	12.4	1.2	4.8	1.3	3.4	16.6
2018	금액	18,547	20,253	6,066	7,386	1,626	2,217	1,544	12,817	9,224
	비율	23.3	25.4	7.6	9.3	2.0	2.8	1.9	16.1	11.6
2020	금액	18,467	24,768	6,614	7,512	2,266	2,682	1,047	15,028	9,716
	비율	21.0	28.1	7.5	8.5	2.6	3.0	1.2	17.1	11.0
2022	금액	12,403	28,253	7,154	6,923	1,562	1,125	682	133	12,402
	비율	17.6	40.0	10.1	9.8	2.2	1.6	1.0	0.2	17.6
2024	금액	8,938	24,937	3,361	7,058	2,388	934	938	48	9
	비율	15.4	43.1	5.8	12.2	4.1	1.6	1.6	0.1	16.1

※ 출처: OpenSecrets(2024b)

※ 각주: OpenSecre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4) 성과: 수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에밀리즈 리스트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1,800명의 민주당 임신중지 찬성 여성후보를 당선시켰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당선자는 부통령 1명, 주지사 20명, 상원 29명, 하원 192명이며, 주 의회와 지방정부 당선자는 1,600명 이상이다(EMILYs List, 2024a).

1992년 미국 선거(102대 의회)는 의회 역사상 여성의원이 가장 많이 당선됐다는 의미로 ‘여성의 해(Year of the Woman)’로 불렸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살펴보면, 이때 당선된 여성의원은 총 535명(상원: 100명, 하원 435명) 중 33명(하원 29명, 상원 4명)이며, 비율은 고작 6.17%였다. ‘여성의 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남성독점(male dominance) 체제였다. 그리고 하원 여성 당선자 중 20명(60.6%)이 민주당이었다는 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여성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Gedye, 2020). 이때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던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워싱턴주)는 지금도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이앤 파인스테인(Dianne Feinstein, 캘리포니아주)도 사망하기 전인 2023년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선거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세 명의 여성 주지사와 세 명의 유색인종 하원 여성의원을 당선시켰고, 현직 의원들도 재선에 성공했다. 1987년부터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에밀리즈 리스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성의원 중 한 명이다. 2003년에 첫 여성 야당 원내대표가 되어 2007년까지 직을 수행했고, 이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도 야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다. 2007년에는 첫 여성 하원의장이 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두 번 하원의장직을 수행했다(Britannica, 2023).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전 부통령도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2015년 에밀리즈 리스트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해리스는 “선거에

나온 여성들은, 여성은 정치를 할 수 없고, 정치는 너무 힘들고, 아직 여성이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후보가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해 왔”고 그것이 에밀리즈 리스트의 유산(legacy)이라고 밝혔다(EMILYs List, 2015). 당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지방검사(district of attorney)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을 거쳐 2016년 상원 도전을 시사한 상태였는데 1992년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에서 에밀리즈 리스트의 창립을 지지하는 두 명의 여성의원, 바바라 박서(Barbara Boxer)와 다이앤 파인스테인을 봤고,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녀가 첫 여성 부통령이 되었고, 두 번째 민주당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미국 거대정당인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여성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회원이 약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EMILYs List, 2024a).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2018년 선거 때는 에밀리즈 리스트에 대한 후원금이 1.5배 정도 증가했고, 에밀리즈 리스트도 역사상 가장 많은 96명의 상원·하원 여성후보를 지지·지원했다(〈그림 1〉과 〈표 1〉 참조). 2018년 6월 5일, 8개 주에서 진행된 가장 큰 예비경선(primary)에서 에밀리즈 리스트가 승인한 48명의 후보 중 42명이 승리했고 이들 후보 중 34명이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Ball, 2018: 32). 이 중에서 24명의 당선자가 나온 주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변경된 지역으로 이들 덕분에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선거에서 47명의 유색인종 여성이 당선됐는데 그 중 46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Gedye, 2020: 7). 주와 지역 수준에서는 300명 이상 여성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EMILYs List, 2024a).

2022년 선거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489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지원했다. 이들 후보 중 상원 4명, 하원 36명, 주지사 8명, 주의회와 지방의회 353명, 시장 15명, 주 차원의 법무장관이나 국무장관 28명 등이 당선 또는 재

선에 성공했다(EMILYs List, 2024a). 최근 선거인 2024년 선거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후보를 지원했는데 2022년과 비교해 급격히 줄었다. 그럼에도 에밀리스 리스트가 지원한 상원 현직 여성의원 7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고, 3명이 새롭게 상원의원이 되었다. 하원에서는 33명이 새로 당선되거나 재선에 성공했다(EMILYs List, 2024a).

2022년 의회 선거에서 하원 여성의원 비율은 29%(440명 중 128명), 상원은 25%(100명 중 25명)이다. 100년 동안 여성의원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를 이끈 것은 민주당 여성의원이다(Leppert and Desilver, 2023). 한국이나 멕시코와 같이 법적 성별할당제도 없고, 정당 내 성별할당제도 없는 미국 정치에서 에밀리스 리스트와 같은 조직이 없었다면, 여성이 후보로 나서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

에밀리스 리스트가 지지/지원한 여성 당선자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은 임신중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임신중지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여겨졌고, 그것을 후보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둔 에밀리스 리스트의 원칙은 한때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과 집권, 그리고 연방대법원을 통한 보편적인 임신중지권의 박탈은 에밀리스 리스트가 40년 동안 지켜온 임신중지권 찬성 원칙이 취약한 동시에 강력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하지 않았으나 임신중지권 보장을 강력하게 외치는 모습은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지지와 후원에 있어 정치적·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밀리스 리스트의 지지와 후원을 받은 여성의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관련한 비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에밀리스 리스트의 후원과 지지를 받았지만 임신중지권에 대해 후퇴하는 입장

을 보이기도 했고, 2004년 주지사 선거에서 킹카운티 행정부 출신의 론 심스(Ron Sims)를 낙마시키기 위해 중도 후보인 크리스틴 그레고리(Christine Gregorie)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Conniff, 2005: 18-19).

3. 에밀리즈 리스트의 성공과 지속 요인

1) 리더십

에밀리즈 리스트의 설립과 성장에 있어 엘렌 말콤의 헌신과 리더십은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말콤은 에밀리즈 리스트의 단순한 창시자 중 한 명이 아닌, 초기부터 약 25년 동안 에밀리즈 리스트를 이끈 핵심인물이다. 말콤 없는 에밀리즈 리스트는 상상하기 어렵다.

말콤은 정부 감시 시민단체인 커먼코즈(Common Cause)에서 조직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전국여성정치회의(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에서 언론담당 비서로 활동했다. 그리고 1980년에 지미 카터 행정부의 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특별조직의 공보비서관으로 일했다. 에밀리즈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이미 베테랑 활동가이자 자금 모금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¹⁵⁾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말콤이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페인의 공동의장을 맡은 것은 이미 자금모금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엘렌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금모금자이자 조언자”라며 “나는 그녀가 만든 기록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평가했다(EMILYs List, 2024b).

15) 2003년에 말콤은 유권자들을 세력화하고 조직화하는 전국조직인 ACT(America Coming Together) 창립에 참여했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대표로 활동했는데 이때 약 1억 4,500만 달러를 모금했다(EMILYs List, 2024b).

말콤의 자금 모금 능력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헌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콤은 25년 동안 그냥 대표를 맡은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했다. 에밀리스 리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영향력도 갖게 되었을 때 직접 출마를 해볼 수도 있고, 출마를 권유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금까지 말콤은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다. 에밀리스 리스트의 대표 자리가 공천을 받기 위해 거쳐 가는 자리였다면, 에밀리스 리스트는 성장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한눈팔지 않았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대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말콤의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테사 스튜어트(Tessa Stuart)는 “(죽었던 살았던) 어느 누구도 말콤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여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평했다(Stuart, 2025).

2) 명확한 당파성과 강력한 정체성

에밀리스 리스트 이전에 전미여성기구(NOW: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전미여성정치위원회(NWPC: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여성선거운동기금(WCF: Women's Campaign Fund)과 같은 여성단체들은 성평등헌법수정안(ERA: Equal Right Amendment)에 찬성하는 여성후보를 정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위원회를 운영했다(Cooperman, 2010: 2). 그런데 1970년대에 38개 주 중에서 3개 주를 통과하지 못해 성평등헌법수정안은 수정헌법(amendment)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리고 1984년에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여성인 제랄딘 페라로(Geraldine Anne Ferraro)를 지명했으나 첫 여성 부통령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기존 여성조직이 쇠락하는 것을 보면서 말콤은 여성조직이 초당파적(bipartisan)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했고, 당파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1970년대 여

성운동이 여성과 아이를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당파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Malcolm, 2007). 당파성을 강조한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당성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민주당과 여성의원도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밀리즈 리스트는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있어서 당파성이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Gaunder, 2011: 84).

말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선거운동에 덜 기부한다는 제약을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극복했다고 말해진다. 필모트(Pilmott)는 “말콤은 에밀리즈 리스트와 여성운동을 연결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활용했다”(Pilmott, 2010: 149; Gaunder, 2011: 92에서 재인용)고 평가했는데 특정 유형의 정체성 정치란 임신중지를 찬성하는 민주당 여성의원만을 지지·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운더(Gaunder, 2011)는 이것이 혁신이고, 에밀리즈 리스트의 기반이며,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호그랜드(Hoagland, 2011) 또한 정체성 형성(identity building)이 에밀리즈 리스트가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을 끌어내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보내는 후원 메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정치성향(politics/political ideology)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을 공격하는 내용과 함께 임신중지와 진보적 등과 같은 단어를 주로 쓰고, 젠더/부정의(gender/unjustice)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권리, 여성 관점, 사회적 정의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전술(tactics)과 관련해서는 에밀리즈 리스트에 직접 기부, 빠른 성공, 후보 홍보, 성공한 여성, 감사한 지지자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agland, 2011). 호그랜드는 이러한 언어를 통해 에밀리 리스트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목표를 기부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에밀리즈 리스트와 기부자들이 같은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 기부자들이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연대 형성(solidarity building)’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Hoagland, 2011: 15).

3)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선택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하는 후보의 기본 조건은 민주당 소속의 임신 중지 찬성 여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말콤에 따르면, 에밀리즈 리스트 설립 초기에 그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즉 당선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보”(Malcolm, 2007)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에밀리즈 리스트를 지지할 여성들은 정치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늙은 남성(정치인)들의 불신과 편견을 깨야 했기 때문이다(Malcolm, 2007).

에밀리즈 리스트가 민주당의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한나간과 동료들은 에밀리즈 리스트가 여성 후보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후보가 당선된 것인지, 이미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였기 때문에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향점수매칭모델(propensity score-matching model)’을 활용해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선거 승리 간 인과성을 검토했다(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분석결과,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그룹에 있는 여성이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을 경우, 당선 가능성이 18% 정도 증가하고, 투표율 또한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며,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들의 경우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507). 결론적으로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가 모든 여성후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페미니스트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아

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507-508).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후보 선정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후보자의 캠페인 계획과 선거자금 계획,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개인 면담뿐 아니라 전국 또는 지역의 정치네트워크 조직과의 상의 등을 통해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할 후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미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후보 중심(candidate-centered)이며, 자금의 영향력이 큰 정치환경이기 때문에 에밀리즈 리스트 또한 후보가 자금을 모을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에밀리즈 리스트가 선택했기 때문에 당선됐다기보다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에밀리즈 리스트가 선택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예외 사례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에밀리즈 리스트의 에밀리가 “초기 자금은 리스트와 같고, 그것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후원은 ‘초기 자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모으는 기반이 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노동조합들은 민주당의 후보 공천이나 의제 설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으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 구성원의 인구학적 구성에 있어 여성과 유색인종의 비율이 증가하고, 서비스종사자국제연맹(SEIU: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대표였던 존 스위니(John Sweeney)가 1995년에 미국노동연맹(AFL: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의장이 되면서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정치활동위원회인 AFL-CIO COPE(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¹⁶⁾가

16) AFL은 1886년에 새뮤얼 고펜스(Samuel Gompers)가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약 50년 동안 미국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AFL에서 분리됐던 CIO와 1955년에 합병해 AFL-CIO로 재편했다. 현재 AFL-CIO는 60개의 국내·국제 노동조합 연합체로 약 1,2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Cooperman, 2010: 8). 노동조합의 이러한 변화가 노동조합과 여성정치활동위원회(women's PACs) 간 협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쿠퍼만은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은 여성후보가 AFL-CIO COPE로부터도 후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Cooperman, 2010).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의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는 여성후보가 AFL-CIO COPE로부터 후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여성후보의 당선에 있어 에밀리즈 리스트의 독자적 활동이 중요하기보다는 AFL-CIO COPE와 같은 다른 조직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민주당 내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조직이 문지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Cooperman, 2010: 17).

4) 번들링(bundling): 티끌 모아 태산

여성이 출마를 결심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자금을 포함한 경제적 불평등은 출마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김원홍·이수연·김민정·전선영, 2013; 김은주·박진경·권병진, 2017; McGregor, 2014; Nelson, 2000; Noveck, 2010). 그래서 말콤은 에밀리즈 리스트가 추천하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 네트워크(donor network)를 만들려고 했고, 이를 위해 번들링(bundling)이라는 모금방식을 활용했다.

번들링은 개인의 작은 기부를 모아 하나의 큰 기부로 합치는 것으로 합법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로비스트가 특정 사업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나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기부금을 한 번에 후보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유용한 자금 모금 방식으로 인지된 것은 2000년 선거 때부터이고, 급격히 확산된 것은 2010년대이다(Ballotpedia, 2022). 따라서 번들링은 에밀리즈 리스트가 선도적으로

활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치활동위원회가 한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에밀리즈 리스트는 번들링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에밀리즈 리스트의 후보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이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회원을 늘리고, 후보에 대한 에밀리즈 리스트의 영향력을 높이며, 에밀리즈 리스트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년 후에 선거 때마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평균 93달러의 수표를 쓰는 회원이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Conniff, 2005: 16).

기부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 기부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호글랜드(Hoagland, 2011)는 집단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s)¹⁷⁾을 적용해 에밀리즈 리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기부자와 기부금을 모으는지를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에밀리즈 리스트는 자신들의 선거나 후원에서의 승리 사례들을 강조하면서(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이기는 팀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하는 방식, 즉 변화를 위한 동반자(exchange partner)가 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부라는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처방적 프레이밍을 활용하고 있다(Hoagland, 2011: 7-11). 동시에 부정의 프레임(injustice frame)도 사용하는데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underrepresentation)은 부정의의 결과이며,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부정의 프레임은 적이나 억압자를 상징할 필요 있는데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적으로 공화당을 공격하기도 한다(Hoagland, 2011: 12).

17) 벤포드와 스노우(Benford and Snow, 2000)에 따르면, 집단행동 프레임은 “사회운동 실천들과 캠페인들을 고무하고 정당화는, 행동 지향적인 일련의 신념들과 의미들”이다. 이들은 집단행동 프레임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는데 첫째는 진단 프레이밍(diagnostic framing)으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처방적 프레이밍(prognostic framing)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동기적 프레이밍(motivational framing)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4. 한국의 젠더정치와 여성운동에 주는 함의

민주당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는 에밀리즈 리스트만 있지 않다.¹⁸⁾ 그럼에도 에밀리즈 리스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후원금을 모으고, 여성후보를 지원하며, 정당(민주당)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정치활동위원회는 에밀리즈 리스트가 독보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를 모델로 삼아 유사한 시도를 한 이유이다.

일본에서도 에밀리즈 리스트를 벤치마킹해 1999년에 6명의 여성이 일본 전국선거(중의원과 참의원)에 출마한 여성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 윈윈(WIN WIN: Women in the New World, International Network)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성공적인 듯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한 시도가 되었는데 실패의 원인으로 가운데는 조직 지도부가 후원할 여성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후원을 한 구성원들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책임성과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Gaunder, 2011). 또한 여성후보 지원을 정당이나 정책과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후원을 받은 여성의원이 윈윈과 계속 소통하거나 윈윈으로부터 후원을 계속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윈윈 또한 여성의원들에게 정책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Gaunder, 2011).

호주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는데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18) 민주당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로 Women's Political Cmte, Tri-State Maxed Out Women, Los Angeles Women's Giving Collective, Vote Mama 등이 있다. 에밀리즈 리스트와 같이 임신중단을 찬성하는 공화당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로 위시 리스트(WISH List)가 있었다. 반대로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여성 정치활동위원회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인 수잔 앤서니 이름을 딴 수잔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 등이 있다. 최근 공화당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 중 상대적으로 후보에게 기부하는 금액이 많은 위원회로는 Value in Electing Women PAC, Maggie's List, Winning for Women 등이 있다.

여성들은 1996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집권에 실패하고, 여성의원 비율도 13%에서 8%로 떨어지고, 보수 정권의 반페미니즘 백래시가 시도되자 ‘여성이 여성을 지지할 때 여성이 승리한다(When women support women, women win)’는 구호를 내건 호주판 에밀리즈 리스트를 만들었다(Sawer, 2006: 103~106). 노동당의 하위조직이 아닌 독자적인 조직임을 천명하며, 노동당 여성의원 선출과 임신중지에 대한 찬성을 포함한 젠더의제 강화를 목표로 회원을 모집했다. 약 2,000명의 회원을 모았고, 2004년 4월 선거에서 호주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한 여성 중 23명이 당선됐다. 이는 노동당 여성의원의 71%에 해당했고, 노동당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35%, 의회 전체는 30%를 달성했다(Sawer, 2006: 107). 호주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았던 노동당 여성의원들은 젠더의제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당내 정치구조의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았다. 여성의원들은 당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 싸워야 했고, 포퓰리스트들의 부상과 의원들에 대한 당파적 충성심의 요구에 대해서도 싸워야 했다. 호주 에밀리즈 리스트는 자신이 지지한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선출된 여성들이 적극성을 띠게 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Summers, 2003: 214-215; Sawer, 2006: 116에서 재인용).

한국에서 진행된 ‘맑은넷’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쉽지 않다. 당시 ‘맑은넷’ 활동이 진행되던 시점에 페미니스트 언론인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맑은넷’의 정치세력화 방식을 가장 앞장서 비판했다. 요점은 기준도 없이 다수의 여성을 국회에 진출시키려고만 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운동 단체장 출신의 정계 진출은 여성운동의 비판성과 권력감시 기능을 떨어뜨리고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운동단체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오장미경, 2004). 예상한 우려 중 일부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고, 지금은 그때보다 한국정치가 더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초당파적인 ‘맑은넷’ 활동은 다시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에밀리스 리스트와 같이 당파성을 밝히는 조직을 만들면, 여성대표성 확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질까?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난관은 한국에서는 당파성을 가진 시민/정치조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법〉 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해 당파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¹⁹⁾ 따라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당파성을 가진 여성 정치인 육성과 지원 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식 에밀리스 리스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공임신중절권과 같은 젠더의제 중심으로 여성/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육성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유사한 조직으로 39세 이하 청년 정치인(‘젊치인’으로 명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 개발과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플랫폼인 뉴웨이즈(NEWWAYS)가 있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청년들에게 정치인 교육을 제공하고, 선거에 나가려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이 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 정치인의 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여성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떤’ 여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한국의 여성대표성 운동이 여성의원 수는 늘었으나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여성의원이 없는 상태를 마주하고 있듯이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청년 대표성 또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19)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전개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검찰은 총선연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2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사철·함중환·김중위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총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일부 지도부는 이사철 전 의원에 의하여 급여까지 가압류되었다(김기현, 2003).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인공임신중절권이라는 젠더의제를 대표하는 여성을 의회에 보내고자 했다. 물론, 인공임신중절권이라는 단 하나의 젠더의제만을 표방했기 때문에 젠더의제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Vaida and Skalka, 2008). 그러나 트럼프 정부 집권으로 인공임신중절권이 폐지되면서 이 의제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고,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특히 대졸 백인/유색)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가르는 중요한 의제가 됐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페미니스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파성보다는 젠더의제의 확장과 성평등 실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간의 기준을 동의로 바꾸거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성평등 지향을 갖는 젠더의제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을 교육·훈련하고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은 한눈팔지 않는 리더의 존재이다. 정당 내 여성조직이 존재해도 그 조직이 성장하고 영향력을 갖지 못한 데는 여성조직의 대표 자리가 개인의 정치경력을 쌓거나 공천을 받기 위해 거치는 자리 이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운동을 하다 정치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자신의 정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은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여성대표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민주당에 영향력을 갖게 된 데는 말콤이라는 리더가 자신의 역할, 즉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당선에만 집중했고 충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성별할당제 법제화 운동은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 30% 여성할당제에서 동수(parity)로 담론이 변화했고, 이를 대표발의한 여성의원도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정치에서도 여성운동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다.²⁰⁾ 젠더의제가 정치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

20) 2019년 1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후보 중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동수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

는 현실에 분노해 한 달 만에 창당된 여성의당은 기대만큼의 활동이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현재는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태이다. 여성의 대표성과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고 하나 이를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사람은 정당에도 여성운동에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적절한 여성의원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상 남성은 25~35%, 30대 이상 여성은 30~40%, 20대 남성은 15~30% 사이에 응답이 몰려 있는 반면, 2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50%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옥 외, 2020: 146). 2016~2017년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맞서 광장에 안전환 ‘페미존(feminist zone)’을 만들고, 집회에서의 여성혐오 발언을 제지하고 금지했으며, 범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정체세력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갔다(이진옥, 2017: 114-115). 2024~2025년 윤석열 탄핵과정에서도 2030 여성청년은 정치적 주체로 광장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여성/청년과 페미니스트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된 지 오래되었으나 정당과 여성운동 어디에서도 이들의 요구와 욕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지도 세력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에밀리스 리스트는 여성대표성과 여성/페미니스트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만 에밀리스 리스트의 사례가 소강상태에 빠진 한국 여성의 정치세력화 논의에 조금이라도 자극이나 계기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빅카인즈를 통해 ‘박영선’과 ‘남녀동수법’을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한 결과, 박영선 의원 인터뷰 2건(중앙일보, 조선일보)이 전부이다. 여성단체 차원에서는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도였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권수현 · 황아란. 2017.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한국정치학회보』 51(2): 69-92.
- 김원홍 · 이수연 · 김민정 · 전선영. 2013.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현대정치연구』 6(1): 31-52.
- 김은경. 2010.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30: 101-136.
- 김은주 · 박진경 · 권병진. 2017.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연구.” 서울: 한국여성의정. (미간행).
- 박이은경. 2004. “여성운동계의 갈등은 필연인가 위기인가.” 『여성과 사회』 15: 302-318.
- 백창재. 2004. “미국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동향.” 『국제 · 지역연구』 13(2): 19-50.
- 오장미경. 2004.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15: 257-274.
- 이진옥. 2017. “대전과 젠더 정치: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7(2): 95-137.
- 이진옥 · 권수현 · 서복경 · 장명선. 2020.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진옥 · 황아란 · 권수현. 2017.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 33(4): 209-246.
- 최재동. 2022. “2020년 미국 하원선거 선거자금 분석: 개인후원금과 후보자 이념강도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6: 39-61.
- 푸워, 너털. 2017. 『공간 침입자』. 김미덕(역). 서울: 현실문화.

(2) 국외문헌

- Benford, Robert D. and David A.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11-639.
- Cooperman, Rosalyn. 2010. “EMILY’s Friends: the Emerging Relationship between EMILY’s List, Organized Labor, and Women Candidates in U.S. House Elections, 2002-2008.” Presented at the 2010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ttps://papers.ssm.com/sol3/papers.cfm?abstract_id=1641791 [검색일: 2022.6.4.].

- Day, Christine L. and Charles D. Hadley. 2002. "Who Contribut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ntributors to Emily's List and WISH List." *Women & Politics* 24(2): 53-67.
- Gaunder, Alisa. 2011. "WIN WIN's Struggles with the Institutional Transfer of the EMILY's List Model to Japan: The Role of Accountability and Policy."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1): 75-94.
- Hannagan, Rebecca J., Jamie P. Pimlott, and Levente Littvay. 2010. "Does an EMILY's List Endorsement Predict Electoral Success, or Does EMILY Pick the Winner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3(3): 503-508.
- Hoagland, Emily. 2011. "Power and PAC Donations: A Comparison of the Fundraising Solicitations of EMILY's List and the Susan B. Anthony List."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1 Annual Meeting. <https://research.ebsco.com/c/zo3ys6/search/details/kh3nx37dkj?db=edo> [검색일: 2022.6.4.].
- Malcolm, Ellen R, and Craig Unger. 2017. *When Women Win: MLY's List and the Rise of Women in American Politics*.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Nelson, Justin A. 2000. "The Supply and Demand of Campaign Finance Reform." *Columbia Law Review* 100(2): 524-557.
- Noveck, Scott M. 2010. "Campaign Disclosure and the Legislative Process."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47: 75-114.
- Sawer, Marian. 2006. "When Women Support Women ... EMILY's List and the Substantiv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ustralia." In Marian Sawer, Manon Tremblay, Linda Trimble(eds), *Representing Women in Parliament*. London: Routledge. 103-119.

(3) 신문기사 · 잡지

- 김기현. 2003. "시민단체 정치참여 法장벽 낮춰라." <경향신문> 2003.9.9.
<https://www.khan.co.kr/article/200309091644141> [검색일: 2025.2.21.].
- 김혜림. 2004. "한시기구 '맑은정치여성기금' 출범." <국민일보> 2004.2.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148355?sid=103>
[검색일: 2023.5.17.].
- 동아일보. 2004.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 당선운동 대상 여성후보 102명 발표." <동아일보> 2004.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40108/8018584/1>

- [검색일: 2023.5.19.].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2003.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성평등
아카이브 <http://moa.seoulwomen.or.kr/items/show/25641> [검색일: 2023.5.19.].
- 안희 · 이윤영. 2003. “총선 대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499034?sid=102>
[검색일: 2023.5.17.].
- 유혜영. 2016. “미국 선거는 돈으로 말한다.” <시사인> 477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55>
[검색일: 2025.4.16.].
- Ball, Molly. 2018. “The Women Are Winning.” *Time*. 25 June, 2018. 30-33.
- Ballotpedia. 2022. “Bundling.” <https://ballotpedia.org/Bundling>
[검색일: 2025.2.19.].
- Britannica. 2023. “Nancy Pelosi.”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Nancy-Pelosi>
[검색일: 2025.2.19.].
- Conniff, Ruth. 2005. “Spreading the Dough.” *The Nation*. 31 October, 2005. 16-19.
- EMILYs List. 2024a. “Our History: Changing the Face of Power since 1985.”
<https://emilyslist.org/about/> [검색일: 2025.2.21.].
- _____. 2024b. “Our Leadership.” <https://emilyslist.org/our-leadership/>
[검색일: 2025.2.21.].
- _____. 2024c. “Anti-racism,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re Key Goals at
EMILYs List.” <https://emilyslist.org/anti-racism-diversity-equity-inclusion/>
[검색일: 2025.2.21.].
- _____. 2015. “Kamala Harris Speaks at EMILY's List 30th Anniversary.” 2015.3.5.
<https://youtu.be/d2aAF8FuGN8?si=TMP1Zik7FMqH6UGt> [검색일: 2025.2.19.].
- FEC. 2024. “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
<https://www.fec.gov/press/resources-journalists/political-action-committees-pacs/>
[검색일: 2025.2.21.].
- Gedye, Grace. 2020. “Why Can't Republicans Elect Women?” *Washington Monthly*.
6 July, 2020. <https://washingtonmonthly.com/2020/07/06/why-cant-republicans-elect-women/> [검색일: 2022.6.4.].
- Leppert, Rebecca and Drew Desilver. 2023. “118th Congress Has a Record Number of
Women.” *Pew Research Center* <https://pewrsr.ch/3Cn6NwH> [검색일: 2025.2.21.].

- Levac, Leah. 2018. "How to Ensure More Women Run for Public Office". *The Conversation*. 08 March, 2018. <https://theconversation.com/how-to-ensure-more-women-run-for-public-office-91636> [검색일: 2025.4.16.].
- Malcolm, Ellen R. 2007. "EMILY's List." *Talks at Google*.
<https://youtu.be/D5vWIC5Bf6I?si=cMfjllrhFMagkt9f> [검색일: 2025.2.19.].
- McGregor, J. 2014. "Why More Women Don't Run for Office". *The Washington Post*. 21 May, 2014.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on-leadership/wp/2014/05/21/why-more-women-dont-run-for-office/> [검색일: 2025.2.19.].
- OpenSecrets. 2024A. "What Is a PAC?"
<https://www.opensecrets.org/political-action-committees-pacs/what-is-a-pac>
[검색일: 2024.2.19.].
- _____. 2024b. "PAC Profile: EMILY's List." <https://www.opensecrets.org/political-action-committees-pacs/laura-friedman-for-congress/C00193433/summary/2024> [검색일: 2024.2.19.].
- Stolberg, Sheryl Gay. 2018. "Touch Choices, and Criticism, for Emily's List as Democratic Women Flood Primaries." *New York Times*. 4 May, 2018.
<https://www.nytimes.com/2018/05/04/us/politics/emilys-list-midterm-elections.html>
[검색일: 2025.4.15.].
- Stuart, Tessa. 2025. "She Helped American Elect More Women, She Says We're Not Done Yet." *RollingStone*. 8 Feb, 2025. <https://www.rollingstone.com/politics/politics-features/ellen-malcolm-emilys-list-donald-trump-1235260413/> [검색일: 2025.2.21.].
- United States Senate homepage. 2023. "Barbara Mikulski: A Featured Biography." https://www.senate.gov/senators/FeaturedBios/Featured_Bio_Mikulski.htm
[검색일: 2023.6.4.].
- Vaida, Bara and Jennifer Skalka. 2008. "Can EMILY's List Get Its Mojo Back?" *National Journal*. 28 June, 2008. <https://web.archive.org/web/20150205222842/http://www.nationaljournal.com/magazine/can-emily-s-list-get-its-mojo-back-20080628> [검색일: 2025.4.16.].
- Wikipedia. 2025. "Laphonza Butler." https://en.wikipedia.org/wiki/Laphonza_Butler
[검색일: 2025.2.19.].

Abstract

EMILYs List and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Kwon, Soo Hyu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activities of the EMILYs List PAC, a prominent women's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analyz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its success and persistence while discussing the implications for th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in Korea. Founded in 1984, Emily's Lis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mpowerment of women by supporting Democratic pro-choice candidates. The organization's success can be attributed to several key factors: the leadership of its long-time head, who has been at the helm for 25 years; its clear partisan alignment with the Democratic Party; a strong focus on pro-choice women candidates; the careful selection of candidates with a high likelihood of electoral success; and the effective use of a bundling fundraising method, which allows for small donations and establishes networks among contributors. However, applying the same strategies in Korea poses challenges due to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and cul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Nonetheless, we can explore various approaches to strengthen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hat ensure not only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but also substantive presentation in Korea. This includes establish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s aimed at nurturing women and feminists with a gender equality focus to become politicians.

Key words: EMILYs List, Leadership, Partisanship, Identity, Fundrais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mpowerment

- ▮ 투 고 일 : 2025년 2월 24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포토보이스 연구를 활용한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의 경험에 대한 탐색*

신유리**

| 목차 |

1. 서론
2. 문헌고찰
 - 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 2) 선행연구검토
3.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의 기준 및 선정
 - 2) 포토보이스 진행과정 및 효과
 - 3) 자료분석방법
 - 4) 연구의 진실성
4. 포토보이스 연구결과
 - 1) 제한된 관계: 소외됨, 그리고 나의 사람들
 - 2) 인지적 도전: 배움과 성장으로
 - 3) 함께 나눔과 문화풍경 체험, 즐거워요!
 - 4) 꿈과 자립, 고민돼요!
 - 5) 건강과 이른 노화, 그리고 불안함
5. 결론 및 함의

| 초록 |

최근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탈시설 및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간 장애정책에서 소외된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사자 참여행동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Photovoice Method)을 활용하여 7명의 지적장애여성들과 연구자가 함께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삶의 고유한 경험과 의미, 필요, 그것을 둘러싼 맥락을 들여다보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여성의 시각과 언어로 지역사회 생활 현실과 경험을 탐색하고,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5037)

** 부산대학교 cuchon2011@hanmail.net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자료수집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참여적 데이터 분석방법(PDA: Participatory Data Analysis)이 실시되었으며, 도출된 주제는 5개로 '제한된 관계: 소외됨, 그리고 나의 사람들', '인지적 도전: 배움과 성장으로', '함께 나눔과 문화풍경 체험, 즐거워요!', '꿈과 자립, 고민돼요!', '건강과 이른 노화, 그리고 불안함'이다. 이 연구결과는 지적장애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여성학 등 관련 학문적 논의의 확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지적장애여성, 포토보이스 연구, 지역사회 삶, 인지적 장애와 젠더, 교차성, 주체성

1. 서론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동네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길 원한다. 혹여나 삶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 상태에 처하더라도 친근한 곳(집)에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살길 기대한다. 이 점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인 동시에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차별과 질병, 이차 장애 발생, 노화, 편견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에 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1970년대 장애인복지 영역의 탈시설 운동과 정상화 구현에 이어 2000년대 자립생활 이념, 활동지원사 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적 발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신유리·김경미, 2018).

특히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 지적장애인 인구층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며, 이 중 등록된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8.7%이며 여기서 남성은 5.2%(58,708명), 여성은 3.5%(39,515명)에 달한다. 등록된 재가장애인은 약 263만명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2.7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4.3%로 나타났는데(이 중 남성장애인의 비율은 57.7%, 장애여성은 42.2%를 차지함), 이는 2020년의 49.9%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김성희 외, 2024).

지적장애인 인구층은 장애특성 상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인지적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벽과 심리적 경제적 관계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중 지적장애여성은 사회적 고립이 심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더 취약하며,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이나 직업, 건강, 재활훈련 등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을 심하게 겪는다. 더욱이 장애인복지 제도와 정책 또한 남성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여성의 권리보장과 자립, 그리고 지지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계와 장애여성 자조단체를 중심으로 비판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엔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2025년 2월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기간 장애인 분야와 여성 영역 모두에서 도외시됐던 지적장애여성들의 권리보장과 자립 도모를 위해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삶에 관한 경험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학문적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

부분이 지체·뇌병변 등 신체장애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결혼과 모성 경험, 취업, 여가활동, 사회적 배제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된다(이혜경, 2008; 양정빈·박미정, 2015; 김미옥, 2002; 김예슬·이지수, 2018; 신유리·김정석, 2020). 지적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졌지만, 거의 일반적인 지적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주제에 집중된다. 이 중 지적장애여성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이며 주로 성폭력 피해와 성매매 문제를 다뤘으며(정진옥, 2013; 문현주, 2015; 임해영·강선경, 2019), 최근 들어 공동생활거주 경험이나 자립에 관한 논의가 일부 있다(김승희·손병돈, 2020; 황재경, 2021; 이운숙,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지적장애여성들에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문제 등을 가시화한 데 의의가 있지만, 성폭력이나 성매매의 피해자로 객체화하는 경향이 강한 점, 그리고 삶의 체계 중 가족 체계에 국한된 차별과 갈등, 은폐 문제만을 다룬 제한점이 있다. 이로부터 지적장애여성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경험과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제 지적장애여성들의 지역사회 삶과 그것의 경험적 의미, 관계, 주체적 행위성 등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한 본 연구는 당사자 참여행동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photovoice method)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를 상징화하고 각자의 진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여성들의 시각과 언어로 지역사회 생활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사회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연구문제는 지적장애여성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동네)의 생활세계 경험은 과연 어떠하며, 세부적으로 당사자들의 관계성과 참여활동, 자아, 정서, 꿈 등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이다.

2. 문헌고찰

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사진을 매개체로 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 목소리 내기에 적합한 연구이다. 사진촬영을 통해 개인의 인식과 삶의 현실을 드러내며, 사진에 대한 진술과 집단토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생성하고, 나아가 정책개발에 다가갈 수 있다(전정식 외, 2013; 아만다 라즈, 2018). 이러한 포토보이스 연구는 지역사회 참여와 실천을 연두에 두면서 지역사회의 이슈뿐 아니라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증거 토대가 된다(전정식 외, 2013). 이를 방증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톰슨 외(Thompson et al., 2008)는 만성적 정신질환자 또, 반트(Wand, 2000)의 여성 건강, 부스와 부스(Booth and Booth, 2003)의 지적장애여성의 육아 경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눈과 진술을 통해 그들의 생활세계, 현실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포토보이스 연구는 개인의 인식과 가치 등을 표현하도록 하며, 특히 언어적 표현의 문자와 달리 시각적 이미지는 강한 공감적 반응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장애와 여성, 노화, 손상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아만다 라즈, 2018).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삶의 환경적 변화를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도록 한다. 획득된 연구 결과물을 정책입안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진 전시회나 세미나,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적 변화를 위해 집단행동을 이끌 수 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과 정책적 조건의 변화를 이끄는 데 영향력을 제공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가하는 것으로 곧 행동연구의 본질로서 중요하다(Yi and Zebrack, 2010).

포토보이스 연구는 참여행동연구로 연구참여자가 다룰 주제와 현상에 대해 전문가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연구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다룰 주제에 대한 상징화는 연구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환경과 생활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요한다. 포토보이스 연구의 장점은 참여자의 자기 점검과 역량강화이다(Yi and Zebrack, 2010). 연구참여자들 각자의 사진촬영과 그에 대한 진술, 집단토의 및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역량강화에 이르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사회적 소외를 겪는 지적장애여성들의 실존을 사회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눈과 언어로 생활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여성들이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와 기초지식을 생산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검토

장애여성에 관한 연구는 남성장애인 중심의 장애학과 장애인복지, 비장애 여성 중심의 여성 분야 모두에서 소외되어 오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이들이 겪는 성폭력 문제와 빈곤, 인권유린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정책적 개입과 학문적 논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장애여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복지적 관점이나 장애학에서 장애여성의 삶의 이슈별 영역별 문제 분석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개입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여성 분야에서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접근 시도와 문학과 영화에 그려진 신체장애여성의 혐오와 억압, 재현 등에 대한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 연구가 일부 이뤄졌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여성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 장애여성의 교육과 취업, 소득, 복지서비스, 건강, 인권보호 등에서의 차별

실태를 밝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오혜경, 2006; 강동욱, 2002), 장애여성의 빈곤과 취업 관련 요인, 경제활동과 빈곤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배화옥·김유경, 2009; 이윤숙, 2020). 또한 장애여성의 삶의 질과 자립역량, 사회적 관계 등 간의 영향력 연구(최운정 외, 2014; 양정빈·박미정, 2015; 김영미, 2021; 이해경, 2008), 장애여성의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박현주, 2022; 주영하 외, 2023).

둘째, 장애여성의 성 관련 이슈 및 여성성의 평가, 정체성 형성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부장제와 장애차별주의의 내재된 사회에서 모성 중심의 장애여성의 여성성의 평가와 성 역할, 성 정체성 등에 대한 논의들을 보여주며(임혜영·강선경, 2019; 박명숙·송사리, 2015; 양정빈·박미정, 2015), 또 미혼 지적장애여성의 일상과 몸, 이성관계, 대학생활에서의 성 인식,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박명숙·송사리, 2015; 김예슬·이지수, 2018). 한편, 인지적 장애와 사회적 고립이 심한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실태와 성매매 경험을 밝힌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 성폭력 및 성매매를 경험한 지적장애 여성에 관한 연구들(정진욱, 2013; 문현주, 2015)은 성폭력의 본질과 그로 인해 겪는 인지적 및 정서적 변화를 조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교육, 전문적인 상담 및 윈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혜영·강선경(2019)은 성매매라는 특정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된 지적장애 여성의 관계 의존 현상과 성, 사랑에 대한 불분명한 경계선, 장애와 성매매라는 이중적 낙인감 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장애여성의 결혼생활과 모성, 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여성의 경험에 주목한 것으로 사례 연구나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 자기 정체성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양정빈·김소진, 2011; 김미옥, 2002). 최근 들어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 경험과 출산과정,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김아영·이숙형, 2023; 유창민·오혜인, 2016)가 일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아영·이숙형(2023)은 여성 지적장애인의 삶을 깊이 탐색

하여 자립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과 삶의 동기, 정체성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끌어낸 인적·사회적 요인을 제시했다. 유창민·오혜인(2016)의 연구는 여성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한 결혼과정과 결혼경험에 대한 중심주제로 '결혼, 그 모호한 시작', '낮설고 서툰 결혼생활', '갑자기 얻게 된 엄마라는 이름', '결혼',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다'를 제시했다.

넷째, 장애여성의 자립과 탈시설, 공동생활거주에 관한 연구가 있다. 지적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공동생활거주 경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승희와 손병돈(2020)은 지적장애여성 10명의 삶을 추적하여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탐색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탈시설 이후의 지역사회 이동 경로와 정착 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줬다. 이윤숙(2020)의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여성이 공동생활 거주시설에 입소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새로운 환경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부정적 의사소통의 문제, 정서적 고통과 이별의 아픔, 제한된 여가생활과 독립 공간의 부재, 이성 교제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황재경(2021)은 지적장애 여성들이 겪는 지역사회 삶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당사자들이 겪는 교육과 취업, 관계 등에서의 다차원적 배제와 가족주의의 복합적 작용을 강조한다. 특히 가족주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과 맞물려, 지적장애여성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데 있어 장벽이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황재경, 2021).

다섯째, 여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을 다루거나, 문학과 영화 속 장애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 탐구가 시도되고 있다. 먼저, 수전 웬델의 여성주의 철학(1996)은 장애와 질병, 나이 들 등 '거부당한 몸'의 경험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기존의 몸에 대한 통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적용되고 있다. 수전 웬델은 장애와 질병을 여성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여성이 모두 사회적 타자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몸'에 대한 환상과

통제 가능성을 비판하며,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몸의 능력, 곧 몸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등 몸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다.

또,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1997)의 '괴물화된 여성들'은 정신분화적 접근, 재현의 정치학, 비체화 이론, 문화 연구적 접근 등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여성괴물의 재현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경험과 문제를 탐구했다. 그는 문학 작품과 영화에 등장하는 장애여성이 종종 '괴물'로 묘사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재현이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과 억압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문학과 영화 등 문화적 재현이 실제 장애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장애여성을 '괴물화'하지 않는 새로운 재현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1997)의 장애와 젠더의 교차 지점에서의 경험과 문제에 대한 조명에 이어 바바라 크리드(2008) 역시 공포영화에서 여성의 재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기존 관점과 달리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신체를 괴물성의 원형으로 보고, 이를 여성 괴물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원초적 어머니, 괴물 같은 자궁, 흡혈귀, 마녀, 귀신들린 몸, 괴물 같은 어머니, 거세하는 여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어떻게 괴물화하는지,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공포의 원천으로 그려지는지를 분석하며, 기존의 정신분석학 이론과 영화 이론에 도전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대부분은 복지 분야와 장애학 영역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장애여성 집단을 둘러싼 다중적 차별과 배제 환경을 가시화하고 그 가운데에서의 직업과 결혼, 성과 관련된 취약성, 문화예술 활동, 공동체 등에 대한 논의를 학술적으로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 학문적 기여와 사회적 과제를 제안한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대다수가 지체·

뇌병변 등 신체장애여성 중심의 연구인 점, 또 대부분이 실험실 연구에 집중된 점, 이로 인해 지적장애여성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생생한 경험과 생존전략, 행위성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가 매우 미약하다.

반면, 여성 분야에서는 비장애여성 중심의 기존 여성주의에서 벗어나 장애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 연구가 일부 시도되었다(수전 웬델, 1996: 로즈메리 갈런드 톱슨, 1997; 바바라 크리드,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신체장애여성의 몸과 여성성에 가해지는 억압, 혐오, 공포 등 사회문화적 재현 방식에 대한 비판 중심의 이론적 논의에 머물고 있어, 인지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적장애여성들의 지역사회 삶의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과 그 역동성을 이해하기엔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의 행위적 실천을 관찰하고 현장경험을 분석하는 현장밀착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 본 연구는 참여행동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를 활용하여 지적장애여성들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생활 현실과 경험을 직접 묘사하고 해석하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여성들의 경험 세계와 더 많은 접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접점은 연구자뿐 아니라 현장 실천가에게 당사자들의 현실적 필요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생성에 있어서 의미있는 경험적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의 기준 및 선정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여성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참

여자의 선정기준은 우선,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의사를 간단한 단어로 표현 가능하며, 집단토의에 참여 가능한 자 둘째, 스스로 피사체에 대한 사진촬영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활동지원사나 가족으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 사진촬영이 가능한 성인 지적장애여성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기준에 부합된 지적장애여성을 부산 지역의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의뢰하여 총 8명을 연구참여자들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2회기 세션 중도에 포기해 연구참여자는 최종적으로 7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는 20대 2명, 30대 2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분포되며, 장애정도는 중증 4명, 경증 3명이며, 결혼상태는 미혼 6명, 이혼 1명, 직업은 무직 6명,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1명, 그리고 현재 동거가족 상황을 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명, 1인 가구는 4명, 결혼한 언니와 함께 사는 1명의 사례로 분포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참여자	연령	교육수준	장애정도	결혼상태	직업	동거가족
연구참여자 A	59세	초등졸	중증	미혼	무직	언니
연구참여자 B	34세	고등졸	경증	미혼	무직	부모
연구참여자 C	28세	고등중퇴	중증	미혼	무직	부모
연구참여자 D	27세	고등졸	중증	미혼	계약직 (복지일자리)	독거
연구참여자 E	32세	고등졸	경증	미혼	무직	독거
연구참여자 F	61세	초등졸	중증	이혼	무직	독거
연구참여자 G	41세	고등중퇴	경증	미혼	무직	독거

2) 포토보이스 진행과정 및 효과

포토보이스 연구수행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이다. 이 기간에 오리엔테이션과 총 7회기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의 진행은 대략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연구는 사실상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상징화를 비롯해 피사체에 대한 사진촬영, 그리고 각자가 찍은 사진에 대한 진술과 집단토의 등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7회기 세션의 포토보이스 연구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세션 이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활동지원사와 그 가족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연구자는 본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주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의 특성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진 양도와 집단인터뷰 내용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의 원칙과 권리, 집단토의 내용의 녹음됨 등을 고지한 이후 연구참여동의서에 연구참여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가족에 대해서도 연구참여동의 서명을 받았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연구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례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의 팀장이나 부장에게 연구참여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사진촬영 방법을 비롯하여 촬영 주제와 상징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단어로 풀어 반복해서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첫 세션의 사진촬영 주제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촬영된 각자의 사진들을 단체카톡방에 업로드하는 시점, 전화나 카톡으로 진행되는 중간 점검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다. 세션 초반에는 일부 연구참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연구자의 설명이나 소개에 대해 별다른 질문도 없고, 다소 무반응한 상태였지만 1, 2회기가 지나면서 연구자의 설명이나 사진촬영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주제에 대한 상징화의 어려움은 연구과정 내내 지속되었지만 세션이 진행될수록 점차 사진촬영에 대해 이전보다 흥미와 관심을 더 보였다. 연구 초반에 연구참

여자들의 자기 진술이나 사진 설명을 할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연구과정에 대한 어색함과 자기표현이 점차 나아졌다. 일반적으로 포토보이스 작업은 과제 수행을 망각하거나 원활한 사진찍기 작업을 위해 촉진자나 사진작업의 지원자(photo assistant)가 필요하다(전정식 외, 2013). 본 연구과정에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주간활동 돌봄서비스 제공자,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가 연구참여자들의 사진촬영 작업을 잊지 않도록 중간 점검을 함께 수행했다. 또, 연구자는 사진작업의 지원사나 연구참여자와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진촬영의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첫 번째 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지역사회 삶’의 주제로 각자가 사진 촬영을 하고 촬영된 사진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단체카톡방에 업로드하거나, 이 작업이 어려운 참여자들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각 회기는 2주 간격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주제를 상징화하여 촬영된 사진 중에서 각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5장을 본 세션 시작 전날까지 단톡방에 업로드하도록 했다. 연구자는 업로드된 사진들을 모두 취합하여 노트북에 저장하고, 본 세션에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모두에게 공유되도록 했다. 매 세션마다 연구참여자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각자가 찍은 사진의 촬영이유, 의미, 장소 등을 진술하였다. 그러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 질문 등을 서로 공유하며 집단토의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집단인터뷰 과정에서도 말을 잘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위해서 연구자는 일상이나 상황적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고 자신의 의사를 한두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라도 스스로 진술하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집단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후 녹취록으로 생성하였다. 연구자는 매 세션을 마치고 다음 세션의 주제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세션 2회기 때 사진촬영과 집단토의 등에 어려움이 컸던 연구참여자가 1명이 중도에 그만뒀다.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사진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초대된 사람들에게 촬영된 이유, 활동한 장소, 의미 등을 각자의 언어로 나름대로 설명하고 묘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진에 대한 묘사는 완전한 문장이 아닌 한두 단어로 짧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각각의 사진에 대한 제목을 간단한 단어로 적었으며, 제목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사나 연구자가 함께 도왔다. 사진 발표회 및 전시회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한 사회적 경험이었다. 지적장애여성들과 함께 한 포토보이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연구자는 당사자들의 생활세계와 인식, 잠재력 등에 보다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나아가 참여자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것들을 통찰케 하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삶의 경험이란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 사건 등 연속적 과정의 다차원적 실재이다. 이에 관련 선행 연구들(전정식 외, 2013; 신유리·김경미, 2018; 김승희·손병돈, 2020; 황재경, 2021; Hall, 2010)을 고찰한 후 본 연구는 총체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과 생활세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동네(지역사회)에서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대질문을 중심으로 세션별 사진촬영의 세부 주제를 정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관계성(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복지 관련 기관의 사람들), 참여활동(낮 활동, 동네에서 하는 일, 문화체험, 하고 싶은 일, 동네에서 가는 곳), 사회적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내 애기를 들어주는 곳, 어울릴 수 있는 곳,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나를 꺼리는 곳, 불편하게 하는 곳), 미래에 대한 바람과 꿈, 건강 등의 관련 주제로 포토보이스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차마즈(charmaz, 2006)의 참여적 데이터 분석방법(PDA: Participatory Data Analysis)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매 세션마다 연구참여 자별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 각자의 폴더에 저장했다. 저장된 사진들은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사용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공유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각각의 사진의 의미, 촬영이유, 장소, 기억 등을 자신의 언어로 진술하였다.

참여적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먼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은 매 세션의 집단인터뷰 과정에서 각자의 사진자료에 대한 경험과 의미, 장소, 궁금한 점 등을 진술하고 서로 나눴다. 이러한 일련의 인터뷰 과정은 모두 녹음되어 녹취록으로 생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발견한 사진 데이터의 경험적 의미와 생각 등을 개괄적으로 기록했다. 개괄적인 분석내용은 세션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확인받으면서 해당 경험자료의 의미와 주제,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정리해 나갔다. 세션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구자는 자료에 대한 일차 분석결과를 연구참여지들과 공유, 점검하면서, 생성된 녹취록과 사진자료 전체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역사회 삶의 경험을 잘 드러내는 개념을 추출한 뒤 유사 개념들끼리 묶어 하위주제로 명명화하였다. 이어 하위주제 간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주제로 범주화하고 최종 명명화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4)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참여지들과의 지속적 소통과 공동작업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매 세션마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떠올리는 단상이나 의문점, 그리고 연구참여지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비언어적 행동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다. 연구 노트에 기록된 사항은 연

구결과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연구참여자의 시각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매 세션이 마친 뒤 확인받으면서 연구자의 이해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갔다. 또한, 연구결과의 학문적 차원의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 및 이론을 수시로 비교하거나 포토보이스 연구 경험이 있거나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의 의견을 얻어 수정, 보완하는 등 이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진행과정의 근거의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노트와 녹취록, 사진,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간단 설명이나 소감 등이 적힌 메모를 감사자료로 확보해 두었다.

4. 포토보이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 각자의 사진에 대한 진술과 집단토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4개의 하위주제와 5개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의 경험에 대한 주제

주제	하위주제
제한된 관계: 소외됨, 그리고 나의 사람들	낮섬과 배회
	여기에 나의 친구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인지적 도전: 배움과 성장으로	힘들지만, 늘 배워가는 것들
	풍부한 감성적 경험을 함
	나를 표현해감

주제	하위주제
함께 나눔과 문화풍경 체험, 즐기워요!	뜨개질한 소품과 만든 꽃들의 나눔
	도시의 문화풍경 체험
꿈과 자립, 고민돼요!	결혼과 건강을 바람
	자립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
	간호사의 꿈과 일자리 경험
건강과 이른 노화, 그리고 불안함	과체중과 운동
	만성질환과 약 챙겨 먹기
	불안과 반복된 행동

1) 제한된 관계: 소외됨, 그리고 나의 사람들

이 주제는 ‘낮섬과 배회’, ‘여기에 나의 친구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하위주제로 구성된다.

① 낮섬과 배회

연구참여자들의 관계는 활동지원사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발달장애인 낮 활동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장애인 친구들로 제한적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을 대해 줄 사람들을 찾아 동네를 마냥 배회하는 이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F는 “심심해서.. 뭐 살게 있나 싶어” 매일 같은 가게에 간다고 한다. 그녀가 가는 이유는 물건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마땅히 어디 갈 곳이 없어 동네 같은 가게를 하루에 몇 번씩 들락날락했다. 때문에 가게 주인은 그녀가 오는 것을 싫어하며, 때론 내쫓기기도 한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는 예전에 살았던 동네를 매일 활동지원사랑 간다고 한다. 그녀는 “거기.. 옛날

에 같이 살았어요”라며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 때문에 비가 와도 그 동네를 매일 찾아간다고 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물리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관계적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배회하며 일상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옛날 살던 동네.. 매일 여기 가요..
사람들 몰라요(참여자 F)

아는 사람.. 한명 있어요(참여자 B)

심심해서.. 뭘 살 게 있나 싶어..
(참여자 A)

〈그림 1〉 매일 여기 가요, 사람들 몰라요
- 참여자 F

② 여기에 나의 친구들

연구참여자들의 친구들은 거의 낮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참여자 C는 “센터에 숙이 언니랑 이젠 안 싸워요”라고 한다. 연구참여자 G는 “이모(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의 돌봄 제공자 또는 활동지원사)랑 친해요”라고 한다. 연구참여자 B는 주간활동 서비스 센터에 가면 자신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활동지원사나 주간 활동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낮 활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자,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로 제한적이었다.



〈그림 2〉 친구.. 센터에 가면 친해요
- 참여자 B

친구.. 센터에 가면 지영이랑 영호랑
친해요(참여자 B)

이모랑(낮 활동의 돌봄 인력 또는
활동지원사) 친해요(참여자 G)

친구 없고, 숙이 언니랑 싸워요, 사이
좋게 잘 지내요(연구참여 C)

③ 가족에 대한 그리움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 어릴 때 장애인시설에 버려져서 가족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례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언니가 제일 좋아”라며 유일한 가족인 언니에 대한 애정을 진술했다. 그녀는 형부가 잡아 온 콩치를 언니가 회를 뜨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연구참여자 E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그녀를 무척 사랑해준 아버지가 돌아간 뒤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또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E는 “아빠가 하늘나라 갔어요.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맥주요”라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맥주로 상징화하여 촬영했다.



〈그림 3〉 언니가 제일 좋아요 - 참여자 A

언니가 제일 좋아.. 언니 집 형부가
낚시해요,
콩치 낚시한 거 언니가 회 떠서,, 생선
먹어요(참여자 A)

2) 인지적 도전: 배움과 성장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매일 한글과 셈, 은행 업무, 대중교통 이용 등을 익히고 반복했다. 콘서트 등의 문화공연 관람과 미술치료, 음악극, 공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인지적 한계에 도전을 지속해 갔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해가는 면모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험의 주제는 ‘힘들지만, 늘 배워가는 것들’, ‘풍부한 감정적 경험을 함’, ‘나를 표현해 줌’의 하위주제로 구성된다.

① 힘들지만, 늘 배워가는 것들

연구참여자들은 낮 활동 서비스를 통해 산수, 퍼즐 맞추기, 한자, 읽기, 쓰기, 요리하기 커피 타기, 은행 자동화기계 사용법 등을 배우는 것들을 묘사했다. 연구참여자 C와 B, E는 비록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크고, 잘 모르는 한글이 많다고 한다. 때문에 지금도 한글을 계속 배우고 또, 이들의 인지적 능력의 퇴행을 예방하기 위해 낮 활동 프로그램으로 읽고 쓰는 단계별 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는 “비밀의 정원(색칠 공부)을 아세요, 그거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B 또한 조각 퍼즐 놀이를 좋아한다며 “퍼즐 맞추기 잘해요”라고 연구자에게 자랑했다. 연구참여자 B와 E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림 도안을 색칠하는 컬러링 북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는 단순히 색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섬세한 그림 도안을 각자의 느낌과 감동으로 색칠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꼈던 것이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복지관이나 주간 활동 서비스 센터의 학습활동 이외에 인지력과 감수성, 집중력 향상을 위해 각자가 참여하는 낮 활동과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감 있게 진술했다.



공부하는 책요 센터에서
공부해요(참여자 G)

한글 배워요(참여자 F)

퍼즐 맞추기 잘해요(연구참여자 A)

〈그림 4〉 공부하는 책이예요 – 참여자 G

연구참여자 E는 자립준비 주택에 사는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만든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스팸 주먹밥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재료 사서 만들어 같이 먹었어요”라고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에 대한 기쁨과 성취감을 나타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센터 직원들과 함께 먹는 시간이 즐거웠으며, 이를 통해 서로 간에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은행에 가 봤어요”라고 은행과 ATM 기계도 처음 봤다고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금전적인 부분은 가족이나 활동 지원사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되므로 이들 중에서 은행에 처음 가봤다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C는 “나도 은행(기계)가서 이모(활동지원사)랑 돈 빼는 거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요리와 한글, 더하기 빼기, 은행 자동화기계 사용법 등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경험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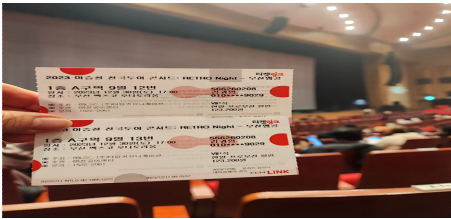


스팸 주먹밥.. 같이 만들어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샌드위치 만들어요(참여자 E)

〈그림 5〉 스팸 주먹밥. 같이 만들어서 – 참여자 E

② 풍부한 감성적 경험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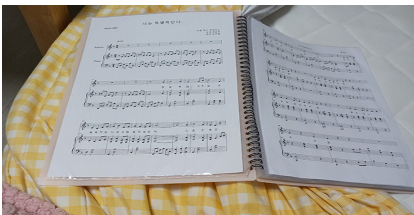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토로했다. 이승철 콘서트에 다녀온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 이 중에는 영화를 보러 간 경험도 진술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따분하고 건조한 일상 가운데 자신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체험들로 나타냈다.



이승철 콘서트 보러 엄마랑 갔어요
갔어요
오빠 좋아해요, 콘서트 오랜만에
와요,
1년에 해요(참여자 B)

〈그림 6〉 콘서트 보러 엄마랑 갔어요 - 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음악극이나 노래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한다. 이 음악극은 단순한 합창이 아니라, 뮤지컬 형태를 띠고 있다. 연구참여자 E는 “음악극 제일 신나다”라며 작년 음악극 공연 때 자신이 주인공이었다는 걸 자랑했다. 이 음악극은 마치 뮤지컬처럼 보이며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추억으로 강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렇듯 음악극은 각자의 역할극 체험을 통해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추억의 특별한 활동이었던 것이었다.



신나 음악극.. 춤추는 거
좋아요(참여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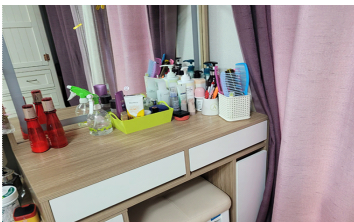
‘너는 특별하단 말이야’ 음악극 제일
신나요(참여자 E)

〈그림 7〉 ‘너는 특별하단 말이야’.. - 참여자 E

또한 매주 월요일,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줌바 댄스를 배운다. 모두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특별하였다. 모두가 줌바 댄스를 좋아하고, 특히 연구참여자들 G와 A, F는 이 시간을 매일 기다리고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춤을 추는 동안, 그 멜로디와 리듬이 연구참여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음악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춤을 추며 그 순간에 몰입했다. 연구참여자 A는 “좋아요. 춤추는 거 좋아요”라고 했다. 세션 진행 도중에 연구참여자 G는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 신나는 곡을 들었다. 그러니 흥이 많은 연구참여자들 하나둘씩 앞으로 나가자 이들 모두가 함께 춤을 추는 한순간이 되었다.

③ 나를 표현해감

연구참여자들에게 화장과 옷 등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행위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연구참여자 D와 G는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1, 2년 정도 산 사례이지만 시설에서 자신의 생활을 더러 비교하면서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을 때는 누군가가 정해진 대로 따르기만 해서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별 관심이 없었지만, 탈시설 후 자립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화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B는 요즘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화장하는 데 관심이 대개 많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이 얼굴 화장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과정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자아를 표현하는 과정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그냥 누가 짜주면 받고. 여기 와서 화장하는 거 배워요 (참여자 D)

예뻐요. 예쁘게 해요.(참여자 G)

얼굴 보고 화장하면서.. 보이잖아요 (참여자 B)

〈그림 8〉 화장하는 거 배워요 - 참여자 D

연구참여자 A는 외출할 때 가방 속에 지갑, 핸드폰, 수건 등을 챙긴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F 또한 “이거 교회 갈 때.. 어디 갈 때 들고 나가요”라며 가방과 모자 사진에 대해 묘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가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은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B는 “이빠요. 치마 입는 거 음악 공연할 때요”라며 자신이 치마를 입는 때에 대한 상황적 경험을 진술했다. 가방, 옷 등에 대한 경험 진술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아 표현의 부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빠요. 입어볼게요. 치마 입는 거
음악할 때 공연할 때 입으려고.
치마 한 개예요 (참여자 B)*

〈그림 9〉 치마. 공연할 때 입으려고 - 참여자 B

3) 함께 나눔과 문화풍경 체험, 즐거워요!

이 주제는 ‘뜨개질한 소품과 만든 꽃들의 나눔’, ‘도시의 문화풍경 체험’의 하위주제로 구성된다.

① 뜨개질한 소품과 만든 꽃들의 나눔

연구참여자 B와 G는 자신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가방과 조끼, 꽃(조화)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G는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끼, 유튜브 보고 짜요, 거기.. 종이 그거 보고 해요”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뜨개질한 조끼와 손가방, 목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끼.. 유튜브 보고 짜고
저기 종이 그런 거 보고 해요.
줬어요. 국장님도 주고
이모야도 주고.(참여자 G)

〈그림 10〉 유튜브 보고 짜요, 이모야도 주고 - 참여자 G



이거 꽃 트리에요 이거 재료
다이소에 2천 원, 집에 있고.
만들어서 선물 줬어요
(참여자 B)

〈그림 11〉 이거 만들어 갖고 줬어요 - 참여자 B

② 도시의 문화풍경 체험

지역사회의 문화축제인 해운대 빛 축제를 비롯해 국화축제, 감천문화마을 등에 대한 문화적 체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힐링의 경험이였다. 해운대 빛 축제를 다녀온 연구참여자 F는 “해운대.. 바다 좋아요”라며 촬영된 사진에 대해 진술했다. 연구참여자 F와 D에겐 해운대 밤하늘의 바닷소리와 빛 축제 향연의 경험은 특별한 순간이였다. 이들은 빛 축제를 같이 다녀온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했다. 연구참여자 D도 “나도 거기 갔어요”라며 자신도 그 축제에 갔던 것을 자랑했다. 이러한 문화적 체험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건조한 일상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



해운대 빛 축제 갔다왔어요.
밤에 빛이.. 넘 좋았어요
(참여자 F)

〈그림 12〉 해운대 빛 축제요 - 참여자 F

연구참여자 A는 남포동 먹자골목을 방문하고 “거기 맛있는 거 먹고 구경했어”라고 진술했다. 그녀는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이며 문화적 공간인 남포동에서 음식의 맛을 경험하고 구경한 즐거움을 드러냈다. 그녀는 활동지원사랑 다녀온 남포동 먹자골목의 인상 깊은 자신의 경험을 말로 잘 표현하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그 생생함을 담아 왔다.



남포동 거기.. 맛있는 거 먹고,
많아요. 구경했어요(참여자 A)

〈그림 13〉 거기 맛있는 거 먹고 구경했어요
- 참여자 A

4) 꿈과 자립, 고민돼요!

이 주제는 ‘결혼과 건강을 바램’, ‘자립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 ‘간호사의 꿈과 일자리 경험’의 하위주제로 구성된다.

① 결혼과 건강을 바람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희망과 바람을 표현했다. 연구참여자 E는 “결혼할 거예요. 2년 뒤”라고 했다. 결혼은 그녀의 바람으로 그에는 자신의 가족을 만든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참여자 B는 “결혼 안 할거예요” 라고 결혼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진술했다. 연구참여자 F는 “교회에.. 좀 건강하게.. 기도해요”라고 아프지 않게 건강해지길 기도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꿈과 바람은 이들의 욕구와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할 거예요.. 2년 뒤에
(참여자 E)

좀 건강하게.. 기도해요
(참여자 F)

〈그림 14〉 결혼할 거예요 2년 뒤에 - 참여자 E

② 자립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자립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자립하고 싶은데.. 엄마가 고민해요...아빠도” 라고 했다. 이 진술은 자립하고 싶다는 연구참여자 B의 욕구와 자기 주도성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며 동시에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상태임을 드러낸다. 연구참여자들 D와 E, B, F는 자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또 돈도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을 진술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E는 “자립 이런 거 몰라서.. 돈 벌어야 돼죠”라고 한다. 이들은 자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자립에 대한

욕구와 희망은 성인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갈망과 정체성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립.. 어려워요(참여자 D)
자립 이런 거 몰라서.. 돈 벌어야
돼죠(참여자 E)
자립하고 싶은 데.. 엄마가 고만해요.
아빠도(참여자 B)
자립해야.. 혼자서 커피 타
먹어요.(참여자 A)

〈그림 15〉 자립.. 어려워요 - 참여자 D

③ 간호사의 꿈과 일자리 경험

연구참여자 B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자신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냈다. 연구참여자 F도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아직 연락 없어요.. 병원 짝기 싫어”라고 했다. 이 진술은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녀의 희망과 달리 현재 불확실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인식하는 듯, 병원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을 진술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픈 사람을 봐주니까, 간호사
하고 싶은 데..
아직 연락 없어요.. 병원은 짝기
싫어요..(참여자 F)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참여자 B)

〈그림 16〉 아픈 사람 봐주니까 간호사 되고
싶은데 - 참여자 F

한편, 연구참여자 D의 경우 장애인복지기관에서의 사회적 일자리의 경험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경험을 진술했다. 그녀는 “계속 일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 그녀에게 일 경험은 자신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통로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거 다 분리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종이가 쌓여 있어서.
계속 일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D)

〈그림 17〉 계속 일하면 좋겠어요 - 참여자 D

5) 건강과 이른 노화, 그리고 불안함

이 주제는 ‘과체중과 운동’, ‘만성질환과 약 챙겨 먹기’, ‘불안과 반복된 행동’의 하위주제로 구성된다.

① 과체중과 운동

연구참여자들 A와 F, G는 식사 후 산책한다고 진술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산책은 각자의 건강 관리에 중요한 일과였다. 또, 이들에게 운동화를 신고 마트를 가는 일도 단순한 쇼핑을 넘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였다. 이렇듯 동네 산책과 마트 방문 등의 신체적 활동과 움직임은 연구참여자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일상의 활력을 주는 것이였다.



*저 운동화.. 저거 신고 산책하고
나가서 마트구경해요(참여자 A)*

〈그림 18〉 저거 신고 산책하고요 - 참여자 A

연구참여자F는 운동을 못 한다고 진술했다. 체중이 계속 불어나면서 연구참여자A와B는 “살이 썩요”라고 자신의 몸 상태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B는 매일 운동하고 싶지만 피곤해서 하지 못한다 했다. 연구참여자C 역시 “가서, 그거 러닝머신 해요. 살 빼야 돼요”라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살을 빼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내며, 살 빼는 게 마음대로 잘 안돼서 힘들다는 것도 표현했다. 이러한 행동과 고민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② 만성질환과 약 챙겨 먹기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 중 30, 40대의 연구참여자들도 만성질환과 척수측만증이나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었다. 이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이른 노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F는 아침마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혈압과 혈당수치를 검사하고 기록한다고 한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리는 활동지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지만,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해 통제감이 생겼어가는 것이다. 또, 연구참여자B는 “야채.. 먹어야 돼요”고 하며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음식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 고혈압이랑 당뇨약 먹어요
- 참여자 F

고혈압 당뇨 약 먹어요. 혈당.
이모선생님하고 검사해요.(참여자 F)

야채.. 먹어야 돼요(참여자 B)

고지혈 약 먹고 관절 아픈데..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단거 먹으면
안 돼요(참여자 E)

③ 불안과 반복된 행동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우울증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손가락을 뜯는 반복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손가락 물고 뜯어서.. 장갑 끼워줘요”라고 진술했다. 집단인터뷰 과정에도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행동을 계속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예전에 겪었던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 그리고 자기표현의 어려움 등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C는 때론 큰 소리를 내며 세션 중에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러한 반복된 행동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림 20〉 손가락을 물고 뜯어서 - 참여자 E

손가락 물고 뜯어서.. 치료해요.
약 바르고.
장갑 끼워줘요(참여자 E)

5. 결론 및 함의

1) 지적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삶

본 연구는 참여행동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 여성들의 눈과 언어로 지역사회 삶의 경험적 실재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관계성과 인지적 한계에 대한 도전, 나눔과 문화적 활동, 희망, 건강 등의 주제를 도출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자기 인식, 주체성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전개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학문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복지기관의 또래 지적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복지기관의 관계자나 또래 장애인 외에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으로 지적장애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통합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의 복지기관 이외에는 마땅히 갈 곳도, 그들을 반겨주는 곳도 제대로 없는지라 마냥 동네를 배회하거나 편의점, 가게를 빈번히 찾다가 내쫓기는 일도 자주 경험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이 물리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실질적인 상호작용은 거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음을 나타냈다.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다중적 차별의 문제는 신체적 장애보다 인지적 장애에 가중된 편견과 여성에 대한 혐오가 중첩된 것으로,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지적장애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지역사회 내 의미 있는 관계 형성,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또한 단순한 동정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지적장애여성들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실천 현장을 비롯한 생활인,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에 요청된다.

둘째, 분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인지적 한계에 대한 도전적 삶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학습활동과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정보 습득, 나아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감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콘서트 너무 좋아해요”, 연구참여자 E는 “음악극이 제일 신나요”라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음악공연과 댄스, 미술활동, 박물관, 문화공연 등의 다양한 경험은 이들의 정서적 감성을 풍부하게 했고, 또 타인과의 상호 친밀감을 형성,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듯 지적장애여성들의 학습활동과 문화예술 체험 등을 통해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배우고, 인지적 제한에 도전을 가하며 성장해 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여성들의 장애와 젠더의 이중적 특성에 따른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프로그램 등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화장과 옷, 모자 등 패션은 자아의 표현이었다. 예전에 장애인시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연구참여자 D와 G는 탈시설 이후 자기 꾸밈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역사회에 살면서 점차 화장과 옷, 가방 등으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가꿨다. 이는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표현하고 발견해 나가는 개인의 사회적 과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연구참여자 D는 “센터 갈 때 화장해요, 여기와서(자립주택) 화장품 샀어요”라며 여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형성해 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지적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표현해 나가는 주체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 화장과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은 연구참여자들의 권리와 자율성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여성학적 논의를 확장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타인과 함께 나누는 실천적 행위와 지역의 문화 체험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C의 다이소 꽃

만들기 경험과 연구참여자 G의 뜨개질 경험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 창의적 표현, 나눔의 실천으로 자기 일상에 대한 의미와 만족감을 느끼도록 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소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줌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경험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뛰어난 손재주와 창의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곧 당사자들의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함께 나눔’이란 실천적 행위로부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부산지역의 해운대 빛 축제와 남포동 먹자골목, 감천문화마을 방문 등의 문화적 체험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역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 C의 경우는 BTS 등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사진을 모으는 즐거움을 진술했다. 이 같은 지역 문화행사 참여와 문화체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상을 넘어선 새로운 경험인 것으로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취미 활동과 나눔, 문화체험 등은 자기 존재감을 느끼며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이었다. 지적장애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키워가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변화와 실천적 경험은 지적장애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참여의 시민권 실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바람과 꿈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자립에 대한 갈망이 두드러졌다. 이 중에는 탈시설 후 현재 자립주택에서 일상생활 기술을 배우는 등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경우, 또 현재 부모와 살고 있지만, 자립에 대한 막연한 욕구와 두려움이 있는 경우, 연구참여자 A와 F는 부모사망 이후 물리적으로는 독립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활동지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례이다. 반면, 연구참여자들 D와 G는 탈시설 후 자기 의사와 표현력이 보다 향상되고, 각

자의 꿈과 희망도 생기게 된 사례이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삶, 이러한 지역사회 삶의 환경이 지적장애여성들의 자립적 삶의 역량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 각자가 처해 있는 여건은 다르지만, 지역사회 삶의 경험 속에 자립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 막연함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여성들의 자립은 희망이며 동등한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자립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과 취업, 주거 등 통합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교육과 직업, 사회체험, 재활 등 사회영역에서 장애와 젠더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 중 30, 40대 연령층이지만 퇴행성 관절염과 당뇨, 척추관협착증, 고혈압 등의 노인성 질환이 나타나는 이른 노화(premature ageing)를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증, 다운증후군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인구층에 비해 대략 20년 정도 훨씬 이른 시기부터 노화가 진행된다는 보고와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여성의 만성질환 관리와 이른 노화로 인한 이차적 장애(secondary disabilities) 발생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재활치료, 신체활동, 운동 등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장애특성 상 자기 감정이나 의사, 필요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로 인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일례로 연구참여자 5의 경우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고 뜯는 감각적 자극의 행위를 평소에도 그렇고, 연구 진행 과정 내내 보였다. 이들 중에는 부모사망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여성들의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초기 발견과 심리상담, 치료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적장애여성들의 인지적 장애와 여성

이라는 이중적 특성과 그에 따른 애로점, 욕구를 고려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주체로서 자기 경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단순히 의존적인 존재나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기쁨과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지적장애 여성들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줌으로, 관련된 분야와 실천 현장에서 장애 여성주의 관점(perspective of disability feminism)이나 강점 모델에서 지적장애여성의 능동적인 행위와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선택과 자기 결정권이 대부분 가족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해 통제되고 타율화됨이 발견된다. 이는 지적장애여성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과 선택,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에 지적장애여성들을 폭력의 피해자로 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타자로 본질화하고, 장애여성 집단 내 차이와 생성의 힘은 무시된 채 오로지 결핍의 대상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등 발달장애여성들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주의나 역량강화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실천 현장의 서비스 제공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접근 시각의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장애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그간 지적장애여성들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 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비판적 인식과 통찰력 형성의 기회가 부재했고,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장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에 지적장애여성 당사자들이 장애와 젠더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 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 직업, 권리옹호 활동 등 사회 제반 체계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장

장애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지적 장애와 젠더의 동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계층, 연령 등이 상호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경험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장애여성들에게 있어서 장애로 인한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이분될 수 없으며, 단일 개체로 동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수전 웬델, 1996; 바바라 크리드, 2008). 따라서 지적장애여성의 정체성 역시 단순히 '여성'이나 '지적장애'라는 단일 범주로 정의될 수 없는 것임으로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교차성 관점의 적용이 장애학이나 여성학 등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할 것이다. 또, 장애인 정책과 여성 정책에서 개별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두 정체성의 교차점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과 의의를 지니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이는 소수의 지적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소수자의 고유한 경험을 깊이 이해코자 시도된 질적 연구로 장애정도와 연령, 활동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차이를 포착하기 어려운 연구설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대량 표본추출을 활용한 실증주의 연구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집단 내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 경우 장애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한계가 있어 장애와 젠더의 이중적 특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깊이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장애여성, 특히 지적장애여성 분야에 교차성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임으로 향후 장애와 젠더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여성의 교차적 경험을 깊이 분석해 내는 후속 연구수행을 제안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적장애여성이라는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지만, 이 가운데 당사자들이 주도한 참여행동연구를 수행한 점, 또 지적장애여성들의 눈과 언어를 통해 지역사회 삶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고, 이로부터 인지적 장애와 젠

더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생성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여성의 여성성의 재발견과 교차성 관점의 필요성, 이들의 자기표현의 권리와 주체성, 소통, 문화적 실천 등을 제시하므로 기존 비장애여성 중심의 여성학적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초지식을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지적장애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와 젠더, 계급 등이 교차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학문적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미옥, 2002.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기와 장년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0: 9-36.
- 김민영, 2018. “여성 지적장애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지적장애연구』 20(3): 75-98.
- 김성희 · 이민경 · 오옥찬 · 오다은 · 황주희 · 오미애 · 김지민 · 이연희 · 강동욱 · 권선진 · 백은령 · 윤상용 · 이선우, 2024.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희 · 손병돈, 2020. “탈시설 이후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이주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0: 5-29.
- 김아영 · 이숙향, 2023. “장애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란 지적장애여성의 독립,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생애사 연구”. 『발달장애연구』 27(1): 187-209.
- 김영미, 2021. “여성지체장애인의 우울, 자존감, 장애수용, 대인관계능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지체 · 중복 · 건강장애연구』 64(4): 1-20.
- 문현주, 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재활복지』 19(3): 1-29.
-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1997. 『괴물화된 여성들: 문학과 영화 속 장애 여성의 재현』. 손홍일(역). 서울: 그린비
- 바바라, 크리드, 2008. 『여성괴물 - 억압과 위반 사이』. 손희정(역). 서울: 여이연
- 박명숙 · 송사리, 2005. “장애여대상이 경험한 성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장애특성 뒤에 숨겨진 여성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9: 49-71.
- 박현주, 2022.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 15-36.
- 배하옥 · 김유경, 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2): 55-76.
- 신유리 · 김경미, 2018. “지적장애인의 나이 들어감(Aging)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9: 5-32.
- 수잔, 웰렐, 1996. 『거부당한 몸』. 강진영 · 김은정 · 황지성(역). 서울: 그린비.
- 아만다, 라즈, 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 김동렬(역). 서울: 학지사.
- 이윤숙, 2020.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의 공동생활 거주시설경험: 자립욕구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5(1): 31-53.
- 이혜경. 2008.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162-198.
- 임해영 · 강선경. 2019.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매매 경험에 관한 연구 - Medard Doss의 현존재적 분석접근”. 『생명연구』 51: 101-128.
- 양정빈 · 박미정. 2015. “이혼을 경험한 여성지체장애인의 생애사 연구”. 『여성연구』 89: 181-218.
- 오혜경. 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1: 27-74.
- 유창민 · 오혜인. 2016. “여성 지적장애인의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의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4: 5-33.
- 정진옥. 2013.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27: 37-52.
- 주영하 · 박미진 · 김기룡. 2023. “문화예술직무 경험이 중증장애인의 일에 관한 포토 보이스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9(2): 219-238.
- 전정식 · 김경미 · 유동철 · 김동기 · 신유리. 2013.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연구”. 『지적장애연구』 15(2): 305-330.
- 최운정 · 박경수 · 이석호. 2014.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4(3): 123-146.
- 황재경. 2021. “지적장애 여성의 지역사회 삶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15(1): 5-40.

(2) 국외문헌

- Booth, J., and Booth, W. 2003. “In the Frame: Photovoice and mothers with learning difficulties”. *Disability and Society* 18(4): 431-442.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North America: Sage Publications
- Goldenberg, M. J. 2007. “The Problem of Exclusion in Feminist Theory and Politics: a Metaphysical Investigation into Constructing a Category of Woman”. *Journal of Gender Studies* 16(2): 139-153.
- Nosek, M. A. and Hughes, R. B. 2001. “Psychospiritual Aspects Sense of Self in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67(1): 20-25.

- Hall, E. 2010. "Space of social inclusion and belong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1): 48-47.
- Thompson, N., Hunter, E., Murray, L., Ninci, L., Rolfs, E., and Pallikkathayil, L. 2008.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Chronic Mental Illness: A Photovoice Study". *Perspective in Psychiatric Care* 44(1): 14-24.
- Yi, J. and Zebrack, B. 2010. "Self-Portraits of Families with Young Adult Cancer Survivors: Using Photovoice". *Journal Psychosocial Ontology* 29: 219-24
- Wand, Caroline. 2000.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0): 185-192.
- Willner, P. 2005.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 critical overview".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1):73-85

Abstract

A Exploratory Study on the Local Community Life Experiences of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sing Photovoice Research

Shin, Yu-Ri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s social discussions 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aging of the disabled population have increas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there has been more increasing policy and academic interest in guarantee of rights and establishing a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have been excluded from disability policies. Accordingly, this study utilized the Photovoice Method,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with seven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researchers to look into the lives of the parties, needs in the community and the context surroundi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mmunity life and living reality of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and language of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o seek social and academic tasks to support community-based life based on thi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five months from December 2023 to April 202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Participatory Data Analysis (PDA), and five themes were derived: ‘Limited Relationship: Alienation and My people’, ‘Cognitive Challenge; Learning and Growth’, ‘Sharing and Experiencing Cultural Landscapes together, it’s fun!’, ‘Dreams and Independence, I’m

worried!', 'Health, Early Aging, and Anxiety'.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serve as basic data for policy interventions for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continue living in the community and contribute to an extension of the feminist discussion.

Key words: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hotovoice Method, Life of Local Community, Intellectual Disability and Gender, Intersectionality, Agency

- ┃ 투 고 일 : 2025년 2월 9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정동적 조율을 통해 본 돌봄노동자의 인지증(치매) 연명의료 돌봄*

정종민**

| 목차 |

- | | |
|--------------------------|----------------------------|
| 1. 서론 | 5. 저당 잡힌 '좋은 죽음' |
| 2. 생성하는 돌봄과 정동 | 6. 정동적 조율로서 돌봄 |
| 3. 연명의료 돌봄과 감정 그 이상의 노동 | 1) 돌봄을 추동하는 강도의 힘으로서 |
| 1) 인지증 죽음의 의료화 | 정동 |
| 2) 감정 그 이상의 노동으로서 정동의 발견 | 2) 과거가 추동하고 미래가 이끄는 현재의 돌봄 |
| 4. 연구 방법 | 7. 결론 |

| 초록 |

이 연구는 돌봄노동자, 요양시설, 인지증(치매) 당사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 사이에 연명의료에 대한 가치관이나 돌봄 방식이 다를 때 돌봄노동자가 경험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고 응답하는 양식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 돌봄을 돌봄제공자가 돌봄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몸일로 접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8297). 또한 이 논문은 2024년 10월 25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초연결시대 동아시아의 미래지향적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전문가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Medical Anthropology and Global Korean Studies>에서 "Less is More: Care Workers' Affective Attunement in Dementia End-of-Life Care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에 유익한 의견을 주신 김승섭 교수님과 귀중한 조언과 논평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전남대학교 anthro.jongminjeong@gmail.com

하지 않고, 돌봄 구성 요소들의 관계와 힘의 마주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적이며 생성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12명의 돌봄노동자와 나눴던 돌봄대화에서 연명의료, 죽어감, 죽음과 관련된 서사를 추출하여, 정동적·담론적 실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과거 근친자의 연명의료 경험이 어떻게 여기-지금 타인의 예상되는 죽음과 얽히면서 현재의 돌봄을 구성하는지를 밝힌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따뜻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 담론에서 주변화되었던 절제되고 무감정적인 듯 보이는 돌봄노동자의 연명의료 돌봄을 실천 가능한 또 하나의 돌봄 양식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거나 생명을 연장하는데 머물지 않고 현실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결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돌봄노동자의 상황적·관계적·체화적인 윤리적 실천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주제어 : 연명의료, 돌봄, 정동적 조율, 도덕적 딜레마, 윤리적 실천

1. 서론

지난 팬데믹 기간 나는 〈인지증 돌봄의 공공성〉¹⁾ 연구를 수행하면서 30명의 돌봄노동자를 만나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마다 등장하던 주제 중 하나는 인지증과 함께 사는 방법만큼이나 인지증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였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스스로 결정하길 원하지만, 생애 말기에 마주하는 연명의료,²⁾ 완화의료, 존엄사를 포

1)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해 불필요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책 용어 및 기관명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인지 장애”라는 의미의 ‘인지증’을 사용하였다(정종민, 2024: 142).

2)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24a).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에 제정되었고, 2018년 2월에 정식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와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가 의료 현장”에 도입되었다(강지연, 2021: 56).

함한 ‘좋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라는 점이다(가완디, 2015; 강지연, 2021; 2022; 2024; 송병기, 2023; 이지은, 2020). 내가 만났던 인지증 돌봄노동자는 이러한 상황을 가장 가까워서 경험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현장의 중요한 목격자이며, 증언자이자, 최후의 돌봄인이었다.

돌봄노동자와 나눴던 대화 중 흥미로웠던 점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돌봄노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명의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를 극구 반대하였고, 연명의료가 결코 ‘좋은 죽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반대 의지와는 별개로 현실은 대체로 돌봄노동자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명의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연명의료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거나, 가족 구성원 간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도 이들의 의견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무엇보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까운 가족 혹은 친족이라면 연명의료를 시도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선뜻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싶다며, 그 결정을 피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삶을 연장할 것을 ‘강요’받는 동시에 고통 없이 편안한 마지막을 위한 돌봄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양가적인 태도, 행위, 언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연명의료에 대한 가치관의 불일치는 돌봄노동자의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어떻게 연명의료 돌봄을 실천할까? 특히,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경험은 이후 타인의 연명의료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 혹은 개입하도록 이끄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돌봄노동자의 연명의료 돌봄은 기존의 생명의료윤리에서 사용하는 보편적·규범적·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가령 돌봄노동자의 애매모호함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동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면 개별 돌봄노동자의 돌봄에서 나타나는 수

많은 역동적인 감정의 흐름, 태도, 느낌, 언술을 잘 알아차릴 수 없었다. 게다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분투하는 돌봄뿐만 아니라 임종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려는 돌봄노동자의 고민과 노력을 소홀히 다룰 수 있었다. 이는 연명의료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좋은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의 개입에 관한 판단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최선의 돌봄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을 통한 또 다른 방식의 삶의 가능성을 감추거나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함을 의미했다(이지은, 2020: 23).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감정적인 거리두기, 절제된 태도, 무심한 듯 수행하는 돌봄은 돌봄노동자가 요구받는 ‘돌봄노동자 다움’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화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찍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 나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광주·전남의 사회서비스원, 재가복지센터, 인지증 요양원의 돌봄노동자와 나눴던 “돌봄대화(care conversation)”(린치·베이커·라이온스, 2016: 348) 중 연명의료, 완화의료, 죽음, 임종과 관련된 서사를 중심으로 인지증 생애말기 돌봄을 살펴본다. 그리고 연명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 인지증 당사자와 보호자, 시설의 돌봄 규칙, 돌봄 시장의 상황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좋은 죽음’을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에 주목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현장을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렛 자이곤(Jarrett Zigon, 2010: 69)의 “체화적 성향(embodied dispositions)으로서 도덕” 개념을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자아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도덕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 다른 가능한 실천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동사형의 자아 되기로 접근한다. 일상의 돌봄은 자이곤이 강조하듯 돌봄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의도적이며 심사숙고한 성찰”(Zigon, 2007: 135)에 기반한 윤리적 실천뿐만 아니라 담론적·비의식적·비재현적 행함까지 포함하는 좀더 이질적이며 다양한 강도의 반응과 조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Jeong, 2020: 534)³⁾. 한마디로

도덕과 윤리가 인식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하기보다는 돌봄 현장에서 도덕과 윤리는 불가분하게 경험적으로 얽혀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더 좋은 생애말기 돌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천의 문제, 즉 ‘도덕적 경험’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존재론적 의미’와 ‘윤리적 실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는 돌봄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이한 앎과 지식이 충돌하며 나타나는 다양한 돌봄 방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체화되고 배태되어 가시화되도록 “이끌고 이끌리는” 정동(affect)을 추적하고 기술하고 분석한다(서보경, 2025: 296). 특히 연명의료 돌봄에서 나타나는 메마른 목소리, 무미건조한 표정, 절제된 감정의 흐름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재촉하거나 연장하는데 연연하지 않으면서 친밀감과 따뜻함에 기반한 돌봄과는 다르지만 여기-지금의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협상하며 조율하는 돌봄노동자의 분투를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이 어떻게 근친자의 연명의료 돌봄 경험과 얽히면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돌봄’으로 확장하는지를 “정동적·담론적 실천”(Wetherell, 2013: 358)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 생성하는 돌봄과 정동

생성하는 돌봄이란 기존의 돌봄제공자가 돌봄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몸일이라는 이분법적·위계적인 접근을 비판하는 개념이다. 질

-
- 3) 도덕과 윤리는 학문의 전통과 계승하는 철학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기존의 이성, 성찰, 인지 중심의 접근은 인지증과 사는 사람의 윤리적·도덕적 실천과 돌봄을 다룰 때 이들을 배제를 통한 포섭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인지증 돌봄에서 도덕과 윤리적 실천에 관한 비판적 이해 및 좀더 자세한 정보는 Jeong(2020) 참조.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의 되기(becoming) 개념을 적용한 빅토리아 클얼리(Victoria Cluley, 2018: 2-3, 9)의 “생성적 돌봄”(becoming-care) 개념을 바탕으로 돌봄을 중심과 주변 혹은 위계가 없는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와 힘의 마주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어셈블리지(assembly)로 규정한다. 그리고 접촉을 통한 돌봄은 주거나 받는 일방적이고 선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쉽게 말하면, 돌봄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은 나의 체온이 타인에게 전달되고 타인의 체온이 내게 전달되어 섞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돌봄의 마주침은 돌봄의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조건, 돌봄받는 사람과 돌봄제공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그 양상은 끊임없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만지고, 닦고, 씻기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신체적·정동적 교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저항을 표출하는 역동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돌봄의 핵심 대상이 되는 살과 피는 “수동적인 표면이 아니라, 감각, 욕망, 경험이 담론적 실천과 지속해서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다”(Shildrick, 2018: 167). 마찬가지로 돌봄대화에서 몸이란 돌봄을 주고받는 일방적인 상태로 고착된 몸이 아니라 “유연하고, 유형적이며, 관계적인 육체(the fleshy body)”로 간주한다(Cluley, 2019: 4). 돌봄대화를 토티아한다는 것은 몸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와 힘의 얽힘 사이에서 드러나는 “관계적-생성적 돌봄”을 추적하고 기술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이다(강지연, 2024: 40).

정동은 들뢰즈와 가타리(2001)의 ‘어셈블리지’ 개념 및 팀 잉골드(Tim Ingold, 2011)의 ‘그물망(meshwork)’ 개념과 공명하며 “세상을 느끼는 실천들”(the practices of feeling with the world)로 규정한 안드리아 디 안토니와 폴 두모첼 (Andrea De Antoni and Paul Dumouchel, 2017: 93)의 사회적·물질적 실천을 참조한다. 디 안토니와 두모첼은 정동을 주로 신체적·생물학적 현상으로 다루는 신경과학적 접근(Damasio, 1999), 인지적

과정과 분리된 “전-지각적, 전-상징적, 전-언어적, 전-개인적 삶의 강도”인 비재현적 현상으로 다루는 들뢰즈 학파의 전통(마수미, 2018; de Antoni and Dumouchel, 2017: 92), 그리고 정동의 오묘하거나 무의식적(uncanny or unconscious)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신분석학적 접근(Wetherell, 2012)을 비판적으로 확장한다. 디 안토니와 두모첼(2017)은 재현적, 비재현적, 담론적 실천으로서 정동은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하나의 연속된 신체적 경험(Wetherell, 2013)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뤘던 문화적 맥락, 즉 정동적·담론적 실천의 문화적 다양성과 특이성에 주목한다. 그래서 정동은 “일종의 잠재능력이며 존재역량”으로서 “감정이나 정서의 ‘넘쳐흐름’으로 신체를 통해 체화되고 누적되어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언어로는 쉽게 규정지을 수 없는 어떤 힘 또는 그에 따른 변용”으로서 사회문화적·물질적·담론적 실천으로 이해한다(정종민, 2022: 323). 나아가 “협응(coordinations), 조율(attunements), 상응(correspondences)”의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마주침에서 드러나는 정동의 상황적·관계적 특성을 드러낸다(de Antoni and Dumouchel, 2017: 93). 기억할 것은 이러한 정동적 조율이 독립한 개별주체의 속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마주하며 응답하고 반응하는 수행/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정동적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돌봄 내용뿐만 아니라 돌봄대화의 상황과 분위기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대낌과 엇갈림, 관계와 힘들의 파동이 만들어 내는 미묘한 궤적”(권명아, 2012: 22)으로서 정동적 실천을 추적하고 기술하고 분석한다(정종민, 2024). 그리고 그동안 대체로 부정적이며 수동적으로 묘사됐던 돌봄노동자의 제한되고 절제된 돌봄의 움직임, 흐름 혹은 이행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동적 실천을 정동적 조율의 측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3. 연명의료 돌봄과 감정 그 이상의 노동

1) 인지증 죽음의 의료화

한국에서 보통 노인장기요양서비스⁴⁾ 이용자와 가족에게는 호스피스 서비스, 사망 장소에 대한 사전 선호조사, 대리 의사결정자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돌봄계획서를 미리 작성할 것을 권한다(Ha and Lee, 2019). 2017년 8월 4일부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이 암 환자에서 다른 말기 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한국에도 인지증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가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춘길, 2018).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인지증 귀적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인지 및 기능 장애의 말기 단계를 회피하기 위한 조력사와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법률적·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argent et al., 2024).

하지만 여기-지금 돌봄 현장에서는 인지증과 사는 사람들의 사전연명의료 결정이 가족과 보호자에 의해 쉽게 거부당하거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기반해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홍소연, 2005). 2018년 치매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민법상 성년 후견 역시 후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후견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박정연, 2023: 166-167). 한국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 법률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규정하며, 이에 따른 ‘의사결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인권규범에서도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인지장애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인지증 당사자의 경우 의료와 공적 관리의 대상으로 간

4) 한국의 보편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4년 7월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에게도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춘길, 2018: 58).

주되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는 미흡하다(제철웅·김효정·박인환, 2019).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은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지 7년째 되지만, 여전히 인지증 당사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들다(강태우, 2024). ‘말기 진단 이후’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인지증 당사자처럼 이미 인지능력을 상실했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일 때 가족 혹은 보호자가 당사자의 의사를 휴대하고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인지증의 발달궤도에 따라 ‘말기’인지 ‘임종기’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 법)이 제정됐지만 인지증과 사는 사람의 ‘죽음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4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하고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현정, 2024).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 진단 이전으로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서 제외된 인지증 당사자의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게다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영양 및 수분 공급, 말기 진정, 치료 보류 및 중단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의료적 개입 여부를 묻지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모호하며, 관계자 간에 합의하기도 어렵다(강지연, 2022: 105). 실제로 인공영양 및 수분공급에 대한 사전 거부 혹은 중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졌지만, 음식 및 수분 경구 섭취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지은, 2020). 특히 위급 상황에 따라 삼관, 비위관, 항암제, 투석기, 체외순환

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부분 의료전문가와 가족의 결정에 달려있다. 문제는 위급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심폐소생술 동의서를 받아두지만,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응급 상황시 119 요원 또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할 때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뿐이며, 죽음이 뚜렷이 예견되면 인지증 당사자는 거의(요양)병원으로 이송된다. 이에 따라 임종이 임박한 인지증 당사자는 ‘환자’로 간주되며, 생명을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응급매뉴얼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받게 된다. 인지증 생애말기 돌봄은 일상에서 비가시화되며, 당사자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의료전문가에 의해 죽음의 과정이 통제되는 ‘응급화·병리화·매뉴얼화된 죽음’ 즉 죽음의 의료화가 된다(양영자, 2023; Bond, 1992). 인지증 당사자의 잔존역량이나 삶의 경험은 주변화되며 자기 삶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자율성과 자기결정은 존중받지 못한다(Boyle, 2014).

2) 감정 그 이상의 노동으로서 정동의 발견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말기 돌봄을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상담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 임종돌봄 교육은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과목이 이론과 실기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으로 전체 교육 시간 240시간 중 단지 2.5%뿐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임종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다(안은숙·이진숙, 2021: 201; 이여진 외, 2010). “죽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안은숙·이진숙, 2021: 201).

인지증 죽음의 의료적 개입 강화, 돌봄 교육의 부족 그리고 인지증 당사자, 의료인, 돌봄인 간에 말기 돌봄의 수행 방식에 대한 기대와 상상의 불

일치는 돌봄노동자에게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넘어 감정노동으로 이끈다(혹실드, 2009). 혹실드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 서비스 산업이 확산하면서 노동자의 내밀하고 사적인 감정이 고객의 만족과 소비 촉진을 위한 교환가치로 활용되는 감정의 상품화 현상을 노동착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특정한 외모, 표정, 신체 표현을 추동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감정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노동의 부수적 요소로 간주하던 감정을 공문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박형신·정수남, 2009; 박홍주, 2006). 한국에서도 1996년 ‘감정노동’ 개념이 처음 신문에 소개된 이래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였으며 혹실드의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연구로 이어졌다(김관욱, 2018: 52; 김종우, 2012). 콜센터 상담원, 승무원, 판매사원, 아이돌, 의료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돌봄노동자, 보육교사를 포함하며 감정노동의 담론분석, 구조적 재생산, 현상학적 연구 등 연구방법과 내용에서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돌봄노동자의 죽음태도 및 임종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소외되는 감정노동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강영미, 2023; 김은경, 2022; 안은숙·이진숙, 2021; 오미경·이재모, 2023).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빈번한 죽음 경험으로 인해 기가 빠지고 소진됨을 경험한다.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종종 비난과 불평을 들으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과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자괴감이 나타난다(김은경, 2022; 라미정·강희숙·김명숙, 2016; 안은숙·이진숙, 202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정 기간 일대일 돌봄을 통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노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쉽게 객관화할 수 없으며, 때론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 개인적 고통으로 간주될 뿐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다(오미경·이재모, 2023).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낯선 시설에서 임종을 앞둔 인

지증 당사자의 고통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연민과 미움으로 갈등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경험한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돌봄노동자는 인지증 당사자나 보호자와 수직적인 관계에서 모욕과 신체적·상징적 폭력을 견뎌야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숨겨야 하지만, 때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밀한 학대자”와 감정노동자 사이에서 안쓰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중의 고통을 체험한다(강영미, 2023: 104-105). 이러한 “도덕적 붕괴”(Zigon, 2007: 133)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과 낮은 처우, 죽어야 나갈 수 있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면서 돌봄 위기를 경험한다. 급기야 이와 같은 감정노동을 통해 표출되는 감정 불일치는 돌봄노동자의 무리한 감정 소모, 비인격화,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고 취약한 이들이야말로 ‘존엄한 존재인’임을 알아차리고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한마디로 돌봄은 단순히 신체접촉을 통해 돌봄수혜자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몸일이 아니다. 오히려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기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과 잠재된 욕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감정을 동반한 상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노동이다(김송이, 2012). 말할 필요도 없이 돌봄노동자의 생애말기 돌봄은 한두 시간의 돌봄 대화로 요약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으로 결코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연명의료 돌봄은 단순한 감정노동으로 끝나지 않고 “감정 그 ‘이상의’ 노동”을 요구한다(김관옥, 2018: 62).

이 시점에서 내가 콜센터 여성 상담사를 연구한 김관옥의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연구의 성과- 가장 사적인 감정조차 자본의 도구로 착취당하는 노동 현실에 대한 비판을 공론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등 공적 영역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이바지한바-를 계승

하면서도 이들 연구가 소홀히 다뤘던 감정의 표현적·수행적 주체로서 몸을 바라보는 관점과 노동자의 능동적 노동 참여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김관옥은 흑실드가 노동자의 행동보다는 내면이나 인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노동 형태를 규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핀다. 그리고 흑실드가 사용한 분석과 기술(description)의 언어, 예를 들어 ‘표명 행동과 심층 행동’과 같은 이분법적 표현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과 구별되는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굴하지만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신체적·체화적 경험은 사장되었다고 비판한다(김관옥, 2018: 59; Witz·Warhurst·Nickson, 2003). 이렇듯 흑실드의 감정에 대한 심신 이원론적 접근은 “육체 및 정신노동이 마치 감정노동과 분리된 것처럼 다루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감정 소외를 통한 노동착취에 초점이 있는 감정노동 연구는 의도하지 않게 노동자의 “저항의 잠재력”을 비가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김관옥, 2018: 59-60).

하지만 강영미(2023)의 연구가 전형적으로 제시하듯이 은밀한 학대자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은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이 구별되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감정 중심의 서술은 노동자의 고뇌와 이에 수반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점에서 김관옥은 감정노동 그 이상의 ‘미소 띤 ARS’ 기계가 될 것을 강요하는 노동 현장에서 말 대거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노동자의 몸틀(body schema)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감정노동에 기인한 두통, 근골격계 통증, 만성 피로,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 신체적 고통을 수반함을 드러낸다. 김관옥의 감정노동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동감하면서 나는 감정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흑실드의 감정 이론에는 복수의 다양한 감정들과 담론들 사이를 교차하고 횡단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추동하는 강도

의 힘으로서의 정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돌봄 노동자의 상황에 적용하면 생애말기 돌봄에서 연명의료를 수행할 것을 강요받을 때 몸을 통해 감내해야 하는 정적인 아픔의 감정을 넘어 뭐라도 해 보려는 돌봄노동자의 동적인 움직임, 바로 여기에서 나는 정동을 발견한다.

4.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지난 3년 동안 만났던 30명의 인지증 돌봄노동자 중 생애말기 돌봄의 도덕적·윤리적 실천을 언급한 12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인지증 돌봄의 공공성> 연구는 삶과 죽음이라는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사회서비스원과 하늘재가복지센터의 돌봄노동자를 중심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사회화 가능성을 정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정종민, 2022; 2023a). 2단계는 하늘요양원을 중심으로 인지증 돌봄은 인간과 인간너머 존재와 상응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성적·관계적·정동적 실천이자 과정의 산물임을 톺아보았다(정종민, 2023b; 2023c; 2024). 특히 돌봄대화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친밀한 돌봄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의 돌봄을 탐구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했다(린치 외, 2016: 21). 팬데믹 전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추동한 힘에 관한 “개인적 경험에 주목했으며, 계획된 질문을 하기보다는 돌봄노동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정종민, 2023c: 148).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연구가 불가능했던 1단계(2021.7-2023.3)에 비해 2단계(2023.4-2024.3)는 하늘요양원에서 참여관찰과 돌봄대화를 바탕으로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돌봄 내용뿐만 아니라 돌봄대화의 분위기와 느낌을 통해 전해지는 정동을 기록·분석하였다.

여기서 정동을 기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 늘 변하는 중

이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능력”으로서 이것이 “구성되고 전파되고 사 건화되고, 서로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측량”하고 묘사함을 의미 한다(스튜어트, 2007: 16). 하지만 일상에서 변이하고 움직이는 정동은 선 명하기보다는 모호하고 포착하려면 미끄러져 사라지며 언어적 표현에 선 행하거나 초과하는 정동적 소통을 통해 이뤄진다. 그래서 이 연구는 특별 히 다름의 인정을 동반하는 경청의 자세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민족 지적 주목(ethnographic attention)을 요구한다. 물론 스투어트(2007)가 고 백하듯이 이 과정은 연구자를 미쳐버리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 리라 다양한 강도의 변화에 대한 세밀한 감수성을 터득하고 알아차리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방법론적으로 돌봄대화나 돌봄의 과정에서 표현되고 수행되는 침묵과 머뭇거림, 말·표정·몸짓의 변화를 따라가며 주변 상황과 얽히고설키면 서 살아 움직이는 관계적 그물망 그리기 혹은 기술을 의미한다(정종민, 2020). 기억할 것은 중년 남성의 고학력 연구자 또한 이러한 돌봄의 정동세 계를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상황적 위치성(situated positionality) 뿐만 아니라 과거를 민족지적 현재(ethnographic presence)로 기술하는 인 류학적 글쓰기가 갖는 부분성(partiality)에 대한 성찰이다⁵⁾.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따라 현장 노트에 기록할 때나 심층 면접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존재하던 말들, 글들, 소리들, 기억들, 감정들이 이 글을 쓰는 과정에 서 새롭게 해석되고 반향하며 도드라지게 드러났다. 이는 민족지적 사건 으로서 연구자의 윤리적 실천, 현장연구, 글쓰기가 여기와 저기에 따로 존 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찰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히려 연구자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자이곤 이 강조하듯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요구”에 좀더 귀 기울이는 것이라 할

5) 인지중 돌봄의 환경을 구성하는 한 명의 연구자이자 참여관찰자로서 어디까지 개 입하고 어디까지 서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연구 수행의 딜레마와 그에 따른 관계적·상황적 위치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eong(2020)를 참조.

수 있다(Jeong, 2020: 542; Zigon 2007: 138).

매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적·과학적 연구수행에 관한 심의 및 승인을 받았으며, 생명윤리법에 따라 정부 정책을 제외하고 개인과 기관의 식별정보를 익명화하였다. 돌봄노동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90분가량 돌봄대화를 1회 이상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말기 돌봄에 관한 개인 경험을 기술하고 정동적·담론적 실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2023년 12월)

이름	성별	연령(세)	경력(년)	소속	이름	성별	연령(세)	경력(년)	소속
고미순	여	59	14	요	김화진	여	51	14	재
김소희	여	64	10	요	이춘희	여	65	4	요
정압록	여	65	15	요	이설화	여	63	1	요
나숙현	여	60	3	요	이지현	여	70	6	요
정수화	여	66	2	요	전소현	여	60	13	요
김은경	여	69	10	재	노은숙	여	52	11	사/서

※요: 하늘요양원, 재: 하늘재가복지센터, 사/서: 서울사회서비스원, 사/광: 광주사회서비스원

5. 저당 잡힌 ‘좋은 죽음’

“그런 분들은 이제 산소포화도 살펴보고, 콧줄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숨을 쉬는지 살펴보고, 그러다가 돌도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 돌아가시면 어찌지 하고 걱정을 해요. 어르신 상태를 보고 시설장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인수인계할 때 오줌 상태가 안 좋으면 물도 먹이고 설탕도 달콤하니 먹이고 오줌의 양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도 하고, 오줌 상태가 맑지 않고 탁하고 잘 안 나오는 등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꽃고 계시는(연명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오줌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표정도 살피죠. 찌꺼기 붙이는 곳을 보면서 체중도 살피고 어르신 많이 아프시구나! 알기도 해요.”(정압록, 2023.3.2.) (정종민 2024: 159)

정압록은 압박한 죽음을 돌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임종 돌봄과 상당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는 임종을 두 명의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요양원의 밤은 더욱 무섭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다. 정압록은 야간근무를 위해 하늘요양원 현관문을 들어올 때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밤을 보내도록 기도했다. 그렇지만 소변량이 줄거나, 체중 변화가 심하면 온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마루에 계시고, 못 봤죠. 저만 보고. 그래 갖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심폐소생술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인자 몸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어 드리고,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심폐소생술! 숨을 안 쉬는데, 그리고 제가 딱 저렇게 입을 벌리시는 것을 다물어 드리면서 이렇게만 쳐보니까 숨을 안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센터)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 갖고 119에 신고해 갖고 ……”(김은경, 2022.3.10.)(정종민 2023c: 158)

김은경은 생애 처음 마주했던 임종의 순간, 무심결에 잡았던 할아버지의 손의 느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바짝바짝 입술이 타는 듯 심한 갈증 같은 것을 느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119에 전화하기도 어려웠다. 목소리는 떨렸고 더듬거렸다. 전화로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119 구급대원이 시급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놀란 마음에 쿵쿵쿵 뛰는 심장박동 소리는 귀까지 울렸다. 돌이켜 보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듯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힘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켜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는 미안하고 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뭘 해주지 못한 자괴감에 괴로웠다. 몇 명의 어르신의 임종을 더 지켜본 이후에야 김은경은 손으로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기도하며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렇지만 생애 말기 돌봄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고 쉽게 규정지을 수도 없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잡았던 손의 감촉, 손 마디마디에서 전율하듯 느껴지는 촉감과 온도, 말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죽어감의 공포는 여전히 김은경의 몸에 남아있었다. 다른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정동이었다. 실제로 김은경은 나를 만나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했다. 돌봄노동자는 임종과 죽음을 목격하고 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래서 생애 말기 돌봄은 심리적 위축에 머물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인 압박과 공포를 넘어 트라우마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치유는 김은경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자식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하시면서 … 보건소 같은 데 가서 저희도 그것(사전연명의료의향서)을 작성하면 나중에 쿨죽을 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사전연명의료의향서)을 작성할 거예요. …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희망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의식도 없고, 먹는 것도 못 먹습니다. 희망이 없어져요.”(정수화, 2023.3.2.)

그렇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 당사자는 직접 자신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최소한 하늘요양원의 정수화가 경험한 연명의료 돌봄에서 인지증 당사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료화된 인지증 돌봄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자 하는 희망, 새로운 치료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혈압, 호흡, 체온, 맥박 등 활력 징후(vital sign)가 괜찮은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부담감 등이 얽히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 혹은 보호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옛날에는 여기에서 임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요양원 내규)이 바뀌어가지고 응급상황이 되면 119로 병원으로 모셔거나, 가족들이 와서 (집이나 병원으로) 모셔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여기 요양원에서 절대로 임종을 못 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면서 여기서 임종하면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니까 긴박한 응급상황이 오면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전소현, 2023.1.12.)

“(입소할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드릴까요? 여쭙습니다. 그러면 연계된 병원을 보내주라! 어디 병원으로 보내주라. 이러거든요. 병원에 안 보내고 싶다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절차상 서류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요.”(이설화, 2023.1.19.)

“어르신 피부 색깔 같은 것, 또 손발 차갑고 그런 것 보면 어르신이 조금 힘들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다급할 때는 구급차 불러 이동하죠. 우리는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요. 하늘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죠.”(이춘희, 2023.1.19.)

문제는 임종 당사자, 가족 보호자, 돌봄노동자 사이의 연명의료에 대한 기대 혹은 인식의 불일치에 머물지 않고 인지증 당사자의 삶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데 있었다. 요양보호사 노은숙(2021.9.2.)은 “요양원은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살피는 장소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집처럼 편안히 지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세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므로 ‘하얀 거짓말’이 되었다. 이에 대한 죄책감은 요양보호사의 몫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인지증 진단이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간주되고, 그 기간 동안 오랜 병치레를 하다 보니 “요양원에서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다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빙글빙글 오가다 어느 지점에서 죽는” “연명 서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양영자, 2023: 318). 더욱이 현행

법상 보통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사망 후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없다. 모든 외상에 의한 죽음뿐만 아니라 병원에 도착한 지 24시간 안에 죽거나 경찰에 의해 ‘부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질 때도 반드시 법의학적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병사가 아닌 외인사(unnatural death)나 외인사로 의심되지만 자살, 타살 등의 구분이 어려운 불상으로 의심되면 경찰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요양시설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자는 요양시설을 마지막 여생을 보낼 ‘제 2의 집’으로 생각하고 입소하지만, 죽는 곳조차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몸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집과 유사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충만한 ‘제2의 집’처럼 만들려는 돌봄노동자의 노력은 마지막 장소가 아닌 죽음으로 가는 ‘간이역’이 되어 버린다. 전소현, 이설화, 이춘희가 말하듯이 ‘천국의 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늘요양원에서도 열리지 않는다. 요양원의 사망사고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하늘요양원을 비롯해 상당수의 요양원이 임종 돌봄, 완화의료, 호스피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요양원이 아닌 제3의 장소, 대개는 요양병원으로 이송한다.⁶⁾ 적절한 수명에 아픔 없이,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침실은 산소통, 산소마스크, 흡입기, 설압자, 기도 확보장치, 의료용소독기, 켈리, 핀셋, 소독가위, 소독캔, 멸균 세트 등 응급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다. 다인실을 특별침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수급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파티션이 갖춰야 하며, 임종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앞서 기술했듯이 요양원은 사후 경찰 조사와 기타 행정 및 법정 분쟁소송 등의 이유로 특별침실을 임종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편 2024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의 요양원에서 장기요양대상자를 위한 임종실 운영이 매우 절실한

타인 특히 자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평소 지내던 곳에서 편하게 죽기를 기대하는 노인들의 바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삶의 과정(강지연, 2022: 84; Glaser and Strauss, 2009)임에도 불구하고 생애말기 돌봄이 의료적 의사결정, 즉 삶을 연장해야 하는 생명의 관점에서 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죽음의 과정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돌봄노동자의 감정 그 이상의 노동은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불리 인지증과 사는 사람의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 규정)하기 보다는 돌봄노동자가 어떻게 ‘좋은 죽음’을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는 여기 지금 인지증과 사는 사람의 생애 말기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기에 질문은 생애말기 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수행되는가라는 의미와 실천으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돌봄노동자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좋은 죽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돌봄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제한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연명의료에 대한 가치관이나 방식이 인지증 당사자 혹은 보호자와 상이할 때 돌봄노동자는 어떤 감정 그 이상의 노동을 요구받으며, 이들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원의 임종실을 운영할 제도적·경제적 지원, 사망진단의 제도적 편리성, 요양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해 연명의료 없이 조용히 임종을 지켜보는 문화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24b).

7) 웰다잉 법 제정 이후 통증을 낮추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까지 포함하는 호스피스·완화돌봄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0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사회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원탁회의를 통해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NECA가 제시한 기본 원칙은 사람중심의 생애말기 돌봄 계획의 수립과 서비스 제공,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전인적·통합적 생애말기 돌봄 제공, 당사자의 평안과 안녕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이들의 요구와 선호를 존중, 국가의 생애 말기 돌봄 강화를 포함한다. 하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의료인, 돌봄노동자, 인지증 당사자, 가족 돌봄인 사이의 좋은 죽음을 둘러싼 이해와 실천은 일치하기보다는 상이하고 대립하기도 한다(김춘길 2018; 강영미 2023). 그래서 이 연구는 좋은 죽음에 관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현장에서 좋은 죽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상이한 상상과 실천의 마주침과 이에 상응하고 응답하는 조율의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어떻게 돌봄을 실천할까? 아래는 ‘따뜻한 기술을 따뜻한 손과 마음으로 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는 돌봄에 포함되지 않아 비가시화되고 인정받지 못한 연명의료 돌봄을 살펴본다.

6. 정동적 조율로서 돌봄

1) 돌봄을 추동하는 강도의 힘으로서 정동

“한번 경험하신 분은 다시는 안 하시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데 경험 안하신 분은 뭐랄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연명의료를 하시더라고요.”(이지현, 2023.3.30.)

이지현은 연명의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노동자나 가족 보호자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했다. 그렇지만 좀더 세밀하게 들어 가면 상황에 따라 대답은 또 달라졌다.

“보통 (가족분들이) 연명의료를 하더라고요. 살아계시길 원해요. 아니요! 저는 반대해요. 아프고 괴롭고 … 제 생각은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부딪친다면 안 하고 싶어요. 신랑하고 자주 얘기해요. 사는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얘길 많이 하는 편이에요. … 자식으로서는 더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프고 괴롭고 그게 아주 … 또 미래에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참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나숙현, 2023.2.2.)

나숙현은 연명의료는 선뜻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명의료를 통한 삶은 당사자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당사자에게는 “고통”이겠지만, 가족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함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무엇보다 미래

의 신기술에 대한 기대도 연명의료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상실의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며, 회복의 시간 또한 다르다고 했다 (Kübler-Ross and Kessler, 2000). 때론 그 공포와 두려움은 몸에 체화되고 배태되어 지워지지 않은 문신처럼 몸에 새겨지며, 트라우마라는 상흔을 남긴다고 했다. 한마디로 연명의료 돌봄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게도 큰 공포의 경험이겠지만 돌봄을 수행하는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며, 결코 쉽게 적응할 수도 없었다.

여기서 나는 나숙현이 돌봄을 수행할 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와 실천이 궁금했다. 나숙현의 응답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그 최선의 내용과 형식을 묻자 그 답은 상당히 복잡했다. 한마디로 사회구조적으로 부정의한 돌봄을 견뎌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임종을 극복함과 동시에 요양시설과 보호자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돌봄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명의료 돌봄에 관한 생각과 실천에도 응답해야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자신의 연명의료 돌봄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따뜻하고 살뜰하게 수행할 것을 ‘강권’하는 요양시설과 사회 분위기를 단순히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흑백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역동적 흐름, 즉 정동적·담론적 실천을 마주하였다. 이것은 절제된 언어, 자세, 태도뿐만 아니라 가족과 대화에서 조심스러움, 망설임, 애매호호함, 혹은 침묵으로 표현되고 수행되었으며, 명확히 규정하려 하면 사라지거나 다른 양태로 변하였다. 친밀감보다는 거리를 두는 듯한 이러한 돌봄은 언뜻 보면 당사자가 돌봄 대상으로 취급받아 소외될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기우일 뿐이었다.

태국의 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가능성이 고갈된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진에 관한 서보경(2025)의 연구는 친밀한 돌봄과 거리두기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조율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실천적

들을 제공한다. 우선 그에 따르면 신생아의 말기 돌봄은 집중치료실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삶과 죽음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을 무시하고 무한한 인류애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생아의 죽음을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입원 환자와 병상 수요, 아기 가족의 방문 여부, 병원 의료 자원 등 돌봄에 필요한 사회적·물질적 자원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평상시처럼 아기의 기저귀 돌봄과 수유를 준비하면서 죽음을 “이끌어 낼 순간”을 가늠하며 신생아실에서 맺어진 최초의 유대를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의도적인 동시에 즉흥적”이며 “직관적”으로 멈추는 “돌봄의 기예”를 의미한다(서보경 2025: 202-203). 여기서 내가 주목한 것은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취약한 신생아를 환대하도록 추동하는 “돌봄을 이끌어내는 힘”과 죽음에 다다른 신생아에 “매우 사려 깊지만 동시에 아주 무심하기도”한 의료진들의 ‘이중적’ 태도이다(서보경 2025: 206). 단적으로 낯선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는 선제한 사회적·정치적 상황, 의료·돌봄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의료제도가 자원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약한 존재의 즉각적인 요구를 알아차리고 응답하려는 의료진의 체화된 정동적 실천을 통해 의료의 공적 역할이 결정되며 이는 “관여와 단절이라는 관계 역학, 즉 잇기와 끊기”라는 어찌 보면 모순적 수행을 통해 드러난다(서보경 2025: 207).

서보경(2025: 30)이 주장하듯 돌봄이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간에 “이끌고 이끌리는 과정이자 결과라는 것,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서로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지금 인지증 돌봄노동자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할까? 특히 절제하는 듯 수행하는 하늘요양원의 연명의료 돌봄은 어떻게 기술할 수 있으며, 돌봄의 한 양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임종 돌봄이라는 점에서 서보경의 연구와 비슷하면서도 그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돌봄노동자의 근친자의 연명의료 돌봄 경험과 조우했

다. 이들의 연명의료 돌봄 경험은 처음에는 우연의 연임으로 다가왔다가 차츰 타인의 인지증 돌봄을 구성하는 데 필연적 얽힘으로 재구성되었다.

2) 과거가 추동하고 미래가 이끄는 현재의 돌봄

“부모인데 당연히 (연명치료를) 해야죠! 부모가 있어 내가 태어난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간병할 때 두 동생과 올케들한테도 안 맡겨놓고 저 혼자 했거든요. 내가 엄마 간병할 테니까 너희 동생 둘이 병원비를 충당해라. 그랬거든요. 아마 엄마 병원비로 한 2억 넘게 썼어요. 살리려고 1000만 원짜리 신약도 써보고… (돈 쓴 것을)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도리이고, 솔직히 잠도 못 자고 골병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도 거기까지 더라고요. 딱 2년 6개월! 간병했어요.”(고미순, 2023.3.16.)

고미순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도록 한밤중이든 이른 새벽이든 상관없이 불현듯 어머니가 생각나면 가슴이 뜨거워져 잠들지 못했다. 때론 무서운 줄도 모르고 혼자 공동묘지를 찾아가 어머니 묘 앞에서 한참을 울기도 했다. 고미순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담담한 기조로 더이상 이런 고통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누가 나쁘다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요양병원에 모시겠다.”라고 단언했다. 아무리 간병을 잘해도 부족함을 느낀다며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A병원에서 어머니를 2년 6개월 동안 돌보는 동안 잘한 결정 중 하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병원으로부터 150km 떨어진 고향으로 어머니를 전원해서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밤을 지내도록 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윽고 고미순은 자기 부모도 제대로 못 모셨는데 어떻게 남을 타할 수 있겠냐며 대신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면서 당사자와 가족 보호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실이 어떻게 작동되는

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일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예상되는 슬픔에 대한 돌봄은 도덕 법칙이나 요양시설의 내규를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조율하는 윤리적 실천이었으며, 이는 어머니의 ‘앰블런스 귀향’처럼 주어진 현실에서 또 다른 연결 가능한 업힘을 찾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엄마는 3개월 계시다가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콧줄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식사도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밥도 잘 잡수셨어요. 그랬는데 새벽 한 시 됐는데, 그날 머리 손질도 하고, 목욕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문을 왔다 갔다 세 번 정도 하시고, 침상에서 그냥 주저앉으셨다고 하는데, 한 시쯤인가 원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쉽게 가셨어요. … 치매가 있어서 쉽게 돌아가신 것이 우리 가족들은 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주 얼마나 욕을 하고 그러셨는데 잘 가셨다고 하시는데, 자식으로서는 너무 그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가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쉬워서 그렇게 빨리 가 버리는가 싶고 너무 아쉬웠어요.” (김소희, 2023.3.9.)

어머니를 자신이 일하는 하늘요양원으로 모셨던 김소희는 똑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돌보며 뭐라도 좀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하지 못한 자신을 떠올렸다. 실제로 김소희는 어머니가 하늘요양원에 머물렀던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일 문안도 드리며, 일도 하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서 “효녀”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갈수록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었고, 급기야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더니 딸이 다가가려고 하면 “서방 도둑년”이라며 욕설하였다. 김소희는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어머니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동료의 조언에 따라 거리를 두고 어머니를 지켜보며 한숨만 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를 3개월, 김소희는 눈물조차 말랐다. 하지만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누가 볼까 살펴가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닦았다. 거짓말처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황망하게 돌아가셨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편안하게 잘 돌아가셨다.”라고 말했지만, 악다구니를 부리며 욕설하던 어머니를 좀더 잘 보살필 수는 없었을까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잘 가시라!” 한마디 못한 것이 가슴에 맺혀 잊을 수 없는 한으로 남았다.

그즈음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콧줄을 낀 채 결박된 모습을 딸과 함께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던 기억이 겹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외할아버지께 차마 말도 못 걸고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만약에 저렇게 다룬다면, 나는 절대로 요양원 못 보낸다. 엄마 저것이 무엇이냐고 외할아버지를 왜 저렇게 묶어놓고 뭘 죄인처럼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줄도 모르나며 “아휴 하기 좋은 말이다. 엄마가 저 정도 되면 너는 하루도 못 모실 것이다.”라고 애써 웃음을 지었다. 같은 돌봄노동자로서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기에 “정말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모님 모두 “여기(요양원)가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두 분 모두 임종이 다가오자 또 다른 생면부지의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어 생의 마지막을 낯선 곳에서 맞이해야 했던 현실을 씁쓸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애석해했다.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어찌겠어요. (연명의료를) 하셔야지. 근데 콧줄은 제가 생각할 때 생명 연장일 뿐이잖아요. 또 본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여기도 연명의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데 콧줄을 거부하는 것은 보통 독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살아 숨을 쉬고 계시는데, 콧줄을 안 하면 입으로 삼키질 못하잖아요. 참 결정하기가 애매하겠더라고요. … 그래서 혼자보다는 대개 보면 가족 전체가 모여서 (결정) 하시고도 하고, 아예 당사자가 나는 연명의료 안 받겠다고 미리 자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연명의료를 할 상황을 마주치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참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 분명한 것은 본인한테는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김소희, 2023.3.9.)

김소희는 하늘요양원의 연명의료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묻는 말에 “최대한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도록 노력한다.”라며 연명의료를 원하시는 가족과는 별말 없이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늘요양원 돌봄 내규에 따라 일부러 가족을 만나 대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지만, 일부러 그런 대화를 회피하지도 않았다. 다만 혹시라도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생각이 겉으로 나타날까 봐 조심했다.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와 대화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썼다. 물론 김소희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조언을 할 수 있는 처지도 능력도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명확하게 규정지를 수 없지만 ‘그건 아닌데!’ 하면서 연명의료 경험자로서 당사자를 위해 뭔가를 해 보고자 노력했다.

“친정 부모한테 닥친 거죠. (요양원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했어요. 동생과 오빠가 동의해서 (연명의료를) 하긴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후부터 절대로 ‘나는 연명의료를 안 한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와 남동생이 강하게 주장하니까 자식 말을 따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경험해서 더 이상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뭐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명의료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걸린 문제라서요.” (정압록, 2024.3.8.)

정압록은 연명의료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92세였던 시아버지의 응급상황과 다르게 전개되었던 아버지의 임종을 떠올렸다. 시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인천 B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목숨을 보전하는 상황이었다. 임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의 몸은 알 수 없는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중환자실로 들어갈 것이냐, 임종실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수녀인 시누가 “임종실로 갑시다. … 자연사하게 놔주세요.”라고 짧고 명료하게 말했다. 형제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눈

치였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연명의료 합시다.’가 의미하는 말의 무게와 그에 따른 책임을 잘 알고 있기에 선뜻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막내며느리였던 정압록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침묵으로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임종실로 시아버지를 모시자, 의료진들이 인공호흡기를 포함해서 생명 유지 장치를 차례로 제거했다. 정압록은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정압록은 순간이었지만 이것이 시아버지께서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것처럼 보였다. 곧이어 다른 친척들이 임종실을 방문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때 친척들끼리 “얼마 못 사시겠다. 얼마 안 남았다.”라고 속삭이며 나누던 대화를 듣던 시아버지께서 반응한 것을 정압록은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하며 다시 말문을 연 정압록은 시아버지께서 다리를 쭉 뻗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다고 했다. 정압록은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눈가에 힘을 주는 시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체감했다. 그러면서 장남이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냥 가시라고, 미련 갖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말한 것이 서운했던 지 장남이 임종실을 나가자마자 눈물을 보이던 시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뚜렷이 기억했다. 정압록은 시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버님 편히 가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라고 말을 건넸다. 쓰다듬고, 닦아내고, 주무르고, 어루만지던 손길을 통해서 시아버지의 거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것이 시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단순한 물리적 접촉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시아버지는 눈을 크게 한 번 뜨더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압록은 그때 연명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정압록은 남자 형제들이 주도한 아버지의 연명의료 돌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았듯이 손으로 마음으로 눈물로 함께 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정압록의 이러한 생애말기 돌봄 경험은 하루를 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 즉 삶에 초대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종이 다다른 어르신을 마주할 때마다 무섭기도 하지만 오줌과 똥의 색깔, 냄새, 양을 확인하고 호흡소리와 주기를 살피고 몸을 살며시 두드리거나 체중과 체온을 느끼고 또 전달하며 함께 있음을 실천했다. ‘좋은 죽음’이란 비싼 주사를 놓고, 기계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나숙현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고, 고미순에게는 여기-지금 가장 필요한 의미 있는 ‘연결’이었으며, 김소희에게는 생애 마지막 여정에 뭔가를 함께 해보려는 “노력”이었다.

물론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 장소, 시간 등 맥락에 따라 합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강지연, 2022: 105). 그렇지만 최소한의 임종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살고자 노력하는 당사자를 존중하는 것은 돌봄노동자 김화진(2022.3.1.)이 말하듯 “인간의 본능”이며 존중받아야 할 것이었다. “제발 저수지까지만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던 어르신들이 마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날로부터 “한 사람도 거리에 돌아다니시질 않고”, “지나가는 개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농담이 아닌 사실이었다. 김화진은 어르신들이 신체적 죽음 이전에 고독과 외로움에 따른 사회적 죽음을 알아달라고 절규하는 것이라며, 사람답게 함께 어우러져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돌봄노동자의 연명의료 돌봄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노동 그 이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을 소환하고 미래의 상실을 끌어당겨 서로 엮고 공명하며 파동 치면서 확산되는 정동적 삶의 연속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늘요양원에서 돌봄노동자는 연명의료 인지증 당사자와 보호

자의 채울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을 기계적으로 보충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돌봄 방식이나 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어진 일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았으며, 선불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았다. 인지증 당사자나 보호자를 드러나게 비판하거나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돌봄 제공자 혹은 돌봄 수혜자 어느 한쪽에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상실의 아픔을 ‘무덤덤하게’ 보듬고 삶으로서의 죽음/죽어감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함께하고자 분투했다.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상이한 가치관과 돌봄의 얽힘에 따라 관계의 구성을 달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 가능성을 모색했다.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종의 순간까지 더불어 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분투했다.

클얼리(Cluley 2018)의 생성적 돌봄(becoming-care)은 이 점에서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마주침의 가능성과 역학을 잘 보여준다. 연명의료 돌봄 현장으로 좁혀보면, 돌봄은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친인척 및 가족 구성원의 상실에 대한 준비와 그에 따른 감정들, 요양시설의 접근성, 종교적 신념, 임종과 관련된 사회적 제도·규범·도덕, 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요양시설의 임종 메뉴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히면서 생성·발전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연명의료를 죽음과 나뉘어 같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명의료 개입을 결정짓지 못하지만 살고자 분투하는 당사자와 살리고자 하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간과하게 된다. 설령 연명의료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단순히 부도덕하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나는 ‘따뜻한’ 말, 표정, 감정이 없어 수동적 혹은 부정적으로 비춰지며 인정받지 못한 이러한 돌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12명의 돌봄노동자의 목소리와 움직임에는 겉으로 내놓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조심하면서 억제하듯 말하고 표현하는 정동적·담론적 실천을 포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채울 수 없었던 연명의료 돌봄에

대한 욕심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보지 않아도 보이는 연명의료의 ‘구명’, 즉 죽음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초대된 죽음을 함께 함으로써 여기-지금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작업을 묵묵히 실천했다. 이 점에서 돌봄노동자는 연명의료를 피할 수 없는 예상 가능한 돌봄의 한 양식으로 인식하지만 도래하는 죽음을 연장하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돌봄노동자는 예상되는 상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지만, 동일시하지 않았으며, 지나친 감정이입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 가능한 돌봄을 상상하고 실천했다. 여기서 ‘좋은 죽음’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따라야 하는 도덕적 명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 관계의 얽힘에 따라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성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구체화되었다.

한마디로 돌봄노동자의 정동적·담론적 실천은 삶과 죽음의 인식론적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상실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전유하는 정동적 조율을 보여준다. 이는 예상 가능한 상실에 상응하며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윤리적 실천이자 생존전략이자 정치적 인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생애 말기 돌봄, 특히 연명의료 돌봄에서 수행되는 절제되고 거리를 두는 듯한 돌봄을 비전문가적 실천으로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돌봄노동자는 도래하는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실로 전유하고 단순히 생명 연장에 매몰되지 않고 여기-지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모색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그리고 임종 돌봄이 단순히 생명 연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명의료 돌봄을 비판적으로 확장한다.

7. 결론

지난 팬데믹 동안 내가 만났던 돌봄노동자는 연명의료 돌봄은 감정 그

이상의 노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생애말기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충격에 대한 상담과 애도, 그리고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따른 부담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연명의료를 반대하지만, 연명의료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돌봄노동자의 도덕적 딜레마와 이에 상응하여 어떻게든 응답하려는 일상의 윤리적 실천은 소홀히 취급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돌봄대화 중에는 연명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지만, 돌봄 현장에서 연명의료 돌봄을 회피하기보다는 무언의, 절제되고, 무심한 듯 수행하는 돌봄에 주목했다. 그리고 단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방식과 상이한 돌봄 자원의 분배와 배치가 추동하는 돌봄의 역동성을 포착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죽음이 ‘좋은 죽음’을 인도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막상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에는 연명의료 결정에 한없이 주저하고, 멈춰서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나는 돌봄과 돌봄대화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사회적·물질적 마주침에서 생성하고 발전하는 정동적·담론적 실천(de Antoni and Dumouchel, 2017; Wetherell, 2012; 2013)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대화를 통해 마주하는 신체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묘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돌봄 양식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돌봄노동자는 직업적 책임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연명의료와 같은 인위적인 생애말기 돌봄을 수행하면서 감정적 변이와 정동을 경험했다. 여기서는 돌봄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이한 앎과 지식이 충돌하며 수행되는 돌봄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돌봄노동자의 신체를 통해 체화되고 배태되어 가시화되도록 추동하는 권력의 흐름을 제시했다. 나아가 돌봄 제공자와 돌봄수혜자의 마주침은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돌봄을 구성하는 사회적·물질적 요소들의 상응과 조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돌봄되기’임을 확인했다(Cluley, 2018). 특히 이 과정

에서 따뜻한 말과 태도로 요약할 수 있는 돌봄과는 상이한 몸가짐, 태도, 표정, 언설이기에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언어화되지 못했지만, 연명의료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비)언어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변이 되어 수행되는 정동적 실천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는 콜센터 노동자나 승무원처럼 훈련된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과 말을 사용해야 하는 감정 그 이상의 노동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었다.

다른 서비스 노동자와 다르게 하늘요양원의 돌봄노동자는 언뜻 보면 무덤덤하고, 무표정하고, 신경을 덜 쓰는 듯한 절제된 태도, 행동, 말을 통해 돌봄을 실천했다. 자신의 부모를 모신 다른 요양원처럼 연명의료 당사자가 무심결에 콧줄을 빼버릴 것을 염려해서 미리 두 손을 묶지도 않았다. 살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한 마지막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손으로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위로했다.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과정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곁에 있어 줌으로써 외롭지 않은 동행자가 되고자 애썼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요양원의 연명의료 돌봄은 더이상 밖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폐쇄적이거나 제한적인 정동의 부족이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동적 실천을 새롭게 동기화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내가 돌봄노동자의 때론 수동적인 것처럼, 때론 모순적이며 양가적인 것처럼 묘사되는 돌봄을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정동적 조율로서 연명의료 돌봄은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돌봄 방식을 찾고자 분투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또 하나의 윤리적 실천이자 상황적·관계적·체화된 돌봄의 한 존재양식이다. 나아가 인지증 돌봄노동자가 다른 일상적인 돌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동적 조율로서 인지증 연명의료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의 한 양식으로 인정받고 확장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가 돌봄노동자의 정동적·담론적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인지증 당사자가 돌봄을 어떻게 추동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가완다, 아툴(저). 김희정(역). 2015.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서울: 부·키.
- 강영미. 2023. “요양 시설에서 치매노인의 죽음을 겪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체험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7: 95-119.
- 강지연. 2021. “활성화되는 시간 말기와 말기돌봄의 시간성: 서울 한 상급종합병동 말기암 병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4(2): 53-96.
- _____. 2022. “말기의 이동 경로와 돌봄의 한 형태로서의 전원.” 『한국문화인류학』 55(2): 77-131.
- _____. 2024. “죽어가는 이를 돌보는 실천은 무엇을 향하나: 생애 말기의 관계·생성적 돌봄.” 『한국문화인류학』 57(1): 3-54.
- 강태우. 2024. “말기 치매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76: 1-46.
- 권명아. 2012.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서울: 갈무리.
- 김관옥. 2018. “미소 띠는 ARS: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으로 본 콜센터 여성 상담사의 감정 ‘이상의’ 노동.” 『한국문화인류학』 51(1): 51-95.
- 김송이. 2012.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 연구: 감정노동과 관계적 노동 속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2(1): 103-136.
- 김은경. 2022.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 경험과 역할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5): 503-517.
- 김춘길. 2018. “요양보호사의 삶의 목적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지도가 재가치매노인 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20(2): 57-66.
- 들뢰즈, 질·펠릭스 가타리. 2001.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라미정·강희숙·김명숙. 2016. “방문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7(1): 37-71.
- 린치, 캐슬린·존 베이커·모린 라이언스(저). 강순원(역). 2016.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파주: 한울아카데미.
- 마수미, 브라이언(저). 조성훈(역). 2018. 『정동정치』. 서울: 갈무리.
- 박정연. 2023.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결정 지원과 돌봄의 연계적 고찰.” 『법학논총』 56: 165-206.
- 박형신·정수남. 2009.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이론』 15: 195-234.

- 박홍주. 2006. “감정노동,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인물과 사상』 11월호, 인물과 사상사, 84-96.
- 서보경(저). 오숙은(역). 2025. 『돌봄이 이끄는 자리: 모두를 위한 의료와 보살피는 삶의 인류학』. 서울: 반비.
- 송병기. 2023. 『각자도사 사회』. 서울: 어크로스.
- 스튜어트, 캐슬린(저) · 신해경(역). 2022. 『투명한 힘: 꿈, 유명 혹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 서울: 밤의책.
- 안은숙 · 이진숙. 202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41(2): 198-221.
- 양영자. 2023. “종사자를 통해 본 요양원 입소노인의 죽어감과 죽음: 매뉴얼화된 죽어감과 죽음.” 『비판사회정책』 81: 309-352.
- 오미경 · 이재모. 2023.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노인 죽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31(3): 63-95.
- 이여진 · 강영숙 · 권성복 · 김주현 · 박영숙 · 손행미 · 이은희 · 임난영 · 조경숙 · 한혜자. 2010.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평가.” 『한국간호학회지』 40(6): 872-881.
- 이지은. 2020. “‘연명’이 아닌 삶: 중증치매에서 경관급식 실행의 윤리적 문제들.” 『과학기술연구』 20(3): 1-29.
- 정종민. 2020. “인지증(치매) 연구와 지도제작적 민족자: 영국의 오소독스 유대인 요양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3(3): 489-521.
- _____. 2022. “비접촉시대에 돌봄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위태로운 기술로서 정동적 부정의.” 『한국문화인류학』 55(3): 321-363.
- _____. 2023a. “결여/부재의 정동적 욕망: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 요양보호사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68: 225-246.
- _____. 2023b. “큰일하는 인지증과 사는 사람들: 관계의 강도로서의 정동노동.” 『비교문화연구』 29(2): 239-277.
- _____. 2023c. “똥, 고름 그리고 영혼: 환대 (불)가능한 인지증 돌봄에서 영혼과 정동적 관계 맺기.” 『한국문화연구』 45: 141-174.
- _____. 2024. “스마트 기저귀와 인지증(치매)돌봄: 정동적 기술적 접촉의 연결 (불)가능성.” 『생명연구』 73: 139-168.
- 제철웅 · 김효정 · 박인환. 2019. “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의생명과학과 법』 21: 81-107.

- 흑실드, 앨리 러셀(이기람 역). 2009(1983). 『감정노동』. 서울: 이매진.
- 홍소연. 2005.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의 기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8(1): 44-59.

(2) 국외문헌

- Bond, John. 1992. “The Medicalization of Dementia.” *Journal of Aging Studies* 6(4): 397-403.
- Boyle, Geraldine. 2014. “Recognising the Agency of People with Dementia.” *Disability & Society* 29(7): 1130-1144.
- Cluley, Victoria. 2020. “Becoming-care: Reframing Care Work as Flesh Work not Body Work.” *Culture and Organization* 26(4): 284-297.
- Damasio, Antonio R. 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California: Harcourt Brace.
- De Antoni, Andrea and Paul Dumouchel. 2017. “The Practices of Feeling with the World: Towards an Anthropology of Affect, the Senses and Materiality.” *Japanese Review of Cultural Anthropology* 18(1): 91-98.
- Glaser, Barney and Anselm L. Strauss. 2009(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NY: Aldine.
- Ha, Jung-Hwa and Changsook Lee. 2019. “The Need for Advance Care Planning for Individuals with Dementia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3): 41-72.
- Ingold, Tim. 2011.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Taylor & Francis.
- Jeong, Jong-min. 2020. “Please Call My Daughter’: Ethical Practice in Dementia Care as an Art of Dwelling.”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10(2): 530-547.
- Kübler-Ross, Elisabeth and David Kessler. 2005. *On Grief and Grieving: Finding the Meaning of Grief Through the Five Stages of Loss*. New York: Scribner.
- Largent, Emily A., Jane Lowers, Thaddeus Mason Pope, Timothy E. Quill and Matthew K. Wynia. 2024. “When People Facing Dementia Choose to Hasten Death: The Landscape of Current Ethical, Legal, Med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Hastings Center Report* 54(S1): S11-S21.
- Shildrick, Margrit. 2018. “Re/membering the Body.” Cecilia Asberg and Rosi

- Braidotti(eds). *A Feminist Companion to the Posthumanities*, London: Springer, pp. 165-174.
- Wetherell, Margaret. 2012. *Affect and Emotion: A New Social Science Understanding*,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2013. "Affect and discourse - What's the Problem? From Affect as Excess to Affective/Discursive Practice." *Subjectivity* 6(4): 349-368.
- Witz, Anne, Chris Warhurst and Dennis Nickson. 2003. "The Labour of Aesthetics and the Aesthetics of Organization," *Organization* 10(1): 33-54.
- Zigon, Jarrett. 2007. "Moral Breakdown and the Ethical Deman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 Anthropology of Moralities." *Anthropological Theory* 7(2): 131-150.
- _____. 2010. *"HIV is God's blessing": Rehabilitating Morality in Neoliberal Rus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 학술대회 발표문

- 김종우. 2012. "감정노동은 어떻게 감정노동이 되었는가: 한국의 중앙일간지 보도와 감정노동 담론형성 유형." 한국사회학회 2012년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소통과 전환의 사회학」(2012.6.22.~23), pp.981-997.

(4)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2024a. "연명의료결정제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3040200>, [검색일: 2025.2.28.]
- 보건복지부. 2024b.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내 임종실 설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200&bid=0027&act=view&dist_no=1482406&tag=&nPage=1 [검색일: 2025.2.28.]
- 이현정. 2024.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24/04/03/20240403001007> [검색일: 2025.2.28.]

Abstract

Affective Attunement of Care workers in Life-sustaining Dementia Care

Jeong, Jong-m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moral challenges care workers face when there are discrepancies in values and approaches to life-sustaining treatment between caregivers, care facilities, individual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and guardians. It describes and analyses how care workers respond to and attune to and address the aforementioned dilemmas. To this end, this study does not approach life-sustaining care as a unilateral transfer from the care provider to the care recipient. Rather, it is regarded as a constantly changing relational and generative phenomenon,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s and power between the multitude of elements that constitute care. In this study, 12 care worker' discourses and narrative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palliative care, dying, and death from care convers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ffective and discursive practices. This reveals how the experience of life-sustaining care for close relatives in the past intertwined with the expected death of others here and now, and how this shapes the current care. In this process life-sustaining care, which has been marginalized for not being “warm hands and warm hearts with warm skills”, is demonstrated as a viable form of care that is delivered with a dry voice, impassive facial expressions, and restrained emotions. Furthermore, this study repositions it as the situated, relational, and embodied ethical practice that does not merely

passively waits for death or prolongs life but strives to find new connection so that the here and now becomes more meaningful.

Key words: life-sustaining treatment, care, affective attunement, moral dilemma, ethical practice

- Ⅵ 투 고 일 : 2025년 3월 7일
- Ⅵ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Ⅵ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일본 근세 배경 작품 속 여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오오쿠(大奥) 작품 속 여성인물의 SDGs 공헌과
발전방향 과제*

김정호**

| 목차 |

- | | |
|---------------------------------|------------------------------------|
| 1. 역사 작품 속 여성 주인공의
가능성 | 3. 여성 서사의 해체, 그리고
다시쓰기 |
| 2. 남성에 의해서 형성된 고전 속
여성상(女性像) | 4. 맺음을 대신하며: 오오쿠의 SDGs
공헌과 발전과제 |

| 초록 |

본 연구는 일본 근세 시기 에도 막부의 금남 구역인 오오쿠(大奥)를 배경으로 한 문학·드라마 작품들이, 어떻게 여성 서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현대적 성평등 가치(SDGs Goal 5)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를 시작으로, 2000년대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 그리고 2024년판 대하 드라마 〈오오쿠〉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은 단계적으로 남성 중심적 질서와 여성 억압 구조를 해체해 왔다. 특히 2024년판 〈오오쿠〉에서는 여성들이 단순한 희생자나 음모의 주체를 넘어, 오오쿠 내부와 막부 정치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라는 현대적 의제를 드라마의 핵심 주제로 삼는다. 이는 출산·육아에 대한 통제, 가족제도 내 성역할 규범, 여성 간 경쟁과 연대 등 다양한 문제를 사극 서사 속에 긴밀히 엮어, SDGs Goal 5의 주요 지향점(여성의 정치·경제·공적 영역 참여, 성·재생산 권리, 성평등 의식 고양 등)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여성 서사의 재구성’은 과거 역사 사건을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kimjungho@knu.ac.kr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대중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오오쿠(大奥), 해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성평등, 사극, 역사 재구성,

1. 역사 작품 속 여성 주인공의 가능성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은 근대로 전환되기 전 유교 주자학 이념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이는 단순히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토대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 위계를 제도화하여 가부장적 권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논리로 작동해 왔다. 특히 일본 무가(武家) 사회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여성은 주로 「봉공(奉公)」과 「헌신(獻身)」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에 종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도시대 에도성 내부에 존재한 오오쿠(大奥)는, 쇼군(征夷大將軍) 한 사람만을 위해 여성만이 거주하도록 제한한 금남구역으로서, 가부장제와 유교적 가치가 집약된 상징적 공간이었다. 기존 남성 중심 역사 기술에서 오오쿠는 주로 권력 투쟁의 무대나 이색적 궁중 공간으로 그려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해당 공간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극·문학 작품들이 급증하면서, 남성 중심 서사를 탈피하고 여성의 다면적 역할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이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Goal 5¹⁾와 결부되어, 역사 재현을 넘어 현대적

1) SDGs Goal 5는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Achieve gender

성평등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 가부장제와 여성 억압 구조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수복(修復)·확장되어 가는지 고찰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본 근세를 배경으로 한 오오쿠 작품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 아래 억압된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독자적 주체성과 자율적 목소리를 회복해 왔는지를 밝히고, 이와 같은 서사적 변화가 현대 SDGs Goal 5와 어떠한 접점을 이루며 향후 사극 작품이 여성 권한 강화와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분석 및 비교 역사적 접근을 통해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舟橋聖一)의 『에지마 이쿠시마(繪島生島)』, 2000년대 아사노 다에코(淺野妙子)의 『오오쿠(大奥)』, 그리고 2024년 대하 사극 드라마 〈오오쿠(大奥)〉 등 대표 작품을 선정하여, 시대별 여성 인물들의 서사 구조와 갈등, 그리고 변화 양상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분석 지점은, 유교적 가치관이 「봉공」과 「헌신」이라는 미덕으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정당화해 왔는지를 포착한 뒤, 여성주의적 재해석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새롭게 부각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오오쿠라는 공간은 에도 막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막부와 함께 존속해 왔으며, 가부장적 질서가 집약된 특수한 장소로 간주된다. 실제로, 에도 성이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徳川家綱)의 치세에 이르러 대부분 완공되었음에도(中江克己, 2010: 112), 오오쿠 내부 사정은 오랜 기간 일반인들에게 소문 형태로만 전해졌다. 이는 오오쿠에 봉공하던 여성인 오쿠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목표로 삼는다. 이는 2015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5번째 항목으로서,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유엔 공식 문서 참조) 이를 통해 법·제도·관습·문화적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지향한다. UN은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각국 정부·시민사회·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조추(奥女中)에게 외부 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 오오쿠법도(大奥法度)와 오세이시 마에가키(御誓詞前書)라는 비밀 서약서가 큰 역할을 했으며(菊池駿助, 1931: 87)²⁾, 이러한 금남 구역 특유의 비밀스러운 성격은 당시의 사건과 소문을 기록한 사료인 『후지오카야 일기(藤岡屋日記)』³⁾에서도 분명하게 찾아보기 어렵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세기에 금단의 공간이었던 오오쿠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실제로 1714년에 일어났던 에지마(繪島)와 이쿠시마 신고로(生島新五郎)의 밀회사건을 재구성한 가부키(歌舞伎), 그리고 이후 근현대 문학·드라마의 등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쓰노 신(勝能進)의 가부키 『에도 무라사키 도쿠가와 겐지(江戸紫徳川

2) 오오쿠(大奥)에 봉공하는 여성(오쿠조추, 奥女中)들에게 적용된 7항목의 봉공 서약서와 10개 조항의 ‘오오쿠 법도(大奥法度·女中條目)’는, 에도 시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행동과 언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부 규칙이었다. 주요 내용은 “공적인 봉사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 “악의나 음모를 품지 말 것”, “오오쿠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 “동료 간에 불필요한 증상이나 암투를 하지 말 것”, “사사로운 교제와 오만한 태도를 경계할 것”, “음탕한 행위를 삼가고, 외출 시에도 유흥 목적의 장소를 방문하지 말 것”, “각자의 행실을 바르게 유지하며, 각 방의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서약과 법도는 오오쿠 내부를 철저히 봉쇄된 공간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오쿠조추들의 생활과 행동을 유교적 ‘봉공(奉公)’ 및 ‘헌신(獻身)’의 미덕 아래 복종시키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 御奉公の儀、實義を第一に仕え、少しもうしろぐらき義致間敷候、よろづ御法度のおもむき堅相守り申べき事。— 御爲に對し奉り惡心を以申合わせいたすまじき事。— 奥方の儀、何事によらず、外様へ申すまじき事。— 女中方之外、おもて向願がましき義、一切取持ち致まじき事。附、御威光をかり、私のおごりいたすまじき事。— 諸傍輩のかげことを申、或は人の中をさき候やうなる義仕るまじき事。— 好色がましき儀は不レ及レ申、宿下りの時分も物見遊所へまいるまじき事。— 面々心の及び候程は、行跡を嗜み申すべき事。附、部屋々々火之元念入申べき事。

3) 『藤岡屋日記 第三卷(藤岡屋 由藏·嘉永二年(1849)記)』는 에도의 사건과 사고를 기록한 사료로, 오오쿠와 관련된 내용은 당시 오쿠조추로 봉공했던 아내가코지(姉小路)를 암시하는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 있다. 「竹齋娘ト有之ハ綾小路ト申老女也當時之大キケ物ニテ役人之進退等多分ハ此人之指揮ニアリ。」

源氏』(1881),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의 『에지마 이쿠시마(江島生島)』(1916) 등은 오오쿠를 대중 서사로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김정호, 2024a), 1953년부터 후나바시 세이이치가 도쿄신문(東京新聞)에 연재한 소설 『에지마 이쿠시마』는 근대 문예 분야에서 오오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더욱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오오쿠에 관한 연구들은, 예컨대 『지오다성 오오쿠(千代田城大奥)』(永島今四郎, 太田贊雄, 1892)나 『고텐조추(御殿女中)』(三田村鳶魚, 1964) 등에서 주로 그 내부의 정치적 구조와 여성 역할을 토대로 토대 연구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오오쿠가 단순한 권력 투쟁 무대가 아니라 여성 시각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공간임을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고(竹内誠·深井雅海·松尾美恵子, 2015; 福田千鶴, 2020), 오오쿠를 배경으로 한 만화는 남녀역전이라는 가상 세계를 설정해 여성 쇼군을 등장시킴으로써 젠더 질서 자체를 흔들었고⁴⁾, NHK 사극 〈아쓰히메(篤姫)〉에서는 여주인공인 쇼군의 정실(御台事)인 덴쇼인(天璋院)이 쇼군과의 합방(合房)을 거절할 만큼 자율적인 여성으로 그려지는 등, 전통적 가부장 틀을 넘어서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⁵⁾ 결국, 오오쿠를 제재로 한 작품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역사적 비극성, 새로운 젠더 해석, 근대 이후의 반복적 문예화 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론적 프레임워크(Framework)로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deconstruction) 이론⁶⁾을 적용하여 남성 중심 권력 구조와 ‘의무’, ‘정

4) 요시나가 후미(よしながふみ)의 만화 오오쿠(大奥)는 하쿠센샤(白泉社)의 2004년 8월 『MELODY』에 게재되어 2021년 2월까지 발표된다.

5) 2008년 1월 6일부터 12월 14일에 걸쳐서 방송된 쇼군의 정실부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47부작 NHK 대하 드라마이다.

6) 해체 이론(解體理論)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제창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텍스트나 사상이 내포하는 모순과 불안정성을 드러내어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1967년 출간된 데리다의 저서 『그라마톨로지(De la grammatologie)』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다. 해체 이론은

남' 등 고정된 규범이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분석하고, 서발턴(Subaltern) 이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주변부로 취급되던 여성 인물들이 억압을 딛고 역사적 주체나 문화적 실체로 부상하는 과정을 규명하며, 동시에 페미니즘적 시각(특히 '목소리'를 잃은 여성들의 서사 복원)에 주안점을 두어 텍스트 속 여성 인물들의 발화와 실천이 어떻게 새로운 '맥락'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면밀히 고찰한다.

이처럼 에도 막부 성립(1603년) 이래 오랜 기간 금남 구역으로 남았던 오오쿠는, 여성 서사의 재조명과 함께 근현대 문학·연극·드라마 전반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전환 국면에서 발전한 것으로, Ferdinand de Saussure와 Claude Lévi-Strauss의 언어학·인류학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적 사유와 Friedrich Nietzsche의 '진리'에 대한 해체적 관점을 철학적 토대로 삼는다. 해체 이론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차연(différance): 의미가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에 의해 구성되며, 동시에 항상 지연·유보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 비판: 서구 철학이 '본질주의'나 '이분법적 사고(중심/주변, 긍정/부정 등)를 전제로 위계적 구조를 형성해온 점'을 비판한다. 텍스트 중심성: 모든 현상을 해석 가능한 텍스트로 간주하며,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를 부정하고 다층적 해석 가능성을 강조한다. 해체 이론은 텍스트가 놓인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문학 비평에서는 고정된 해석을 거부하고 열린 독해를 지향한다. 예컨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는 언어의 모호성과 다층적 의미를 탐구하는 문학작품으로, 해체 이론의 대표적 적용 사례로 꼽힌다. 또한, 해체 이론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저자의 죽음' 개념과도 연결되며,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와 문맥에 의해 구성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또한 국가(네이션)라는 개념을 텍스트와 상상력이 만들어낸 구성물로 파악하면서, 해체적 관점으로 그 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처럼 해체 이론은 철학·문학·사회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주어, 고정된 의미나 가치관을 재고찰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오쿠(大奥)를 배경으로 한 사극·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간주하여,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와 여성 주체성 간의 위계와 이분법을 해체해 보는 데 이 이론을 적용한다. 특히, 오오쿠 작품 속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변화(subaltern)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작품의 언어·서사·맥락 속에서 어떠한 다층적 의미로 재구성되는지를 해체적 독해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근세 일본 사극 장르가 지닌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 구현 가능성을 대중문화와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확장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점차 확대된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여성 시각에서의 오오쿠 재해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이 공간이 단순한 권력 투쟁 무대나 궁중 이색담을 넘어 가부장 질서에 억압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재구성하는 장(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녀역전이나 쇼군 정실의 합방 거절 등 파격적 설정은, 그간 ‘봉공’과 ‘헌신’의 미덕 아래 침묵을 강요받아 온 여성들이 어떻게 현대적 젠더 담론, 나아가 SDGs Goal 5라는 국제사회의 성평등 비전에 부응하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와, 데리다의 해체 이론 및 서발턴 이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한 페미니즘적 관점을 결합하여, 오오쿠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발현하고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 2000년대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 2024년 대하드라마 〈오오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작품은 시대와 매체는 다르지만 모두 오오쿠를 배경으로 여성의 억압과 연대를 중심으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시대별 젠더 재현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 구성을 채택하였으며, 반면 오오쿠를 단순한 궁중담이나 권력 음모로만 다룬 작품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근세 일본 사회의 여성 억압 구조가 어떻게 현대 사극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남성에 의해서 형성된 고전 속 여성상(女性像)

본격적으로 오오쿠 관련 작품(제3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일본 고전에서 여성이 어떠한 시각으로 그려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 고전은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남성 위주의 권력·제도 속에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주체성’을 표현하거

나, 반대로 어떤 측면에서 억압당했는지를 은유적·우회적으로나마 담아 낸 역사를 지닌다. 다만, 이러한 고전 서사 대부분은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중심 담론을 통해 기록되었기에, 여성 인물을 「질투」나 「불안정성」 등 부정적인 정념과 주로 연결 짓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중세·근세 시기의 문헌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남성 작가들이 여성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재현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이는 이후 에도 시대 오오쿠 텍스트(제3장)에서 드러나는 여성 서사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2.1 여성의 전유물: 질투

「질투(嫉妬)」라는 감정은 본디 남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정념(情念)임에도, 동아시아—특히 근대 이전 일본—에서는 주로 「여성에게 귀속된 병리적 감정」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질투」의 한자를 보면 모두 ‘계집 녀(女)’ 부수가 붙어 있는데, 이는 남성 중심 사회가 질투를 ‘여성이 시기로 인해 생긴 병’으로 치부하며, 여성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장치였음을 보여준다.⁷⁾

중세 시기의 설화집(『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훗신슈(發心集)』, 『고콘조몬슈(古今著聞集)』 등)은 이러한 통념을 극단적으로 드

7) 다만, 근대 이전 일본 문학 전반에서 남성에게 질투라는 정념이 전혀 묘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다음 작품들에 나타난 남성 인물들의 욕망, 분노,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질투로도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지닌다. 헤이안 문학인 『源氏物語』에서는 상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집착적 감정이 묘사되며, 모노가타리 후반부에는 강한 소유욕과 질투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르는 남성이 등장한다. 『伊勢物語』百二十段에는 질투에 휘말린 남성의 와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가마쿠라 시대 초기 설화집인 『宇治拾遺物語』(卷2·8)와 일기문학 『とはすがたり』에서도 後深草院의 질투 어린 정서가 와카에 담겨 있다. 또한 『新古今集』에 수록된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의 와카 역시 남성의 내면적 갈등과 소유적 감정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질투의 정념이 투영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러낸다.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가족의 경제·사회적 권한을 독점하였고, 여성은 그 질서에 종속되어야 했다. 이를 배경으로, 문학 작품들은 여성 질투를 ‘죄악’ 혹은 ‘병리’처럼 묘사했다. 예컨대 『훗신슈』 제5권 제3화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질투하여 손가락이 뱀으로 변한다는 이야기, 『고콘조몬슈』 제720단에서는 승려의 아내가 남편의 성기를 무는 질투 끝에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제시된다(최승은, 2016). 남성 필자 혹은 남성 편찬자들이 전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성에게 고유한 부정적 정념”이라는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예로, 중세 군담문학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시라보시(白拍子)인 기오(祇王)와 호토케 고젠(仏御前)이 등장한다. 시라보시란 노래와 춤을 곁들여 공연하던 여성 예능인을 가리키는데, 기존 연구 다수는 이를 근세적 의미의 매춘을 담당하던 유녀(遊女)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김정호(2024b)는 시라보시를 “자신의 예능을 즐기며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성(性) 거래 중심의 유녀가 아니라 ‘여성 예능인’으로 재조명하여 해석한다. 그럼에도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기오와 호토케 고젠을 형상화한 방식은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주도 문예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들을 주로 ‘질투와 욕망’의 대상으로 그리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오는 원래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의 충애를 받았지만, 호토케 고젠이라는 어린 시라보시가 새롭게 등장하자 극단적인 질투와 자살 충동에 내몰리고, 중국에는 세속적 집착을 버리고 발심(發心)에 이른다. 이는 ‘남성 권력 앞에서 여성들이 상대적 지위를 놓고 다투는’ 장면을 부각하며, 결과적으로 여성 간 질투를 운명처럼 강조하는 서사를 형성한다. 종교적 구원이라는 또 다른 결말이 제시⁸⁾된다고 해도, 여성 질투가 비극과 결부되는 흐름 자체는 남성 필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8) 일본 중세문학인 『도와즈가타리(とはずがたり)』, 『쓰레즈레구사(徒然草)』, 『기케이키(義経記)』에 등장하는 시라보시 역시, 종교적 선택을 띤다.

근세 문예로 범위를 옮기면, 이른바 ‘여인들끼리의 질투’를 희극화하는 경향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세스이쇼(醒睡笑)』 제6권 ‘질투(恪氣(りんき))’ 제3화에서는 저승으로 먼저 간 남편이 만난 노파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미망인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골계적(滑稽的)이고 세련된 필치로 묘사한다(금영진, 2011).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남성 작가가 “노인의 질투”라는 소재를 이용해 희극과 풍자 요소를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 중세 시기의 설화가 여성을 파멸적 질투의 희생자로 그렸다 한다면, 근세 문예에서는 노인 여성마저도 질투라는 ‘불편한 감정’을 희극적으로 소모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또한 “질투 = 여성적·병리적”이라는 구도를 깨뜨리지는 못하며, 오히려 풍자를 통해 여성 정념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중세-근세 시기의 일본 문학을 관통하는 여성 ‘질투’ 서사는 대부분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중심 담론에 의해 작성되었고, “여성 고유의 병리적 감정”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거듭 재생산해 왔다. 가부장제 질서 아래에서 여성은 심리적·사회적으로 억눌린 상태에 놓여 있었고, 남성 작가들은 이를 ‘죄악’이나 ‘병리’ 같은 극단적/희극적 요소로 문학에 활용했다. 그 결과, 여성 질투는 시대와 장르가 변해도 거듭 재현되면서, 남성 독자에게 흥미로운 ‘이색 서사’ 또는 ‘교훈 담론’으로 기능한 셈이다.

이런 흐름은 에도 시대나 근세 문예에서도 여성 인물을 다룰 때 “질투”라는 요소가 계속 중요한 문학적 장치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중세-근세 시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여성 질투’에 대한 통념은, 폐쇄적 오오쿠 공간이나 무가(武家) 여성들의 생활상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곧 에도 막부의 오오쿠라는 제한적 공간 속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예고하는데, 3장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질투’ 인식이 오오쿠 작품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재구성·해체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2 의무(義務) 이데올로기에 강요된 여성의 희생

에도 시대(17~19세기)에 걸쳐, 유교적 가치 체계는 여성에게 강한 윤리적·도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 특히, 도쿠가와 막부는 주자학(朱子學)을 공식 이념으로 삼아, 충(忠)과 효(孝)를 가문의 존속과 국가 질서 유지의 핵심 윤리로 강조했다(김정호, 2003: 85-86). 이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을 넘어, 여성에게 ‘희생’을 필연적 의무로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주자학적 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정당화되었다.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삼덕초(三德抄)』 가운데 「이기변(理氣弁)」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理)에 따라 형성된 필연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선악을 포함한 칠정(희·노·애·구·애·오·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윤리적 의무임을 주장한다.

인의(仁義)와 예지(禮智)는 모두 이(理)에서 비롯된다. 기(氣)에는 선(善)과 악(惡)이 있으므로 칠정(七情)이 생겨난다. 칠정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사단(四端)에는 선만 있을 뿐 악은 없다. 그 의(義)와 이(理)가 드러나는 지점을 ‘도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춥다면 옷을 생각하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생각하며, 눈으로는 아름다운 색을 보고자 하고, 귀로는 흥미로운 소리를 듣고자 하며, 코로는 좋은 향기를 맡고자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바람(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인간의 마음에 해당한다. ‘도의 마음은 곧 이(理)이고, ‘인간의 마음은 기(氣)이다.’⁹⁾

9) 仁義禮智ハコノ理ヨリ出ルナリ。氣ニハ善惡アルユヘニ七情出來スル也。七情ニハ善ト惡トアリ。四端ニハ善バカリニツテ惡ナシ。其義理ニヨル處ヲバ道ノ心ト云フ。寒ケレバ衣ヲ思ヒ、飢テハ食ヲ思ヒ、目ニウツクシキ色ヲ見ント思ヒ、耳ニ面白キ聲ヲ聞ント思ヒ、鼻ニヨキ香ヲカガント思フ。ヨロヅ願ヒホツスル處ハ、皆是人ノ心也。道ノ心ハ理也、人ノ心ハ氣也。『三德抄』의 「理氣弁」

이러한 철학적 논리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 원리로 기능했다. 특히, 여성의 희생을 “우주적 필연”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즉, 딸이나 아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유교적 통치 논리는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에게도 강력히 작동했다.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일본 문화를 분석하면서 “부모에게 진 빚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지적했는데(베네딕트, 2021: 164), 이러한 관념 속에서 딸은 곧잘 가족 생계를 위해 몸을 희생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남성 필자들이 작성한 가정 교훈서나 문학 작품들도 이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했는데, 예컨대 도야마 준(遠山淳, 2009: 16)은 일본 문화를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산다’는 양립적 방식으로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작 여성에게만 일방적 헌신을 강요하는 역설적 구조를 안고 있었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막부는 여성의 역할과 행동을 규율하는 다양한 교훈서를 출간했다. 대표적으로, 『온나다이카쿠(女大學)』¹⁰⁾는 여성의 미덕을 “부모를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식을 바르게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성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온나초호키(女重宝記)』¹¹⁾ 같은 가정 교훈서가 등장하여, 여성의 희생이 단순한 도덕적 기대를 넘어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필수 요소로 기능하도록 조장했다.

10) 『온나다이카쿠』는 여성이 수신(修身)과 가정 운영(齊家)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나 문체로 서술한 교훈서로, 카이바라 에키젠(貝原益軒)의 『和俗童子訓』 제5권 「教女子法」을 바탕으로 출판업자가 개작·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교호(享保) 연간부터 근대까지 반복 출판되며 보급되었다.

11) 『온나초호키』는 소다 스키코(艸田寸木子)가 저술한 여성 교훈서로, 1692년 간행 이후 막말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여성의 교양, 결혼, 임신·출산, 예술, 실용 지식 등 실생활 전반을 다루며, 한자와 가나 혼용체에 후리가나와 삽화를 포함해 교육용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러한 윤리적 구속력은 에도 시대 문학·극예술에도 지속적으로 투영되었다. 가령, 가부키나 조루리(淨瑠璃)¹²⁾, 그리고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신주극(心中物)¹³⁾ 등 근세 문예 작품들은 인정(人情)과 의무·의리 간 갈등을 비극적으로 그려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지카마쓰 몬자에몬의 『소네자키 신주(曾根崎心中)』에서 연인끼리 외부 압력으로 인해 동반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한편으론 ‘진정한 사랑’을 미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여성의 과도한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유녀나 창녀가 된 여성은 가문 부담을 짊어졌다는 이유로 ‘효녀(孝女)’로 미화되기도 했고, 비극적 결말은 독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의 희생을 서사 장치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나데혼 주신구라(假名手本忠臣藏)』(1748년)처럼 아코(赤穂) 사건(1702년)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남편(早野勘平)의 복수를 돕기 위해 스스로 유곽에 들어가는 여성(おかる)이 등장한다. 이들은 가문·공동체의 명예와 복수를 위해 개인적 정념을 억제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막부가 주자학적 질서를 통해 충(忠)과 의무를 강조하던 분위기 속에서 ‘극단적 헌신’을 보이는 여성 캐릭터들이 자주 형상화되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 행위를 숭고한 미덕으로 부각함과 동시에, 여성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기 파멸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되는 서사를 반복 재생산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희생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압박과 결합하여 더욱 구조적으로 작동했다. 덴포 대기근(天保の飢饉, 1833~1837)과 1837년 오시오 헤이하치로(大塩平八郎)의 난¹⁴⁾이 발생한 시기에 가난한

12) 샤미센(三味線) 반주의 가타리모노(語り物) 음악의 총칭. 무로마치 시대에, 무반주(때로는 비파나 부채장단)로 낭창된 『조루리히메 이야기(淨瑠璃姫物語)』가 시초로, 샤미센 반주가 정착해, 인형극과, 후에는 가부키와도 결합해 서민적 오락으로서 크게 유행한다.

13) 남녀의 정사(情死)를 다룬 조루리(淨瑠璃) 및 가부키(歌舞伎)·교젠(狂言) 등.

농가에서 어린 딸을 유곽이나 사창가(岡場所)로 보내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부모는 “딸이 몸을 팔아 가문을 살리는 것은 ‘효행(孝行)’”(高木まどか, 2020: 14)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사회 전반도 이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야시로 세이이치(矢代靜一)의 희곡 『미야기노(宮城野)』(1973)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중략) 열다섯이나 열여섯 살 된 어린 애들이 몸을 팔아 이 사창가로 넘어올 때 말이야. … 얼마 전에 기근이 들어서인지, 조슈(上州) 주변에서 자주 오곤 해. 다들 햇볕에 그을리긴 했지만, 통통하고 귀엽고 기운 넘치는 애들이라니까.¹⁵⁾

이 장면은 남성 작가가 여성의 희생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서술하는지를 보여준다. 소녀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 묘사되며, 이들이 처한 절망적 상황은 서사적으로 희화화된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적용하면, 이러한 여성 희생 서사가 남성 중심 구도(부모/자식,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얼마나 공고히 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서사에서는 여성 희생을 ‘가문의 명예’나 ‘숭고한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이를 해체하면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서사 장치였음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서발턴 이론(가야트리 스피박 외 2012: 42-140.)¹⁶⁾을 통해 보면,

14) 덴포(天保) 개혁은 국내 혼란과 외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1837년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은 막부 통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다. 덴포 대기근(1833~1837)과 농민 계층 분화로 인해 치안 악화와 우치코와시(打ちこわし) 등 민중 봉기가 빈발하였다.

15) 矢代靜一. 1973. 『宮城野』『寫樂考』. 日本劇作家協會.: 224.

16)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역). 서울: 그린비. : 42-140. 가야트리 스피박은 서발턴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서양 지식인을 비판하고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킨다. 그는 인도의 과부 순사(Sati) 사례를 통해 영국 식민주의가 과부를 구제받아야 할 타자로 규정하고 서발턴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

이 시대 여성들은 “의무”라는 명분 아래 자발적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발화 기회를 박탈당하고 남성 작가나 남성 중심 권력에 의해 ‘희생자’로 표상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여성(おかる) 사례처럼 극단적 헌신이지만 동시에 주체적 선택으로 재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 중심 서사가 여성을 ‘도구화’하는 동시에, 특정 순간에는 ‘균열’을 일으키며 여성의 주체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결국, 에도 시대 여성 희생은 단순한 개인적 미덕이 아니라, 유교 주자학과 사회·경제적 구조가 결합된 이데올로기였다. 남성 지배층이 만든 문학·예능에서는 이러한 희생을 ‘효행’이나 ‘충성’으로 미화하고, 독자는 그것을 비극적·송고한 감정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해체 이론과 서벌턴 시각에서 보면, 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잠식하고 남성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였다는 비판적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사상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여성 희생 서사가, 후속 장(제3장)에서 오오쿠 텍스트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고찰할 것이다. 오오쿠라는 금남 구역에서 벌어졌던 여성들 간 갈등과 희생, 그리고 그 속에 잠재된 주체성 회복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현대 성평등(특히 SDGs Goal 5) 담론과의 접점을 찾아볼 계획이다.

해 왔음을 지적했다. 이는 동양 여성을 억압하면서도 이를 구제하려는 서양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스피박은 서벌턴이 가부장제, 식민주의, 민족주의 속에서 발언 기회를 빼앗긴 존재이며 그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서벌턴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 주체성을 억압할 위험성이 있음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3. 여성 서사의 해체, 그리고 다시쓰기

3.1 『에지마 이쿠시마』: 여성 서사의 재현과 그 한계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는 1714년의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江島生島事件)¹⁷⁾을 오키조추 에지마와 가부키 배우 이쿠시마 신고로의 밀회사건을 로맨스와 미스터리적 요소로 재구성한 작품이다(김정호²⁾, 2024). 1954~1955년에 신초샤(新潮社)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이후 1955년에는 쇼치쿠(松竹)에서 영화화되었고, 1971년에는 TV 드라마로 방영될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이 1950년대 중반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후 일본의 사회·문화적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후 일본은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개혁으로 인해 가족구조, 여성의 법적 권리,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시기였다. 예를 들어, 1945년 GHQ 개혁으로 여성 참정권 도입, 1956년 공창(公娼) 제도 폐지, 1958년 매춘방지법 시행,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일본의 국제 이미지 재구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전적 여성상”을 강조하는 역사 서사와 시대극이 다시금 인기를 끄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전근대(近世) 사극(史劇)은 과거와 현대의 여성관을 대비하면서도, 가부장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나바시의 텍스트¹⁸⁾ 역시 전후 일본의 여성 재현 방식과 긴밀한 관련

17)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1714)은 오키의 오토시요리(御年寄) 에지마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구(徳川家継)의 생모 겐코인(月光院)을 대신해 참배하던 중, 가부키 배우 이쿠시마 신고로와 밀회를 가진 일이 발단이 되었다. 막부는 이를 오키 내 풍기 문란 문제로 확대하여 강경하게 처벌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김정호, 2024a.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의 해체 - 역사 사건과 텍스트에서 본 질투와 욕망의 재구성 -”. 『日本語文學』1(103): 223-246. 참고.

18) 후나바시 세이이치는 「하얀 팔(白腕)」로 데뷔한 쇼와기의 대표 작가로, 1953 -

이 있으며, 고전적 여성상을 재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여성의 질투와 경쟁을 중심 서사로 삼아 여성 연대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희생을 미덕으로 강조하며, 남성 인물을 초월적 존재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했다.

텍스트에서 오오쿠는 여성 간 질투와 음모가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아드님이시라면, 쇼군 후계자로서 장래에는 7대 쇼군의 생모가 되지 않는가. 이 얼마나 대단한 출세이신가.

(중략) “그렇지만, 하쓰네 도노 5월까지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세”

“어째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지요?”

“사쿄노 가타의 회임 사실이 오오쿠에 알려지게 되면, 먼저 미다이 도코로 사마, 두 번째로 오스메노 가타 어느 쪽이시든 기분이 안 좋아 지시네”(중략)¹⁹⁾

이 장면에서 여성의 역할은 권력을 둘러싼 경쟁과 시기의 감정으로 축소된다. 쇼군의 부인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질투하는 방식은 남성 중심 서사에서 여성 간 연대가 배제되는 전형적인 구조다. 엘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의 페미니스트 크리티크(Feminist Critique) 이론에 따르면, 남성 작가들은 종종 여성들을 타고난 경쟁적 존재로 묘사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小平麻衣子, 2023: 104-105). 이러한 서사 구

1954년 『에지마 이쿠시마』를 도쿄신문(東京新聞)에 연재하였으며, 이후 신조사(新潮社)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은 1955년 쇼치쿠(松竹)에서 영화화되었고, 1971년에는 TV 드라마로도 방영되며 대중적으로 널리 소비되었다.

19) 舟橋聖一, 1973. 『舟橋聖一集』, 筑摩書房. : 23. 「男の御子なら、世子様じゃ。行く末は、七代様の御母君。どえらい出世と云うものではある一」(中略) 「したが、初音殿。五ツ月の帯までは、先ず誰方にも口外はなさらぬがいい」と仰有いますは?」「左京の方御妊りの儀、大奥へ知れ渡ると、第一が御台様、第二がお壽めの方、いずれも、甚だ御不興じゃ」(中略)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 텍스트 번역은 필자가 직접 한글 번역 수행하였으며, 다음부터 인용되는 텍스트의 원문은 따로 기입하지 않음. (이하 필자 번역)

조는 페미니즘 비평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여성 서사 재현 방식 중 하나이다. 즉, 여성들은 질투하고 경쟁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남성(쇼군, 오오쿠 밖 관리 등)은 갈등을 초월한 중재자로 묘사된다.

더 나아가, 본 텍스트에서는 여성의 희생이 필연적인 미덕으로 강조된다. 에지마는 가부키 배우 이쿠시마와의 관계로 인해 유배되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처벌이 아니라, 가문과 공동체의 명예를 위한 희생의 서사로 해석된다.

“(중략) 하자야(葉茶屋) 미즈자야(水茶屋) 같은 곳에서는 대낮부터 사내와 서로 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중에 능력 있는 사람(여성)은 사내 두 사람을 데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사내와 다음에는 저 사내와라는 식으로 좋을 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에지마는 금욕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괴로우면서도 가슴 속이 험뜩이는 듯했다.²⁰⁾

“한다유(半太夫), 조금 졸리네요. 한 쪽 다리를 다 주무르셨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략)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내인 자네에게 여성스럽지 않게 여인네의 자는 모습을 어찌 보여줄 수 있겠나”

“하하하. 역시 에지마 사마께서는 조심성이 깊으시군요. 그렇긴 하나 이미 밤은 깊었고 이 방에 있는 것은 저밖에 없으므로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손발을 편하게 두십시오”²¹⁾

여기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억압되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된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욕망이 통제받는 방식과 연결된다. 케이트 밀렛(Kate Millet)의 『성 정치학』(1970)은 남성 작가들이 여성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그리면서도, 동시에 이를 서사의 중심적 동력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후나바시의 텍스트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

20) 舟橋聖一. 1973. 앞의 책. 筑摩書房: 48.

21) 舟橋聖一. 1973. 앞의 책. 筑摩書房: 293-294.

성의 욕망을 “위험한 감정”으로 설정하면서도, 이를 작품의 주요한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을 적용하면, 텍스트 속 여성 인물들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침묵된 존재”로 남는다. 여성들은 사건의 중심에 있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성(쇼군, 가부키 배우, 막부 관리)의 결정 속에서 소모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여성 간의 질투와 희생은 가부장적 체제 내에서 정당화되며, 이를 넘어 서려는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 인물들의 결말은 대부분 비극적이며, 이는 전형적인 희생 서사의 구조를 따른다. 결국, 『에지마 이쿠시마』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소비된 대표적인 역사 로맨스 서사이지만, 여성을 독립적인 주체로 재현하는 데 실패한 한계를 가진다.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는 1950년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지만, 그 안의 여성 서사는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성들은 질투와 경쟁을 통해 서사적 동력을 제공하는 객체로 설정된다. 남성은 여성 간 갈등을 초월하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여성의 욕망과 희생은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오오쿠 작품들이 어떻게 고전적 여성 서사를 변형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작품들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 주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오쿠 서사 속 여성 재현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2 여성의 시선으로 본 오오쿠: 현대적 해석과 역사적 전환

일본의 사극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역사 해석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여성 서사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역사 재현에서 벗어나, 여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아사노 다에코(淺野妙子)의 텍스트 『오오쿠』와 같은 작품은 남성 권력이 독점해온 정치적·사회적 공간에서 여성들의 관계망과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그러나, 본절에서 분석하는 텍스트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의 연대는 단순히 ‘여성이 단합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서사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 텍스트에서는 여성 간의 권력 위계와 내부 갈등, 신자유주의적 젠더 담론, 그리고 고전적 가부장제에 대한 대응과 변주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오오쿠』에서 여성들이 권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작동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를 교차성 페미니즘(Intersectionality), 신자유주의 페미니즘(Neoliberal Feminism), 백래시(Backlash) 이론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여성 해방 운동은 191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다이쇼(大正) 시대(1912~1926)의 민주주의적 흐름 속에서 여성들이 점차 사회적 주체로 등장했다. 마쓰다 히데코(松田秀子, 2010: 135)에 따르면, 1911년 창간된 잡지 『세이토(靑鞆)』는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원래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를 통해 여성 해방 사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어 1916년, 시마나가 유우사쿠(嶋中雄作)가 『세이토』의 영향을 받아 『후진코론(婦人公論)』을 창간하면서, 여성들의 자립과 권력 확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松田秀子, 2010: 135-136).²²⁾

그러나 1930~40년대 군국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 보수적 젠더 규범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여성상’이 다시 강조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주부 논쟁’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가정 중심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보수적 담론이 대두되었으며, 1980년대에도 ‘아그네스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의 가정 내 역할

22) 松田秀子, 2010), 앞의 책, 翰林書房, pp135~ 136.

과 사회적 진출 사이에서 충돌이 지속되었다(최용우, 2020).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이후 ‘조시료쿠(女子力)’와 같은 개념을 통해 변화하였다. 조시료쿠는 원래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을 의미했지만, 이후 기업 마케팅 전략과 결합하면서 소비 중심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한편, ‘조시카이(女子會)’는 여성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로 기능하지만, 여성이 서로 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오오쿠』는 이러한 현대 일본의 여성 담론을 반영하면서도, 근세 일본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여성들의 권력 관계와 감정의 변화를 다층적으로 고찰한다. 즉, 텍스트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여성 담론과의 접점을 형성하며 역사적 여성 서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오오쿠』에서 여성들만이 거주하는 오오쿠라는 공간은 단순한 여성들의 ‘내면적 생활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적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작품은 여성 간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쟁과 연대를 동시에 형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와 2006년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를 비교하면, 여성 간 권력 구조에 대한 묘사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표1〉 장면비교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작품 ²³⁾	아사노 다에코의 작품 ²⁴⁾
오오쿠는 아키후사, 오모테는 하쿠세키에게 맡긴다는 선대 쇼군 사마의 유언도 있었기에……	오모테에는 에치젠, 오쿠에는 자네(에지마)가 있어 주는 것이 제 마음의 버팀목입니다.

23) 舟橋聖一. 1973. 앞의 책. 筑摩書房. : 324.

24) 淺野妙子. 2006. 『大奥』. 角川文庫. : 19.

1950년대 후나바시의 작품에서는 오오쿠를 남성이 장악하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여성들은 실질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심지어 최고 실권자인 덴에이인(天英院)조차 남성(아키후사)의 허락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는 “오오쿠 총책임자(大奧總取締)”라는 가상의 직책을 창작하여, 에지마가 겻코인(月光院)을 강력히 지원하는 구조를 설정한다. 겻코인은 에지마에게 남성(마나베)과의 밀회까지 털어놓으며, 여성 간 협력과 의지 관계가 강조된다. 이는 1950년대판과 달리,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구도를 해체하고, 여성들 간의 유대와 네트워크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아사노의 이러한 설정은 단순히 그녀만의 창작적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미타무라 엔교(三田村鳶魚)와 나카에 가쓰미(中江克己)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오오쿠는 로조(老女), 즉 여성인 오쿠조추들이 운영하고 관리한 공간이었다(三田村鳶魚, 2014[1964]; 中江克己, 2010).

이에 비해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텍스트에서는 오오쿠가 남성 관리자 아키후사에 의해 장악되었고, 최고 실권자인 덴에이인(天英院)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설정이 등장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설정에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후나바시의 작품에서는 여성 간의 정서적 교류가 거의 배제되고, 여성들은 주로 질투와 경쟁 속에서 갈등하고 파멸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예컨대 다마쓰바키와 미야지는 에지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결국 오오쿠에서 지위를 잃고 몰락한다. 이는 백래시 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여성 간의 경쟁을 부각함으로써 여성 집단의 권력 상승을 억제하고 남성 중심 사회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과 연결된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는 이러한 기존의 여성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단순히 권력 다툼의 주체로 소비되지 않고 동료애를 형성하

며 감정적·문화적 연대를 구축하는 서사를 제시한다. 특히 다과회, 시 낭창회 등의 문화 교류 장면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남성 중심 시극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여성의 역할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 내부의 위계와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지와 협력에 기반한 권력 행사의 다층성을 부각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간다. 다시 말해, 여성 간 경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는 질투가 보다 복합적인 감정으로 표현되며,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특히, 덴에이인의 경우 처음에는 질투로 인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결국 에지마를 만나며 관용과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같은 무렵, 니노 마루에 있는 덴에이인의 처소에는 평소처럼 커다란 함이 운반되어 들어왔다. (중략)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목숨이 중하여 도망갑니다”

조주로(長十郎)의 글자체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덴에이인은 낙담하여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바라보고 있다. 미야지가 쓰기노 마에서 이 모습을 엿보며 문득 미소를 지었다.²⁵⁾

덴에이인의 말에는 무상함이 배어 있었다.(중략)

“혹시 다른 부탁은 없으신가. 신수로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시게”

덴에이인의 제의에 에지마는 가만히 생각했다. 지나서 입을 열었다.

“그자의 처형에 입회하고 싶습니다”

덴에이인은 고요히 미소 짓는다. “알겠습니다”²⁶⁾

25) 淺野妙子, 2006. 앞의 책. 角川文庫. : 137.

26) 淺野妙子, 2006. 앞의 책. 角川文庫. : 139.

이 장면에서 덴에이인은 질투로 인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을 초월하고 관용을 실천하는 인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여성들이 감정을 통해 성장하고 자기 성찰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개인의 노력과 자기 계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담론을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 간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내포한다.

후나바시의 작품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경쟁하며 몰락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쟁 구조가 강화된다. 반면, 아사노의 작품에서는 경쟁을 넘어, 여성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관용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확장된다. 또한,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 덴에이인의 질투 서사와는 달리, 겐코인은 자기 성찰과 연대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반부에서 겐코인은 마나베와의 애정 관계에 집착하며 욕망을 드러내지만, 결국 병에 걸리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이후, 그녀는 에지마와의 연대를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를 얻으며, 감정적 성장과 관계의 재정립을 이루는 서사를 보여준다.

“용서해 주시게” 겐코인의 볼에 눈물이 흘렀다.

“저는 에치젠을 위해 자네를 배신했습니다. 에치젠이 곁에 있어 주는 것과 자네의 목숨을 저울질하다 에치젠 사마를 잡았습니다. 이 죄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중략) “겐코인 사마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에지마의 어조는 차분했다.

(중략) “겐코인 사마 당신이 잘 알고 계시는 여인의 행복을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행복을 가슴에 품고 신수로 떠나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 여인의 행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단 하룻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나니 앞으로는 여생이라 생각되는 사랑이었습니다”²⁷⁾

이 장면에서 겐코인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 질서 속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억압받고 있었음을 자각하고, 결과적으로 감정의 극복과 연대를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에서 겐코인은 일본의 고전적 여성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배치되며, 이에 대비되는 인물로 에지마가 등장한다. 이러한 구도는 단순한 세대 차이나 권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여성성과 현대적인 여성성의 차이를 고찰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겐코인은 처음에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는 쇼군의 생모로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여전히 남성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특히, 마나베와의 관계에서 그녀는 감정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고전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며, 이는 백래시 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백래시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때 기존 가부장적 질서는 여성 내부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반작용할 수 있다. 즉, 여성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여성 해방을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겐코인의 초반 서사는 이를 반영한다.

그녀는 마나베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마나베(남성)와 에지마(여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국, 자신을 곁에서 시중 들던 에지마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마나베를 선택하여 에지마를 유배 보내게 된다.

이는 기존 백래시적 구도에서 여성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되는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자신이 따르던 권력 질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 장면에서 겐코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유지해 온 질서의

27) 淺野妙子, 2006. 앞의 책. 角川文庫, : 144-145.

문제점을 자각하고, 여성 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 서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여성 간 경쟁의 구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아사노 다에코의 『오오쿠』는 단순한 사극이 아니라, 여성 간의 관계와 권력 구조를 탐색하는 현대적 젠더 서사로 기능한다. 깃코인은 전통적인 여성성이 어떻게 권력 질서와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백래시 구조를 해체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에지마는 신자유주의적 여성상으로서, 남성 없이도 권력을 유지 하지만, 경쟁과 위계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고민을 던진다. 즉,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오오쿠』는 여성들이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한 경쟁이나 순응이 아니라, 연대와 재구성의 과정임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오오쿠』는 고전적인 여성성과 현대적 여성성을 동시에 고찰하면서, 여성의 권력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3.3 역사 재구성의 가능성

일본의 현대 사회에서 가상의 세계를 통해 젠더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살인출산(殺人出産)』(2018), 요시나가 후미(よしながふみ)의 〈오오쿠(大奥)〉, 그리고 최근 Disney+의 〈쇼군(SHOGUN)〉(2024) 등이 있다.

『살인출산』은 기존 젠더 질서를 해체하며, 출산을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한 행위로 설정한다. 출산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능해지면서, 출산이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되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다.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는 가상의 전염병으로 인해 남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성들이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 기존 남성 쇼군을 위

해 존재했던 오쿠조추는 사라지고, 대신 여성 쇼군을 위해 남성들이 존재하는 남녀역전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쇼군〉에서는 도다 마리코(戶田鞠子)라는 여성 캐릭터가 주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으로만 서술되었던 권력 구조를 재구성한다. 또한, 기존 남성 무사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할복(切腹) 의식을 여성도 수행하는 등, 젠더의 역할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렇듯 각 작품들은 가상의 설정을 통해 기존 젠더 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고찰한다. 그러나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는 단순한 남녀 역할 교체를 넘어, 여성 권력이 기존 남성 권력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살인출산』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는 기존의 남성 권력 구조를 여성 중심으로 변형하지만, 여전히 출산이 권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여성 쇼군을 중심으로 한 남성들은 자손을 낳는 것이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출산에 성공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남성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며, 남성 간 경쟁이 심화된다. 즉, 기존 남성 중심 권력 구조가 단순히 여성 중심으로 전환되었을 뿐, 출산이 권력과 연결된 방식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다.

『살인출산』에서는 출산이 더 이상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다. 남성도 인공자궁을 통해 출산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 자체가 특정 젠더에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산에 성공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기존 구조가 붕괴되며, 젠더 위계의 중심이 되었던 출산의 의미가 완전히 재구성된다.

〈오오쿠〉는 기존의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단순히 여성 중심으로 치환하면서도, 여전히 출산이 권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면 『살인출산』은 출산을 생물학적 성별에서 분리함으로써, 출산이 권력과 연결되는 방식을 해체하고, 기존 젠더 위계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오오쿠〉는 젠더 역전을 다루면서도 여전히 기존

의 권력 구조를 답습하고 있으며, 『살인출산』은 보다 근본적으로 젠더 질서를 해체하는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Disney+에서 방영된 〈쇼군〉 또한 가상의 역사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탐색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도다 마리코라는 인물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과 외국인 사이에서 통역과 협상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⁸⁾ 마리코는 17세기 일본에서 여성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며, 단순한 남성 권력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전략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쇼군〉의 이러한 설정은 〈오오쿠〉의 여성 권력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오오쿠〉는 여성들이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는 설정을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전통적 위계질서와 정치적 압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쇼군〉의 마리코는 남성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흔드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쇼군〉에서 도다 마리코는 여성으로서 무사의 할복 문화를 받아들이며, 남성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²⁹⁾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에게만 허용된 할복 의식을 여성이 수행하는 장면으로, 단순한 젠더 역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죽음의 형식마저 해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오오쿠〉의 여성 쇼군이 기존 남성 쇼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쇼군〉의 마리코는 여성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젠더 질서를 해체하는 데 접근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도다 마리코의 원 모델이 가스가노 쓰보네(春日局)라는 점이다. 〈쇼군〉은 도다 마리코라는 캐릭터를 통해, 에도 막부가 개막되기 이전 여성 권력의 가능성을 새롭게 재현하고 있다.

다바타 야스코(田端泰子, 2002)는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의 유모 출신이면서, 오오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가스가노 쓰보네(春日局)

28) 〈SHOGUN〉(Justin Marks, 2024, Disney+, 10부), 제5화「父の怒り」, 30분 경

29) 〈SHOGUN〉(Justin Marks, 2024, Disney+, 10부), 제9화「奈落の底」, 48분 경

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가스가노 쓰보네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히데타다의 권력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녀는 조마쓰(長松, 히데타다의 어린 시절 이름)의 교육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막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쇼군〉 속 도다 마리코라는 캐릭터와 연결된다. 마리코는 영국인 미우라 안진(三浦按針, William Adams)과 일본 권력자 요시이 도라나가(吉井虎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델로 한 인물) 사이에서 통역가이면서도, 정치적 협상을 조율하며, 기존의 작품에서 보여준 여성 역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쇼군〉은 가스가노 쓰보네가 실제 역사에서 수행했던 정치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극적 서사로 확장하며, 전통적 남성 권력 구조 속에서 여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처럼 〈쇼군〉과 〈오오쿠〉는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여성 권력이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쇼군〉은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도다 마리코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오오쿠〉는 여성 쇼군이라는 설정을 통해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역전시키지만, 기존의 위계질서와 정치적 경쟁 구도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젠더 해체보다는 ‘남성 역할을 여성에게 대입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재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쇼군〉이 전통적인 남성 권력 질서 속에서 여성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서사라면, 〈오오쿠〉는 기존의 남성 중심 권력을 단순히 여성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오오쿠〉에서 여성들은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정치적 경쟁, 질투, 계급 구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에 비해, 〈쇼군〉과 같은 작품은 기존의 권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3.4 2024년 오오쿠 열기의 재점화: 대하 드라마 <오오쿠>

앞서 제3.1절~3.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도 시대 오오쿠는 전통적으로 ‘여성 간 암투’, ‘희생적 여성상’ 등으로 재현되어 왔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해체·재구성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특히 후지TV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방영한 2024년판 <오오쿠>는 전작들보다 한층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현대적 젠더 가치’를 부각시킨다. 이는 앞서 언급한 페미니즘적 시각과 SDGs Goal 5라는 국제적 담론이, 사극 장르에서도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 현대적 성평등 해석과 에도 시대 배경의 결합

2024년판 <오오쿠>는 기본적으로 에도 후기(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 하루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시기 전후)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여성들이 오오쿠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또 협력해 나가는가”를 주요 축으로 삼는다. 이전의 작품(1950년대 『에지마 이쿠시마』, 2000년대 『오오쿠』 등)에서도 여성 권력을 어느 정도 조명했지만, 대부분 가부장 질서에 예속된 갈등(질투, 모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2024년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현대적 젠더 해석을 강화했다.

① 정실(이소노미야 도모코(五十宮倫子))과 측실(오치보(お知保), 오시나(お品))의 역동성

초반에는 2024년 이전의 오오쿠 작품들에서 자주 보여지는 정실·측실 간의 전형적 대립 구도를 이룰 듯 보이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관계는 경쟁을 넘어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동의 행위자’ 형태로 발전한다. 예컨대 4~5회에서 도모코는 오치보의 재능(거문고 연주, 난학

공부 등)을 인정하며, 경쟁보다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어 8~9화에서는 쇼군 후계자(世継ぎ)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지만, 결국 도모코와 오치보가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고 연대하는 순간이 드러난다. 이는 기존 오오쿠 작품에서 흔히 그려지던 ‘여성 간 암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가 연대·협력이라는 현대적 페미니즘 가치를 제시한다.

② 남성 쇼군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도모코가 정실로서 그저 ‘내조’에 머무르지 않고, 막부 정치나 대내외 사정(난, 경제 개혁, 후계자 결정 등)에 직접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6~7화에서, 도모코가 남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보여주는 대처나, 막부 개혁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인물(田沼意次, 松島, 정무 담당 고관들)과 도모코가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은, 근세 일본 배경임에도 여성이 공적 권력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극적으로 부각한다.

③ 남성 쇼군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드라마의 후반부(9~11화)에 전개되는 막부 후계 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암투(자녀 살해, 독살 미수 등)는 “여성의 출산·육아 권리, 가부장제 속 정치 개입”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

작품은 이를 통해 ‘여성이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케 만든다. 이는 SDGs Goal 5 중 ‘정치·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5.5)’의 관점을 사극의 맥락에 맞게 스토리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도모코, 오치보, 그리고 오시나가 각각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졌거나 잃게 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어떤 의미

인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아이가 이용되는 구조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모성의 권리와 정치적 책임 모두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 여성 인물들의 ‘연대와 갈등’ 서사 구조

오오쿠라는 공간 자체가 외부 남성 정치와는 별개로 “여성만이 거주하는 권력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2024년판 <오오쿠>는 여성들 간의 세밀한 권력투쟁, 계급·신분 차이, 모성과 질투,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트는 연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다음은 작품 후반부(8~11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갈등 양상이다.

① 후계자 경쟁 → 정치적 암투로 확장

오치보의 아들(竹千代), 오시나의 아들(貞次郎), 도모코의 유산 경험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단순한 ‘나의 아이를 후계로 삼겠다’라는 경쟁이 아니라 막부 정국을 좌우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오오쿠 작품이 부각하던 ‘질투·음모’가 실제론 여성의 생존 전략이자 공적 결정(후계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입임을 보여준다.

② 도모코·오치보·오시나의 관계 변화

초반 갈등이 극한에 치달은 후, 후반부로 갈수록 세 여성은 서로가 처한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9화에서 오치보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길 때 도모코가 곁에서 지지해주는 장면이나, 10화에서 오시나가 “자신의 아이가 막부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아, 죽었다고 위장한 뒤 에도성 밖에 몰래 숨겨 두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등은 단순 대립을 넘어서는 ‘여성 간 공감과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과거 오오쿠 작품(예: 후나바시 세이이치판)에서 여성 인물이 최

후까지 대립하다가 파멸로 치닫던 구도와 달리, 새로운 서사적 결말—즉 서로 다른 길과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말—을 제시한다.

③ ‘내적 성장’과 ‘권력의 공동 관리’

작품 최종부에서 도모코가 오오쿠를 ‘여성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동시에 국가 경영(막부 후계)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오쿠가 단순히 가부장제 부속 기구가 아니라 여성도 참여하는 정치의 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는 단지 정실(도모코)만이 승리하는 ‘개인적’ 성공 서사가 아니라, 각자 다른 출신과 배경을 지닌 여성들이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역사 다시쓰기”를 통한 SDGs 가치 구현

본고의 앞선 절들(제2장, 제3.1~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일본 고전 문예와 근세 사극은 여성에게 ‘질투’, ‘희생’, ‘봉공’을 강조하여 남성 중심 질서를 자연스럽게 재생산해왔다. 그러나 2024년판 〈오오쿠〉는 이러한 기존 서사의 틀을 해체하면서도, ‘역사적 사실+허구적 구성’을 교차시켜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젠더적·정치적 함의를 부여한다.

① “근세 일본”을 통해 “현대 성평등” 논의를 이끈다.

오오쿠 내부의 여성 권력투쟁을 단순 자극 요소로 사용하기보다는, “에도 시대라는 틀 안에서도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 욕망을 표출하며, 서로 연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현대적 가치—SDGs Goal 5, 즉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가 과거 사극의 배경에도 충분히 접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역사·사극 장르가

‘단순 고증’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출산·육아 ‘권리’와 ‘정치’의 점점 부각

작품 중후반(6~10화)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유산, 암투(독살, 모략), 아이를 이용한 권력 공고화 시도 등은, 여성 몸(출산·육아)이 가부장 권력에 철저히 종속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동시에, 도모코와 측실들이 출산·육아 주체로서 “아이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잘 기를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임신·출산이 개인의 권리이자 공적 책임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한다. 이는 SDGs Goal 5.6 (성·재생산 보건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과도 부합한다.

최종적으로 오오쿠가 재편되고, 도모코와 주변 여성들이 후계자 육성에 관여하며 에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결말은, 과거 사극의 결말(여성 모두 비극으로 끝나거나 배제됨)과 대비된다.

이는 “여성도 공적·정치적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극적으로 제시해, SDGs Goal 5.5(정치·경제·공적 삶의 모든 결정 단계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사극 세계관 안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예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2024년판 <오오쿠>는 이전 시리즈와 달리 여성들을 단순히 희생자나 모략가가 아닌, “역사적 공간(오오쿠)을 재해석하고 성평등 가치와 접목하는 주체들”로 그렸다. 이를 통해 성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사극 장르에 성공적으로 접목했고, SDGs Goal 5가 지향하는 여러 세부 목표(여성의 공적 참여, 재생산권, 정치·경제 리더십 등)를 극화(劇化)한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한계 또한 존재한다. 작품이 여성 내부 권력투쟁을 흥미 요소로 다루면서, 때로는 여성 간 대립을 과도하게 극화하는 면이 있고,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등 남성 권력자와 손잡은 여성 캐릭터가 과하게 악역화되어 ‘선악 이분법’으로 처리된 부분

도 보인다. 그러나 오오쿠 서사 자체가 ‘홍행 사극’의 형식을 갖추는 만큼, 대중적 재미와 성평등 메시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지에 대한 제작적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절에서 분석한 2024년판 〈오오쿠〉는 SF라는 가상의 공간이 적용되지 않은, 여성 서사 재구성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제3.1~3.3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 근세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오오쿠 작품들은 가부장적 질서와 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어왔으나, 현대적 시각에서 더욱 적극적인 여성 주체성을 발굴·부각하는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2024년판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구성 사이를 오가면서도 젠더 관점과 SDGs라는 사회적 의제까지 품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오쿠 세계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을 대신하며: 오오쿠의 SDGs 공헌과 발전과제

본고는 일본 근세를 배경으로 한 오오쿠 텍스트들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질서에 종속된 여성상’을 재현해 왔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현대적 시각—특히 SDGs Goal 5(성평등)—과 결합함으로써 여성 서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재해석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1950년대 후나바시 세이이치의 『에지마 이쿠시마』가 보여준 ‘여성 희생’ 중심 서사가, 2000년대 이후 아사노 다에코 『오오쿠』를 거쳐, 최근 2024년판 대하 드라마 〈오오쿠〉에서 한 층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인물들로 변모해 온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발전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역사사극은 오래도록 남성 위주의 정치·전쟁 서사를 부각하며, 여성에게는 ‘내부 갈등’이나 ‘희생적 미덕’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오오쿠라는 제한적 공간을 전유하는 여성 인물들의 시선은, 과거 ‘부속적인 존

재'로 치부되던 여성 캐릭터도 정치적 주체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특히 2024년판 <오오쿠>는 여성 간 경쟁·모략만을 그리는 단순 이분법을 넘어, 여성들이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가부장제를 부분적으로 균열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근세 일본의 제약된 환경에서도 여성의 실질적 권력 행사가 가능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현대의 성평등 담론을 대중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4년 <오오쿠>를 배경으로 한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그저 후계자를 낳기 위한 도구나 남성 권력의 부속물이 아니었다. 오치보·오시나·도모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출산·육아 과정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은 물론 상호 연대까지 동시에 경험한다. 이는 SDGs Goal 5.5(정치·경제·공적 삶의 리더십 보장), 5.6(성·재생산 보건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같은 세부 목표의 가치를 사극 서사 속에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여성의 재생산과 자녀 양육이 단순히 사적인 가족사나 궁중암투 요소가 아니라, 공적 정책 결정과 연결된 하나의 정치 행위임을 강하게 환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논쟁거리인 임신·출산·육아 권리를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가치'로 함께 읽어내도록 유도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오오쿠 텍스트들은, 단순 오락물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역사 재현을 통해 현대 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나아가 SDGs 같은 국제적 의제까지 확산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오오쿠가 가진 '궁중 비밀', '음모와 암투'라는 장르적 흥미 요소 위에, 여성 캐릭터들의 성장과 연대를 배치함으로써 사극의 오락성과 페미니즘·젠더 이슈가 결합하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는 향후 다른 사극 작품들도 단순히 과거를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가치(성평등, 다문화·인권 등)와 연결해 새로운 담론장을 열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오오쿠 서사가 지닌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간 갈등을 자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시청자 호기심을 유도하는 서술 장

치가, 오히려 ‘여성은 경쟁적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재강화할 위험이 있다. 둘째, 극 중 ‘악역화’된 여성 캐릭터들이 때로는 ‘선악 이분법’ 속에서 희생당하는 방식으로 정리됨에 따라,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대하 드라마나 영화화 과정에서 상업적 성공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과도하게 변형하거나 시대 고증을 희생할 경우, 사극 장르의 설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 간 연대와 갈등을 함께 조망하면서, 여성 인물들의 동기나 맥락을 다층적으로 표현하는 서사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기획 단계부터 현대적 성평등 시각과 역사성을 조율할 전문가(역사·젠더 연구자 등)를 적극 참여시켜, 작품이 상업적 흥행과 사회적 가치 전파를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도 오오쿠라는 독특한 소재와 더불어, 에도 시대 여성의 생활사를 다양하게 재발굴해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사극 장르가 ‘과거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미래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오오쿠 작품들은 일본의 근세적 유교 문화 속에서 억압되거나 주변화된 여성 인물이,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자, SDGs Goal 5를 비롯한 여성 권한 강화 담론과의 접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에도 시기의 ‘금남 구역’이라는 설정이 여성 서사의 정치적 잠재력을 확장하는 무대로 기능함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역사 사극이 단순 오락을 넘어 현실 사회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오늘날 사극·문학·드라마가 지닌 파급력을 고려할 때, 오오쿠 서사와 같은 ‘여성주의적 역사 재해석’은 성평등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을 더욱 다양화하고 발전시킨다면, 동아시아 가부장제의 구조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 다스리기’를 통한 새로운 문화·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백 외.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역). 서울:그린비. : 42-140.
- 김정호. 2003. 『근세 동아시아의 개혁사상』. 논형. : 85-86.
- 김정호. 2024a. “『에지마 이쿠시마 사건』의 해체 - 역사 사건과 텍스트에서 본 질투와 욕망의 재구성 -”. 『日本語文學』 1(103): 223-246.
- _____. 2024b. “『平家物語』 속 시라보시(白拍子) -유녀(遊女)적 해석을 넘어”. 『일어 일문학』 104: 243-260.
- 금영진. 2011. “江戸噺本속에 보이는 老婆의 嫉妬와 好色”. 『외국문학연구』 41: 9-32.
- 루스 베네티트. 2021. 『국화와 칼』. 김윤식 외(역). 을유문화사. : 164.
-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 2018. 『살인출산』. 이영미(역). 현대문학.
- 장미경. 2005. “근대일본 수신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의 근대성과 반근대성 —『尋常小學修身書』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25: 219-238.
- 최승은. 2016. “『일본 중세 설화에 나타난 질투 관념 -『발심집(發心集)』, 『고금저문집(古今著聞集)』을 중심으로 -』”. 『日本思想』 31: 217-238.
- 최용우. 2020. “일본의 공사(公私)개념과 여성의 위치 -1980년대 “아그네스 논쟁”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84: 107-126.
- 케이트 밀렛(Kate Millet). 2020. 『성 정치학』. 김유경(역). 쌤앤파커스.

(2) 국외문헌

- 淺野妙子. 2006. 『大奥』. 角川文庫. : 19,137,139,144-145.
- 菊池駿助, 司法大臣官房庶務課【編】. 1931. 『徳川禁令考 前聚 第三帙』. 吉川弘文館. : 87.
- 小平麻衣子. 2023. 「フェミニズム批評」 『批評理論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 104-105.
- 竹内誠, 深井雅海, 松尾美恵子. 2015. 『徳川「大奥」事典』. 東京堂出版. : 7-432.
- 田端泰子. 2002. 『春日局に見る乳母役割の変質』. 女性歴史文化研究所紀要.
- 遠山淳. 2009. 『日本文化論キーワード』. 有斐閣. : 16.
- 中江克己. 2010. 『江戸城の迷宮「大奥の謎」を解く』. PHP文庫/PHP研究所. : 112.

- 永島今四郎, 太田賛雄. 1892. 『千代田城大奥 上下』朝野新聞社 : 1-250, 1-217.
- 三田村鳶魚. 2014[1964]. 『御殿女中』. 青蛙房. : 13-333.
- 松田秀子. 2010. 「女性解放運動に關わる雑誌」『大正女性文學論』. 翰林書房. : 135.
- 福田千鶴. 2020. “江戸城本丸女中法度の基礎的研究”.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63: 1-42.
- 舟橋聖一. 1973. 『舟橋聖一集』. 筑摩書房. : 23,48,293-294,324.
- 矢代靜一. 1973. 「宮城野」『寫樂考』. 日本劇作家協會. : 224.

(3) 영상 참고

- 〈SHOGUN 將軍〉(Justin Marks, 2024, Disney+, 10부), 제5화「父の怒り」, 제9화「奈落の底」.
- 〈大奥〉(兼崎涼介, 2024, フジテレビ・東映, 11부), 제1화 - 제11화, B tv+ 스트리밍 기준.

Abstract

Women in Early Modern Japanese Works and the SDGs
– Female Characters in *Ōoku* and Their Contributions
to SDGs and Future Directions

Kim, Jungh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literary and dramatic works set in *Ōoku* (大奥) – the Edo-period enclave for women – portray female narratives and incorporate modern concepts of gender equality (SDGs Goal 5). From Funabashi Seiichi's *Ejima Ikushima* (1950s) to Asano Taeko's *Ōoku* (2000s) and the 2024 Taiga Drama adaptation, these works progressively dismantle male-centric structures. The latest version, in particular, positions women not simply as victims or schemers, but as active participants in both *Ōoku*'s internal dynamics and broader shogunate politics, thus emphasizing equality and empowerment. It deftly weaves issues like childbirth control, family-based gender roles, and women's rivalry and solidarity into the historical drama, effectively reflecting SDGs Goal 5 (women's public engagement,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nd gender-equality awareness). By reconceiving women's narratives, these works demonstrate how popular culture can advance social values beyond merely revisiting historical events.

Key words: *Ooku*, Deconstruction, SDGs, Gender Equality, Historical Drama, Historical Reinterpretation

- ▮ 투 고 일 : 2025년 3월 16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東野彙輯』 「婦女部」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의미*

이강석**

| 목차 |

- | | |
|-------------------------|---------------------------------|
| 1. 머리말 | 대상: 「婦女部」 상편 |
| 2. 『東野彙輯』 「婦女部」의 구성과 특징 | 4.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제한적 인식: 「婦女部」 하편 |
| 3. 남성의 도약과 성적 욕망의 실현 | 5. 맺음말 |

| 초록 |

야담 속 여성 형상화에는 사족 남성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다수는 계보를 획득할 정도로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면서, 전대 야담의 주요 이야기를 집성한 『東野彙輯』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춘 「婦女部」 상편과 하편의 주된 경향성을 살폈다. 「부녀부」 상편의 주인공은 가부장제의 직접적 영향 아래 놓인 여성들로, 사족 남성이 저락한 사회적·경제적 처지에서 도약하기 위한 수단이자, 성적 욕망의 달성 대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부녀부」 하편의 주인공은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주체적인 면모가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체성 역시 사족 남성이 고안한 가부장제에 부합하며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편과 동일한 문법이 관철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728)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東野彙輯』 연구 이야기 구성과 지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25)의 제4장 1절 2항을 확장·보완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부산대학교 rkdtjr28@hanmail.net

이런 「부녀부」의 경향성은 보수적 야담집으로 규정되어 온 『동야휘집』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동야휘집』은 전대 문헌과 야담을 광범위하게 포섭했고, 특히 「부녀부」의 경우는 대부분 전대 야담집에서 전사한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부연이나 번개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존의 경향성을 부각하는 방향에 가깝다. 따라서 『동야휘집』 「부녀부」에 보이는 경향성은 전대 야담에서부터 이어져 온 연속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수적 야담집으로 규정된 『동야휘집』에 대한 평가는 보편성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野談, 『東野彙輯』, 「婦女部」, 여성, 주체성, 사족 남성, 욕망

1. 머리말

지금까지 야담 속 ‘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진행되었다(현혜경(1987); 이신성(1993); 장진숙(1993); 강영순(1995); 이월영(1997); 최기숙(2002, 2003a, 2003b, 2003c); 곽정식(2006); 정규식(2007); 이강옥(2008); 김지연(2016); 이주영(2018); 정솔미(2018); 이승은(2020)). 광범위한 연구의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은 야담에 그려진 여성이 남성의 시선을 통해 성립했다는 것이다. 구전되던 이야기를 문자화한 야담은 기록자인 사대부 남성의 지향을 투영한다(진경환, 1983). 그래서 여성의 자발성 혹은 주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포착하지만, 그들이 ‘내조자’ 혹은 ‘보조자’와 같은 수동적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문학적 ‘이중성’은 사대부 남성의 판타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김대중, 2019: 150-151).

18세기 중엽의 『동패락송』을 시작으로 활발히 향유된 야담은 19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다. 거개의 야담집이 상호 수용과 전재를 반복하며 이본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¹⁾ 여기에 주목해 야담을

1) 20종 10책 분량의 야담을 정보화한 『정보 한국야담전집(정환국 책임교열, 2021)』의 해제에서는, 대상 야담집들의 총 화수가 4천 2백여 항목이고, 20종 안에 반복되는 공

계보화의 관점에서 살핀 연구에서는 계보화한 야담 95편의 전승 관계를 살핀 뒤 出仕와 結緣 화소를 가진 34편을 고찰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야담에서 여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남성 사대부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단속하는 보수적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남궁윤, 2022).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곳으로 모아냈다는 점에서 이원명이 편찬한 『東野彙輯』의 「婦女部」가 주목된다. 1869년에 완성을 본 『동야휘집』은 야담에서 폭넓게 향유되었던 주요 이야기를 모두 수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환국, 2024: 239). 이는 『동야휘집』을 구성하는 13部の 편제 가운데 하나인 「부녀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보를 획득한 야담을 다수 신고 있다는 점에서 『동야휘집』에는 야담 속 여성에 대한 시선이 종합·집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동야휘집』의 보수적 색채를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로 주요하게 활용되었다(김상조, 2003). 여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담았다는 표면적 현상에 주목했을 뿐, 이야기 배치 방식이나 경향성, 전대 야담과의 연속성 등은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불완전한 평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야담 속 여성의 모습이 남성의 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동야휘집』 「부녀부」의 구성과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부녀부」 상편과 하편의 경향성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東野彙輯』 「婦女部」의 구성과 특징

『동야휘집』은 전대 야담을 광범위하게 수용했다. 전체 260화의 이야기

통 화소의 빈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독립된 이야기 화소는 약 1,000개이고, 좀 더 서사적인 이야기 군은 300가지 안팎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종의 야담집에 빠짐없이 전제되어 자기 계보를 획득한 작품이 150여 편 내외라고 밝혔다.

는 13部和 130篇으로 정연하게 구획된다. 部는 비교적 큰 주제로 이야기를 묶은 것이고,²⁾ 篇은 한 주제로 두 이야기씩 짝을 지은 것이다. 어떤 주제를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은 특정 주제 아래 이야기를 彙錄한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동야회집』의 13部和 130篇 260話라는 수치는 260가지의 다양한 목소리를 130가지로, 13가지로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한 결과라 하겠다.

13部 가운데 하나인 「부녀부」 역시 마찬가지다. 「부녀부」에서는 전대 야담에서 주요하게 향유되었던 여성 야담을 수합하고 필요에 따라 윤색을 가했다. 특히 「부녀부」 하편의 「12-2. 授簡書老婦垂誡」는 청대 필기집 『諧鐸』의 두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수용·개작한 새로운 야담이기도 했다. 이처럼 휘록과 개작 두 방식이 엮물리며 성립한 「부녀부」는 전대 야담의 수합이라는 단순한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야담 속 여성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자신의 시선까지 엮어 일관된 시선을 보여주려는 편찬자 이월명의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부녀부」가 아니더라도 『동야회집』에서는 여성 야담이 상당수 등장한다. 「절의부」에서도 여성 서사가 다수 등장하고, 다른 여러 部에서도 여성이 중심에 놓이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³⁾ 하지만 그렇기 때

2) 『동야회집』 전체 13부는 「恩數部」·「儒賢部」·「將相部」·「節義部」·「技藝部」·「方術部」·「道流部」·「性行部」·「人事部」·「婦女部」·「雜識部」·「述異部」·「拾遺部」로 구성된다.

3) 대표적인 사례로 「장상부」의 정기룡과 곽재우 부인, 「절의부」 貞烈 조목의 여섯 절부와 유인숙의 여중, 「방술부」의 봉화 여중, 「성행부」의 이기축과 이장곤 처, 「잡지부」의 홍도, 「술이부」의 기생 粉英과 「15-7. 返故妻換魂持家」의 전처와 후처, 「습유부」의 기생 매화와 초운 등이 있다. 또 이들처럼 서사의 전면에 개입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인정받는 여성 등장인물을 헤아려보면, 총 50명 가량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인정하느냐가 문제겠지만, 『동야회집』에서 「부녀부」의 여성 서사 36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주목이 이뤄짐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문에 「부녀부」의 의미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야담 가운데서도 특정한 야담을 ‘婦女’라는 표제로 묶은 것은 그 이야기들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데에 일정한 의도가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녀부」의 전체 구성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 『東野彙輯』 「婦女部」의 구성

部	總目	작품명	部	總目	작품명	
婦女 (上)	德行 (2)	11-1. 葛布獨赴命婦筵	才慧 (4)	一	12-1. 藏扇幣童女證約	
		11-2. 紅袖三裁大官服			12-2. 授簡書老婦垂誠	
	奇婚 (4)	一		11-3. 驚異夢竟成奇婚	二	12-3. 對棘婿捧標立證
				11-4. 作良媒俱受晚福		12-4. 納棠婢授計求嗣
		二	11-5. 綵轎據廊責貴子	妬悍 (2)	12-5. 憐女貌赦罪接話	
			11-6. 紈扇映錠約正室		12-6. 削夫髻施罰雪憤	
	佳緣 (4)	一	11-7. 合玉環逢妻得胤	仇恨 (2)	12-7. 驚劒血青樓飲恨	
			11-8. 失青銅獲妾橫財		12-8. 借弩手又鬻復讎	
		二	11-9. 賢婦智納綵轎女	奇遇 (2)	12-9. 掃雪庭獲窺故情	
			11-10. 嚴父醉恕錦囊兒		12-10. 簪花路遇譜舊緣	
	異蹟 (4)	一	11-11. 轉誤緣紅錦寄信	志操 (2)	12-11. 尼菴逢郎問登科	
			11-12. 脫禍網玉環踐約		12-12. 仙樓對客話贈詩	
		二	11-13. 尋宿盟三婦同室	情義 (2)	12-13. 蠹石樓兩女黜陟	
			11-14. 獲奇遇二妾列屋		12-14. 納清亭二客咲笑	
	智識 (4)	一	11-15. 轎中納鬻誑賊帥	才妓 (2)	12-15. 咸關對唱娥留期	
			11-16. 城裏埋藥樹詔使		12-16. 長城遇詩妓見賣	
		二	11-17. 保家業一聽智婦	名唱 (2)	12-17. 星月每道三可笑	
			11-18. 換身雙占饒妾		12-18. 玉香爲說兩未忘	

『동야회집』 「부녀부」 상편과 하편은 각각 18편의 이야기를 담아 총 36편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부녀부」 상편의 특징으로는 등장인물이 사대부가 혹은 일반 여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성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덕목에 해당하는 德行·智識과 남녀의 결연에 초점을 맞춘 奇婚·佳緣·異蹟으로 나뉜다. 하편도 대상을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다. 才慧·妬悍이 일반 여성이 주인공이라면 仇恨·奇遇·志操·情義·才妓·名唱은 여종과 기생이 주인공이다. 이런 경향성을 보면 「부녀부」 상편은 상층 내지 일반 여성을, 하편은 하층 여성의 서사를 집중적으로 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부녀부」 상편과 하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여성의 계층이며, 이러한 구획은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⁴⁾

「부녀부」 상편은 德行을 위시한 5개의 조목으로, 하편은 才慧를 위시한 8개 조목으로 구성된다. 조목에 배치된 작품 수의 분포도 유의미한 점이 있다. 상편의 奇婚, 佳緣, 異蹟, 智識 조목에는 각각 네 작품씩 포함된다. 이 말은 곧 奇婚을 위시한 네 조목의 이야기들이 전대 야담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향유되었음을 의미한다.

奇婚, 佳緣, 異蹟 조목은 남녀의 결연이 중심에 놓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奇·佳·異다. 사족 남성인 편찬자 이원명의 입장에서 기이하고, 아름답고, 이채로운 결연이라 정의한 셈이다. 이들 수식어는 보편적·정상적 범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능력인 지인지감에 주목한 智識 조목의 이야기들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녀부」 상편의 경향성은 가부장적 배경이 적극 작동하는 가운데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야담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이면

4) 물론 「부녀부」 상편과 하편의 모든 작품이 이 기준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녀부」 하편의 초반부 才慧 조목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상편의 여성들과 계층적 동질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하편에 배치된 妬悍 조목을 고려하면 상편과 하편의 분기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이 갖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염두한 배치로 여겨질 수도 있을 법하다. 다만 그 긍정과 부정의 기준 역시 남성의 가부장제적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를 상편과 하편을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보았다.

서, 환상적·비현실적 사건에 의해 남성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서사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부녀부」 하편에서 중요한 점은 여종·기생의 이야기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층적 분포만큼 이목을 끄는 것은 첫머리인 才慧 조목이다. 여기서는 하층 여성의 이야기가 아닌 일반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하층 여성에 주목했다는 주류적 흐름에서 다소 벗어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왜 상편이 아닌 하편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才慧 조목에 실린 네 편의 여성담은 여성의 주체성이 부각된 이야기들이다. 「12-1. 藏扇幣童女證約」에서 자결을 통해 적서차별을 없앤 양사언 모친, 「12-2. 授簡書老婦垂誠」에서 수절을 개인의 의지에 위임한다는 유훈을 남긴 節婦 장씨, 「12-3. 對棘婚捧標立證」에서 시부의 喪中에 남편과 동침하고 手記를 요구한 신부, 「12-4. 納棠婢授計求嗣」에서 여종을 대신 침실로 들여보내 2남 1녀를 얻은 임씨 부인의 행위는 가부장적 윤리라는 기준에서 정상적이라 보기 힘든 것들이다. 이상의 특징을 갖는 「부녀부」 하편의 경향성은 家로 설정된 가부장제의 직접적 영향력 밖에 자리한 여성들이 중심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여성들의 주체적 면모는 상편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록자인 사족 남성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녀부」의 구성은 『동아휘집』 이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선본인 「대판본」에 실린 이야기는 총 36화이고, 「천리대본」도 동일하다. 그다음으로 평가받는 판본인 「서울대본」의 경우 총 19화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대본」에서 「대판본」의 28화~36화를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생’이 중심이 된 이야기들이다. 이 점은 적어도 기생 이야기가 일반 여성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취급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고, 그런 기준에는 역시나 가부장제의 엄격한 기준이 드리워져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누락의 사유가 명확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다만 이런 작품들이 있기에, 일정한 정형성을 가진 작품들에서 되풀이되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동야취집』은 전대 야담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변주했다. 「부녀부」 역시 그러한 경향성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 수용과 변주 양상은 단선적으로 해명되기 어렵다. 원 이야기를 전사하다시피 한 경우가 대다수인 가운데 윤색이 가해진 이야기나 개작이 시도된 이야기 역시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사한 경우는 원 이야기 역시 사대부 남성과 기성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었기에 별다른 변화가 가해지지 않은 것일 터이고, 윤색과 개작이 발생한 경우는 편찬자 이원명의 의도가 「부녀부」의 조직과 배치에 긴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구성과 특징에 유념하면서 「부녀부」 상편과 하편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그 의미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3. 남성의 도약과 성적 욕망의 실현 대상: 「婦女部」 상편

『동야취집』 「부녀부」 상편 첫머리에 놓인 德行 조목에는 「11-1. 葛布獨赴命婦筵」, 「11-2. 紅紉三裁大官服」 두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 두 이야기는 상층 여성의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11-1. 葛布獨赴命婦筵」에서는 月沙 李廷龜의 夫人 權氏가 命婦의 연회에 葛布를 입고 갈 정도의 검소함을, 「11-2. 紅紉三裁大官服」에서는 文谷 金壽恒의 夫人 羅氏의 선견지명과 지인지감 藻鑑에 주목했다.

검소함은 여성의 행장이나 제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덕목이며, 선견지명과 지인지감 또한 마찬가지이다(김경미, 2012: 65). 사족 남성에게 의해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표현은, 추송과 현창이라는 의도에 부합하도록 정형화된 틀이다. 이 작품에 대한 편찬자 이원명의 인식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두 작품의 사평에서는 이 여인들의 婦德이 가문의 번성

과 후손의 번영을 유도한 것으로 본다.⁵⁾ 두 이야기 속 ‘賢婦’의 모습이 사족 남성과 그들이 고안한 가부장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德行 조목 이하에서 사족 남성의 사회·경제적 도약과 성적 욕망의 관철이 반복적으로 표출된 것은 이러한 문법에 기반한다.

이어지는 조목은 奇婚으로 총 네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조목을 대변하는 ‘기이하다’는 가치 평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1-3. 驚異夢竟成奇婚」의 주인공 정효준은 세 번 喪妻했고, 딸만 둘을 두었다. 端宗의 봉사손이었음에도, 그 제사조차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의 가난은 극심했다. 이런 상황은 정효준에게 필요한 것이 ‘아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처지에 배우자를 선택할 주도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에 정효준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인 이진경의 딸과 혼인하고자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하지만 ‘꿈’을 통해 정효준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혼인에 성공했다. 그 결과 五子登科의 경사, 부귀영달, 95세까지 누린 천수 등 萬福이 몰려들었다. 이 이야기에서 ‘꿈’의 중요성은 禱言을 요하지 않는다. 편찬자 이원명도 그 혼인의 결정적 계기인 꿈에 주목했다.⁶⁾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야기 배치에 보이는 의도다. 「11-3. 驚異夢竟成奇婚」은 奇婚 조목 아래 실린다. ‘驚異夢’이라는 제목만 본다면 합당한 배

5) 「11-1. 葛布獨赴命婦筵」, “外史氏曰: … “迨茲德行, 永享福慶, 宜其子姓蕃昌, 爲東方華閭甲族也.”; 「紅袖三裁大官服」, “外史氏曰: “…作配名門, 永受多祉, 而誕育多子如下氏之六龍, 垂裕後昆, 克大以昌, 其非夫人懿德之致耶?” 이하 『東野彙輯』의 원문과 역문은 각각 정환국 책임교열(2021); 김중근 외 6인 번역·김현룡 책임 감수(2023)을 참고해 제시하였다. 단 원문에서 구두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나, 번역문에서 윤색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수정해 제시한다.

6) 「11-3. 驚異夢竟成奇婚」, “外史氏曰: “海豐之奉朝家祠宇, 洵同一間茅屋之祭, 此國人之所愴感者. 家貧而香火難繼, 尤嗟傷處也. 赫命在上, 諭戒諄復, 顯聖靈佑, 若是丁寧, 可見神理孔昭, 吁亦異哉! 人生窮達, 莫非天賦, 故夢兆命數, 如合符契, 凡事皆有前定, 而人苦不自知耳.”

치라 하겠다. 하지만 편찬자 이원명이 주목한 ‘기이함’은 꿈만으로 볼 것이 아니다. 「11-3. 驚異夢竟成奇婚」과 ㅅ를 이루는 작품은 김우항이 주인공인 「11-4. 作良媒俱受晚福」이다. 이 역시 정효준 이야기와 유사한 조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김우항은 예순이 넘은 동료 목릉 별검 정 참봉과 서른이 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한 도벌꾼 누이의 중매를 섰다. 이후 정 참봉은 아들 둘을 두었고, 그들과 손자까지 급제하게 된다. 김우항의 중매에 도벌꾼의 노모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김우항의 발복을 축원했다. 이 혼인의 파급력은 예순을 넘기고 喪妻한 정 참봉 본인의 결핍이 해소되는 정도를 넘어, 혼인을 중매한 김우항의 영달에까지 관여했다. 이는 곧 이러한 형태의 혼인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11-3. 驚異夢竟成奇婚」과 「11-4. 作良媒俱受晚福」은 현격한 나이 차를 극복한 혼인에 주목했다. 따라서 편찬자 이원명이 주목한 ‘奇婚’의 기이함이란 두 이야기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혼인의 비대칭성을 향하는 것이다. 이런 혼인을 통한 발복이 직접적으로는 혼인 당사자인 남성의 가문에, 간접적으로는 그 혼인에 관여한 남성에게 미친다는 점이 주목의 이유였다. 따라서 「11-3. 驚異夢竟成奇婚」과 「11-4. 作良媒俱受晚福」은 여성 서사로 인식되어 「부녀부」에 배치되었지만, 이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奇婚은 사족 남성의 시선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⁷⁾

정효준과 김우항 이야기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이지만 그 존재감이 서사 전면에 드러나진 않는다. 반면 주체적·적극적으로 자신의 才智를 드러

7) 奇婚 조목의 나머지 두 이야기인 「11-5. 綵轎據廊責貴子」와 「11-6. 紈扇映鏡約正室」은 남성과 가문의 직접적인 현달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 이야기와는 이질적이다. 하지만 두 이야기의 여성 주인공은 가부장제를 완벽히 내면화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여인은 모두 첩이 되기를 거부하고 정식 혼례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한다. 「11-5. 綵轎據廊責貴子」에서는 노재상 尹絳의 정실이 된 유씨 부인이 가법을 바로잡아 후손이 영달했고, 「11-6. 紈扇映鏡約正室」에서 여주인공은 홍운성의 후처가 되어 그의 괴팍한 성격을 순치했다. 따라서 두 이야기의 주인공 여성이 가부장제를 내면화하여 남성을 보조하고 가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역시 남성의 시선이 적극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는 경우도 있다. 智識 조목에 속한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여성성이 결여되었음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11-16. 城裏埋藥恸詔使」에서 정충신은 노재상의 庶女를 첩으로 맞이한다. 문제는 그녀가 ‘덩치가 크고 말씨가 無味하여 軀殼甚大, 語言無味’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찰사가 정충신을 급히 불렀는데, 첩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견하고는 대처법까지 알려준다. 그 일이란 곧 중국 사신들이 백금 2만 냥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정충신은 첩이 알려준 대로 대포를 쏘고 화약을 터뜨려 중국 사신들을 겁에 질려 돌아가게 하여 이 일을 해결했고, 이로 말미암아 정충신은 관찰사로부터 후한 예우를 받았으며 이후 일마다 첩에게 의논하였다고 한다. 「11-17. 保家業—聽智婦」 역시 비슷하다. 장세걸의 아들은 심심산골의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용모와 행동거지가 놀라울 정도로 밋상스러운 容貌舉止可憚可駭’ 추녀였던 까닭에 식구들의 비웃음을 산다. 하지만 여인은 방 안에 앉아서도 살림을 잘 꾸리는가 하면, 멀리 떨어진 친정의 소식을 단번에 알아채기도 한다. 어느 날, 여인은 식구들을 이끌고 번듯한 살림이 차려진 친정이 있는 산골로 들어간다. 곧 바깥세상에 벌어질 왜구의 난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녀’ 혹은 ‘여성적 매력이 부족한 여성’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적지 않은 나이 차를 극복하고 젊은 여성과의 결합하는 서사에 투영된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과는 결을 달리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이 ‘지혜로움’ 혹은 ‘선견지명’에 의해 채워진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진경 딸이나 도별꾼 누이와 달리 이들의 지혜와 선견지명이 서사의 전면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 역시 사족 남성의 사회적 성취와 가문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족 남성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탈하는 대상에 여성의 ‘미모’(곧 性)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혜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여성의 才智가 여성의 주체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함을 피력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상 살펴본 이야기에서 여성의 존재는 매몰되거나, 혹은 표출된다 하더라도 오직 사족 남성의 목적성을 위해 존재한다. 사정은 비슷하지만, 취첩담의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물론 축첩이란 사족 남성의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욕망을 제도화한 것이니, 여기서도 여성은 욕망의 달성을 위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다만 그 관철 방식이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일방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 축첩제도는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을 암묵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도, 일각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하는 시선이 병존했던, 이중적 상황에 좀 더 유념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다.

佳緣 조목의 「11-9. 賢婦智納彩轎女」에서 이경류의 선조는 가난한 집안 형편을 회복하고자 추노하러 가는 도중 우연히 한 여인과 동침하게 된다. 무남독녀인 이 여인은 어릴 적 꿈에서 본 사내와 결혼하기로 굳게 다짐했다며 한사코 그와의 결혼을 고집한다. 게다가 그 집안에서는 추노의 속량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제시했다. 이에 주인공은 부득이 여인과 동침한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자, 아내는 그 불가피했던 사정을 古談으로 꾸며 엄한 시아버지를 설득했다. 마침내 소실을 집안에 들이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음한다.

자부는 곧장 종에게 명하여 旅店으로 가서 소실을 재촉해 들어와 인사시키라고 했다. 잠시 후 사람과 말이 거리를 가득 메우더니 아름다운 얼굴을 한 부인이 가마에서 나와 시부모와 정실부인에게 인사를 올렸다. 노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상자와 짐꾸러미가 산처럼 쌓이니, 가난하던 시골 선비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 기쁜 기운이 가득 찼다. 이후에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마침내 牧使에 이르렀다. 자식들도 번성하여 행복한 경사를 누리니, 이는 모두 현명한 부인의 도움이라고 했다.⁸⁾

8) 「11-9. 賢婦智納彩轎女」, “婦卽命蒼頭, 往旅店, 催小室入見. 俄頃, 人馬填巷, 一玉面婦人, 出自彩轎, 推納拜於公姥及正室, 奴婢雲集, 箱篋山積. 窮措大猝成富家, 喜氣盈門. 後筮仕至牧使, 多子姓享福慶, 皆賢婦之助也.”

부인이 질투하지 않고 소실을 들인 행위만으로 가난한 시골 선비(窮措大)의 저락한 처지는 일순간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벼슬을 손에 넣는 환상적인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질투를 금기시하는 것은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원활하게 관철시키는 주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편찬자는 그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이러한 사족 남성의 욕망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이는 哲婦가 되고, 이 여인의 행위로 인해 기울어가던 가세가 일거에 회복되며 남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⁹⁾ 이러한 구조의 이야기 역시 앞서 사족 남성과 가문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거듭 강조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智識 조목에 실린 「11-8. 失靑銅獲妾橫財」에서 우하형은 벼슬이 떨어진 뒤, 가난한 생활을 이기지 못해 엽관 운동에 뛰어들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에 병조판서택 首婬를 사칭하는 자를 만나 엉뚱하게 돈을 탕진하게 된다. 낙심한 우하형은 차라리 죽기를 결심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부녀자의 집에 내정돌입하여 겹간한 뒤, 맞아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죽으러 들어간 집에서 뜻밖의 당돌한 여인을 만난다.

우하형이 말하였다.

“나는 본래 宣傳官이었는데, 도둑놈에게 속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죽기를 결심했으나 自盡할 수 없었다네.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고자 해서 어그러진 일을 한 것이지.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죽는 것 또한 어렵군.”

여인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공께서는) 정말 미쳤네요! 어찌 세상에 죽음을 구하여 죽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은 西班의 華閥이시온즉, 어찌 하필 이런 風骨로 헛되이 죽고자 하십니까? 첩에게도 구구한 사정이 있어서, 한번 죽고자 했지만, 진실로 어렵군요.”¹⁰⁾

9) 「11-9. 賢婦智納彩輜女」, “外史氏曰: “女子偏性, 故易妬而不妬者, 乃哲婦, 此所以穆·螽之著於國風也. 婦爲夫納媵, 克盡和悅, 又能寬舅之慍, 其賢淑才智, 果何如也? 妾堅守己志, 自擇良耦, 決然從歸, 亦慧識之出類者歟!”

10) 「11-8. 失靑銅獲妾橫財」, “禹曰: “吾本前日宣傳官, 爲賊漢所斯盡失家產, 決意就

죽기를 결심하고 들이닥친 우하형에게 오히려 여인이 되묻는다. 단순한 반문이 아니었다. 華閥이니 風骨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우하형의 사람됨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인은 자신의 확신을 통해 죽음을 만류하고, 엽관 운동을 한답시고 사기를 당해 돈을 몽땅 잃어 위축된 사족 남성을 위로했다. 한편, 여인도 자신 역시 죽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정치의 구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같은 처지임이 확인되었고, 우하형은 여인의 청에 따라 그녀를 첩으로 맞이한다. 그 결말은 첩의 패물로 집안이 넉넉해지고, 우하형은 다시 벼슬하여 절도사에 이르렀던 것이니, 역시나 남성의 도약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의 전형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생면부지의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우하형의 모습과 그 인연으로 남성이 재기할 수 있었다는 이 서사는 돌발적 요소로 채워진다. 이러한 패턴은 취첩담에서 재차 반복된다. 異蹟 조목의 「11-11. 轉誤緣紅錦寄信」에서 李安訥은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드는 바람에 어느 역관 집 종들이 그를 새신랑으로 오해하여 집안에 들여놓아 남의 집 새신부와 동침한다. 그리고 「11-12. 脫禍網玉環踐約」에서 洪暹은 딸의 액막이를 위해 첩으로 삼아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속아 연을 맺는다. 과정은 달랐지만, 두 이야기 역시 집안이 부유해지고 복록을 누렸다는 것으로 끝맺음한다.

한 명 이상의 첩을 들이는 이야기도 있다. 「11-13. 尋宿盟三婦同室」은 주인공 柳綽然이 본처와 의형제였던 두 여인을 모두 첩으로 맞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경우로 「11-14. 獲奇遇二妾列屋」도 있다. 주인공인 사족 남성은 자신을 따라온 미녀를 첩으로 삼아 집안 형편이 나아지고, 그 여인이 데려온 또 다른 미녀를 첩으로 삼았더니 벼슬에 나아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대개 여인들이 능동적인 태도로, 오히려 자신

死, 而不能自盡, 欲爲人打殺, 故作悖舉, 今汝夫不在, 死亦難矣.” 女笑曰: “信乎狂也! 且豈有求死而不得者乎? 公果西班牙閥華, 則以此風骨, 何必浪死? 妾有區區情事而一死, 誠難矣.”

들이 나서서 혼쾌히 첩이 되기를 원한다.¹¹⁾

우하형 이야기 이하의 작품에서는 사족 남성이 뜻밖의 사연으로 인해, 혹은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부득이’ 축첩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욕망의 주체인 사족 남성은 수동적인 태도로, 심지어는 마지못해 축첩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11-13. 尋宿盟三婦同室」, 「11-18. 換身粧雙占饒妾」은 일찍이 ‘우연’으로 인해 사족 남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일거에 도약하게 되는 사례로 지적되었다(이강옥, 2006: 378-380). 이론의 여지 없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기이한 우연이지만, 그 이면에 여성의 계획이 치밀하게 작동한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편찬자 이원명 역시 두 이야기에서 남성에게 일어난 일을, 하늘이 정한 필연의 소치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¹²⁾ 이렇듯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반복적으로 그려내었던 것은, 남성에게 국한되어 부여된 이 우연성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대심리를 대변하는 기제였다. 편찬자 이원명이 이들 이야기에 아름답고佳 이채로운異 남녀의 결합이라는 대표성을 부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11)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살펴야 할 작품도 있다. 「11-18. 換身粧雙占饒妾」에서 宋進士는 평소 마음에 담아 둔 과부의 초대를 받는다. 그런데 과부가 송 진사를 초대할 것은 자신을 보쌌하려는 마을 이방의 계획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그렇게 송 진사를 보쌌온 이방은 놀랐을 과부를 진정시키려 딸과 같이 자게 했다. 그 덕분에 송 진사는 이방의 딸을 손쉽게 범했다. 이후 송 진사는 과부와 이방의 딸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고, 집안이 융성해지고 자손 또한 번성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송 진사와 이방 딸과의 관계는 강제적, 의도적으로 맺어지지만, 이러한 행위는 송 진사가 두 여인을 거느리고 부유하게 살았으며 후대가 번성하다는 ‘결과’에 의해 문혀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고 하겠다.

12) 「11-13. 尋宿盟三婦同室」, “外史氏曰: “女子有行, 固待天定之緣, 而三女結義, 誓以同歸, 矢死靡他, 竟諧宿願, 其志可尙, 其事甚奇. 月老赤繩之湊, 成此佳緣, 可見人有所願, 天必從之. 而柳妻即近於女俠者, 媒彼兩娥, 能踐宿約. “宴爾新婚, 如兄如弟, “晝彼小星, 抱衾與禰, 『詩』不云乎?”; 「11-18. 換身粧雙占饒妾」, “外史氏曰: “『倡善感義錄』, 尹汝玉粧女服, 而得親嚴嵩之女, 蓋似此奇遇, 古亦有之, 而因鴻雁而成鴛合, 亦非天定歟? 村女之打扮換形, 獲免強暴, 其智巧矣. 生之一舉而得兩女, 皆因其婦之計, 則可謂時來風送, 因人成事者也.”

현실적인 이유도 지적할 수 있다. 축첩의 명분은 다양했지만, 저항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妬忌’며 ‘不德’이라는 죄목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성은 남편의 축첩에 직접 저항하기보다는 婦道를 통해 자신을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소극적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금 남성의 전략에 포섭되어 축첩을 유지되게 하였다(김경미, 2012: 93-94). 하지만 서사 속에서 벌어지는 축첩의 모습은 이런 현실과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11-9. 賢婦智納彩輜女」와 뒤이어 배치된 「11-10. 嚴父醉怒錦囊兒」 두 이야기는 주인공 남성이 嚴父의 엄격한 윤리적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난 사실을 강조한다.¹³⁾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서사, 다시 말해 주인공 남성이 부득이하게 첩을 들이면서 겪게 되는 압박과 직결된다. 하지만 그 문제는 옛이야기로 꾸며 들려준다거나, 혹은 첩의 가문에서 성의를 내보임으로써 해결된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의 위반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 볼 기회조차 사라지고, 위반을 관대하게 수용한 결과는 사족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가문의 영달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사족 남성에게 첩으로서 종속되는 장면이 거듭해서 등장했던 것은 그들의 성적 욕망이 더욱 원활하게 관철되기 위한 장치였다. 그 방식의 피동성은 ‘엄부의 질책’으로 표상되었던 금기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다. 사족 남성을 향해 돌진하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마침내 사족 남성의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욕망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서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상 「부녀부」 상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들은 사족 남성

13) 「11-9. 賢婦智納彩輜女」, “少時, 屢舉不中, 但稱以書生. 庭訓嚴毅, 恪遵義方.”;
「11-10. 嚴父醉怒錦囊兒」, “其大人恬謹耿介, 不以飢寒易操. 嚴訓其子, 見有過失, 輒裸入繩網, 懸樑上. 稚之曰: “吾家剝復係汝一身, 未有酷罰, 何望悛改?””

의 사회적·경제적 도약에 기여하고, 성적 욕망을 원활하게 관철되게 하는 대상으로 존재했다. 이는 전대 야담을 수용하여 조직·배치하는 과정에 「부녀부」 상편 조목의 핵심인 奇·佳·異가 대변하는 사족 남성의 판타지가 부단히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향성이 『동야취집』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살펴본 「부녀부」 상편은 물론이거니와 「부녀부」 하편에 실린 이야기 대부분은 『학산한언』, 『동패락송』, 『기문총화』 등 전대 야담집에 실린 것을 전사에 가깝게 옮겨 온 것이다. 따라서 「부녀부」에 보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전대 야담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속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⁴⁾

4.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제한적 인식: 「婦女部」 하편

「부녀부」 상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家의 범주 내에서 가부장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그 존재감을 표출했다. 반면 「부녀부」 하편의 여성들은 계층의 차원에서 다른 점이 있다. 전체 18편 가운데 12편이 하층 여성에 주목한 야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주인공인 기생 혹은 여종은 家라는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다.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부녀부」 상편의 여성에게 작동하는 만큼 직접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녀부」 하편에서는 여성의 주체적인 면모가 좀 더 부각된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역시나 사족 남성과 가문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경향성만큼이나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부녀부」 상편과

14) 그런 점에서 야담 속 여성 이야기에 대한 보수적 시선은 사회·경제적 혼란 속 저락한 처지의 사족 남성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과 희생을 정당화하고 이를 내면화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강명관(2017: 119); 김경미(2012: 263-265); 전지원(2022: 99-106))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계층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부녀부」 하편의 주류인 하층 여성의 서사를 살피기에 앞서 이 경우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해당 조목인 才慧에는 총 네 작품이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서 「12-2. 授簡書老婦垂誠」는 청대 필기집 『해탁』의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수용·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

「양사언 모친 이야기」로 알려진 「12-1. 藏扇幣童女證約」는 『동패락송』 계열, 『청구야담』 계열, 『금계필담』 계열로 세분화하여 계보가 잡힐 만큼 다양한 서사구조를 가지면서 폭넓게 향유된 작품이다. 양사언의 부친 양희수는 영광군수로 부임하는 길에 만난 영특한 소녀를 훗날 소실로 들이게 되고, 그 사이에서 양사언·양사준 형제가 태어난다. 공통적 핵심은 후반부에 보인다. 양희수의 죽음 이후 양사언 모친이 집안의 적서 구별을 없애기 위해 자결함으로써 두 아들이 적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¹⁵⁾

「12-3. 對棘婿捧標立證」에서 주인공 허 선비는 초례 날 부친의 부고를 접하고 신부의 얼굴을 볼 겨를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장지가 마침 처가 뒷산이라 허락받기 위해 들렀다가 신부를 만나 동침하게 된다. 이후 신부는 장지로 찾아가 허 선비 일가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음까지 불사할 각오로 不得手標, 雖死不回 수기를 요구했다. 허 선비의 유복자가 태어났을 때 신부에게 쓸리게 될 不正의 혐의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12-4. 納棠婢授計求嗣」에서 주인공 소달의 아내 임씨는 을묘왜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에 여종을 침실로 들여보내 2남 1녀를 얻어 친정에서 몰래 기른 뒤 훗날 후사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15) 「12-1. 藏扇幣童女證約」, “乃曰: “妾有二子, 作人不甚愚鹵。然東俗自來賤孽, 渠雖潘岳般貌·子建般才, 不齒士夫之列, 將焉用哉! 嫡長諸兄, 雖愛恤無間, 而妾死之後, 當服總麻三月, 則於是而嫡庶判矣。吾兒處身, 雖欲掩迹, 便是以鎌遮眼, 祇益露醜。妾欲於今日自裁, 使其服制, 混同彌縫, 泯滅吾兒庶孽之名。幸望列位, 哀之憐之俾賤身, 無至飲恨於九泉, 則雖死之日, 猶生之年。”

양사언 모친은 서모라는 신분적 제약이 있다. 허 선비의 신부는 喪中인 남편과 동침했고, 소달의 부인 임씨는 가문의 종적 재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가부장제의 주변을 맴돈 인물이라 하겠다. 그들은 주체성을 발휘해 결격 사유를 극복하고자 했다. 양사언의 모친은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해 적서 차별을 없앴다. 허 선비의 신부는 윤리적 금기 위반을 혐의해 시가 친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침의 징표를 요구했다. 소달의 부인 임씨는 한사코 거부하는 남편이 여종과 동침할 수 있게 속임수를 썼다. 이들의 주체적 행위는 가부장제의 주변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것이 발휘되는 방향성에는 사족 남성이 설계한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다분히 개입하고 있었다. 편찬자 이원명이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도,¹⁶⁾ 그 정성과 간절함을 측은하게 여기고 재주와 식견이 탁월한 절부로 평가한 대목은¹⁷⁾ 이를 입증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외부 서사인 『해탁』에 기반해 성립한 「12-2. 授簡書老婦垂誠」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¹⁸⁾ 『해탁』 권9의 「村姬毒舌」과 「節母死時箴」을 결합한 것인데, 이야기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 ① 進仕 任希進은 호남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 ② 그 선조인 임 선비는 글재주가 있었는데 결혼 전에 향시에 급제하고 회시를 보기 위해 떠났다.
- ③ 임 선비는 長城을 지나다가 한 소녀와 만난다. 그 모친에게 혼인 의사가 있냐

16) 「12-3. 對棘婿捧標立證」, “外史氏曰: “天不欲使斯人絕嗣, 故葬地之占其家後, 妻母之勸以見女, 俱非偶然, 而棘人事, 尤係常情之外. 女之慧識, 能透察於禍福微茫之間, 乃辦非常之舉, 言正理順, 經權互用, 可謂其智不可及也.”

17) 「12-4. 納棠婢授計求嗣」, “外史氏曰: “林之自剄免辱, 蘇之誓不置媵, 其節可嘉, 其義可尚. 天若見憐, 何靳錫胤, 而皇天無知, 伯道無兒, 子文無后, 何以勸善? 自昔然矣. 理難譏斯, 林乃施計納婢, 使夫有子, 其誠心懇惻, 才識卓越, 非直爲烈節之婦也.”

18) 이하 작품 분석은 즐고(2025: 103-106;138-139)를 주요하게 참조하였다.

고 물었지만 거절당한다.

- ④ 회시를 보고 돌아오는 길, 다시 장성에 들르지만 소녀의 모친은 만나주지 않았다.
- ⑤ 그 집안의 숙부에게 부탁하여 마침내 소녀를 얻어 데려갔는데 펍 총명하고 재주가 있었다.
- ⑥ 얼마 후 임희진의 선조는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된 소녀가 유복자를 낳고 수절하며 살았다.
- ⑦ 부인이 80이 넘어 임종하면서 孫婦들을 불러놓고 수절을 개인의 의지에 맡기라는 유훈을 남긴다.
- ⑧ 사람들이 그 말에 경악하자 자신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과거 욕정에 못이겨 남자의 방에 찾아갔다가 바깥의 인기척에 놀라 방으로 돌아와 잠들었고 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만났다고 했다.
- ⑨ 자식들에게 수절을 개인에게 맡김을 家法으로 명시하게 한 뒤 웃으며 숨을 거두었다.

①~④는 『해탁』의 「촌희독설」, ⑥~⑨는 『해탁』의 「절모사시잡」을 전제한 것이다. ⑤는 두 이야기의 연결을 위해 설정된 서사 단락이다. 두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기에, 이들이 한 이야기로 연결된 경위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임 선비는 회시를 보러 떠나는 길에 들르게 된 長城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어미를 불러온다. 임 선비는 소녀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거둬 설득했지만, 어미는 완고하게 거절했다. 임 선비는 세 차례의 설득에 모두 실패했다. 임 선비는 가장 먼저 ‘女子有行’ 운운하며 예법 이야기를 꺼냈다.¹⁹⁾ 그 뒤에 향시 급제와 황금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두 모녀는 급제나 황금이 무엇인지를 되물을 정도인, 그야말로 티 묻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임 선비가 점잖게 꺼냈던 가부장제적 예법은 그 때문에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임 선비는 결국 소녀와 혼인하게 된다. 혼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간 임 선비

19) 「12-2. 授簡書老婦垂誠」, “女子有行, 遠父母兄弟膝下, 非長計也.”

는 장씨 부인의 총명함에 그녀를 더욱 아끼며 사랑했지만, 몇 년 되지 않아 죽게 된다. 이후 장씨 부인은 유복자를 낳아 기르며 수절 과부로 여든 남짓 살다가 온 가족이 모인 임종 날 충격적인 유훈을 남긴다. 집안 여자들의 수절을 개인 의지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12-2. 授簡書老婦垂誠」의 핵심은 村姬가 수절에 대한 유훈을 남기는 節母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래서 사평에서도 임 선비의 눈을 사로잡은 춘희가 아니라 절모 장씨 부인에 시선을 모아 智婦로 평가했다.²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장씨 부인의 두 자아에 보이는 가치관의 불균형이 이념적 경사로 귀결된 결과로 봤다(이강옥, 1995: 86-87). 납득할 만한 분석이지만, 오히려 편찬자 이원명이 그 차이에 의도적으로 주목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가부장제의 심부로 이끌려 들어가는 여성의 일생을 포착한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毒舌을 지닌 철 없던 ‘村姬가 유훈(箴)을 내리는 정숙한 ‘節母로 거듭나는 서사의 변화는 주체적 면모를 발휘해 자신이 위치한 가부장제의 주변부에서 벗어나려 했던 앞선 이야기의 양상과 유사하다. 편찬자 이원명은 이를 위해 『해탁』의 두 이야기를 수용해 한 이야기로 개작하면서 그 결말을 윤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12-2. 授簡書老婦垂誠」의 결말은 장씨 부인의 충격적인 유훈이 가법으로 자리 잡자, 가문의 후손이 번성하였고 대대로 절부가 나와서 백년이 지나도록 규문에 맑고 깨끗한 풍습이 있었다는 전언으로 끝맺음한다. 장씨 부인이 고백한 꿈 이야기는 수절의 지난함과 그로 인해 수절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가문의 안녕과 규방의 법도 확립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수절을 위임한다는 유훈과 규

20) 「12-2. 授簡書老婦垂誠」, “外史氏曰: “男女之際, 大慾存焉. 故聖人制禮, 以之防閑, 而未流之弊, 轉或難言, 然豈可因噎而廢食哉! 但青年守節, 非緣人人之皆有志操, 而禮防莫越, 便成俗習, 則不無意外之慮. 故張氏能以一言規諷, 簡書垂訓, 世守閨範, 誠智婦也.””

방의 법도가 잘 지켜졌다는 결과가 꼭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어색함이 느껴지는 이러한 결구는 편찬자 이원명이 『해탁』의 「節母死時箴」을 수용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문중에 후손이 번성하였고, 대대로 절부가 나왔고 간혹 개가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백년이 지나도록 규문이 맑고 깨끗한 풍습이 있어 음란한 사건中毒之事이 없게 되었다.

[後宗支繁衍, 代有節婦, 間亦有改適者. 而百餘年來, 閨門清白, 從無中毒之事.]
『해탁』 권9, 「節母死時箴」

문중에 후손이 번성하였고, 대대로 절부가 나와서 백년이 지나도록 규문에 맑고 깨끗한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後宗支繁衍, 代有節婦, 百餘年來, 閨門清白云.]
『동야취집』, 「12-2. 授簡書老婦垂誠」

『해탁』의 「절모사시잡」에서는 이후 가문에 간혹 개가하는 이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백 년이 지나도록 가문에 음란한 일이 없게 되었다는 대목도 있다. 하지만 「12-2. 授簡書老婦垂誠」에서는 간혹 개가한 이가 있었다는 서술과 함께 음란한 일이 없게 되었다는 대목도 지웠다. 이로 인해 수절을 개인에 위임한 장씨 부인의 유훈은 오히려 ‘집안 대대로 절부가 나오느’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씨 부인의 꿈을 수절의 지 난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윤리적 죄책감으로 읽어내는 데서 기인한다. 장씨 부인은 꿈을 고백하면서 여성의 주체성을 억압할 수 없음을 말했다지만, 편찬자 이원명은 그런 메시지를 외면하고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폐쇄적 시각을 투사했다. 그 결과 장씨 부인의 주체성은 여성의 수절을 강요했던 가부장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로써 「12-2. 授簡書老婦垂誠」도 다른 이야기들과 동일한 방향성이 부여되며 才慧 조 목에 실릴 수 있었다.

이어지는 妬悍 조목 역시 양반가 여성이 주인공이란 점에서 才慧 조목

과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가부장제에서 금기시하는 妬婦를 전면에 표제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 실린 두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를 겸비한 부인이 기생을 총애한 남편에 대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12-5. 憐女貌赦罪接話」에서 재상의 부인이 기생을 만나 그 미색에 감탄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반대로 「12-6. 削夫髻施罰雪憤」에서 우상중의 부인은 남편의 수염을 남김없이 잘라버리는 것으로 응징한다. 그 뒤 일의 자초지종이 알려지자, 우상중은 水使에서 파직된다.

「12-5. 憐女貌赦罪接話」는 『기문총화』 219화 조태억의 부인 심씨 이야기를 전사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심씨 부인이 기생을 만나 그 미색에 감탄하고, 순순히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부연이 이뤄진다. 심씨 부인은 본인이 남자였더라도 혹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陽城과 下蔡, 桓司馬 桓溫과 그 처의 고사를 동원해 남편의 총애를 정당화했다.²¹⁾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 긍정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부녀부」 상편의 취첩담에 보이는 경향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2-6. 削夫髻施罰雪憤」은 상반된 결구를 보인다. 두 이야기를 한 짝으로 삼는 『동야회집』의 특에는 통상 유사한 이야기가 배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유난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다만 사평에서 편찬자 이원명은 규방의 법도와 풍속을 해친 外黃富女와 陳季常의 처에 대한 고사를 끌어와 우상중의 부인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실었다.²²⁾ 시기와 질투로 악명 높은 이들보다 더하다는 평가는, 표현만

21) 「12-5. 憐女貌赦罪接話」, “沈氏曰: “汝果尤物, 惑陽城·迷下蔡古語, 誠然! 吾之此來, 欲使汝, 作婢娟洞裏魂, 少洩此忿恨. 及見汝, 眞傾城絕色, 設令吾是男子, 一見汝, 便當有憐玉偎香之想, 何況老奴乎? 昔桓司馬之妻, 南郡主, 憤其夫之妾李勢女, 持刀往欲斫之, 見其姿貌絕麗, 乃擲刀抱之, 曰: ‘我見猶憐, 何況老奴? 今吾於汝亦云, 汝可往侍吾家令公, 而令公炭客也, 至於沈惑生病, 則汝罪當死, 必慎之.’”

22) 「12-6. 削夫髻施罰雪憤」, “外史氏曰: “君子以夫婦造端, 故冀缺之, 相敬如賓, 孟光之舉案齊眉, 傳爲美事. 至若外黃富女之庸奴, 其夫陳季常妻之獅吼河東, 乖閨

바꾸었을 뿐 남성의 성적 욕망을 변호한 「12-5. 憐女貌赦罪接話」에서의 부연과 동일한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부녀부」 하편의 주류인 하층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중에서 기생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앞선 이야기들과 계층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그로 인해 발휘되는 주체성의 강도도 더 높다. 하지만 가부장제가 설정한 家의 직접적 영향력 밖에 위치한 이들의 이야기에서도 사족 남성의 시선이 부단히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여성 서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기생 일타홍이 주인공인 「12-10. 簪花路遇諧舊緣」에 보이는 변화의 일단은 이를 입증한다. 일타홍 이야기에 대한 서사적 관심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비극적 결말의 절절함에서 동력을 얻는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심희수의 발신 과정에 보이는 일타홍의 헌신으로 구체화되면서 서사성을 갖추게 된다. 요컨대 일타홍 이야기의 본질은 두 사람의 가슴 시린 사랑에 있고, 일타홍의 기여는 서사화의 수단이라 하겠다.

그런 일타홍 이야기가 『동야회집』에 실리는 과정에서는 일타홍의 헌신과 기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12-10. 簪花路遇諧舊緣」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것은 『천예록』 계열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편찬자 이원명은 『동패락송』 계열의 일화를 가져와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일타홍이 심희수의 과거 공부에 대단히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천예록』 계열에서 일타홍은 심희수의 과거 공부에 그다지 개입하지 않는다. 과거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급제하게 되면 곧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전부다.²³⁾ 하지만 『동야회집』에서 이 장면은 “매일 아침 이웃 스승에게

範而傷風教矣。禹妻兼有馮婦搏虎之力，其悍固難制，而施棍削髻，有浮於庸奴獅吼，殊可駭也。”

23) 정환국 책임교열(2021), 50-51면. “自是兩情沈惑，晝夜掩門不出。紅蓋未曾經人，初與吾相逢也。如是者十餘日，紅忽語我曰：“此非長久之道，當與君暫相分離，以圖後會。”吾問之，則曰：“妾之終身事君，意已決矣。但君上有父母，而未娶正室，即今豈許君之先畜一妾乎？妾觀君器度才品，必當早登科第，位躋卿相。妾從今

가서 학업을 배우게 하였고, 애오라지 곁에서 지켜보며 종일 글을 읽도록 권했다네. 기름을 태우며 아침까지 계속 엄하게 과정을 세웠지. 조금이라도 태만하면 이별하겠노라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네.”²⁴⁾라는 대목을 시작으로 상세하게 부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심희수의 과거 급제에 일타홍의 지분을 높이고자 했던 편찬자 이원명의 의도가 작동한 결과였다(김준형, 2022: 91-92).

일타홍 이야기가 여성의 직접적인 헌신과 기여를 제시한 것이라면, 「12-11. 尼菴逢郎問登科」는 간접적인 공로를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인공 盧禎은 宣川府使로 있는 武弁 당숙에게 혼수를 구하러 떠났다가 한 기생을 만난다. 기생은 혼수 요청을 거절당한 노진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노진과 동침한 기생은 모친의 반대에도 그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침내 후일을 약속한 노진은 기생의 도움으로 혼수를 마련했고, 과거에도 급제했다. 이후 관서 지방 암행어사로 가게 되어 우여곡절 끝에 成川에서 비구니가 된 기생과 재회했다. 편찬자 이원명은 기생의 지인지감과 정의감, 수절하고자 비구니가 되기를 선택한 정절을 칭송하며 기생의 정성 어린 마음이 노진의 발신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²⁵⁾

기생의 공로가 인정되긴 했지만, 일타홍처럼 직접적이진 않다. 여성의 헌신과 기여를 보여준다기에는 서사적 인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日，辭君而去，當爲君潔身全節，以待君之登科，遊街三日之內，復與君相會，以此爲金石之約。君於擢第之前，勿復念妾，且勿以妾之失身從他爲慮。妾自有藏身之道矣。君之登第之日，是妾重逢之秋耳。”仍握手相分，飄然而去，少無惜別悽黯之色。”(『정본 한국 야담전집』2, 『天倪錄』)

24) 「12-10. 簪花路遇諧舊緣，”每朝俾余受訓於隣塾以來，輒坐斤傍，鎮日勸讀，焚膏以繼日，嚴立課程。少有意懶，則必告別以恐動。”

25) 「12-11. 尼菴逢郎問登科，”外史氏曰：“女一見玉溪，便知爲貴人，許以歸身，此慧識也；揣守宰之量狹，損已財以資助，此仗義也；匿形藏踪，免被入污，待阿郎之成名，此貞節也。天感至誠，俾諧宿願，玉溪之早登青雲，亦此女之誠心攸召，甚奇哉!””

래서 내용의 부연이 일어난다. 「12-11. 尼菴逢郎問登科」의 대부분은 전 대 야담의 문면을 이어받았지만, 기생과 모친이 대립하는 대목에서 장황한 서술이 추가되었다. 노진을 탐탁치 않게 여긴 모친이 그를 내쫓으려 연일 화를 돋구자, 마침내 기생은 결코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²⁶⁾ 그러자 모친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며 딸을 기른 것이 저런 못난 남자의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부귀하고 험결한 남자들이 몇 년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여기에는 남루한 노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그와 혼인하게 되면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딸의 앞날에 고생길이 훤히 개 뻗었다. 곱게 키운 딸에게 어리석다거나 미쳤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²⁷⁾ 하지만 기생은 오직 자신의 눈에 비친 노진의 가능성을 믿을 뿐이었다.

여인이 발끈하면서 말했다.

“이 분은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떠돌이 신세지만 골상이 비범하니, 제 눈으로 봐도 반드시 위대하고 존귀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가히 눈앞의 가난하고 곤란한 처지를 꺼려서 훗날 영화롭게 될 것을 생각지 못하십니까? 제게 때문에 기대어 웃음이나 팔고 오래된 남자는 보내고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라면 차라리 한 번 죽기를 달갑게 여기지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 뜻은 이미 맹세하였으니 여러 말 마시길 바랍니다.”²⁸⁾

26) 「12-11. 尼菴逢郎問登科」, “玉溪自想, ‘日暮途窮, 進退維谷.’ 遂與同禍, 兩情俱殷, 信宿幾日, 女母苦其留連, 始以言辭挑怒. 玉溪恭謹如初, 已而, 聲色競嚴. 女益不堪, 矢以靡他.”

27) 「12-11. 尼菴逢郎問登科」, “母乃戟掌詬女, 曰: ‘吾育汝以掌珠, 裹汝以繡襦, 式于至今, 吹之恐飛, 執之恐陷者, 豈欲以種蘭蕙而伴靡蕪乎? 要得嘉耦榮及渠母, 仄聞, 本府官司, 少年名武, 方求美妾, 擬如石家之百琲買姬, 媒妁朝暮至矣. 且吾東隣張生, 貌若潘岳, 富埒猗頓, 風流豪奢, 不羨盧家之鬱金堂, 皆嚮窺汝已三年. 吾當爲汝議配, 汝上可得金谷之富貴, 下不失莫愁之歡樂. 今欲從蓬頭鼻涕之一愚獸兒, 汝非癡憨也, 是風狂.’”

28) 「12-11. 尼菴逢郎問登科」, “女慨然曰: ‘此郎雖落魄旅邸, 骨相非凡, 以吾肉眼, 亦知其必大貴矣. 豈可嫌於目前窮困, 不思日後榮華乎? 要我倚門, 獻笑送舊迎新,

모친의 발화는 눈앞의 가치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생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처지가 곤궁하다고 해서 그 사람됨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진에 대한 기생의 믿음은 확고했다. 노진을 알아본 지인지 감, 그의 곤란한 처지를 도운 정의감, 그를 위한 수절의 노력은 모두 그 확신이 전방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결과였다. 이런 기생의 믿음이 없었다면 노진은 혼수를 변통할 길이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과거 급제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편찬자 이원명은 모친의 결사반대에도 확고부동했던 기생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을 장황하게 부연했다. 이로써 서사에 부족한 인과성이 채워졌고, 노진에 대한 기생의 헌신과 기여 서사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상으로 「부녀부」 하편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들은 「부녀부」 상편에서의 주인공들과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물론 초반부 才慧·妬悍 조목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허나 그 여성 주인공들 역시 가부장제의 주변부를 맴도는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부녀부」 상편이 아닌 하편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상적 차이는 여성의 주체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동력이 되었다. 중요한 점은 그 주체적 면모 역시 「부녀부」 상편에서처럼 사족 남성이 고안한 가부장제를 향해 부단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여성 주인공의 계급적 차이나 주체성의

寧甘一死, 決不情願. 吾志已誓. 幸毋多言.”

29) 이런 경향성이 모든 이야기에 남김없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情義·才妓·名唱 등 「부녀부」 하편의 후반부에 배치된 조목에서는 기생의 성품이나 재능에 초점을 맞춘다. 「12-13. 矗石樓兩女黜陟」에서 박문수를 기다린 급수비, 「12-14. 納清亭二客哢笑」에서 수절을 다짐한 기생 巫雲, 「12-15. 咸關對唱娥留期」에서 李匡德을 기다린 기생 可憐, 「12-16. 長城遇詩妓見賣」에서 뛰어난 시재를 갖추어 어사를 농락한 기생 盧兒가 그러하다. 한편 「12-17. 星月每道三可笑」과 「12-18. 玉香爲說兩未忘」에서는 각각 명기생 星山月과 玉香의 과거 회고를 통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 이야기에서 주목한 의로운 성품이나 수절 의지, 뛰어난 시재 등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될 뿐이다. 앞서 그런 요소들을 남성의 발신이나 성적 욕망 충족의 발판으로 인식한 「부녀부」의 경향성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이들의 이야기에서 세교적 메시지

발현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부녀부」 하편에 주요하게 작동하는 문법 또한 사족 남성과 그 가문에 대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일관되게 말한 「부녀부」 상편의 경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5. 맺음말

『동야휘집』 「부녀부」에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등한 사족 남성이 그로부터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복수적 성관계에 대한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했다. 여성 주인공의 계층이 달라지더라도 이러한 문법은 여전히 우세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녀부」에 보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단지 『동야휘집』만의 예외적 특성인가.

여성의 형상을 최초로 묶음화한 것으로 알려진 漢나라 劉向의 「列女傳」은 여성 104명을 일곱 유형으로 나누어 입전했다. 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난 여성이 중심에 놓이는 「孽廢傳」을 제외한, 「母儀傳」·「賢明傳」·「仁智傳」·「貞順傳」·「節義傳」·「辯通傳」에서는 여성의 전범을 입전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천편일률적인 婦德의 묘사를 벗어난, 다시 말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주체적 여성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면모조차도 남성이 구축한 가부장제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열녀전」 편찬의 본래 의도에서 결코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정재서 편, 2002: 25). 여성의 형상화에 대한, 이 유구한 전통이 갖는 문화적 보편성은 야담의 영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동야휘집』은 전대 문헌과 야담집에 실린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섭한

를 이끌어내려 했던 시도에 여전히 남성의 시각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야담집이다. 그 말은 곧 거기에 소속된 이야기들이 갖는 성격이, 결코 『동야취집』에 이르러 형성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³⁰⁾ 특히 ‘계보화와 ‘반복적 작품쓰기’의 관점에서 「부녀부」에 실린 여러 이야기는 전대 야담집과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다시 말해, 여성을 가부장제의 틀 안으로 포획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야담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으며, 『동야취집』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녀부」의 이야기는 『동야취집』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재고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여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녀부」의 보수적 경향성은 『동야취집』의 서사 원천이 전대 문헌과 야담집에 산재된 것들이었다는(이강욱, 2006: 373-374) 점을 유념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편찬자 이원명 고유의 보수적 성향을 논란하기보다, 전대 야담에서부터 이어진 문제의식의 연속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야취집』에 가해진 보수성이라는 평가는 연속성을 고려한 문학적 보편성의 차원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즐고, 2024: 314-316).

30) 이야기의 변개 양상이나 사평을 통해 남성중심적 시각을 덧입히고 있는 점 등은 『동야취집』의 온전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술했듯 「부녀부」에 실린 이야기들의 전반적 성립 경로를 본다면 전대 야담을 전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편찬자 이원명이 기존의 경향성을 보다 강화한 점을 지적할 순 있어도, 그 보수성 자체를 『동야취집』만의 문제로 지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종균 외 6인 번역·김현룡 책임 감수. 2023. 『東野彙輯 원역본』 제1~4책, 황금비.
정환국 책임교열. 2021. 『정본 한국 야담전집』 권2 (『天倪錄』). 보고사.
_____. 『정본 한국 야담전집』 권8 (『東野彙輯』). 보고사.

(2) 단행본

- 강명관. 2017. 『희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휴머니스트.
김경미. 2012. 『家와 여성』, 여이연.
이강욱. 2006. 『한국 야담 연구』, 돌베개.
정재서 편. 2002.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열녀전』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3) 논문

- 강영순. 1995. “조선 후기 여성지인담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정식. 2006. “조선 후기 문헌설화에서 살펴본 여성의 련과 性的 문제”. 『인문과학논
총』 11-1: 25-48.
김대중. 2019. “서형수 조선후기 지배엘리트의 보수적 합리성과 그 명암”. 『진단학보』
133: 125-165.
김상조. 2003. “종산 이원명의 의식의 지향점과 야담에 대한 인식”. 『영주어문』 6:
125-144.
김준형. 2022. “〈일타홍(一朵紅) 이야기〉의 형성과 변전. 그리고 소멸”. 『한국문학연
구』 69: 49-131.
김지연. 2016. “조선 후기 결혼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과 성취의 한 양상”. 『한
국어와문화』 20: 39-66.
남궁윤. 2022. “계보를 획득한 야담들과 그 서사적 특징”. 『한국문학연구』 69: 11-48.
이강석. 2024. “『동야회집』의 구성원리와 편찬의식에 관하여-편찬의 구체적 원칙과
문학적 기획 의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90: 289-329.
_____. 2025. “『東野彙輯』 研究-이야기 구성과 지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이강욱. 1995. “『東野彙輯』의 『諧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 43-96.

- _____. 2008.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16: 175-217.
- 이승은. 2020. “야담에 나타난 정욕 담론과 성적 주제 인식: ‘심심당한화(深深堂閑話)’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2: 111-142.
- 이신성. 1993. “『천예록』 소재 여성 인물야담의 성격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월영. 1997. “야담집 소재 여성담 연구-반여성이데올로기 여성담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9: 339-359.
- 이주영. 2018. “조선 후기 야담에 나타난 여성 정욕의 표출과 그 대응의 몇 국면”. 『한국고전연구』 41: 103-133.
- 장진숙. 1993. “조선 후기 야담집 소재 치부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원. 2022. “조선 후기 사족여성 생애자료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규식. 2007. “조선 후기 한문단편을 통해 본 여성과 性”. 『동남어문논집』 23: 179-198.
- 정솔미. 2018. “〈吉女〉에 나타난 권력의 양태와 저항의 실상”. 『고전과 해석』 26: 131-161.
- 정환국. 2024. “『동야회집』의 이야기 변개 전모와 그 성격”. 『국문학연구』 50: 235-270.
- 진경환. 1983. “야담의 사대부적 지향과 그 변개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숙. 2002.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6: 53-90.
- _____. 2003a.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243-275.
- _____. 2003b. “‘사랑’의 담론화 방식과 의미론적 경계-18·19세기 야담집 소재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305-348.
- _____. 2003c. “여성성의 재발견 이성, 지혜, 성공의 탈영토화”.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6: 193-229.
- 현해경. 1987. “한문단편의 서사 구조에 있어서 지감화소”. 『한국한문학연구』 9·10합집: 353-376.

Abstract

Perspectives on Women in the 「**婦女部**」 of 『**東野彙輯**』 and Their Implications

Lee, Kang-Seok
(Pusan National University)

Women in 野談 are often portrayed as figures projected through the gaze of elite men. Many of these stories were widely circulated and enjoyed, to the extent that they established their own narrative lineage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tendencies found in the 「**婦女部**」 of 『**東野彙輯**』, a comprehensive anthology of earlier 野談 narrativ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ortrayal of women. The protagonists in Part I of the 「**婦女部**」 are women situated direct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atriarchal order. They are concretized as instruments through which elite men aim to overcome their declining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as objects for the fulfillment of sexual desire. In contrast, the female protagonists of Part II exist somewhat outside the immediate reach of the patriarchal household structure. As such, they are able to demonstrate a greater degree of subjectivity. However, even this subjectivity operates within the constraints of the patriarchal order devised by aristocratic men. In this respect, the same underlying grammar as in Part I is maintained. This tendency observed in the 「**婦女部**」 offers a clue for re-evaluating the conventional assessment of 『**東野彙輯**』 as a conservative 野談 anthology. 『**東野彙輯**』 encompasses a wide range of earlier texts and 野談 stories, and in the case of the 「**婦女部**」, most narratives are transcribed from preceding 野談 collections. While there are exceptions involving elaborations or modifications, such instances tend to reinforce rather than deviate from existing patterns. Therefore, the

tendencies found in the 「婦女部」 of 『東野彙輯』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continuity with earlier 野談 traditions. In this light, the evaluation of 『東野彙輯』 as a conservative work could be moderated by acknowledging its representative nature and broader relevance.

Key words: 野談, 『東野彙輯』, 「婦女部」, Women, subjectivity, elite men, desire

- Ⅰ 투 고 일 : 2025년 3월 16일
- Ⅰ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Ⅰ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

『여성학연구』 간행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발행)

『여성학연구』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 조 (원고내용)

- (1)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젠더관련 논문이어야 한다.
- (3) 『여성학연구』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특집,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논문 :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
 - ② 기획논문 : 여성연구소 기획 하에 집필된 연구논문
 - ③ 특집 : 대담이나 좌담 등 여성연구소 기획의 결과물
 - ④ 서평 :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제 4 조 (논문의 투고자격)

- (1)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젠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
- (2)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 당 하나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제 5 조 (원고투고 및 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3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2호, 9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1호의 간행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원고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파일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 소 :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715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전 화 : 051) 510-1893

- 이메일 : pusanwomen@pusan.ac.kr

- (3) 원고 투고 시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 (4)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5)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6)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 (1)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가운데서 여성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원고접수
 - ② 심사위원 위촉
 - ③ 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
 - ④ 관련 규정의 제·개정
 - ⑤ 기타 『여성학연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
- (6)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원고심사절차)

-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여성학연구』의 성

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8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전개의 논리성
- (4) 문장력
-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 (6) 젠더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 (7) 형태사항의 적절성(원고분량, 도표, 요약 등)

제9 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
 -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심사결과
3				계재
2	1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계재
1	2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재심
	2		1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2	1	계재 불가
			3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숫자는 심사위원의 수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의 계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심			비고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계재 불가	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명이 모두 계재 판정한 경우 계재 확정. 한 명만이 계재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며,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3자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 (3) 기타 계재순서,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계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 및 이의신청)

- (1)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3) 심사결과 “계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2) 게재될 원고의 초고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http://mypage.pusan.ac.kr/women>), KCI, KISS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권)

『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소유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2.10.31.

(5차 개정) 2024.04.30.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

『여성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구성〉

1.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하며, 200매를 넘을 수 없다.
2. 영어 논문의 분량은 10,000단어 내외로 하며, 15,000단어를 넘을 수 없다.
3. 논문 편집 후, 30쪽을 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4.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이름,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목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6개 내외),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주제어(Key words)(6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요약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300단어 내외로 한다.
5.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6. 원고의 구성은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편집 양식〉

1. 원고는 한글(1997 이후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4.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 쓰기를 한다.
6.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줄표 없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7.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하며, 더 세부적인 목적은 ①로 표기한다.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인용한 문헌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주에서 제시한다.
2.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홍길동(1997: 127) 또는 (홍길동, 1997: 127)
 - 2) 전반적인 참고로 페이지 제시가 불필요할 때:
홍길동(1997) 또는 (홍길동, 1997)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맥किन(MacKinno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9; 허난설헌, 2000)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허난설헌 외(2001) 또는 Cornell et al.(1999)

-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허난설헌(1992)은...

예) A. Dworkin(1997)과 R. Dworkin(1996)의 차이는...

3. 본문주에서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국외문헌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헌 모두 먼저 간행된 문헌부터 제시한다.
4.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footnote)에서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5.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에 한하며,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 1)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번역문헌 포함)은 저자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둘째, 국외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한다.
 - 2)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 저자의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3)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심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4)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5)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 6)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 국내문헌 -

조혜정. 199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하딩, 샌드라.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서울: 나남출판.

- 국외문헌 -

Andersen, Margaret L. 1988.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N.Y. : Macmillan Pub. Comp.

(2) 정기간행물의 논문

권영자. 1988.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2): 5-33.

Betz, Michael and Lenahan O'Connell. 1989. “Work Orientations of Males and Females.” *Sociological Inquiry* 59(3): 318-330.

(3) 편집한 책의 논문

조옥라. 1985. “사무직 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129.

Huber, John. 1986. “A Theory of Gender Stratification.” Laurel Richardson and Verta Taylor(eds). *Feminist Frontiers II*. N.Y.: Random House. 10-19.

(4) 학위논문

하정화. 2010. “부산 여성기자의 젠더 경험과 여성주의 실천 연구: 지역 여성주의의 가능성 모색.” 부산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5)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 2008. “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 회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 법학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자료집(2008.4.12.).

(6) 신문기사·잡지

진혜민. 2019. “불꽃페미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여성신문>. 2019.7.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7) 통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 인터넷 자료

여성부. 2008. “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진주원. 2019. “김복동 운동가·서지현 검사, 3.8세계여성의날 수상.” <여성신문>. 2019.3.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66> [검색일: 2019.7.5.]

6. 이 원고작성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편집 위원회에서 발행한 <여성학연구> 기존 호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89.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0.09.30.

『여성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 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투고한 필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아무런 명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자는 자신의 원고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 위원회)

1.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즉시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4.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5.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 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 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9.06.30.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35권 제2호 원고모집

『여성학연구』는 1988년 설립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198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로서,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는 2025년 10월 31일에 발행할 제35권 제2호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투고자격 : 석사 이상
- 원고주제 :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관련 논문
- 접수마감 : 2025년 9월 1일
- 심 사 료 : 6만원 (재심사시 심사료가 추가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231-3621-41 부산대 여성연구소
(게재시 일반논문은 10만원, 연구비 지원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투고방법 : 부산대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논문제출
- 연 락 처 :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51) 510-1893, 팩스 (051) 581-2478
홈페이지: <http://women.pusan.ac.kr>
웹메일: pusanwomen@pusan.ac.kr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남이(부산대학교 한문학과)
편집위원	기희경(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김경연(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보명(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수정(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애령(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김인선(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문재원(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박미선(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신지은(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안숙영(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주현희(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추주희(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황정미(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기영(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創成科學研究科)
	Nam Yunju (Univ.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편집간사	배병용(부산대학교 사학과)

여성학연구 제35권 제1호

인 쇄 | 2025년 4월 30일

발 행 | 2025년 4월 30일

발 행 인 | 김남이

발 행 처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051-510-1893)

홈페이지 | <http://women.pusan.ac.kr>

이 메 일 | pusanwomen@pusan.ac.kr

인 쇄 처 |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4

ISSN 1598-950X

Articles

Gendered Migration of Korean Women

An Analysis of Oral Narratives of Jeju Women's Experiences a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Japan in the 2000s

| Lee, Heyjin

Gender and Media Representation in cooking competition show

- A Case Study of the Netflix Variety Show 'Culinary Class Wars'

| YAN BINGBING

Generation Unit of Feminism Theater

- A Case Study of Young Theater Artists after the #MeToo Movement

| Kim, Sungi

A News Discourse Analysis of 'More Women in Top Management' in South Korea

| Jeong, Hyunhee

EMILYs List and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 Kwon, Soo Hyun

A Exploratory Study on the Local Community Life Experiences of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sing Photovoice Research

| Shin, Yu-Ri

Affective Attunement of Care workers in Life-sustaining Dementia Care

| Jeong, Jong-min

Women in Early Modern Japanese Works and the SDGs

- Female Characters in *Ōoku* and Their Contributions to SDGs and Future Directions

| Kim, Jungho

Perspectives on Women in the 『*婦女部*』 of 『*東野彙輯*』 and Their Implications

| Lee, Kang-Seok

